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연구

좌 혜 경 · 최 원 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하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발 간 사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은 제주도 무속의 특성과 가치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신화가 세계 여러 신화와 견주어도 그 담고 있는 내용이나 신화적 구성요소가 글로벌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육지보다 비교적 굿이라는 제의 기반이 온전히 남아있고, 굿에서 부르는 본풀이의 내용이나 형식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신본풀이에는 천지 창조와 인간 생명의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원리를 비롯하여 굿의 원리라고 하는 굿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경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의 기원이 담겨 있으며, 인간이 소원하는 부와 집안의 안녕을 가져다주는 신께 기원하는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육지와와의 교섭과 연계 속에서 형성되면서도 오히려 본토와는 별개로 제주 나름의 환경이나 문화가 있으며, 독자적인 신화체계를 잘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제주인의 신앙을 비롯한 생활이나 사고, 규범 등이 일반신본풀이에 잘 남아 있어서 이는 제주인의 정체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속의 신명과 이야기 속의 신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찾는다면 제주섬의 내재적 글로벌 자원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중앙과 제주도가 시행하는 무형문화재 정책과 협업하면서 제주신화 본풀이의 전승 및 향유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와 정부가 노력하여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일도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연구를 위해 애쓴 연구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 연구요약

제주의 신화 <큰굿> 의례 중 일반신에 대한 본을 푸는 <일반신본풀이>는 글로벌 유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문화콘텐츠화 등 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유산(Story Heritage)으로서 그 가치 발굴 보전이 시급함.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신본풀이 연구에 나타난 문화적, 신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상징화된 의미를 추출하여 문화사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음.

일반신본풀이에는 우주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천지의 질서를 확립한 천지왕에 대한 ‘천지왕본풀이’, 무속의 굿법을 마련한 무당의 조상인 ‘초공본풀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사는 목숨을 관장하는 꽃이 있는 서천꽃밭 꽃감관에 대한 ‘이공본풀이’, 인간을 탄생시키는 ‘삼승할망’, 죽은 아이를 돌보는 ‘구삼승(동이요왕)할망’, 질병을 가져와 얼굴을 밋게 만드는 ‘대별상마누라’에 관한 신화가 있음.

자신의 운명대로 살고자했던 ‘가문장아기’인 운명의 신에 대한 ‘삼공본풀이’,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차사 강님의 이야기 ‘차사본풀이’, 집안에 좌정하여 온 식구들을 돌보는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남선비’, ‘여산부인’, ‘노일저대’, 일곱아들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

이외에도 농경신 ‘자청비’ 이야기를 다룬 ‘세경본풀이’와 인간의 부(富)를 가져다주는 뱀신에 대한 ‘칠성본풀이’, 불운을 딛고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지장아기씨에 대한 ‘지장본풀이’, 수명 연장을 위한 액막이로서 주인공 ‘사만이’ 이야기를 다룬 ‘멩감본풀이’가 있음.

일반신본풀이에는 우주적 질서 조판과 창세의 의미, 인간 세상에 관련한 인간 삶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저승이나 저승신관

(觀)이 잘 담겨 있고 고난 받는 문화여성 영웅들의 삶이 잘 표출되는 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신과 인간 간의 화해의 문화가 기저가 되고 있음.

현재 구비 전승되고 있는 제주의 일반신본풀이는 동아시아의 몇몇 민족인 예를 들면 중국 동북 지역의 만족(滿族), 운남 지역의 나시족(納西族),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족 신화와의 비교문화사적 연구가치가 큼.

제주신화(특히 일반신본풀이)를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에서 연행되고 있는 본풀이의 '지금·현재'적 모습을 전승하고 지속시키려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아울러 그 무형문화 유산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학술적 탐색이 요구되고 있음.

무속신화의 여신들은 고난을 겪고 '공업'을 통해서 숭앙받는 여신으로 좌절하게 되는데, 제주를 농경문화로 바꾼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나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가문장아기'는 능력이 남다르거나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해서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되며 결국은 신으로 좌절하여 문화여성 영웅으로 자리매김함.

이러한 여성영웅들은 제주역사상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일그러진 가족이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는 여성들이 지닌 모성성이 바탕이 되고 있음.

현재 제주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무속의 일반신본풀이를 온전하게 구술할 수 있는 무속인들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임.

또 무속의례상의 구연 연행의 기회는 지극히 적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야기체로 전환 등 장르 변이를 통해 누구나 구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신 본풀이 등 신들의 이야기를 향유할 수 있는 유통 공간이 필요함.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1
3. 연구 방법과 내용 .....	2
4. 주요 연구 내용 .....	3
5. 연구 기간 .....	3
II. 제주도 큰굿 일반신본풀이 특성 .....	4
1. 우주적 질서 조판과 창세 .....	4
2. 인세와 관련한 인간 삶의 원리 .....	6
3. 화해의 문화 .....	6
4. 한국인의 저승이나 저승신 관(觀) .....	7
5. 고난 받는 문화여성 영웅들의 삶 .....	8
III. 일반신본풀이의 연구동향 .....	10
1. 천지왕본풀이 .....	10
2. 할망계 본풀이(구할망, 명(땡)진국, 대별상) .....	14
3. 초공본풀이 .....	18
4. 이공본풀이 .....	21
5. 삼공본풀이 .....	26
6. 차사본풀이 .....	29
7. 세경본풀이 .....	32
8. 문전본풀이 .....	36
9. 칠성본풀이 .....	41

10. 지장본풀이 .....	47
11. 맹감(스만이)본풀이 .....	50
<b>IV.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연구 방법 .....</b>	<b>54</b>
<b>V.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b>	<b>63</b>
<b>VI.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보전을 위한 정책 제언 .....</b>	<b>85</b>
1. 큰굿과 본풀이의 체계적인 보전 .....	85
2. 모성성을 기반으로 본풀이의 생명력 강조 .....	86
3. 무속신화 유통 공간 조성 .....	87
<b>참고문헌 .....</b>	<b>88</b>
<b>부록 1. 이용옥본 일반본풀이(이야기체 구연) 자료 .....</b>	<b>93</b>
<b>부록 2. 남서족동파고적 역주전집 .....</b>	<b>276</b>
<b>Abstract .....</b>	<b>303</b>



## <표 차례>

표 1. <만족(滿族)의 신화 분류 체계> .....	55
표 2. <나시족(納西族)의 신화 분류 체계> .....	57
표 3. <아이누의 신화 분류 체계> .....	58
표 4.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	63
표 5. 서순실 심방 구송, <천지왕본풀이> .....	65
표 6. 강대원 심방 필사, <천지왕본> .....	66
표 7. 일반신본풀이에 등장하는 ‘법칙’(또는 법) .....	69



# I. 서 론

## 1. 연구 필요성

- 제주의 신화 <큰굿> 의례 중 일반신에 대한 본을 푸는 <일반신본풀이>는 글로벌 유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문화콘텐츠화 등 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유산(Story Heritage)으로서 그 가치 발굴 보전이 시급함.
- 특히 일반신본풀이는 동아시아 구비서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본토, 중국과 일본, 터키, 몽골, 티벳 등 동아시아 신화들의 비교를 통해 제주 신화의 위상 정립이 필요함.
- 제주의 무속신화는 제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무속신앙으로 인식되어 일반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무속 의례인 '굿' 의례 절차에서 전승되고 있어서 구연 기회가 적고 구연자 역시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소멸위기에 처함.

## 2. 연구 목적

- <큰굿>에서 불리던 신화인 일반신본풀이는 고유한 제주어가 잘 남아있으나 알아 듣기가 어려워, 일반 대중이나 학생 등 누구나 듣고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화가 필요함.
  - 이번 기초자료가 된 이용옥 본 일반신본풀이는 굿연행 자료가 아닌 이야기체 구술 자료로, 연구나 자료 활용을 위해 가독성을 용이하게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신본풀이 연구에 나타난 문화적, 신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상징화된 의미를 추출하여 문화사적 가치를 발견함.

### 3. 연구 방법과 내용

- 이용옥 본 ‘일반신본풀이’의 이야기체 구술 자료를 채록하고 아카이브에 탑재함.
- 기존 연구자들의 일반신본풀이에 대한 연구개요와 줄거리의 대강, 문학적, 신화학적 분석 결과를 정리하는데 주제와 대상의 신은 다음과 같음.
  - 우주적 차원에 대한 것 : 천지왕본풀이(천지의 질서를 확립한 천지왕)
  - 무조신의 조상에 대한 것 : 초공본풀이(초공신)
  - 사람이 죽고 사는 삶에 관한 존재론적인 것 : 이공본풀이(서천꽃밭의 꽃감관)
  - 인간탄생과 관련된 것 : 삼승할망본풀이, 구삼승(동이요왕)할망본풀이, 대별상마누라 본풀이
  -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 : 삼공본풀이(자신의 운명대로 사는 가문장아기)
  - 인간의 사후에 대한 것 : 차사본풀이(저승차사 강님)
  - 주거에 대한 것 : 문전본풀이(남선비, 여산부인, 노일저대, 일곱아들)
  - 농경에 대한 것 : 세경본풀이(농경신 중세경 자청비, 상세경 문도령, 하세경 정수남이)
  - 인간의 부(富)에 대한 것 : 칠성본풀이(뱀신, 칠성할망)
  - 영혼의 저승 천도에 대한 것 : 지장본풀이(불운의 지장아기와 전세남굿)
  - 수명연장을 위한 액막이 : 사만이 본풀이(멩감신 사만이)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각 유형별 자료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함.
- 제주신화의 연구 및 정책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콘텍스트적 측면에서 문화사적 가치를 위한 예들을 제시함.
- ‘이야기유산’ 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일반신본풀이의 보전과 자원화 방안을 모색함.

#### 4. 주요 연구 내용

○ 연구 대상

- 이용옥본 일반신본풀이 구연 본을 주 자료로 삼고 기타 자료는 보조 자료로 삼음
- 각 유형 별로 연구된 일반신본풀이 선행 연구자료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8

○ 조사 방법

- 문헌연구
- 현장연구

#### 5. 연구 기간 : 2018. 02. 20. ~ 12. 31.

## II. 제주도 큰굿 일반신본풀이 특성

- 본풀이는 심방이 굿의례와 관련된 ‘신의 내력담을 풀어내는 것’을 말하며, 무속의 세계와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정리하여 산문체인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는데 특히 본풀이 중에서 <큰굿>의례에서 행해지는 <일반신본풀이>는 신이나 자연에 대응하는 인간 삶의 원리를 잘 내재하고 있음.
- 제주의 본풀이는 ‘신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신에 대한 근본을 밝히고 굿의 성격과 목적, 관련된 신의 탄생과 출자에 따라 큰굿 의례에서 불리는 <일반신본풀이>와 마을 수호신으로 좌정한 당(堂)의례 시 불리는 <당신본풀이> 그리고 가문이나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과 관련한 <조상신본풀이>로 구분됨.
- 일반적으로 큰굿에서 부르는 일반신본풀이에는 모든 굿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무조신에 대한 의의와 신들의 삶을 통한 인간의 욕망과 기원, 가치관, 신관, 자연관,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음.

### 1. 우주적 질서 조판과 창세1)

- 신을 맞이하고 굿 의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한데 굿을 거행하는 곳은 신이 하강하거나 건너와서 의례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인간들이 사는 공간으로써 신성한 세계의 탄생을 상징화 함.
- 영신의례 초감제에서 천지개벽을 상징하는 창세신에 대한 <천지왕본풀이>는 천지왕의 두 아들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달과 해를 하나로 하여 천지의 질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구분함.
  - 하늘옥황의 천지왕은 지상에 내려서서 총맹부인을 수태시켜 ‘소별왕’과 ‘대별왕’ 두 아들을 낳음.

1) 이수자, 2004,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아들들은 하늘에 두 개의 해와 달이 있어서 해가 뜨면 너무 덥고, 달이 뜨면 너무 추워서 해와 달을 활로 쏘아 각각 하나로 조정함
  - 꽃가꾸기 시합을 통해 동생은 자신이 심은 죽어가는 꽃을 형의 것과 바꾸어서 이승을 차지하고, 형은 저승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승은 혼란과 무법 세상을 상징하게 되고 형이 차지한 저승은 맑은 세상을 상징하게 됨
  - 천지가 조판됨에 따라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세계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천지조판 이후 인간의 탄생은 바로 이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
- 천지 조판과 우주적 질서의 회복으로 세계를 탄생하고, 그 속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인간 창생을 다룸.
- <할망본풀이>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아기를 수태하고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명진국할머님’인 ‘삼승할망’과 동해용궁의 딸로서 꽃가꾸기에서 지고 아이들에게 질병을 주어서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동이용궁아기씨’, ‘구삼승할망’, 마마를 앓게 하는 ‘대별상마누라’ 본풀이로, 주로 큰굿의 <불도제>에서 부르는 것으로 아기의 탄생과 산육의 원리를 풀어내고 있음.
- <초공본풀이>는 무속의 세계를 창안하고 무법과 굿의 원리, 무구, 악기 등의 무의식 창조 원리를 설정함.
- 절의 주접선생은 ‘자지명왕아기씨’를 수태시켜서 세 쌍둥이 아들 ‘젯부기삼형제’를 얻는데, ‘젯부기삼형제’는 온갖 고난을 겪고서, 서천꽃밭에서 꽃을 따와 어머니를 살린 후 무조신이 됨.
- <이공본풀이>는 꽃감관인 이공신에 대한 것으로, 여러 종(種)의 주화(呪花)를 관리하는 ‘서천꽃밭’이라는 상상 공간에 있는 신으로 믿어지며, 꽃은 아기의 잉태와 수명을 주재하고 관장하거나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과 사, 환생의 원리를 담고 있음.

## 2. 인세와 관련한 인간 삶의 원리

- <삼공본풀이>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운명을 관장하는 ‘가문 장아기’는 인간의 운명은 사람들의 삶이 노력만이 아닌 자신이 태어날 때 지닌 운명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줌.
- <세경본풀이>에서 사람들은 밭을 경작하거나 바다를 경작하는데, 경작을 통해서 얻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산신인 여신 ‘자청비’를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시왕맛이제>에서 불리는 <차사본풀이>는 저승의 시왕 및 저승차사에 대한 의례로, 사후 세계인 저승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승 세계에 대한 원리가 잘 나타남.
- <문전본풀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인 ‘집’에 대한 공간적 의미나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매일 드나드는 집의 출입문인 문전의 역할은 중요한데, 조상에 대한 기일제사 등 모든 의례가 집중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칠성본풀이>는 부(富)를 상징하는 칠성신(뱀의 형상)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음.

## 3. 화해의 문화

- 굿문화 전반에는 화해의 문화가 깔려있는데 조현설<sup>2)</sup>은 일반신본풀이의 여신관련 스토리의 변형체계 근간에는 화해의 문화가 있다고 봄.
  - 남녀가 대립할 경우 화해는 여성에 의해 이뤄지며 힘을 통한 제압의 방식이 아닌 양보와 포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대립 특히 아버지와 딸이 대립할 경우 버려지거나 쫓겨난 딸에 의해 화해가 이루어

---

2) 조현설, 2011, “제주여신 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학회. 85~86쪽.



지며, 여성과 여성이 대립할 경우 힘이 있는 쪽의 양보(증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화해자인 여성은 지상에서 태어난 여성, 지혜와 도덕성을 겸비한 여성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

- 굿은 그 자체가 인간과 신, 신과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는 종교의례이며 그 화해는 여신으로부터 촉발되고 창조신화를 통해 제시되는 세계의 질서는 천지왕과 소별왕, 대별왕과 같은 남성 신들에 의해서 구축됨.
-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의 화해는 이승과 저승의 천지창조의 연속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삶과 죽음, 이 세상과 저 세상, 땅과 바다, 승리와 패배, 번영과 쇠퇴의 이항대립을 넘어서서 화해를 지향하고 있음.
-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는 남성과의 대응에서 천신 '문도령'과 목축신 '정수남이'를 화해로 이끄는데, 목축과 농경의 갈등, 남성 우위의 가족제도나 가문의 법도를 넘어서서 화해로 이끌면서 오곡의 종자를 받아 세경땅에 좌정하게 됨.
- 전상신인 '가문장아기'는 집안 부모와 언니들의 부정적 세력에 의해 고난을 겪지만, 이를 넘어서 남편을 만나 황금을 얻고 부자가 되면서 적극적인 화해 능력을 지니고 눈먼 소경잔치를 열어 부모의 눈을 뜨게 함.
-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은 첩인 '노일저대'와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후 죽어서 조왕신으로 좌정하여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따뜻함을 제공함.

#### 4. 한국인의 저승이나 저승신 관(觀)<sup>3)</sup>

- 한국의 저승이나 저승신에 관련된 무가 <차사본풀이>에서는 저승이나 저승신이 모두 현실세계를 반영하고 있음.

3) 최원오, 1997,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242~243쪽.

- 본풀이에는 생자와 망자를 위한 이중적인 사고가 잘 드러남.
  - 이승에서의 어려움을 저승신의 위력을 빌어 해결하려는 사고가 잘 드러남.
  - 신이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 중심의 논리가 반영되고, 신의 위력 여하에 따라 신에 대한 공경이 달라질 수 있음.
- 저승은 질서가 잡힌 곳이고 이승은 혼란스러운 곳이라는 사고가 나타나고 있음.
  - <차사본풀이> 유형의 신화는 이승의 한 인물이 저승을 여행하고, 그 여행에서 인세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거나 조력해준다는 내용이 공통적임.

## 5. 고난 받는 문화여성 영웅들의 삶<sup>4)</sup>

- 일반신본풀이에는 제주여성들의 적극적인 면모와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제주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신화에 투영하여 신화적인 삶을 수용함으로써 대리적응을 하고 있음.
  -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들의 강인함은 남성위주의 유교나 도덕 등 기존 관습에 대한 반란으로 딸자식들이 집에서 쫓겨나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길찾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잘 나타남.
  - 여성의 탄생은 재물 한 근이 모자람이 원인이 되어 ‘부족함’의 모티프에서 시작되고, 딸의 탄생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하며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 역시 힘이 들게 되는데, 이처럼 여성들은 수난을 극복하여야만 하는 운명이 전제되고 있음.
- 일반본풀이 속의 여신들은 천상적인 지존한 존재에 의해 수태가 되지만 가장 여성적 일인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 모성적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줌.

4)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제주정체성 정립 및 교육영역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12쪽, 229~230쪽.

- 여신들의 문화영웅적인 면모는 자식들이 지니는 신적 직능에서 찾을 수 있어서 <초공본풀이>의 ‘자지명왕아기씨’는 무조신이 된 아들을 낳았으며, <이공본풀이>의 ‘원강암이’는 꽃감관인 ‘한락궁이’를 낳아서 부친을 찾아가 생명꽃을 관장하는 신이 됨.
-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운명을 관장하는 것은 부모의 덕도 아닌 자신의 운명선(배꼽 아래의 검은 선)임을 말하여 부모에 거슬려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 마를 파는 마동(마통이)을 만나 결혼하여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어, 딸을 쫓아 낸 부모와 거지 잔치에서 상봉하게 됨.

### Ⅲ. 일반신본풀이의 연구동향

#### 1. 천지왕본풀이

##### 가. 개요<sup>5)</sup>

- <천지왕본풀이>는 창세 신화적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의례적 기능은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천지자연(베포친다)과 인문사상(도업친다)의 발생을 가창하는 중에 ‘월일광도업’이 포함된 신의 이야기를 노래함.
- 신들의 탄생을 통한 ‘질서의 부여자’라는 측면에서 천지왕과 소별왕, 대별왕의 관계를 다루었고 우주적 차원의 질서 정립과 더불어 인세의 질서도 다룸.
- 우주적 차원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의 탄생, 두 개의 달과 해를 하나씩 화살로 쏘아서 ‘월일광(月日光)도업’을 진행하고, 또한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세차지를 위한 꽃가꾸기 경쟁으로 혼란스러운 법이 있는 이승과 질서가 정연한 저승의 법을 마련함.

##### 나. 천지왕본풀이 대강

- 옥황의 천지왕이 지상의 총명부인과 인연을 맺으려고 땅으로 내려오자 총명부인은 지부왕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수맹이네 집에 쌀을 빌러갔는데, 수맹이가 모래를 섞은 쌀을 줌.
  - 모래가 섞인 밥을 먹다 목에 걸린 천지왕은 화를 내며 악덕한 수맹이를 없애고,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무속의례인 ‘귀양풀이’를 할 때 오곡밥을 대접받도록 함.
  - 천지왕은 총명부인에게 수태를 준 후 벼락장군, 화덕진군, 벼락사자를 내려 수맹이를 징치하여 인간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한 후 본메(信標)를 남

5) 강소전, 2008,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호, 251~252쪽.

기고 떠남.

- 충명부인은 두 아들이 태어나자 소별왕, 대별왕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성장한 두 아들은 부친을 찾으려고 곡(박)씨를 땅에 심어서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
- ‘예숙제끼기’(수수께끼)와 ‘꽃춘심’(꽃가꾸기)을 통해 이기는 자는 아방국을 차지하고, 지는 자는 어멍국을 차지하기로 약속함.
- 형인 대별왕과 동생 소별왕은 인세차지를 위한 수수께끼 내기와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기 위한 꽃가꾸기 경쟁을 약속했으나, 동생은 자신이 심은 시들어가는 꽃과 형이 잘 피운 꽃을 바꾸어 버림.
- 결국 동생은 죄악과 범죄와 속임수가 많은 어멍국을 차지하게 되고 형은 바르고 공정한 법으로 다스리는 아방국을 차지하게 됨.
- 옥황으로 올라가던 대별왕은 새와 짐승들이 말을 하자, 송피가루를 흘트려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승법을 마련한 ‘남정중’과 이승법을 마련한 ‘화정녀’를 불러다 귀신과 생인을 구분함.
- 하늘에는 낮에 해가 두 개가 뜨고 밤에 달이 둘 뜨는 이변이 일어나자 형제는 화살로 쏘아서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린 후 우주 자연의 질서를 확립함.
- 대별왕은 아방국으로 가서, 용상에 앉아 왼 주먹으로 용상을 치자 용상의 왼쪽 뿔이 부서져서, 우리나라에는 왼쪽 뿔이 없는 용상이 있게 되었다는 법을 마련함.

## 나. 문학적 구성과 특징

- 초감제의 <배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중요화소는 천지개벽, 수명장자 정치, 천지왕과 지상국 여인의 결연, 부친 찾기, 해와 달의 조정, 인세차지 경쟁임.
-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화살로 두 해와 달을 쏘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해와 달의 조정’ 모티프, 이승과 저승 차지를 위해서 꽃 가꾸기와 수수께끼 맞추기 내기를 통한 형제간의 ‘인세차지 경쟁’에 대한 모티프가 상징성이 큼.

- 천지왕은 장차의 서열에 따라 이승은 대별왕, 저승은 소별왕으로 정했으나 꽃가꾸기 경쟁에서 소별왕의 꽃 바꾸는 부정적 행위로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무질서한 세계가 됨.
  - 온 세상에는 온갖 짐승과 식물이 사람처럼 종중대며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인 귀신과 살아있는 생인이 혼합될 때 이승과 저승으로 구분해서 각기 갈 곳을 알려줘 이승과 저승법을 마련함.<sup>6)</sup>
- 인간의 선악은 형제가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기면서 생겨나 세상의 무질서가 예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현용준은 <천지왕본풀이> 분석을 통해 쌍분적 세계구조를 발견함.<sup>7)</sup>
  - 문학적인 구조에서도 ‘천(天)/남(男)/저승/형(兄)/선(善)/질서(秩序)’와 ‘지(地)/여(女)/이승/제(弟)/악(惡)/무질서(無秩序)’로 되어 있음.
  - “먼저 남녀라는 이성의 결합에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형제라는 동성동혈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다시 실패한다는 것으로 인문질서의 혼란은 운명적인 모순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라. 신화 원형으로서의 가치

- 초감제에서 심방은 본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베포도엮침>을 먼저 구송하는데, 천지혼합과 우주개벽, 일월성신, 인물의 발생 순서임.
  - 자연사상의 발생에 대해서 가창하는 것을 ‘베포친다’고, 인문사상의 발생에 대해서 가창하는 것을 ‘도엮친다’라고 하고 있음.
  - 무속의례 <초감제>에서 천지자연과 인문사상의 발생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작은 제차인 <베포도엮침>의 의례에서 구송되는 신화는 <천지왕본풀이> 일부라고도 볼 수 있음.<sup>8)</sup>
  - 어둠의 세계에서 하늘의 천황 닭은 목을 들고 땅의 지황 닭은 날개를 치며, 천지를 누비는 인왕 닭은 꼬리를 칠 때에, 멀리서 먼동이 떠오르고 금동이 떠오르는 동성개문(東星開門) 도엮과 천지개벽(天地開闢)으로 이

6) 문무병, 2017, 『두 하늘 이야기』, 알렘, 34~69쪽.

7) 현용준, 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323~329쪽.

8) 강소전, 2008, 앞의 글, 252쪽.

루어짐.

- 초감제 중 <베포도업침><sup>9)</sup>은 질서체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천지혼합(天地混合)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를 무속어로는 ‘일묵궁’이라고 하는 상태이며, 이 어둡고 답답한 혼란스러운 세계를 열어 헤치고 새벽을 깨우는 내용임.
  - 인간세상의 질서 정리와 ‘월일광도업’의 모티프는 천지창조와 사람 탄생 신화의 기본적 속성을 잘 갖추고 있음.
- <천지왕본풀이>신화는 천지를 창조한 신들이 탄생해서 지상과 우주차원의 질서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가치가 있음.
  - 세상을 열기 위해 인간에 온 천지왕은 지상의 여성인 총명부인과 인연을 맺어 두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자란 아들들은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올라감.
  - 부친은 두 아들들에게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기 위한 꽃가꾸기 경쟁을 시켰으나, 이는 공평한 법이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동생이 부정확한 방법으로 꽃을 바꿈으로써 저승의 공정한 법과 이승의 혼란스러운 법의 세계가 만들어짐
  - 두 개의 일월광을 하나로 조정하여 낮에는 덥고 밤에 추운 것을 없애는 일월조정은 무질서인 혼돈의 세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큼.
- 창세의 시작은 하늘과 땅을 ‘물’로써 구분하는 법을 마련하여 개벽(開闢)을 이루고 있으며 선과 악의 구분에 따른 이승과 저승의 이분법의 체계를 마련하였음.
  - <베포도업침> 의례에서 신화적 상징성인 천지개벽(天地開闢)의 의미를 담는 메타언어는 이슬로 구현되는 데 합해져서 ‘물’로 합수됨.
  - 하늘은 자시(子時)에 열리고 땅은 축시(丑時)에 열리며,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으로는 흑이슬이 내리고, 중앙에는 황이슬이 내려서 합수되어 천지도업(天地都業)이 되며, 인황(人皇)도업은 하늘 동쪽에는 청구름, 서쪽으로는 백구름, 남으로는 적구름, 북으로는 흑구름, 중앙에는 황구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9)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개정판, 각, 752쪽.

## 2. 할망계 본풀이(구할망, 명(땡)진국, 대별상)

### 가. 개요

- <할망신본풀이>는 무속의례 큰굿의 초감제 의례의 소절차인 <불도맞이> 제에서 부르는데 천지조성 이후 인간 세상에 살아갈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산육신(産育神)에 대한 본풀이임.
- 태어난 아기의 사산이나 질병을 초래하는 ‘동해용궁따님애기’라고도 하는 ‘구삼승할망’과 ‘명진국할망’인 ‘삼승할망’, 흥진국대별상 마누라(마마)신과 관련된 세 유형의 본풀이는 각각 개별적인 단일본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
  - ‘삼승할망’과 ‘구삼승할망’은 상징적으로 여신이며 ‘대별상마누라’는 남신인데, 신화 본풀이 전개에서 <삼승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의 주인공은 ‘삼승할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연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을 달리 할 수 있음.
  - 신적 직능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삼승할망을 주 인물로 볼 수도 있지만, 의례 집행자 측면에서 보면 굿의 목적이 죽어가는 생명의 구원이나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구삼승할망’을 중심에 둘 수 있음.
  - 본풀이 속에서 두 인물의 별이는 사건 전개는 대립적이며,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땅과 바다, 승리와 패배, 번영과 쇠멸 등 이항대립의 논리로 풀어내고 있음.<sup>10)</sup>
- 구할망(동이용궁따님애기)본 대강
  - 이용옥 본에서는 ‘동이용궁따님애기’ 관련 <구할망본>을 중심으로 각 할망신에 대한 본풀이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무속의례 집행자의 입장인 의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동이용궁따님애기’는 바다 속 용궁에서 태어나 어머니 젖가슴을 두드리고, 아버지 수염을 훑는 등의 죄목으로 무쇠로 만든 갑 속에 담긴 채 쫓겨나 물위로 나오게 됨.

10) 조현설, 2011, “제주여신 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학회.



- 해안가를 거닐던 임박사가 ‘임박사 개문개탁’이라고 써 있는 무쇠로 된 갑을 발견하였는데 상자를 열고 보니 꽃 같은 아기씨가 들어 있었음.
- ‘동이용궁따님애기’는 자신을 갑 속에서 나오게 해 준 대가로 임박사 부인을 포태시켰으나 열 달이 지나도 해산시키는 법을 몰라, 급한 임박사는 옥황상제에게 등장을 가서 부인의 급한 사정을 하소연 함.
- 옥황상제는 지부사천왕의 추천을 받아 ‘명진국할망’을 보내서 임박사의 아기를 해산시켰는데 이를 지켜 본 ‘동이용궁따님애기’는 화를 내며 질투를 함.
- 옥황상제는 두 아기씨에게 꽃가꾸기 경쟁을 시켰는데 ‘명진국할망’이 키운 꽃은 잘 자라서 그녀는 ‘생불왕’이 되고, 한편 꽃을 잘 피우지 못한 ‘동이용궁따님애기’인 ‘구삼승할망’은 낙태가 되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은 15세 이하 된 아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신이 됨.

○ 명진국할망(삼승할망)본 대강

- 명을 길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명진국사암불도할망’은 삼승할망, 천왕불도 지왕불도 인왕불도할마님 등으로 불리는데, 똑똑하고 현명하여 옥황상제로부터 아기를 포태시키고 해산시키는 신으로 지명을 받음.
- 그녀의 복색(옷)을 보면, 남방사주 저고리, 북방사주 말바지와 열두폭 대홍대단 훗단치매를 입고, 물명지 장장옷에 단추도 열두 단추, 금주랑 철죽대, 은주령 만죽대, 참실 한제, 은가위, 만삼 족두리 둘러쓰고, 나막창 신에 웨코 접은 백농버선을 신고 이구산으로 내려 섬.
- 할머니는 가난한 집과 부자집을 가리지 않고, 하루 천 명이나 만 명에게 포태를 준 후 석달 열흘이 지나서 해산을 시키며 아기가 태어나 3일째가 되면 <감사제>와 <불도맞이> 제를 받음.

○ 대별상마누라(홍진국대별상)본 대강

- ‘홍진국대별상’은 ‘대별상마누라’라고도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마마를 주는 신으로, ‘명진국할망’이 잉태를 해 둔 아기들에게 마마를 곱게 시켜 주길 부탁했으나 ‘홍진국대별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마를 퍼뜨림.
- 화가 난 명진국할망은 홍진국대별상 아들이 장가 갈 때 며느리 가마에 따라가서 포태를 시킨 후 아이를 해산해 주지 않아 며느리가 죽게 되자, 홍진국대별상 부인은 서신국 마누라를 찾아가 자문을 얻어 명진국할망의

도움을 받게 됨.

- 흥진국대별상은 명진국할망에게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하고 며느리를 살려달라고 빌자, 할망은 대신 자신이 아끼는 곰보가 된 아이들의 얼굴을 치료하도록 하고 대별상 며느리의 해산을 도움.

## 라.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할망본풀이> 세 유형의 개별 내력담이 결합된 <삼승할망본>을 하나의 서사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명진국할망을 중심으로 한 <할망본풀이>가 확장을 거듭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동이요왕따님아기’, ‘명진국따님아기’는 각각 ‘저승할망’, ‘생불할망’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아이를 잉태시키는 동일한 기능을 맡게 되자 경쟁을 거쳐서 직능을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마누라본풀이> 역시 명진국할망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개별 본풀이로는 성립이 어려움.
- <할망본풀이>에는 당신본풀이의 문서를 적극 수용하였거나 영향을 준 것을 증명하는 준거들이 있는데, <송당계본풀이>의 ‘요왕황제국말젯뜰아기’의 기아(棄兒)와 상주표착(箱舟漂着) 모티프가 수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신 본풀이의 결합과 특정한 신격이 여러 본풀이 속에서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승환<sup>11)</sup>은 한국신화에 나타나는 공간 이동이 대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이승과 저승, 육지(陸)와 바다(海), 생(生)과 사(死)의 이원적 체계가 그것임. 바다 용궁의 탄생인 구삼승할망인 동이요왕따님아기와 천상계의 지명을 받은 삼승할망인 명진국따님애기의 대결에서 결국은 잉태와 양육을 담당하는 삼승할망이 승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꽃의 상징성은 주술적인 꽃이 있다는 서천꽃밭의 주화에 대한 모티프에서 찾을 수 있음.
- 서천꽃밭의 꽃감관에 관한 본풀이인 <이공본풀이>와 죽은 자신의 종과 남편을 살리기 위해 여성인 자청비가 남장으로 꽃감관의 딸에게 장가를

11) 현승환, 1985,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도민의식”, 『제언』 제7집, 제주도문제연구회.

들어서 사람 살리는 꽃을 가지고 온 <세경본풀이>가 있으며 이러한 꽃가꾸기 경쟁 모티프는 <천지왕본풀이>와 <할망본풀이>에도 나옴.

## 마.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생불꽃은 <삼승할망본풀이> 할망의 기능과 연관되며 삼승할망은 생불꽃의 힘을 빌어 포태를 주고 아기를 낳게 해주는 주력을 가지고 있음.
- 생불꽃은 신화적 상징성이 강한데 생불할망은 꽃을 따고 다니며 아이들을 점지함.
- 생불꽃의 색깔이나 방향에 따라서 동쪽 푸른 꽃은 남자가 되고 서쪽의 흰 꽃은 여자가 되며, 남쪽의 붉은 꽃은 장수를 나타내고 북쪽의 검은 꽃은 단명하는 운명이 된다고 여김.<sup>12)</sup>
- <삼승할망본풀이> 관련 신들은 일반신격이면서도 ‘불도할망’의 성격을 띤 당신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유교식 포제의 서신(西神)인 마마신으로도 모셔짐.
- 강정식은 불도할망으로 모셔지는 당은 구좌읍 하도리 본향당인 ‘삼싱당’, 하도리 면수동 ‘삼싱당’, 조천읍 와산리 ‘불돛당’, 제주시 오등동 ‘ㄱ다섯당’ 등이 있는데, 이는 당 신앙에서도 무속의례의 일반신인 <불도맞이>의 삼싱(신)할망에 대한 신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함.
- 꽃가꾸기 경쟁에서 생불할망 곧 삼승할망이 생불꽃을 잘 피워서 우위에 두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출산과 양육을 다함께 할 수 있도록 전지전능의 신적 지위를 부여한 것임.
- 꽃가꾸기 내기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은 뒤에 좌정한 삼승할망은 구삼승할망보다 상위신으로 좌정하며 마마신과의 경쟁에서도 상위신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음.

12)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6~109쪽.

### 3. 초공본풀이

#### 가. 개요

- <초공본풀이>는 초공제의 <공시풀이>나 <초공본풀이>, <초공질침>, <비  
념>의 과정에서 부르는데, 무속 세계의 무법을 창안하고 무악기와 무구  
를 만들어 굿을 하는 무법의 시원과 이를 창시한 무조(巫祖)의 신화임.<sup>13)</sup>
- 전체적인 구성은 노가단풍아기씨의 탄생/ 주점선생과 아기씨의 만남과  
젓부기삼형제의 탄생/ 젓부기삼형제가 과거에 합격하고 굿을 해서 모친  
을 살림/ 유정승따님애기가 무당서를 읽어서 최초의 무당이 되는 네 단  
위의 구성임.
-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무조신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본맹두’,  
‘신맹두’, ‘살아살축신맹두’인 삼형제이며, 그들은 ‘너사무삼형제’와 의형  
제를 맺고 황금산도단땅의 ‘주점선생’으로부터 무악기와 무구, 굿하는 법  
을 배워서 무의식을 집행한 무조(巫祖)임.
- 무법의 세계에서는 조상들의 계보가 계열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공시풀  
이>는 과거에 신의 형방이라고 하는 조상들 곧 무업에 종사하던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초공 연질로 신을 풀라”고 아뢰 후 <초공본풀이>를 가  
창함.
- <초공본풀이>의 줄거리는 ‘황금산도단땅’에 살고 있는 주점선생이 ‘노가  
단풍자지명왕아기씨’를 찾아와 수태를 시키는데, ‘아기씨’가 임신하여 집  
에서 쫓겨나고 황금산으로 주점선생을 만나 ‘불도땅’에서 삼형제를 낳음.
- 삼형제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글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자 세 아들은 어머니를 살리고자, 주점선생을 만나  
서 사제자인 무격이 되어 무악기와 무구 등을 제조하고 굿을 해서 어머  
니를 살린다는 내용임.<sup>14)</sup>
- ‘유정승따님애기’는 굿법을 전수받아 의례를 집행한 첫 심방임.

13) 이수자, 2004, 앞의 책, 179쪽.

14) 위의 책, 402쪽.

## 나. 초공본 대강

- 천하임전국 대감님과 지하짐(김)전국 대감님은 자식이 없어 삼천선비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남들이 자식을 낳아서 황천대소를 하면서 노는 것을 보고 부러워함.
- 동개남 상저절, 서개남 금법당의 주접선생에게 사주팔자를 묻고 기자 정성을 했으나, 재물 한근이 모자라 아들이 아닌 딸을 수태하는 데 구시월 단풍이 질 때 태어났다고 해서 '녹하단풍즈지명왕아기씨'라고 이름을 지어줌.
- 아기씨의 부모는 공사를 떠날 때 '느진덕정하님'인 종에게 딸을 맡기고 떠났는데, 주접선생이 아기씨의 명과 복을 이어 주려고 아기씨를 만나러 와 수태를 시키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석달 열흘이 지나면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며 송낙과 장삼을 본메로 주고 떠남.
- 아기씨는 임신이 되어 죽을 사경이 되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딸을 집에서 쫓겨내어 귀양정배를 보냄.
- 집에서 쫓겨난 딸은 열두문을 지나서 주접선생이 주고 간 장삼과 송낙의 본메를 맞추고, 주접선생은 나락 껍질을 벗기는 시험을 주자, 새들이 날아와 도와줘서 천지신명의 도움임을 인정받고 불도 땅에 가서 세 아들과 함께 삶.
- 아들들은 '굴묵지기', '베릿(벼루) 물지기', '문지기'의 일을 하면서 서당 거무선생에게 결눈으로 글을 배우고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났지만, 이를 시기한 삼천선비들이 배나무의 배 삼천 개를 따도록 시켜서, 배를 따다 시험시간에 당도하지 못함.
- 삼형제는 주모할망의 도움으로 '천지혼합', '천지개벽', '천지베포'라고 써서 상시관에 올려 당선되지만 중의 자식이라고 해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함.
- 삼형제는 모친이 죽어 상중에 있다고 알려와 과거는 포기하고 전생팔자를 그르치는 일을 해서 어머니를 살리고자 '굴미굴산'에 들어가 천문과 상잔을 만들고 무악기를 만들어 '너사무삼형제'와 의형제를 맺음.
- 첫째아들은 '초감제' 둘째아들은 '초공맞이' 셋째아들은 '시왕맞이'를 해서 어머니를 살림.

- ‘유정승따님애기’는 죽어가는 이를 위한 곳을 해서 살려내고, 무당서 삼천 권을 읽어서 67세에 무당이 된 후, ‘늦은덕정하님’을 당주방에 올려 소미로 삼고 77살에 삼시왕에 종명 후 심방들의 선생이 됨.

## 다.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sup>15)</sup>

- 신월균은 문학적인 측면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논하면서 신성공간에서 사는 주접선생과 자지명왕아기씨가 낳은 ‘젯부기삼형제’ 세 아들은 신성한 존재로 상승공간에 위치해있다고 봄.
  - 아들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팔자를 그르치는 일”은 곧 무당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시 세속적인 인물로 하강하는 것임.
  - 곧 세 아들인 삼행두는 세속과 신성의 대립구조 속에서, 이 두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봄.
- 설성경은 전후 대단락으로 나누어서 갈등과 해결이라는 민담구조를 서사 전개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봄.
  - 부모는 곳을 해서 딸을 얻고 주접선생은 지상으로 와서 자지명왕아기씨를 수태시키고 본메를 주고 떠남. 아기씨는 집안에서 쫓겨난 후 주접선생을 찾아가서 불도 땅에서 자식을 낳음.
  - 아들은 삼천선비들을 물리치고 과거에 급제함. 그러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팔자를 그르쳐야만 하는’ 굴곡 많은 삶의 고난과 갈등 해결을 위해 곳을 하게 되는데, 무속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봄
  - 인물의 특성 중 삼형제를 낳은 ‘노가단풍자지명왕아기씨’는 수동적이고 순환적인 데 비해 삼형제는 능동적이고 성장적이며 상승적인 인물로 평가함.
- 신연우는 초공본풀이의 문화구성 요소를 종교성, 여성성, 입사담, 곡령신앙으로 정리하고 있음.
  - 초공본풀이는 풍요기원과 희생제의의 문학으로 ‘노가단풍아기씨’는 곡식의 신령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

15) 신연우, 2017,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41~53쪽.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신연우<sup>16)</sup>는 ‘자지맹왕아기씨’의 탄생과 ‘황금산주자선생’에 의한 임신, ‘황금산도단땅’에서의 세 아들의 출산, 삼천선비의 모략에 의한 죽음과 부활 등이 농경신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봄.
- 반개념의 분리-전이-통합인 입사담으로서 초공본풀이의 ‘자지맹왕아기씨’는 통과제의적 죽음과 재탄생의 구도를 형성하고 신성함을 매개로 하여 현실적 신분을 바꾸고 천상의 곡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 여기서 ‘잠금’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상징성을 의미하고 ‘임신’이라고 하는 것도 간혀진 상태를 말함.
- 황금산 주자대사와의 만남과 임신은 천신 또는 태양신과의 교합임,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여신인 ‘자지맹왕아기씨’는 곡령신으로 인지될 수 있다고 믿어지며, 이는 농경적 사고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음.
- 삼맹두가 과거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 존귀한 위치로 탈바꿈 할 가능성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삼맹두는 무속 나라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능력을 상징함.
- 자지맹왕아기씨의 여성으로서의 고난은 수난으로 이어지는데, 고난은 지상의 것을 뜻하고 해결은 ‘천상’의 것으로 볼 수 있음.

## 4. 이공본풀이

### 가. 개요

-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제의에서 구송되는 것으로 유사한 이야기가 다른 지역의 무속신화에도 있고, 평북의 ‘신선세탄님청배’나 경남 지역무가에도 유사하며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안락국태자경’으로, 또는 불화 등으로 전승되고 있으나 제주큰굿에서 <이공본풀이>가 차지하는 위상을 신화의 명칭, 제의언어,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 서천꽃밭을 통해서 볼 때,

16) 위의 책, 103~133쪽.

이 신화는 무속제의가 형성될 때 창조된 고유의 신화로 보고 있음.<sup>17)</sup>

- 신화형성 집단의 신화적 공간으로 다른 일반본풀이인 <생불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어서 <이공본풀이>는 독자성을 가졌다기보다는 큰굿내의 신화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봄.
- 신화의 핵심적 요소인 인간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거나 살리는 ‘악심꽃’은 ‘생명꽃’이며 신화적인 생명공간은 ‘서천꽃밭’임.
- <이공본풀이> 신화는 큰굿의 제차 중에서 이공신을 맞이하는 <이공맞이제>와 <불도맞이제>에서 불림.
- 본풀이에서 꽃은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것임. 따라서 <이공본풀이>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주화인 생명꽃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며 ‘악심꽃 꺾음’이라는 인간 죽음의 기원적 사실을 설명하는게 중심이며 무속의 시원 시 형성된 무속 고유의 신화로 보고 있음.
- 주화를 관장하는 신들에 관한 본풀이인 만큼 서천꽃밭은 아주 중요한 장소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사람을 살리는 ‘생불꽃’, 사람을 죽이는 ‘수레멜망악심꽃’ 등은 다른 본풀이에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특히 아기의 산육신인 ‘생불할망본풀이’에서는 꽃을 타고 꺾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나. 이공본 대강

- 가난한 짐진국 대감과 부자인 원진국 대감이 원불수룩을 들었는데, 짐진국은 재물은 부족하였지만 정성이 지극하여 아들을 점지 받고, 원진국은 재물을 많이 올렸지만 정성이 부족하여 딸을 얻음.
- 짐진국의 아들은 ‘사라도령’으로 이름 지우고 원진국의 딸은 ‘원장아미’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장래 혼사를 예약하여 ‘구덕혼사’를 맺음.
- 원장아미는 미색이 뛰어나서 다른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으나 이를 거부

---

17) 이수자, 1993,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연구』 제10집, 13~65쪽.



하고 구덕혼사를 한 사라도령과 결혼하게 됨.

- 남편인 사라도령이 꽃감관직을 맡아서 서천꽃밭으로 살러 갈 제 부부가 함께 떠나고, 임신한 아내 원강아미는 힘이 들어 더 이상은 가지 못해서 ‘제인장제’ 집에 종으로 팔려 남게 됨.
- 원강아미는 제인장제의 유혹을 지혜로 물리치고 아들 ‘한락궁이’를 낳아서 키움.
- 한락궁이가 15세가 되자 부친이 있는 곳을 찾아 가는데 꽃감관 꽃생인인 부친을 서천꽃밭에서 만남.
- 화가 난 제인장제는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을 내보낸 원강아미를 죽여서 토막을 내고 들에다 버림.
- 한락궁이는 부친을 만나 ‘본매’를 확인하고, 부친이 장자에 의해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려주자 여러 종의 꽃을 따고 와서 ‘악심꽃’으로 제인장제를 죽이고, ‘환생꽃’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살려낸 후 서천꽃밭으로 가서 꽃감관이 됨.

## 다.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이공본풀이>는 빈부의 갈등 문제와 수난의 주체가 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층민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비서사시임.<sup>18)</sup>

-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생불꽃’과 ‘악심꽃’에 대한 것으로써 사람이 생(生) 사(死)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꽃을 염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천상의 꽃밭이라는 신성공간을 설정해서 꽃감관이 되는 가족의 일대기를 그려냄.
- 조동일<sup>19)</sup>은 무속의 신앙서사시라 할 수 있으나 미천한 인물인 ‘한락궁이’와 그의 어머니인 ‘원강아미’가 겪는 갖은 고난을 극복하여 결국은 생명의 꽃을 지키는 꽃감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효’에 두어 효행서사가 표출된 생활서사시로서 정리함.

○ 정진희는 <삼승할망본풀이>의 꽃과 <이공본풀이>의 ‘수레멜망악심꽃’의

18) 강정식, 1987,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01~102쪽.

의미를 비교하면서, 전자는 순수한 생명 탄생을 위한 지모신적인 능력으로 피워낼 수 있는 꽃이라고 한다면 <이공본풀이>의 ‘악심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징벌의 꽃이므로, 이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권위의 기원이라고 봄.<sup>20)</sup>

- 서천꽃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낙원과 같은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음. 이승과 저승의 공간인 것에는 큰 차이가 없고, 우리의 상상체계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임.<sup>21)</sup>
  - 주화는 기술적 능력을 부여받은 꽃들이며 사용처와 사용 방법, 사용하고 난 후의 효과 등등이 잘 드러남.
  -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가면서 부인인 원강아미와 함께 떠나는 중간 노정의 서사 및 한락궁이의 탄생 후 고난과 갈등의 많은 서사 속에는 다수의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음.
  - 사라도령의 서천꽃밭으로의 노정은 임신한 원강아미가 힘이 들고 발이 부어 제인장자의 집에 두고 가는 사별의 슬픔이 담김.
  - 한락궁이의 노정에는 도망갈 틈을 찾아서 떠나는데, 제인장자는 천리통과 만리통이라는 충견을 보내 그 뒤를 쫓게 함. 여기에는 어머니와 이별하여 떠나는 한락궁이의 아픔이 함축되어 있음.
- 유효철<sup>22)</sup>은 한락궁이의 서천꽃밭으로의 여행을 ‘구복여행’으로도 해석하는데, 주인공이 타계에 도착하여 계시자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이 점이 잘 남아있다고 봄
  - 한락궁이는 부친을 만나서 본매 확인으로 아들임을 인정받았으며,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꽃을 따서 어머니를 살리고, 수레멜망악심꽃을 이용하여 사악한 제인장자를 징치한 후 꽃감관이 됨. 즉 험난한 여행이 복으로 이어짐

20) 정진희, 2002,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의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태학사, 193쪽.

21) 유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석사논문.

22) 유효철, 윗 글, 57~60쪽.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sup>23)</sup>

- 일반신본풀이의 중요 꽃화소는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생명꽃과 ‘서천꽃밭’에 의해 마련되고 있으나 여타 일반신본풀이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 됨.
  - 이공본풀이는 <생불할망본풀이>에서 창조해 낸 서천꽃밭을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시켰으며, <세경본풀이>에서는 세경신인 자청비가 서천꽃밭의 꽃을 이용하기 위하여 남장한 채 사위를 들어서 꽃을 따다가 종을 살린다거나 남편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곡물신, 지모신으로서의 공업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으며 <문전본풀이>에서도 일곱 아들들은 꽃으로써 죽은 어머니를 살리는 등 신화적 기반이 있음.
- 신화형성 집단은 인간과 식물의 생명체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본풀이의 형성 시기가 아주 오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생불꽃과 악심꽃은 인간 삶의 가장 원론적인 두 문제인 생과 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천꽃밭은 인간생명의 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명해주는 신화적 생명 공간임.
  - <이공본풀이>에서 ‘악심꽃’은 인간을 죽게 만드는 꽃으로 사라도령의 아들 한락궁이는 생불신과는 반대의 기능인 죽음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음.
  - 곧 ‘서천꽃밭’은 인간생명의 원천적 공간으로 이는 인간생명에 대한 외경과 의구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생명의 본질에 대해 해명해주는 생명공간적 성격을 지님.

23) 이수자 1993, 앞의 글. 41~45쪽

## 5. 삼공본풀이

### 가. 개요

- 삼공본풀이는 전상신인 ‘가문장아기’에 대한 본풀이임, 전상은 인간의 삶이 운명 지워진 상황, 즉 인간의 운명이나 팔자와 비슷한 개념임.
  -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타고난 운명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데, 이를 전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이승에서 옳은 일을 하는 옳은 전상과 옳지 못한 일을 하는 나쁜 전상이 있다고 믿어짐.
  - 인간의 전상은 미리 그 사람의 생이 정해진다는 결정론적인 사고에 의해 부자가 될 것으로 운명되어 태어난 자는 집안에 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집을 나갔을 때는 부자가 되는 운명도 같이 따라가므로 형편은 달라진다고 믿어짐.
- 전상은 ‘전생’의 와음으로, 전생인연의 뜻이며 불교적인 관념이 제주도 무속사회에 수용되어 민속화되어 전승되고 있는 하나의 관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sup>24)</sup>
  - 계속 술을 마시거나 도박, 도둑질을 되풀이 하는 행위 등이 전상에 해당함.
- 이수자는 삼공신에 대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타인의 가난과 부를 마음대로 주관하기도 함.
  - 비정상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징치하고, 착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줌.
  - 안맹과 같은 신체상의 질병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없애주기도 함.

### 나. 삼공본풀이 대강

- 이웃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옷상실 간이영성과 홍문수천은 흥년이 들자 서로가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만나 부부가 됨.

---

24) 장주근, 1998,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99쪽.

- 부부는 가난한 살림을 살다가 임신이 되어 세 자매의 자식을 낳고 딸들의 이름을 첫째는 ‘은장아기’, 둘째는 ‘늦장아기’, 셋째는 ‘가문장아기’라 지음.
- 세째 딸 ‘가문장아기’가 태어난 이후 집안의 살림살이가 크게 늘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두 부부는 가난할 때의 일을 잊고 세 딸을 불러 “누구 덕에 먹고 입느냐”고 묻자, 첫째와 둘째는 부모덕이라 했지만 셋째는 자신의 복이라고 답함.
- 가문장아기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난 부모는 세째 딸을 집에서 내쫓는데, 동생이 내쫓기는 것에 동조한 언니들은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변해 죄를 받고, 가문장아기는 집을 나간 후 몰락해서 부모는 눈이 멀어 소경이 됨.
-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길을 가다가 초막집에 들어가서 거처하는데, 마 파는 마통이 삼형제를 만나서 그 중에 ‘작은마통이’와 부부간이 되어 마를 파는 장소에서 황금덩어리를 발견하여 금시에 부자가 됨.
- 부자가 된 가문장아기는 소경잔치를 열고 부모를 만났는데, 술을 따르던 가문장아기가 부모인 것을 알고 놀라며 술잔을 떨어뜨리자 부모는 눈이 뜨여 개안이 됨.

## 다.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삼공본풀이>는 문학적으로 ‘내복에 산다’ 계 설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하기도 함.<sup>25)</sup>
- 본풀이는 서동설화의 모티프와 많이 닮아있는데, 백제무왕이 선화공주를 얻고 마를 파러 갔다가 금을 얻어서 결국은 왕이 되었다는 내용과 유사함
- 고대소설과의 관련은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후 거지가 되어 눈이 먼 부모가 소경 잔치에 갔다가 눈이 트였다는 심청전 모티프와 닮아 있음.
- 삼공본풀이의 구조<sup>26)</sup>는 부녀의 갈등과 분리(기존의 권위와 관습에 대한 부정), 가족에 대한 징치(부정에 대한 행위 구체화), 마통이와의 혼인(조력자와의 만남), 금 획득(신으로의 좌정에 대한 근거), 거지 잔치(기존의

25) 현승환, 1992,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 제주대 박사학위 논문.

26) 안효순, 2010,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석사학위 논문, 35쪽.

권위 타파 및 신으로의 좌정)으로 의미화가 가능함.

- 삼공본풀이는 부녀관계의 대립으로 박복(薄福)과 다복(多福)의 대립임.<sup>27)</sup>
  - 두 언니는 아버지와 딸의 부녀간의 대립을 뜻하고 언니들은 아버지를 선택함으로써 복이 없어지게 되어 다른 동물로 바뀌게 되는데, 은장아기는 청지네가 되고 늦장아기는 용달버섯으로 환생하게 됨.
  - 공간적인 이동 변이도 하나의 계열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노뎃돌 아래, 거름은 어둠을 뜻하는 은유적 계열체계를 형성한다고 봄.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삼공신은 모진 전상(나쁜 전상)과 좋은 전상에 관여하고 있고, 이 신에 대한 제의의 목적은 좋은 전상을 가져다주도록 기원함에 있음.<sup>28)</sup>
  - 전상신이란 바로 인간 한평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인간 삶의 양상을 좌우하며, 또는 그와 같은 운명적 상황이 마련되도록 어떤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신임.
  - 부정적 의미의 전상은 내쫓고 긍정적 의미의 전상은 이루어지게 함.
- 전상에 대한 믿음은 도덕이나 윤리 면에서 선을 강조하게 되어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데, 이러한 철학이 담긴 <삼공본풀이>는 운명관장신이며 신적 직능은 '전생 인연의 신' 또는 '전생신'으로 전상은 '여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행위인 업(業)'과 같은 의미로 해석함.<sup>29)</sup>
- 현승환은 눈뜨는 개안(開眼) 관련 모티프는 신성성을 보여주기 위한 주력(呪力)의 상징적 표현이며 불교계 설화에서 불력에 의한 개안으로 봄.

27) 조현설, 2011, 앞의 글, 100~103쪽.

28) 안효순, 2010, 앞의 글, 40~42쪽.

29) 이수자, 앞의 책, 214~215쪽.

## 6. 차사본풀이

### 가. 개요<sup>30)</sup>

- <차사본풀이>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는 무속의례인 <귀양풀이>나 큰굿의 <시왕맞이> 제차에서 부르는 것으로 본풀이의 주인공은 망자를 천도하는 저승사자 격인 ‘강림’에 관한 것임.
- <차사본풀이>는 신화를 통하여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세계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상장례의 근원을 언급, 명정, 기일제사법, 초혼 그리고 죽음의 질서가 무너진 이유, 저승의 길 등을 보여주고 있음.
- 본풀이에는 실존 인물인 마을의 수령 김치 원님이 등장하고 악녀인 ‘과양생이’가 소청을 제기해서 김치원은 염라대왕과 대결하는데, 이는 이승 왕으로서의 권위와 저승 왕으로서의 인간과 신의 대결을 겪게 됨.
- 강림은 염라왕을 잡아서 이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권위가 서는 것처럼 보이고, 저승과 이승이 수평적 이중체계로 보였으나, 염라왕이 김치 원님과 강림의 육체와 영혼을 나눌 때, 염라왕이 강림의 혼을 가져감으로써 저승왕 권위가 서는 신계의 우위로 전환 됨.
- 염라왕과 김치원은 상대의 신이함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 대결의 결과, 강림은 염라왕의 힘을 빌어 이승에서 벌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그 과정에서 강림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또한 신이한 존재로 주체적으로 그려짐.
- 김치는 능력 있는 인물로는 그려지지 않고 있으며 부인이나 강림 등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승왕과 직면했을 때에는 나약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몰라서 유능한 사령 강림을 저승사자에게 뺏김.
- <차사본풀이>는 강림이의 저승차사 좌정이 핵심임. 즉 <시왕맞이>에서 차사에게 인정 사정을 써서 망자가 저승가는 것을 잘 인도해 줄 것을 소망하는데, <나까시리도전침>, <시왕질침>에 그 의례적 근거가 있음.
- <시왕질침>은 시왕의 길을 가기 위하여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행위

30) 김형근외, 2008,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 나. 차사본 대강

- 버물왕은 아들 아홉을 낳았으나 위 아래로 삼형제씩 죽음. 그런데 살아 있는 아들 삼형제마저도 명이 짧다는 말을 듣고 15세만이라도 넘기려고 절에 출가시켜서 살다 오게 함.
- 대사중은 죽으면서 동경국 버물왕 아들의 죽음을 예고했는데 과양땅의 ‘과양생이’ 집을 지나갈 때 조심하라고 당부함.
  - 절에서 살던 삼형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중 과양땅의 과양생이 집에 들렀는데, 비단을 욕심 낸 과양생이는 버물왕의 아들 삼형제를 죽이고 그 시체를 연못에 던지자 삼색의 연꽃이 피어남.
  - 과양생이는 주천강 연못에 핀 삼색꽃을 따다 문에 걸어 두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뜯어서 꽃을 화로 불에 태우자 삼색 구슬이 됨.
  - 과양생이는 아름다운 구슬을 삼키고 수태가 되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집에 돌아온 후 문전과 조왕에 절을 하다가 죽음.
- 과양생이는 이 고을의 ‘김치’ 원님에게 찾아가서 억울하게 죽은 아들들의 이유를 밝혀달라고 원정을 함.
  - 김치원님은 괴로워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어 염라왕을 잡아오라고 명을 내림.
  - 김치원님 부인의 계략으로 동헌마당에 입참하지 못하게 된 강림은 그 별로 명을 제 때 받들지 못하였다는 별로 큰 부인에게 하소연을 하고 저승으로 감.
  - 큰 부인집 문전하르방과 조왕할망의 도움으로 길을 안내받고, 저승길의 질트래비 질감관의 도움으로 염라왕을 잡음.
  - 염라왕이 이승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강림과 헤어짐.
- 염라왕이 이승에 와서 꽃을 뿌려서 버물왕의 세 아들을 살리고, 못된 과양생이를 벌주고서 강림의 혼을 빼앗아 인간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차사로 삼음.



- 강림의 큰부인은 염라왕이 자기의 남편을 저승으로 데려가자 삼년상을 치르면서 기일제사법을 마련함.
- 강림이가 저승문서인 적배지를 까마귀에게 맡겼는데 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려 결국 인간 세상에서는 죽는 질서가 깨어져 혼란이 움.
- 염라왕은 강림이가 동방삭을 잡아오자 인간 차사로 명함.

## 다.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차사본풀이>의 서사는 강림에게 불가능한 과제의 부여→강림의 저승탐색→ 난제의 해결→ 저승차사로의 좌정의 과정을 통해 인간 강림이 ‘저승방문’과 ‘염라대왕 데려오기’라는 어려운 문제 해결로 저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음.
- 화소는 ‘단명’, ‘영혼의 변신과 환생’, ‘급사’, ‘저승여행’, ‘신들의 길 안내’, ‘염라대왕의 재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저승여행’의 신화소를 기반으로 흥미로운 영웅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함.
- 전통적 사후세계인 ‘저승’ 이계방문의 모티프에 인물의 영웅성이 결합되면서 저승을 방문하는 영웅모티프를 보여주는데, 각 콘텐츠에서 강림은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거나 두 세계의 소통을 도와줌.<sup>31)</sup>
- 강림이의 능력에 대한 문학적 논의가 강조되고 있음.<sup>32)</sup>
- 저승여행은 이승의 존재에서 저승의 존재로의 전환을 가능케 함, 강림은 염라대왕을 포박하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저승에서도 그 능력이 인정되어 인간을 잡아오는 임무를 맡게 됨, 저승의 존재인 강림은 이승에서의 죽음의 질서를 깨뜨리는 동방삭을 잡아오는 강림의 능력을 발휘함.
- 강림 신격의 좌정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세계 내지는 죽음의 문제를 등장시켜 죽음과 관련한 신격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는데 있음.

31) 김진철, 2015,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한국문화콘텐츠학회.

32) 김형근외, 2008, 앞의 글, 282~283쪽.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차사본풀이>는 죽음의 세계 내지는 죽음의 문제를 등장시켜 강림이 죽음과 관련한 신격, 즉 저승사자로 좌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 <시왕맞이>라는 망자천도제에서 강림이라는 저승차사에게 청배하는 목적으로 부르는데, 강림에게 인정사정을 써서 망자의 저승 행을 잘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골자임.
- <시왕질침>은 시왕의 길을 가기 위하여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행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리임.
- 인간 강림이가 염라왕을 잡으러 저승으로 갈 때, 가장 힘든 시험이 어떤 길을 통해 저승으로 가는 가가 문제였는데, 결국 강림이는 저승으로 가는 길의 방향과 방법을 아는 자가 되어 저승으로 가는 존재가 됨.
- <차사본풀이>는 <시왕맞이>에서 구연되는데, 시왕맞이는 망자천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독으로도 하지만, 제주도의 종합 무속제의인 <큰굿>에서는 부분이 됨.
- 초감제>방광침>체스본풀이>시왕도올리고석살림>액막이>나까도전침>삼천군병질침>질침(ㄹ른질침)>체스본풀이>매어듬으로 구성되어<시왕맞이>부분에 <체스본풀이>가 두 번 나옴.
- <차사본풀이>에서는 ‘아진굿’(앉아서 하는 굿)이라 하여 심방이 앉아서 장구를 놓고 진행된다면 <차사본풀이> 무가에 등장하는 특정 문면인 <나까시리도전침>,<시왕질침> 등은 서서 하는 선굿으로 진행됨.

## 7. 세경본풀이

### 가. 개요<sup>33)</sup>

- <세경본풀이>는 큰굿 속에서 심방에 의해 구연되는 것으로 자청비 여신

33) 이수자, 1993, “백중의 기원과 성격: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5집』, 한국민속학회, 283~299쪽

이 하늘로부터 오곡의 종자와 ‘열두시만국’을 얻어 음력 7월 14일에 지상에 내려왔고, 이 법으로 백중살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세경본풀이는 농경기원신화이고 백중은 신의 일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일로 볼 수 있음.

- 농경신으로는 문도령과 자청비 그리고 남성성을 지닌 목축신은 정수남이 인데, 일반적으로 농경신이 여신인 것은 오곡의 종자와 열두시만국의 지모신으로, 여성 뒤에 가로 놓인 생산과 번식의 신비로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애정성취담의 신화적 의미는 곡물 수확이 ‘암수 결합에 의한 열매 맺음’의 논리적인 원리가 적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남장과 여장의 의미는 남녀양성의 내재적인 양성결합, 양성구유의 상태로 우주적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농경신과 목축신과의 상관성은 마소가 농업에 필요한 데서 파악됨. 특히 하세경인 정수남이를 자청비의 신의 종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농업에 남성성의 힘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함.
- 세경신 자청비는 농경의 신으로 천상의 신인 문도령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온갖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다해 대응하며, 결국은 열두시만국 세경 너른 땅과 오곡의 씨를 부여받음으로써 농경신으로 좌정함.
- 여성으로서 접지되는 것은 재물이나 정성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으로 나오는데, 이는 천신의 도움이 필요한 지모신의 탄생을 의미함. 천상의 도움과 하늘에서 가져온 곡종(穀種)으로 지상의 풍요를 가져옴.

## 나. 세경본 대강

- 자청비의 부모는 자식을 얻기 위해 기자정성으로 절에 수륙을 들여서 귀한 딸을 얻음.
- 주천강 연못에서 빨래하다 하늘옥황에 공부하러 가는 문도령에게 물에 버들잎을 띄워주고, 자신이 자청비의 남자동생이라고 속이고 남장을 하고 동문수학함.
- 자청비는 문도령에 비해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그녀가

여성임을 확인하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함.

- 문도령이 부모에게 혼인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고 사랑을 고백한 후 서로 '본메'를 주고받고 헤어짐.
- 자청비는 정수남이 문도령을 만났다고 하는 꾀임에 넘어가 겁간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지혜를 발휘하여 정수남을 죽임.
- 부모는 노동 일꾼과 같은 종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청비를 집에서 내쫓자 자청비는 종을 살리는 생명꽃을 따기 위해서 서천꽃밭으로 감.
- '서천꽃밭'의 부영새를 잡아서 '황새곤간'의 사위가 되고 환생꽃을 꺾어 다 종을 살리지만, 딸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한 부모들은 결국 자청비를 집에서 내쫓음.
-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청태산마구할망'의 수양딸이 되고 문도령의 혼수용 옷에 '자청비'를 새겨 문도령에게 올려 보냄.
- 문도령은 자청비라는 이름을 듣고 지상으로 내려와 자청비를 만나려고 하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돌려보낸 일로 인해 '청태산마구할망'은 자청비를 쫓아냄.
- 자청비는 옥황의 선녀들이 물을 뜨러 왔을 때 연못을 알려주고 같이 승천해서 문도령과 상봉하게 되는데 부모는 아들을 찾아 온 자청비를 같은 방에서 머물도록 함.
- 자청비는 시아버지의 수수께끼를 통과하고 숯불 위에 세운 칼선다리를 걷는 시험에 통과하여 머느리 자격을 얻고 지상으로 내려 옴.
- 자청비를 탐내는 주변의 남자들이 문도령을 죽이자 남장으로 서천꽃밭으로 가서 꽃감관의 사위가 되어 생명꽃을 따고 와서 죽은 남편을 살림.
- 자청비는 남편에게 서천꽃밭의 사위 역을 부탁하고, 자신한테도 각각 일정기간 살도록 했으나, 남편은 서천에 가서 돌아오지 않아 기별을 부쳤는데, 말 안장을 뒤로 하고 거꾸로 타고 와서 자청비는 화가 남.
- 하늘 천자국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가 참가하여 평정하고 서천꽃밭에 살던 문도령은 자청비한테 돌아옴.
- 자청비는 여러 공업의 덕으로 옥황상제로부터 오곡의 씨와 열두시만국을 하사받고 지상으로 돌아옴.

- 테우리 종인 정수남을 만나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은 각기 상·중·하세경으로 좌정하고, 맨 마지막으로 메밀씨를 가지고와 메밀농사의 농사법을 마련함.

## 다.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경계존재로서의 여성인물에서 자청비의 남장은 생물학적 남성이 사회적 남성으로 활동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청비는 소녀-(남북)-부인-(남북)-세경신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천꽃밭에서의 과제해결과 생명꽃의 획득으로 통합됨.<sup>34)</sup>
- 여성인물들은 다차원적인 신성의 존재임, 서천과 이승을 오가면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되풀이해서 마련하는 농경신 자청비의 행적이 나타남.
- 매개 공간인 서천꽃밭은 죽음의 세계이자 새로운 생명이 생성되는 근원적 공간으로, 이 공간을 통해 영원한 삶을 꿈꾸는 무속적 상상력이 실현되고 있음.
- 자청비라는 인물은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인 인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동적인 존재라 할 수 있음.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세경본풀이>는 오곡종자를 가져다 준 농경기원(農耕起源) 신화이면서 농축신(農畜神)에 관한 신화인데, 애정성취담이나 양성구유는 농경 풍요의 원리로서의 전범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음.<sup>35)</sup>
- 신화에서 여신은 농경에 있어서의 잉태, 열매 맺음, 번식능력과 관련이 깊음.
- 남녀의 사랑이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농경의 곡물 수확이 ‘암수의 결합체’에 의한 열매 맺음’에 기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는 곧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인 상태, 남

34) 강진옥, 2005,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회.

35) 정진희, 2013, “풍농(豐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호,

너 양성의 내재적인 성결합의 상태를 뜻함, 여기서 즉 양성구유의 상태는 우주적 풍요와 관련해서 이해가 가능함.

- 농경신화로서의 궁극적인 문화사적 체계는 농경신격의 정당성, 제사의 기원, 의례의 당위성과 아울러 농사의 시작과 농경법 마련, 작물의 파종 시기 등을 규정하고 목축신, 천신과 함께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을 마련하는 데서 확인 됨.
- 풍요기원의 세경신화 속 주인공 자청비는 곡물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의 어머니임. 자청비에서 확인되는 모성성은 농본사회의 내재된 잠재력을 함축하고 있음
- 자청비가 오곡(五穀)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거나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농사지를 땅을 얻는다거나 농사를 위한 우마 증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은 곡모적(穀母的)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8. 문전본풀이

### 가. 개요

- <문전본풀이>는 집안을 지켜주는 성주신을 위한 <제주큰굿> 제차 중 <문전맞이제>에서 불리는 제주도의 무속신화임.
- <문전본풀이>는 집안의 여러 공간 즉 올래의 주목정살과 동서남북 중앙 및 뒷문과 앞문 그리고 부엌과 측간을 지키는 신들에 관한 본풀이로, 아버지는 '정살지신'으로, 어머니는 부엌의 '조왕신'으로, 첩은 '측간신'으로, 일곱아들은 윗순으로 동서남북 중앙과 뒷문과 앞문을 지키는 신들로 좌정하는 과정을 잘 보여줌.<sup>36)</sup>
-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순종적인 여성으로 자식을 걱정하고 남편을 돕는 어머니의 단계에서 조왕신으로 좌정하는 통과의례적인 성향이 표출되고 있음.<sup>37)</sup>

36) 이수자, 1998,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회, 9쪽.

- ‘여산부인’은 ‘남선비’를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나 실패하여 결국은 스스로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첩에게 죽임을 당하는 전통적인 모성상의 전형이며, 나중에는 첩의 악행이 알려져 징치되고, 서천꽃밭의 환생꽃으로 살아나서 모신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부엌의 ‘조왕신’으로 좌정함.
- 악인형인 ‘남선비’의 첩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남의 남편을 가로채고, 섣량한 처 ‘여산부인’이 찾아오자 그녀를 죽임, 자신의 위치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변장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지만 어머니의 자리를 위협받아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은 징벌을 받아서 ‘측간신’이 됨.

## 나. 문전본 대강

- 남선비는 여산부인과 결혼하여 아들 일곱을 낳고 가난하게 살다가 배에 온갖 수산물을 싣고 무곡장사를 하러 오동나라로 떠남.
- 그는 오동나라에서 주막장사를 하는 ‘노일저대귀일의 딸’을 만나 그녀의 홀림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눈까지 멀게 됨.
- 여산부인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을 찾기 위해 아들들이 만든 배를 타고 짚신을 등에 지고서 오동고을로 갔으나, 눈까지 먼 남편은 부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초막에서 곤궁하게 지내고 있어 밥을 차려서 줌.
- 집으로 돌아온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에게 목욕을 하자고 해서 띄어 물속에 빠뜨려 죽임.
-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첩을 죽였다고 남선비에게 말하고 제주로 돌아옴.
- 아들 일곱 형제는 부모를 만났으나 자신의 어머니가 아님을 간파하고, 이를 눈치 챈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아들 칠형제를 죽이려 함.
-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피병을 앓으면서 남선비에게 문점을 하고 오라고 요청하고, 남선비의 눈을 속이기 위해 변장해서 지름길로 가서 점쟁이역을 담당함.
- 남선비는 문복장이를 찾아가서 문점을 하자 “아내의 병을 고치려면 아들

37) 유보경, 2015,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과 신격의 상관관계”-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를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42쪽.

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한다”고 점씨를 내어 줌.

- 청태산마구할멈이 불을 빌리러 왔다가 남선비에게 아내의 병을 고치려면 아들들의 간을 내어 먹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소식을 아들 칠형제에게 알려줌.
- 막내아들 ‘녹디생인’은 여섯 형들의 간을 내겠다고 자원해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멧돼지의 간을 내어 노일저대귀일의 딸에게 전함.
- 노일저대귀일의 딸이 간을 받아먹지 않고 숨기는 것을 본 형제들은 화를 내며 달려 들어가 그녀의 악행을 공개함.
- 노일저대귀일의 딸은 변소(통시)에 들어가 목을 매어 죽어 신체마저 찢기는 신세가 되고 척도부인이 되어 측간신이 됨.
- 노일저대귀일의 딸의 머리는 멘산이(매생이)와 툴, 감태가 됨.
- 눈은 망원경, 귀는 무선 전화기, 무전기가 됨.
- 코는 침통, 입은 마이크, 이빨은 대우살, 손은 글쟁이, 발은 곰배
- 젖은 해삼, 배포롱은 수두리보말, 배는 해파리, 똥구녕은 물문주리
- 창자는 짐지는 베, 손톱 발톱은 굴뚝, 음부는 전복
- 나머지는 방아에 넣고 찼어 바람에 날리자 모기와 각다귀가 됨.
- 남선비는 놀라서 도망가다가 정낭에 목이 걸려 죽어 정살지신이 되고, 아들들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얻어다 물에 빠진 자기 어머니를 살려 부엌의 조왕신으로 모심.
-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은 ‘문전신’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오방장군이 됨.

## 라.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문전본풀이>의 서사는 가족의 탄생 - 가족의 시련 - 시련의 극복 - 가족의 회복의 구조를 가지는데<sup>38)</sup>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 <문전본풀이>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머니와 아들 모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말자인 일곱째 아들 녹디생인의 역할이 커서,

38) 장유정, 2002,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14집.



말자(末子)중시의 제주도 가족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전본풀이>의 서사전개와 인물의 성격은 가족 구성원들 성격의 입체적 결합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함.
  - 이야기의 전개는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는 아들과 노일저대귀일의 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역시 시련 극복의 주체는 일곱 번째 아들인 ‘늑디생인’이고, ‘남선비’와 ‘여산부인’, 그리고 일곱 아들로 구성된 가족은 가난으로 인한 시련이 전제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됨.
- 아버지가 육지로 나가서 첩을 얻음으로써 생긴 새로운 인물 특히 여자의 등장은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더불어 시련의 원인으로 제공됨.
  - 남선비는 첩의 꾀임에 넘어가서 본처를 버리고 첩과 같이 살게 되는데, 정작 본처가 찾아와도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하고 아내를 죽인 첩의 말을 듣고 자식들마저 죽이려 함.
  - 아버지는 집안의 울타리를 관장하고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제주인의 눈에 비친 가부장제도 속의 인물형임.
  - 어머니는 혼자서 남편을 찾으려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주부상이나 신의를 버린 남편일지라도 밥을 해주면서 고향으로 데리고 오려던 중에, 노일저대귀일의 딸의 꾀임에 넘어가는 순진한 여성임
-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가족의 비극을 계모담(繼母譚)으로 엮어가면서 가신(家神)의 형성유래를 설명하는데, 흥미본위의 계모담(繼母譚)과는 다르게 제주도의 가신들의 내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sup>39)</sup>
  - 가족생활에 있어서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음.

## 마.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문전신은 제주도의 민속에 잘 남아있는 것으로 유교식 제사나 혼사 등의 의례시 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신에 대한 신앙이 잘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음.
  - <문전본풀이>는 문전신에 대한 신화로, 제주도 민가의 상방 앞의 있는 문에 좌정했다고 인식하는 신을 일문전이라고 함.

39) 현용준, 1992, 『문헌신화와 무속신화』, 집문당, 267쪽.

- 본풀이는 문신만이 아니라 부엌신인 ‘조왕’과 올래의 ‘정주목신’, 변소신인 ‘척도신’, 집 울타리안 오방(五方)에서 지키는 오방토신(五方土神) 등 가신(家神)들의 내력을 설명함.
- 여산부인은 죽은 후 아들에게 노닐저대귀일 딸의 간교한 꾀를 알려주어서 위험에 대처하게 했고, 결국은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으로 좌정했음.<sup>40)</sup>
  -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은 문화적 생산 공간이며, 가열하는 일은 자연적 산물을 문화적 산물로 변형하는 것과 등가를 이룸.
  - 여산부인은 문화적 변용에 익숙한 인물이고 생산적인 데 반해 굶주린 남편을 위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아궁이의 신이 되는데, 여기서 아궁이의 상징성은 소멸과 생산,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으로 죽음과 삶의 중층적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임.<sup>41)</sup>
  - 일곱 아들들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 누워있던 흙을 모아 떡시루를 만드는데, 이는 일곱 아들의 문화적 속성을 보여주는 내용임. 여산부인은 그 시루를 가지고 부엌에서 조왕신으로 좌정함.
- 노닐저대귀일의 딸이 받은 변소를 담당하는 측신(척간신)은 달갑지 않은 여신, 탈을 일으키는 여신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극단적이며 악질인 첩의 성격에서도 찾을 수 있음.<sup>42)</sup>
- 새로운 생산을 위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체환생을 통한 생산신으로서의 면모도 있음.
  - 노닐저대귀일의 딸의 시체는 모두 다른 생물로 태어나게 되는데, 몸의 일부인 팔, 다리, 눈, 손톱, 발톱 등은 소라, 전복과 같은 각종 해산물로 환생함. 이는 사체에서 다른 생물로 태어남을 의미함.
  - 죽은 사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자연의 순환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죽음과 삶은 생명현상이며 자연의 원리임.
- 여산부인과 일곱 아들들은 사면적 권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 여산

40) 김재용, 2004, “문전본풀이의 무속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84~85쪽.

41) 김재용, 2004, 앞의책, 86쪽.

42) 김정호·문범두, 2014, “한·일 사체 환생신화 연구- ‘노닐저대귀일의 딸’과 ‘오케츠히메노가미’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2집, 한민족어문학회.

부인은 아들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살리는 삶과 죽음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sup>43)</sup>

- 한 집안의 지도자이며 생산력의 주재자로서 여성인 만물의 어머니가 불을 주재하는 것은 사악한 것을 없애고 복을 가져온다는 데에 있음.
- 막내아들 녹디생인은 ‘칼선다리’를 놓아서 노닐저대귀일의 딸의 집안을 막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들을 죽이려고 가는 칼을 빼앗아서 산에서 돼지를 잡는데 사용함. 여산부인 역시 부엌에서 칼과 불에 익숙한 데 이러한 점에서 샤먼적 성격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음.
- 여산부인이 조왕신이 된 것은 단순히 부엌과 불을 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무속의 신으로 좌정하여 한 집안의 불행을 행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모신성의 역할을 지녔기 때문임.

## 9. 칠성본풀이

### 가. 개요

- <칠성본풀이>는 고팡(庫房), 창고, 옥, 과일 등을 지키며 풍농과 부를 지켜주는 뱀신에 관한 본풀이로 <칠성맞이제>나 큰굿의 <각도비념>에서 불리고 있음.<sup>44)</sup>
- 하늘의 칠성신에게 빌어 얻은 딸이 일곱 마리의 뱀을 잉태하자, 부모는 무쇠곽에 담아 바다에 띄움. 무쇠곽이 제주섬에 다다르자 칠성신들은 육지로 올라오려고 하였으나 미리 좌정한 신들에 의해 거절당하고 함덕리 해안가로 올라옴.
- 함덕리 해녀와 송첨지 영감이 곽을 열자 뱀 일곱 마리가 슬슬 기어나와 투하고 침을 뱉자 부정이 타서 죽게 되었는데, 뱀을 위하라고 해서 <칠성굿>을 해서 병도 낫고 부자가 됨.

43) 김재용, 2004, 앞의책, 92쪽.

44) 이수자, 1998,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회, 9쪽.

- 본토의 업 신앙이 제주도로 유입되어 정착되는 과정과 제주도의 토착신과 외지에서 들어 온 신간의 상호갈등을 잘 보여 주고 있음.<sup>45)</sup>
- <월정본향당본풀이>와 전반부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칠성본풀이>는 당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일반신본풀이, 조상본풀이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진 서사물임을 알 수 있음.<sup>46)</sup>
  - 특정한 장소에 태어난 주인공이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바닷물에 버려졌다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신과 대결하고 좌정처를 정하고 단골을 확보하는 것은 당본풀이의 전형이기도 함
  - <칠성본풀이>는 지상에서 해상, 해상에서 지상으로 수평적 세계관의 이동을 보여주는데, 이는 제주도 본풀이가 지상의 칠성신앙과 결합된 특별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나. 칠성본풀이 대강

- 장설룡과 송설룡이 부부를 맺었으나 자식이 없어 칠성기도를 드려 칠성애기씨인 딸을 얻음.
- 부모가 벼슬살러 가게 되어서 종에게 아기씨를 맡기면서 잘 돌보고 있으면 돌아 온 후 종 문서를 벗겨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기씨는 몰래 쫓아나와 가마뱃줄을 잡고 가다 손을 놓고 길을 잃어서 각단밭(억새밭)에 뒹굴어 다님.
  - 종인 ‘정하님’은 아기씨를 잃어서 찾지 못하자 ‘송설룡’ 부인에게 편지서신을 띄움. 부모는 아기씨가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옴.
  - 중의대사는 장설룡과 송설룡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씨 집으로 오다가 아기씨를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손을 잡는 아기씨를 보니 온몸은 피가 낭자하고 새가 눈마저도 쫓아버린 상태임.
  - 아기씨의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의 모습으로 배는 두렁배가 되었는데, 물에 비춰 보니 배 속에는 뱀 새끼 일곱과 어미까지 합해 여덟 마리의

45) 김호성, 2017,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연구:업 신앙의 제주도 이입과정을 중심으로”, 경기대대학원 석사논문, 5쪽

46) 김현선, 2005,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고전문학회, 241~285쪽.

뱀이 보임.

- 부모는 자식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고 무쇠곽에 담아서 바다에 띄워버리자 삼년을 떠다니다가 제주땅으로 들어오게 됨.
  - 제주시 '산지칠머리용궁감찰지방관'을 거쳐서 화북동 '가릿당한집', 삼양동 '시월도병서', 삼양일동 설개마을 '강남하르방', '강남할망', 신촌은 큰물머리 '김동지', '고동지', '홍동지' 영감 한집, 조천은 '정중아미', '정중도령', '정중부인', 신흥은 '대방황소축일한집', 신흥 알당 '불레낭할망당' 합덕, '동편금서서편왕서급소황하늘', 알동네 혼물, 두물, '서물한집', 북촌 '영산주노산주한집', 동북은 '생여(상여)하르방', '생여할망', 김녕은 '큰도안전큰도부인', '노무리케네기', 월정은 '서당팻한집황정승따님', 행원은 '나주목사나주판관', 한동은 '구월구일한집', 평대는 '수대깃도', '갯마리명동소천국', '상세화리천조백조또', 하도는 '도궐로도집서'에게 갔으나 좌정한 당신들의 거부로 인해 합덕 서우봉으로 들어옴.
- 설곽이 '무에낭상가지'에 걸려서 합덕에 떠오르자 일곱의 잠녀(해녀)들은 각자 나눠서 갈라가지려고 싸울 때, 알선할 어부인 송첨지 영감이 책갑을 담배갑이나 하겠다고 하면서 열자 뱀들이 꼬리를 물고 줄줄이 나옴.
  - 해녀들은 뱀을 보고 투 더럽다고 침을 뱉자 뱀들은 숨비기슭 아래로 들어가고 일곱의 잠녀(해녀)들은 눈과 귀가 아파서 별 약을 써도 좋지 않아, 그 원인을 이원신에게 문점을 하자 일곱석을 쳐 곳을 하도록 함.
  - 해녀들은 '셋사스미' 아래로 가 곳을 해서 일곱 조상들을 위하자 피부병이 좋아지고 대전복, 소전복 등 해산물들을 따게 되어, 해녀들과 어부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뱀신에게 제향을 베풀기 시작함.
- 뱀신을 위하는 것에 화가 난 합덕 당신 '동편금서서편왕서급서울라황하늘'은 석달 열흘 백일 앓아 있어도 위하는 이가 없자 들굽낭작대기(막대)로 잡아서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 칠성 뱀신의 어머니는 소로 길로 숨어서 밤에 이동하자고 하며, 합덕 금서물, 조천 만세동산, 신촌 열려문, 신촌 진드르, 돌송이, 삼양 드른돌, 화북 쌀상두거리를 지남.
  - 화북 '베릿내'에서 몸 목욕하고, 'ㄱ으니ㄱ루'에 올라가니 애가 마르고, 막동산에 가니 송사나 재판할 생각도 없고, 사라봉에는 죽은 무덤이 가

득하고 동문서문 남문을 잡아버려서 산짓물로 가서 목욕함.

- 칠성골로 들어가서 관덕정 맏돌위에 가니 지동토인이 창으로 제치자 배 부른 동산에 가서 떨어짐,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저서 해짓골로 가서 칠성골을 다니면서 이름을 지어둬.
- 송침이 할망이 치마를 벗어두자 뱀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병이 들어, 외국에서 들어 온 조상이 칠성에 걸렸다고 해서 치마폭에 담아 구석을 다 돌아다님.
- 큰딸은 대정원 상 받는 데로, 둘째는 현감 상 받는 데로, 세째는 목관아지 상 받는 데로, 네째는 새각시 상 받는 데로, 다섯째는 동안으로, 여섯째는 과원할망으로, 어머니는 안고팡에 안칠성으로 밖으로는 뒷할망으로 좌정함.

○ 일년에 칠갈이를 봄가을에 두 번 받고 삼월 삼짓날 되면 땅 속에서 궁기 궁기 다 찾아 나오게 됨.

- 제주시 칠성골로 들어와 송대장 집을 부자로 만들어 준 뒤 고팡을 차지하는 안칠성이 됨.
- 칠성애기의 일곱자식 뱀은 각각 추수할망, 옥지기, 과원할망, 창고지기, 밭칠성 등을 차지하고 일년에 칠갈이를 두 번 받는데, 봄에는 봄 칠갈이, 가을에는 가을 칠갈이를 받음.

## 라.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제주도 뱀신화에는 출생삽화(出生挿話), 입도내력삽화(入島來歷挿話), 숭배내력삽화(崇拜來歷挿話)로 짜여져 있음.<sup>47)</sup>

- 출생삽화는 칠성기도로 여아를 출생하였는데, 북두칠성 신앙이 수입된 이후, 북두칠성의 영기로 7녀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용하여 사신신화(蛇神神話)가 개편됨.
- 입도내력 삽화는 중의 아기의 잉태, 석함추출, 칠녀출생, 사신변신 표착 화소로 구성되는데, 중의 아기를 잉태한다거나 일곱 딸을 낳는 것은 불

47) 현승환·현용준, 1995,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연구”,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29~30쪽.

교와 북두칠성 신앙 수입 이후의 요소이며, 석함 추출이나 사신변신 표착화소는 고대적 화소로 봄.

- 숭배내력 삽화는 함덕리 해녀들이 조상신으로 모시는 것과 칠성골 송대장 집의 조상신으로 숭배하게 된 내력이며 또 여덟의 모녀가 각처를 관장하여 숭앙을 받게 된 내력으로 구성됨.
- 신의 성격은 농신, 곡신, 부신의 성격을 지니며 관청 관계의 신이면서 수신(水神)적 성격을 띠고 있음.
- <칠성본풀이>의 신화 구조는 조상신, 당신, 일반신의 성격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조상신에서 출발하여 당신으로 확대되다가 보편적인 신으로 인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sup>48)</sup>
- 조상신의 성격은 특정 개인과 뱀 신이 결연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음.
- 당신(堂神)은 조천읍 함덕리에 칠성당을 만들거나 제주도 마을 곳곳을 옮기면서 영향을 끼쳤다는 대목에서 드러남.
- 일반신의 성격은 제주도 대부분 가정에서 '안칠성'과 '땃칠성'으로 좌정하여 부신(富神)의 역할을 하는 양상에서 드러남.
- 본풀이에서 조상신 뱀이 조상신의 성격이 강할수록 단독으로 나타나고 있음.<sup>49)</sup>
- 비인격 일월조상으로서 칠성만큼 대접받는 대상이 없는데, 신앙민이 뱀을 모실 때는 '태운조상'으로 모셔서 자기에게 맞아들임.
- 태운 조상이라는 의미는 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는 것이며 극진히 잘 모시면 신앙민들에게 '명'과 '복'을 준다고 인식함.
- 일반신 성격이 강할수록 북두칠성의 모티프가 추가되고 있는데, 뱀에 북두칠성이 끼어들면서 두루 '칠성'이라고 부른 것으로 추정됨.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외지에서 들어온 신이 제주도 본향당신 텃세에 밀려서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면서 도성 안을 정하는

48) 강소진, 2016,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 27, 실천민속학회. 205쪽.

49) 강소진, 2016, 윗글, 209 쪽.

것은 제주도에서 숭앙하는 신이 신격화되는 생생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sup>50)</sup>

- 집안의 각처를 관장하고 있는 가신들에 대한 제의인 <각도비념>은 본토의 가신신앙과 일치하는데, 칠성은 안칠성과 밭칠성으로 나뉘고 안칠성은 ‘연양상고광’의 쌀독을 지키는 신이고, 밭칠성은 집 뒤에 있는 ‘칠성눌굽’의 신으로 본토의 제석신이나 업, 터주가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음.
- 칠성신앙의 제주도적인 특색으로 인간에게 재(財)와 부(富)를 가져다주는 구렁이인 뱀 신앙으로서의 칠성신앙이 존재하며 일곱 딸애기를 중심으로 칠성각, 칠성제의가 성립하고 안칠성, 밭칠성으로 모시는 칠성신앙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는 신앙하는 업이나 터주 등이 제주도 신앙의 변이 유형으로 판단됨.

○ <칠성본풀이>는 기존의 뱀 신앙에 나주의 뱀 신앙을 보태고 부군신앙을 보태면서 일반신 본풀이로 발전한 후 칠성신의 권위를 가져와 신성성을 확보함.<sup>51)</sup>

- 칠성은 칠원성군으로 명과 복을 비는 신앙인 반면 뱀은 다산과 풍요 신격으로 둘은 거리 차이가 있는데 제주에서는 뱀 칠성을 부군칠성(府君七星) 혹은 부군칠성(副君七星)이라 함.
- 부군(府君)이라 하는 것은 칠성신들이 좌정하는 곳이 관청의 여러 건물이며, 조선시대의 관아에 모셔지던 신당인 부군당이 지방 관아에 까지 파급되어 지방의 민간신앙으로 확산됨.
- <나주기민창본풀이>에서 곡식 창고의 신이 제주로 옮겨오는 것과 같은 부군이던 제주의 뱀 신앙은 육지와와의 교류 속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음.

○ <칠성본풀이>는 칠성 기자형에서 확인되는 칠성 신앙적 속성이 있으나, 칠성신화보다는 사신신앙에 치중된 변이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이 풍요신의 관점에서 융합되고 있음.<sup>52)</sup>

50) 김현선, 2005, 앞의 글, 276쪽.

51) 허남춘, 2015,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11~12쪽.

52) 변숙자, 2014,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의 양상”, 『탐라문화』 46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 <사신본풀이>는 사람이 뱀으로 변하여 사신이 되는 경우로, 여기서는 뱀을 칠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데, <칠성본풀이>나 <칠성새납>의 뱀을 ‘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본풀이의 영향임.
- 칠성기자 화소에 보이는 칠성신의 행위는 실제 장수(長壽)와 기자(祈子)치성을 목적으로 하는 칠성본풀이의 영향임.

## 10. 지장본풀이

### 가. 개요

- 제주도 <큰굿> 및 <작은굿>에서 불리는 지장본풀이의 여신 ‘지장’은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전새납굿>을 벌이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신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풀이임.<sup>53)</sup>
- <시왕맞이> 제차에서 <강님차사본풀이>, <사만이본풀이> 구연 후 또는 <나까시리도전침> 또는 <나까시리놀림>에서도 구술됨.
- 이용옥 본의 구조를 보면 1)지장아기의 출생과 성장 2)결혼과 시집살이 3)예언에 따른 일과 굿 4)죽음과 돌부처의 변신으로 구성됨.<sup>54)</sup>
- <지장본풀이>는 굿하는 본주와 영가의 관계를 환기하는 내용이 중심임.<sup>55)</sup>
- 지장이 죽은 영가를 위해서 <전새납굿>의 공업과 새(鳥)로의 ‘환생’을 지장의 ‘희생’으로 해석하면서 그녀의 삶과 결말은 성과 속의 양면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음.
- 친족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명주를 짜고 큰굿에 쓸 폐백을 만들었으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걷고 심방을 불러서 차려진 제물로 영가를 위한 굿을 하고 자신은 죽어서 ‘새’로 화함.

53) 이수자, 2004, 앞의 책, 143쪽.

54) 한진오, 2009,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 연행방식 고찰”, 『탐라문화』 35, 탐라문화연구원, 47쪽.

55) 김현선, 2005,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연구”,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116쪽.

- 이용옥 본 결말부분에서는 다른 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새’가 아닌 ‘통부처(돌부처)’로 변하는데, 이는 지장아기의 <전새남굿> 등 그녀의 공업을 인정하여 부처로 화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성성과 부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짐.
- 지장의 내력을 풀어 인간에게 질병과 재앙을 주는 ‘새’를 없애는 제의적 의의가 있는데, 이는 백정 집안의 <거무영청대전상>에서 <지장본>을 구송하는 것과 관련됨.
- 백정집안에서 하는 <도살아지장>을 푸는 것은 말, 개, 소 등을 잡는 백정의 집의 액을 막는 제의적 성격이 강함.
- 백정이 굿에 쓰일 희생제물을 마련하기 위해 살생하는 것이 지장을 불러일으키는 죽음 및 살생의 기운과 연결된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으로, 도살을 생업으로 삼는 백정집안에서는 부정적인 성격의 지장이 수호조상으로 섬김을 받음.

## 나. 지장본 대강

- 남산과 여산이 자식이 없어 탄복하다가 절에 가서 원불수륙을 드려서 지장아기씨를 낳음.
- 한 살 때는 어머니, 두 살 때는 아버지, 세 살 때는 할아버지의 연조새와 노닐을 하다가 네 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고, 다섯 살 때는 아버지, 여섯 살 나는 해에 어머니 모두가 죽게 됨.
- 갈 데 올 데 없는 지장아기씨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외삼촌댁으로 가서 살게 되지만 온갖 박대를 받아 고생하면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자 하늘의 옥황새가 날아와서 몸을 덮어줌.
- 착하다고 온 동네에 동서로 소문이 나고, 십오 세가 되어 하늘 옥황의 문도령 집에서 중신이 와서 결혼한 후, 그날 아들을 포태하자 시집에서는 기뻐하며 온갖 재물과 재산을 모두 물려줌.
- 시집 간 후 열여섯이 되자 시할망, 시하르방이 죽고, 열일곱에는 시아버지가 죽으며, 열여덟이 되는 해에 시어머니가 죽고, 열아홉에는 남군과 아들이 차례로 죽음.

- 시누이에게 찾아가자 온갖 욕을 다하면서 지장아기씨에게 화풀이 하자, 갈 데 올 데 없는 지장아기씨는 집을 나옴.
- 지장아기는 하는 수 없어 대사님과 소사님에게 사주팔자를 묻자, 초년에는 좋은 팔자이나 중년에는 궂고, 말년운수가 좋으려면 전세남과 후세남 곳을 하라고 예언해 줌.
- <전세남곳>의 궂거리 제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천서역국에 가서 뽕나무를 얻어다 심고 누에를 키워서 명주를 만들어 신다리용 천과 끈(아강베포)과 줍치(호롱줍치), 극보야잘리(자루)를 장만함.
- 머리를 깎고 송낙을 써서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재를 올릴 권제를 받아 곳에 쓸 재물을 마련함.
- <전세남곳>을 올린 후 지장아기씨는 죽어서 인간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통부처의 몸으로 환생함
- 서천꽃밭의 새를 쫓는 <새드림> 의례를 행함으로써 새를 쫓아 액을 막는 제례의 법을 마련함

#### 다.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sup>56)</sup>

- <지장본풀이>에는 지장아기씨의 평범함과 비범함이 잘 드러나며, 서사구조로는 출생-성장-덕업(전세남곳)-부정한 새의 ‘환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공업 부분에서 ‘덕업’은 신화 속 주인공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행위를 보여주는 부분임, 지장아기씨는 제주신화의 문화여성들과는 달리 평범하고 약한 인물로 영웅 신화적 인물은 결코 아님.
- 새의 두 가지 의미는 원혼과 제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살의 기운’과 관련된 지장본의 새는 결과적으로 제의를 통해 탄생한 새임.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sup>57)</sup>

- <지장본풀이>는 여느 본풀이와는 달리 숭앙되는 신의 내력을 푸는 본격

56) 전주희, 2015,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연구”-지장과 새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무속학』 31, 한국무속학회.

57) 김현선, 2005, 앞의 글.

무속신화가 아니라, 의례의 효험을 증거하는 본풀이 즉 의례근거 무속신화로써 <새드림>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며 제차에서 구축하는 ‘새’ 처럼 지장본의 ‘새’ 역시 부정한 것으로 인식됨.

- <지장본>의 새와 <새드림>의 새는 다른 신에 대한 변신이 같은 새로 되었는데, <지장본풀이>의 새나 <새드림>의 ‘서수왕따님애기’가 변신한 새의 기원은 다르지만 구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거의 동일한 제의적 성격, 곧 사를 물리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sup>58)</sup>

## 11. 맹감(스만이)본풀이

### 가. 개요<sup>59)</sup>

- 맹감은 그 자체로 <작은굿> 또는 <비념>의 명칭이면서 의례에서 중요하게 불리는 무가로, 의례의 명칭은 <맹감>, <맹감코스>임.
  - <맹감본풀이>는 당곳의 <신과세제>나 큰곳의 <시왕맞이> 또는 액막음에서 <도액막음>으로 구송됨.
  - <스만이 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인 ‘스만이’가 사냥으로 업을 삼는 과정에서 해골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상으로 잘 대접해서 부자가 되고 정해진 명(命)도 잇는다는 주인공 신명 때문임.
  - 맹감은 농업, 목축, 수렵과 관련한 생업 풍요신으로서의 맹감, 수렵신으로서의 맹감, 액막이로서의 맹감임.
  - <액막이>로서의 맹감은 저승사자와 관련한 맹감임.
- 이용옥 본의 ‘들어가는 말미’에 등장하는 맹감은 1)천지창조 관련 맹감 2)방위관장의 맹감 3)영역과 생업 관련 맹감 4)산신, 용왕, 선왕, 세경, 책불, 물도, 세경, 당주 등 78 맹감이라고 나오고 있음.
  - 관직, 직분, 직성과 관련한 신격으로 맹감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8) 한진오, 2009, 56쪽.

59) 김형근, 2009,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이 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탐라문화』 36, 탐라문화연구소.

## 나. 스만이본 대강

- 주년국 ‘스만이’는 조실부모하여 가난하게 살았는데, 안부인을 만나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먹고 입을 것이 없던 차에, 부인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주며 먹을 것을 사오도록 함.
  - 스만이가 장에 가서 머리카락을 팔고 집으로 오는데 한 청년이 충의 유용성을 선전하자 귀가 솔깃해져서, 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길가의 먹구슬 나무에 걸어두었는데 아내는 쓸데없는 것만 하고 다닌다고 불평함.
- 백골은 나무 아래로 떨어져서 땡글 거리면서 자신을 위해 주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함.
  - 백골을 안고광에 모셔 조상신으로 위하자 노루, 사슴 등 사냥이 잘 되어 부자가 됨.
- 스만이 조상들은 자신들을 위하지 않고 백골만 위하는 것을 보고 초공문에 앉아서 지켜봄, 이를 안 염라왕은 스만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삼차사를 내려 보냄.
  - 백골은 스만이의 죽음을 걱정하면서 굿을 해서 저승 삼차사를 잘 대접하면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가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액(放厄)을 하도록 함.
- 스만이를 잡으러 왔던 저승 삼차사는 정성스런 대접을 받아 저승의 명부문서를 고쳐 스만이의 정명을 삼천년 살도록 늘려줌.
  - 대신에 삼척동자와 같은 ‘동방색이’를 잡아가서 대충함.

## 다. 문학적 연구로서 구성과 특징

- 핵심 서사단락은 스만이와 해골과의 관계 속에서 무가내용이 구성되고 있음.
  - 스만이의 1차적인 가난은 해골을 섬김으로써 극복되고, 죽음이라는 2차적인 고난도 해골이 도와 줌.
  - 신물을 획득한 자인 스만이가 여러 고통들을 헤쳐 나가는 것은 통과의례적인 서사구조에 해당함.

- 사냥을 업으로 삼는 자가 사냥 을 잘 대접하여 두 번의 영험함을 얻게 됨.
- 서사단락은 1)스만이의 총 구입 2)해골 습득 3)해골에 대한 정성과 부의 축적 4)스만이의 죽음 직면 5)해골의 도움으로 죽음 모면으로 구성됨.
- 전반부는 총을 얻고 해골 습득을 통해 해골을 신으로 모심으로써 사냥이 잘 되어 사냥꾼으로 성공하고, 후반부는 저승차사를 잘 대접해서 정명을 연장함.
- 본풀이의 전반부 내용은 수렵 업신으로서 맹감적 의미가 강함, 후반부는 액막이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해골은 전·후반부를 통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라.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가치

- <맹감본풀이>는 과거에는 사냥했던 집에서 사냥이 잘 되도록 빌 때 맹감신, 곧 ‘산신맹감’인 수렵 에게 기원하는 의례에서 불리고 지금은 액막이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맹감본풀이>가 가지는 수렵신 계통의 부신적 기능은 수렵수호신을 당신으로 섬기는 산신 계통의 당신본풀이의 영향도 강함.<sup>60)</sup>
- <맹감본풀이>의 백골은 조령신(祖靈神)과 생업수호신적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신적 기능과 면모는 당신(堂神) 또는 조상신적인 성격을 지녀서 일가수호신이나 부락수호신적 특성도 지님.
- 백골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은 당신(堂神)이 신앙민들에게 존재를 현시하는 것과 유사함.
- 백골을 떨구술 나무에 걸어두어 신의 좌정처로 삼는 것으로 당신(堂神)들이 팽나무 아래에 와서 좌정하는 것과 유사함.
- 백골이 안고팡에 좌정하는 것은 칠성본풀이의 뱀신이 안칠성으로 좌정하는 것과 유사, 백골이 수렵의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생업수호신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줌.

60) 권태효, 2000,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 한국민속학회, 153쪽.

- 조상신들이 노한 것을 본 염라왕이 차사를 보내서 스만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려 할 때 백골에게 굶을 해서 액막이를 하도록 하는 모티프가 있는데, 육지부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과 성격의 무가들이 전해짐
- 죽는 것을 모면하고자 액을 막는 데는 목숨을 대명(代命)할 동물의 희생이 필요로 하는데, 이는 수렵신의 기능과 맥이 닿아있음.

## IV.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연구 방법

- 제주신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정책적으로 다루고자 할 때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 제주도는 세계 여러 민족의 사례와 견뎌볼 때, 구전신화를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특수하게 보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주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이런 점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상식’이기에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는 점도 있다고 판단됨.
  - 학문적 연구이건 정책적 제안이건 가장 상식적인 점을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여러 민족의 동계 자료와 견뎌볼 때, 그 ‘상식’이 제주신화만의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임.
- 신화의 전승은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문헌전승(예: 단군신화, 주몽신화 등 대부분의 건국신화, 또는 특정 성씨의 기원을 설명하는 씨조신화 등)의 전단계(前段階)가 구비전승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헌전승은 상층 정치권력 집단(또는 한자의 권위에 기댄 문자기술(文字記述) 집단)의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고, 변이가 상대적으로 비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정적 텍스트라면, 구비전승은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하층 집단(또는 口碑記述 집단)의 생활 민속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고 변이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동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음.
  -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 전승 현황과 대비해 볼 때 제주처럼 구비전승의 형태로 신화를 전승하고 있는 민족은 희소함.
  - 제주신화는 구비전승의 형태로 신화를 전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화사적 위상과 가치를 지님.
- 신화가 구비 전승되는 형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담처럼 그 전승 주체나 범위가 특별히 한정되지 않은 채 전승될 수도 있고, 전설처럼 특정 지역민이 전승주체가 되어 한정된 채 전승될 수도 있음.
  - 제주 신화의 경우 당본풀이(일부 조상본풀이 포함)는 전설 전승의 형태를 일부 갖고 있음. 그런데 신화 전승의 전승력(傳乘力)을 가장 강력하게



확보해 주는 것은 제의(祭義) 곧 굿이라고 할 수 있음. 제의가 있어야 신화가 전승될 수 있고, 신화가 있어야 그것에 기초하여 제의가 체계적으로 연행될 수 있기 때문임. 말하자면 신화와 제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것임.

- 제주신화는 신화와 제의가 상보적 관계를 이뤄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음. 제주신화는 신화와 제의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즉, '살아 있는 신화'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신화를 <당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상황임. 이들 신화와 제의가 상보적 관계를 이뤄 전승되고 있다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들 각각의 신화적 특성이나 상호 관계를 염두에 둔 관점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그것은 이들 신화가 제주신화의 전승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임.
- 그런데 세계 신화 전승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제주신화처럼 각종 층위의 신화가 이처럼 체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곳은 희소함.
- 동아시아의 몇몇 민족에게서 제주신화처럼 신화가 체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곳이 있을 뿐임. 예를 들면, 중국 동북 지역의 만족(滿族), 운남 지역의 나시족(納西族),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족이 이에 해당됨. 이들 민족의 신화 분류 체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이는 제주신화의 체계성을 비교문학,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표 1. <만족(滿族)의 신화 분류 체계>

분류	神歌 명칭	神歌 내용
大神神歌	암바만니	‘암바’는 ‘大’의 뜻이고, ‘만니’는 ‘英雄’이라는 뜻임. 대영웅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바투루만니	‘용감한 영웅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도호론만니	한쪽 다리가 불구인 절름발이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후야치만니	역사적 인물인 戎馬를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류	神歌 명칭	神歌 내용
	마크시만니	춤신[舞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암바아리만니	‘아리’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임. 매우 사납고, 火繩을 갖고서 노는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쥬루만니	쌍창을 잘 다루는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니젠부쿠 바나에젠	‘부쿠’는 ‘무예에 통달한 사람’, ‘바나’는 ‘토지’, ‘에젠’은 ‘주인’이란 뜻임. 토지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디쿠만니 디라쿠만니	전투 중에 칼이나 창에 몸이 찢려도 들어가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신들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카한부쿠만니	망치를 들고서 적과 싸우는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후안만니	성미가 거친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레부쿠만니	필사적으로 돌격하는 영웅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란아리만니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 세 영웅’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주치자란마파	‘불타는 연못 위를 달리는 신령’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이신게쿠, 멩군케쿠	金舌鳥, 銀舌鳥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야친러후	黑熊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이다간 · 아이다간엔두리	野猪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르후 · 니오후	豺狼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투와야르하지하나	金錢豹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더예터샤엔두리	飛虎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린타샤	母臥虎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쿤다자비안메이허	八尺蟒蛇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암바다이푼다민가샤엔두리	‘큰 봉새와 수리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큐란지여훤	鷹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타라가샤잉가리가샤	曠野鳥와 할미새를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잔안가샤엔두리수루만니	‘백조와 흰 말’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분류	神歌 명칭	神歌 내용
	잔안무게가사엔두리	白水鳥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이신투와엔두리	金花火神(불꽃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투와무두리엔두리	火龍神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이신투라하엔두리	‘불 가운데에서 단련한 물건’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家神神歌	南炕	‘남쪽에 있는 부엌’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西炕	‘서쪽에 있는 부엌’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淘米	‘쌀을 깨끗하게 씻었음’을 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포도마마	만족의 대표 샤먼 가문인 石姓의 始母神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오둔마마	만족의 대표 샤먼 가문인 石姓의 ‘전투 여성 영웅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順星	별들에 대한 제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祭天	天神에 대한 제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求太平	태평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祭病灾	질병의 驅逐을 회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出兵	전장에 출병 시 승리와 안전을 회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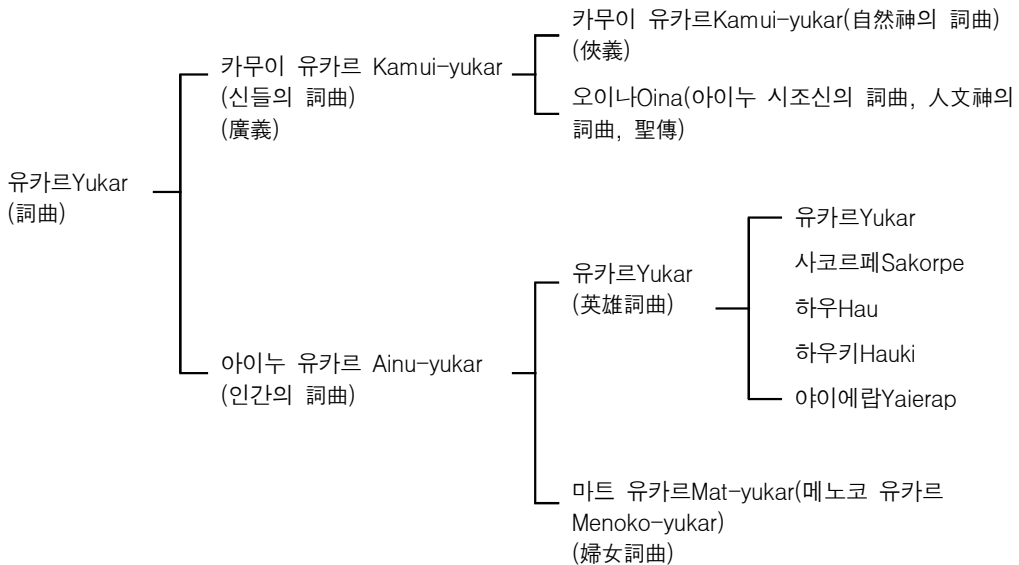
표 2. &lt;나시족(納西族)의 신화 분류 체계&gt;

분류	계통	神歌 내용
舊神	자연신	日神, 月神, 雷神, 雨神, 火神, 雲神, 地神, 電神 등 자연의 특징을 인격화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시조신	토텐숭배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창조신	세계를 창조한 신과 문화를 창조한 신으로 양분되어 있음. 이들 신의 출현, 역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생산신	物質 財富의 생산(목축, 수렵, 농업), 인류 자신의 생산으로 양분되어 있음.
	생활신	長壽神, 歡樂神, 灶神, 家神, 村落神, 門神, 遺祖神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新神	善神/惡神	나시족 신화의 신들을 그림으로 묘사한 ‘崇搬圖’과 관련이 있음. 白蛋과 黑蛋에서 탄생한 神鬼 계통의

분류	계통	神歌 내용
		善神과 惡神이 이에 속함.
最新神	외래종교에서 기원한 신	天界神靈(至尊神, 戰神 등)
		署神(자연 공간을 주재하는 신령)
		鬼神(惡神, 精怪, 外來鬼, 亡靈 등)

※ 나시족의 신화는 나시족의 토속 종교인 東巴教(한국의 무속과 유사한 종교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제의와 신화가 상보관계에 있음을 보여줌. 또한 자연신에서 점차 선악으로 구별되는 신으로의 변화과정, 외래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새로 신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아울러 제의와 상보관계에 있는 신화의 서사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특징도 있음. 나시족의 신화는 총 100권으로 집대성되어 출판되었음(부록 참조: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總目録).

표 3. <아이누의 신화 분류 체계>



- 카무이 유카르(Kamui-yukar, 신의 유카르): 카무이 유카르는 ‘실제 있었던 것을 말로 모방하여 표현하다’, ‘신들의 언행을 인간이 언어로 모방·재현하여 서술하다’라는 의미임. 카무이 유카르(神謠)라는 것은, 신들이

투스usu, 즉 巫女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스스로 서술하고 노래하는, 신화적 내용을 가진 서사시를 말함. 카무이 유카르에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동물 신, 식물 신, 물신物神, 화신火神, 풍신風神, 뇌신雷神 등의 자연신. 이 중 동물 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사시가 가장 많음. 인간이 일정한 법칙을 지켜 신들을 숭배하고 공손하게 제사를 거행했기 때문에, 이들 동물 신이 인간의 생활을 지켜주고 우미사치(海幸, 바다에서 얻는 사냥감)나 야마사치(山幸, 산에서 얻는 사냥감)를 부여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 이들 동물 신은 신들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세계에 나타날 때는 동물의 모습을 함. 인간도 될 수 있고 동시에 동물도 될 수 있는 것이 카무이 유카르에 등장하는 동물 신들의 특징임.

- 오이나(Oina, 인격신(人格神)의 유카르): 오이나는 ‘무술(巫術)로 망아(忘我)의 경지에 들어가다’라는 뜻임. 이것은 오이나가 신현(神現)의 상태에서 발생한 신탁가(神託歌)로부터 발달하였다는 것을 말해줌. 오이나의 주인공은 아이누 시조신으로서 천상에서 인간세계에 강림하여 아이누 문화의 기초를 개척했다고 믿어지는 아에오이나 카무이Aeoina Kamui, 즉 우리들이 말로써 계승하고 언어로써 전승하는 신임. 카무이 유카르와 비교해보면, 주인공이 자연신에서 인격신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서사시의 내용도 꽤 변모되어 있음. 인간 시조신 아이누락쿠르가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친 마신(魔神)을 징벌하여 그 기초를 공고히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내용임. 또 카무이 유카르에서는 신들이 인간에 군림하고 인간을 지배했던 데 비해, 오이나에서는 인간 시조신이 지배적인 위치가 되어 인간 생활의 행복을 보증하고, 신들은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되어 인간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게 됨.
- 유카르(Yukar, Ainu-yukar, 인간 영웅의 유카르): 유카르의 주인공은 아이누 민족의 이상적 신인(神人) 포이야운페Poiyaunpe임. Poi는 ‘어리다’를 뜻하고 yaunpe는 ‘내륙인’, 즉 어린 아이누인을 뜻함. 유카르 한 편은 주인공이 행하는 전투의 수에 따라 삼전기(三戰記), 육전기(六戰記), 팔전기(八戰記) 등의 몇 단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삼전(三戰)의 노래, 육전(六戰)의 노래, 팔전(八戰)의 노래 등으로 부름. 유카르는 아이누 민족의

전기문학(戰記文學)인 것임. 유카르는 북해도(홋카이도)를 근거지로 하는 야운쿠르(yaunkur, 내륙인, 아이누인)와 대륙 쪽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들어와서 북해도의 일본 해안 중부로부터 오호츠크 해안의 각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살던 레푀쿠르repunkur, 즉 도래한 이민족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 오호츠크 문화가 북해도 연안에서 번영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부터 800년 전(600년~1100년)까지의 약 500년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카르의 내용도 대체로 그 무렵에 현실적으로 벌어졌던 민족적 갈등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마트 유카르(Mat-yukar 또는 메노코 유카르Menoko-yukar, 여인의 유카르): 마트 유카르 또는 메노코 유카르는 북해도의 히다카(日高), 이부리(胆振) 지방에서 부녀자들 사이에 전승되고 있는 서사시로 여성이 주인공임. 대체로 유카르보다 노랫말이 쉽게 서술된다는 특징을 가짐. 여자이면서도 무기를 가진 남자와 싸워 패배를 당하지 않을 만큼 무력이 뛰어나고, 그런 주인공을 기르는 누이도 역시 무력이 뛰어나 당당하게 적에 대항하여 싸움을 거는 경우가 많음. 또 연애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카르와는 달리 꽤 노골적인 묘사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저주(咀呪)나 무술(巫術)도 끼어들어 있으며 요상하고 괴이한 내용도 다수 들어 있음. 여성들이 담당하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서사시는 세계 구비서사시의 역사에서 볼 때 대단히 특이함.

- 제주신화가 현재까지 구비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신화의 발생, 신화와 제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한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와 의의를 가짐. 이는 위에서 든 만족, 나시족, 아이누의 사례와 견줘봄으로써 그 특수한 가치와 의의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가능할 것임.
- 만족, 나시족, 아이누의 자료(특히 카우이 유카르)에는 자연신을 주인공으로 한 신화가 많은 데 비해, 제주신화는 인간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신화가 많음. 한편, 제주신화의 체계성은 신화의 형성과 분화를 짐작하게 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
- 당본풀이는 신화이면서 전설적 성격을 가짐. 그러면서 <일반신본풀이>와도 일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구비 전승되고 있는 신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연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신화의 형성과 분화 및 체계화를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함.

- 제주신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정책적으로 다루고자 할 때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가?
  - 제주신화의 가치와 의의는 다른 것들과 견주었을 때 파악될 수 있음. 이제까지의 제주신화 연구나 정책적 제안은 그 시각을 제주 지역에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그러나 제주신화가 갖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특징이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적인 것이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함.
  - 제주신화는 대체로 문학적인 관점이나 종교학적인 관점, 민속학 및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음. 그러나 ‘문화사(文化史)의 관점’에서 연구되거나 정책 제안이 제시될 필요성도 있음.
  - 제주신화는 제주도, 더 나아가 한국, 또 더 나아가 동아시아나 세계 신화 문화 유산으로써 독보적 가치를 갖고 있음. 더욱이 21세기는 문화가 민족의 정체성을 입증해주는 것으로써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도 인정되고 있음. ‘문화사’는 ‘문화의 역사’를 말함. ‘제주신화’를 제주문화의 하나로 간주할 때, 그것은 ‘제주신화’라는 문화적 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문화사’는 ‘가족, 언어, 풍습, 종교, 예술, 과학 등을 포괄함. 그렇다면 ‘문화사적 관점’에서 ‘제주신화’는 무엇을 포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것을 설정하기보다는 문화사에서 일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런 측면에서 ‘제주신화의 문화사적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신화 그 자체를 연구하는 측면(텍스트적 측면)과 신화를 둘러싼 것들을 연구하는 측면(컨텍스트적 측면)으로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연구 및 정책 제안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임
- 본풀이의 텍스트적 측면: 신화를 문학의 한 갈래로써 간주한 것에 해당함.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이에 해당함. 그러나 본풀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음. 말하자면 본풀이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지만, 문화적 현상으로써의 본풀이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형성

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소략하였다는 것임.

- 본풀이의 언어가 방언학적 관점에서 더러 연구되어 왔으나 '신화 언어'로써 주목되지는 못하였음. '신화 언어'로써 본풀이의 언어 형성이나 서사의 짜임, 즉 신화서사의 문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제주신화의 전반적 세계관을 철학적 관점에서 정리하려는 노력도 요구됨.
- 본풀이의 콘텍스트적 측면: 제주신화는 가족이나 '가족적 마을'의 범주 내에서 연행되어 왔음. 제주신화와 제주 가족 체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함(켄당 연구가 이에 해당됨).
- 제주의 어촌문화 및 중산간 문화와 제주신화의 관련성 연구는 제주풍습을 이해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농경/수렵, 어촌의 영등제에 대한 민속학적, 인류학적 연구가 이에 해당함). 종교학적 현상의 하나로써 제주신화를 이해하려는 관점이 요구됨(신화 텍스트뿐만 아니라, 심방 연구, 제물(祭物)이나 무구(巫具) 연구, 무용 연구, 기메에 대한 미술적 관점의 연구 등이 이에 해당됨).
- 종교경제학의 관점에서 굿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명하려는 관점도 요구됨), 굿은 일종의 치유 행위이자 의료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과학적 관점, 또는 과학인류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노력도 요구됨.
- 제주신화의 일부는 연극적 성격을 갖는 굿놀이로도 연행되기 때문에 연희학의 관점에서도 해명될 필요가 있음.



## V.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는 텍스트적 측면과 콘텍스트적 측면(‘물의 신 나가’를 태국과 서태평양의 문화적 기원에서 찾는 연구가 하나의 참조 사례가 될 수 있음)를 에서 그 문화사적 가치가 해명될 수 있을 것임.
- 여기서는 주로 텍스트적 측면에서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제안에 초점을 두기로 함.

표 4.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본풀이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비고
천지왕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 피우기 내기’와 관련된 비교문화 관점에서의 연구</li> <li>• 창세신화의 관점에서 총체적 연구가 요구됨(이승/저승 공간의 분리 신화소, 쌍둥이 신화소 등).</li> <li>• ‘주역’, ‘사략’ 등 중국문화의 수용이 신화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됨.</li> <li>• 의례 및 타 본풀이를 제어하고 있는 법칙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칙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li> </ul>	‘꽃 피우기 내기’의 경우 충분히 연구되었기 때문에, 인접 자료를 더 수집하여 총론적의 저서를 출간할 수 있음.
삼승할망본풀이 (명진국할마님본풀이, 마누라본풀이, 동이웅궁할망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출생(또는 기원)과 관련한 인접 자료와의 비교문화론적 연구</li> <li>• 아동의 출생, 질병 등과 관련한 생활문화적 연구</li> </ul>	
초공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 무조기원 신화 및 의례와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비교문화론적 연구</li> <li>• 타 본풀이와의 관련성 속에서 ‘초공본풀이’가 갖는 위상(특히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와의 체계적 관련성)</li> </ul>	타 본풀이에 비해 초공본풀이만을 다룬 책이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이 본풀이의 문화론적 요소를 충분히 해명해 내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함.
이공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요소의 수용과 관련한 연구</li> <li>• ‘천지왕본풀이-삼승할망본풀이-이공</li> </ul>	

본풀이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비고
	본풀이'에 등장하는 꽃의 상관성 연구 (이는 일반신본풀이가 독자적인 것이면서 상호관련성을 갖는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음)	
삼공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요소의 수용과 관련한 연구</li> <li>• '전상'에 대한 제주민의 인식과 풍속 연구</li> </ul>	
지장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장신앙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li> <li>• 제주신화나 민간에서의 '사(邪)'에 대한 신앙의 체계적 연구가 요구됨.</li> </ul>	
맹감본풀이 (사만이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냥의례, 백골송배 요소에 대한 연구</li> <li>• 연명(延命) 관념에 대한 비교문화론적 연구</li> </ul>	
세경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경의례 관점에서의 연구</li> <li>• 농경의 기원을 다룬 인접 자료와의 비교 문화론적 연구</li> <li>• 세경본풀이에 수용된 외부문화의 요소에 대한 종합적 연구</li> </ul>	
차사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자의례(현재 가정에서 행해지는 의례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다소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li> <li>•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저승관, 영혼관을 해명하려는 노력이 요구됨.</li> <li>• 생활 속 상장풍속을 제어하고 있는 법칙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칙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li> </ul>	다른 본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사적 연구가 많이 된 편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해명을 목표로 한 저서가 무난하게 출간될 수 있음.
칠성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송배(자연신 송배)의 관점에서의 연구</li> <li>• '인간-동물'의 문화론적 관계, 소위 '인간-동물문화론'의 관점에서 본풀이에 등장하는 동물 연구</li> </ul>	
문전본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전제와 제주 가옥구조의 상관성 연구</li> <li>• 제주민의 정월의례와의 관련성 하에 종합적으로 연구</li> </ul>	기존에 단행논문으로 출간된 바 있으나, 저서(또는 보고서) 분량의 총체적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임.

## ○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분석 사례 1: &lt;천지왕본풀이&gt;의 서사법칙

- 초감제의 독립 제차로써의 <천지왕본풀이>와 죽은곳인 시왕맞이, 불도맞이에서의 <천지왕본풀이> 제차 및 기타 본풀이를 구연하는 제차와의 관계 등을 통해 <천지왕본풀이>의 서사법칙에 대해 설명해보기로 함.
-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인 서사법칙이 소설이나 민담 자료를 근거로 한 서사구성(또는 서사구조)의 이론, 그러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던 울릭의 서사법칙 같은 이론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전제하고 싶음
- 여기서 얘기하는 서사법칙은, <천지왕본풀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제주 무속체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제의의 법칙들이 본풀이의 서사를 구성하는 주요 원리로써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임
- 특히 <천지왕본풀이>는 모든 본풀이에 앞서 가장 먼저 구송되는 것인 만큼, 무속제의와 관련한 보편적 법칙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임
- 이런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순실 심방이 구송한 <천지왕본풀이>, 강대원 심방이 필사한 <천지왕본>만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함.

표 5. 서순실 심방 구송, &lt;천지왕본풀이&gt;

본풀이 서사의 진행	법칙의 전제가 되는 사건	법칙
초반부: 천지왕 집대	충명부인이 수명장자의 집에서 꺾은 쌀로 천지왕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천지왕이 첫 술에 모래를 씹는다.	“이 밥이랑 나 두에 오천(五千) 명에 저 군서(軍士) 칠천(七千) 명에 저 군졸(軍卒) 시식결명법을 마련헿서.”
초반부: 천지왕과 충명부인 이별 중반부: 대별왕이 옥황저승에 오름	천지왕이 충명부인에게 태어날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본미로 국씨 세 방울을 주면서 특정 월일에 국씨를 심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방국 좇아근 보넬 때랑 삼진 정월(正月) 정해일(丁亥日), 첫 돛날 이 국씨를 심어 혼국 줄라근 지봉더레 줄 벌고, 혼국 줄랑 땅더레 밭이 벌건 들랑 아방국을 좇아근 보넬서.”  삼진 정월 정해일 첫 돛날에 놓이와 국씨 디리난 혼국 줄은 지봉더레, 줄이 벌고 혼국

본풀이 서사의 진행	법칙의 전제가 되는 사건	법칙
		줄은 땅더레 발이 번어어근 제주도는 오닐ㄱ지라도 마을 정월 나민 정해일(丁亥日) 마 을 포제(酬祭)하는 법입네다.
종반부: 대별왕이 옥황 저승에 오름	대별왕이 옥황에 올라가면 서 생인과 귀신, 인간과 만 물 간에 서로 소통하고 있 는 것을 본다.	대별왕이 옥황더레 올라가단 보난 풀이십세 세짐승은 길짐 승 오조조조 구신(鬼神) 불려 생인(生人) 대답(對答)허곡 생 인 불려 구신 대답허난에 혼 돈(混沌)이 웨여 세피ㄱ 석 섬 닷 말 세 오 리 갓디단 허 공(虛空)더레 뿌리난 청알에 에법 신청가리메법
종반부: 대별왕이 옥황 저승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봄	대별왕이 복수의 일월 때문 에 인간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해와 달 한 개씩 을 천근 활과 백근 살로 떨 어뜨린다.	흔 하늘엔 해도 하나 됩테다. 돌도 하나 됩테다. 천지왕도 도업 지부왕은 총명부인 도업 대별왕은 저심법 소별왕은 이 심법, 남정중화정네(南正重火 正黎) 마련헤엿수다.

표 6. 강대원 심방 필사, <천지왕본>

본풀이 서사의 진행	법칙의 전제가 되는 사건	법칙
종반부: 대별왕과 소별왕 의 꽃피우기 시험	소별왕이 대별왕이 잠들어 있는 동안 자신의 검뉴을 꽃을 대별왕의 번성꽃과 바 꿔치기 한다.	이때 고리동반 박꾸워논다. 오 른쪽에 갇은 왼쪽으로 왼쪽에 갇은 오른쪽으로 박꾸워논다 <sup>61)</sup>
종반부: 수면장제의 죽음	수면장제가 죽어 저승에 나타 난다.	저승염라대왕은 저승문서들을 정리하다본이 수면장제가 죄 만은 수면장제 닛타나이 이승 서 불효죄척 이승서 죽은 곡 식 주고 염문 곡식 바든 죄 전부 마련고서 나분직옥으로 마련할 때 사람죽고 나서 귀 양푸리에 오곡밥을 대우하기 집타서 불직곳에 시걸명오곡 밥 대우하기 마련되였다고 합 니다.

- 강대원 심방의 자료에서처럼 수명장자의 악행과 징치에 대한 내용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 제의와 관련한 법칙들이 다수 확인되지 않는데, 그에 비해 수명장자의 악행과 징치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 자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의와 관련한 법칙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음.
- 이것들은 <천지왕본풀이>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즉 서사의 진행과정에서 요소요소마다 주요 제의법칙들을 제시함으로써 천지왕본풀이가 민담이나 소설과 같은 서사와는 좀 다른 서사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보여줌.
- 그러한 여러 제의법칙들 중에서도 이승법, 저승법 등을 통한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근원적 법칙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의 무속체계에서 중요한 서사법칙 그 자체로써 인식될 수 있음.
- 그것은 <천지왕본풀이>가 다른 맞이굿에서는 연행되지 않지만 <불도맞이>와 <시왕맞이>에서만큼은 연행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임.
- <불도맞이>는 산육(産育)과 관련되는 굿이고, <시왕맞이>는 병자의 치유나 망자의 천도 기원과 관련된 굿이니, 모두 인간의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데, 불도맞이와 시왕맞이의 연행에서 <천지왕본풀이>는 마치 ‘헌법 제1조’와 같은 법지법(法之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임.
- 특히 <불도맞이>에서 연행되는 <생불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에서 ‘생불꽃’(대별왕의 번성꽃과 유사)과 ‘검뉴울꽃’은 이미 그 전범의 규칙으로써 <천지왕본풀이>에 제시되고 있기에 그 서사법칙이 미치는 영향력은 심대함.
- <천지왕본풀이>를 구성하는 서사규칙들이 <불도맞이>와 <시왕맞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천지왕이 데려온 삼천군병 및 징치된 수명장자 가족 등에 기인하여 마련된 ‘결명결식법’ 등은 <삼천군병지사빔> <가수리> 등의 제차에서 잡귀를 대접하는 사설 구연의 근거가 됨.
- 또한 대별왕과 소별왕의 꽃피우기 시합에 나오는 번성꽃과 검뉴울꽃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듯이, <이공본풀이>에서는 그에 근거하여 더

61) 실제의 제차에서 이 대목이 구송될 때 소미가 제상의 고리동반(꽃을 상징하는 무구)을 바꿔놓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옥 다양한 주술적 꽃들이 등장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줌.

- 천지왕이 총명부인에게 본메로 건넨 국(박)씨 역시 <명진국생불할망본풀이>나 <세경본풀이> 등 여타의 본풀이나 여러 제차의 굿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등장하고 있는데 <천지왕본풀이>에서 국씨는 대별왕과 소별왕, 또는 대별왕이 옥황으로 올라갈 때 소용됨.
- 즉 국씨를 심어 그 줄기를 타고 옥황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점에서 이때의 국 줄기는 옥황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지상의 신(인간)과 천상의 신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함.
-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신거미연줄’, ‘기러기연줄’, ‘노각성자부(연)줄’ 등으로 이 중 <세경본풀이>와 같은 일반본풀이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것은 노각성자부(연)줄인데, 그 실체에 대해 논란은 아직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음.

○ <천지왕본풀이>의 전체 서사가 제의의 규칙이나 제주도의 무속체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을 요소에 배치되는 식으로 짜여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됨(물론 그것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음. 그것은 심방의 학습 이력이나 연행 제차의 위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제의 규칙이나 전반적 제의 규정은 실제의 굿 연행에서나 여타의 본풀이 등에 제의 규범의 형태로써 그 규제력을 행사하며, 이것은 <천지왕본풀이>가 제주도의 무속문화 체계 내에서 그 객관적 실재성을 드러내는 방식임과 동시에, 굿 연행이나 여타의 본풀이 등에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그것을 더욱 유의미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천지왕본풀이>의 서사는 민담이나 소설과 같은 일반적 서사와는 매우 다른 서사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임.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에 등장하는 ‘법칙’(또는 법)은 <천지왕본풀이> 이외의 본풀이에서도 다수 확인됨(아래 표6 참조). 그리고 이들 법칙은 제의(굿)나 제주민의 일상생활을 때로는 규제하기도 함. 따라서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에서 이들 법칙(법)이 어떻게 서사적으로 기능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제주신화 구성의 서사문법을 문화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핵심 연구주제가 됨.

표 7. 일반신본풀이에 등장하는 ‘법칙’(또는 법)

본풀이	법칙
멩진국할마님본풀이	아기 머리 도숙영 동더레 머리 허민 동부제(東富者), 서더레 머리 허민 서게낭(西艱難), 남더레 머리 허민 남장수(南長壽), 북더레 머리 헤영 나민 북단맹법(北短命法) 마련헤영 할마님 생진일(生辰日)은 초사을(初三日) 초일웨(初七日) 열사을(十三日)은 열일웨(十七日) 스무사을(二十三日)은 스무일웨(二十七日) 할마님이 열다섯까지 아기 키우민 열다섯이 돼민 할마님도 무너사는 법입네다.(서순실심방본풀이)
세경본풀이	뒷발을 툇허게 네리젠 현 게 뒷꿈치가 슬금허게 끊어지엇구나. ‘시부모 아버지 시부모 어머님 보민 안뎡로구나’, 속치메로 쏙허게 다끄난, 여자는 열다섯 십오 세가 당허민, 혼 둘 혼 번 오는 월경법(월경법)을 마련헤엇수다에-(서순실심방본풀이)
	ㅁ물씨를 갓언 내려오젠 허난 브름이 부난에 좇갱이에 쫓편 내려온다. ㅁ물씨는 네 귀가 나는 법이야. 내려오단 보난 강태공(姜太公) 서목시(首木手)가 남 비여난 디- 톱밥이 헤영허게 잇구나. ㅁ물썬 가벼와부난 요거 서꺼건 뿌리민 뎡로구나. 톱밥에 박박 서꺼근 뿌리나네 ㅁ물 ㄱ장은 헤영헤게 피는 법입네다.(서순실심방본풀이)
	옛날은 줌수(潛嫂)덜 물에 들레 가민 물속곳, 아이고 물질헤당 보민 클러지고 클러지곡 허난 별모작 헤여근 뜨는 법도 마련헤엇수다.(서순실심방본풀이)
차사본풀이	그 밧디 간 정수남이가 일렀더니 밥차롱엿 밥을 내여주난, ㄱ칭비가 ㄱ갱이농술 지어도 주리주리바리바리 나수완 대풍년(大豐年)을 지웁네다. 오곡씨[五穀種]를 마련ㄱ단 보난 씨 ㄱ나가 잇어지여 옥황(玉皇)의 간 씨를 타오는 것이 한부중ㄱ실 늦어져도 ㅁ[他] ㄱ실농스[秋穀農事]영 ㄱ찌허여 먹기 마련ㄱ모물씨가 웨웁네다.(제주도무속자료사전)
	명전을 둘러 가는 법 흰 종이에 검은 글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덜이 쓰는 글이고, 저싱은 요거 갓영, 검은 머리가 백발(白髮)이 웨도 못 갑네다. 밥 먹븍센 헤여두언, 동안(東軒) 마당에 네렸구나. 원님안티 강 “원님아 원님아, 이걸 갓잉 저싱을 가렌 허난 검은 머리 백발이 웨

본풀이	법칙
	<p>도 못 갑네다. 흰 홍에 붉은 글을 네어줍서. 붉은 홍에 흰 글을 네어줍서.” 그때 네여준 것이 명전(銘旌)이우다. 빨간, 멩지(明紬)에~ 독세기로 글을 썩, 므물크를이나 밀가루 칠헤민, 사람 죽영 멩전을 들러사 가는 법입네다에~.(서순실심방본풀이)</p>
	<p>건복법: 상을 당하면 형제의 두건 쓰고 상복 입는 법          고적법: 장사 때 친족끼리 떡을 만들어다 부조하는 법          “열두 돌 넘엄시난 잇엇구나.”, 형제간은 옷 우잇 브름이여, 건복법(巾服法) 설련헌다. 일가방상 어른말은 “나 엇일 때 어평헌, 생각이 납데가?” “강림이 엇이난 큰일 때 생각이 나렌,” 허난, 일가에 사람 죽으민, 고적접도 설련헤여 간다.(서순실심방본풀이)</p>
	<p>강림인 동안 마당에, 목에 큰칼 헤연 앓앗구나. 목에 큰 칼 뱃겨 두고 “강림아 강림아, 이 집은 누가 지엇느냐?” “강태공(姜太公) 수목시(首木手)가 지엇수다.” 강태공 수목시를 데려단 “네가 이 집을 지엇느냐” “나가 이 집을 지엇습네다.”, “너 아니 세운 기둥 잇걸랑 대톱 소톱 갖어근, 썰렌.” 허난 “요 기둥은 나가 아니 세운 기둥이우다.”, 대톱을 갖어들언 썩난, 피아 벌경허난, 원님이 살아나옵네다~. 그 법으로 세 집은 짓이민 나무에 목신(木神)이 잇는 법이라. 성주풀이를 헤여사 그 집을 지탱헤영 사는 법입네다.(서순실심방본풀이)</p>
	<p>귀양법, 신앙법          일곱 장남은 “우리덜 사람 죽여났덴, 사람 축에 못 가민 어평험 네까?” “너네덜랑 사람 죽은 디 귀양풀이 헤영, 오곡밥을 주건 들라근 그 집이 펜안(便安)허게 허곡, 귀양풀이도 안 헤고 오곡밥 아니주건, 석 돌 백일 안네에 급한 처서(差使) 들어보네라.” 시왕스켓상(十王使者床) 알로, 일곱은 귀양으로 오곡밥을 먹는 법 아홉 썩는 아홉 썩 “우리 어덜로 갑네까?” “너넬랑 아홉 신앙으로, 썩막으로 츠질허라.” 일곱은 귀양법 아홉은 신앙법이 데 엇수다.(서순실심방본풀이)</p>
	<p>법초하는 법, 제사법          강림이 큰각시가 인간은 혼 번 오랑 가는 법이라. 첫돌 그믐날 저성문을 열려 정월 초하를날 돼민 이싱 오랑 가곡 오월 초나흘날 저성문, 열리민 오월 단오(端午) 이 세상 오랑 가고 팔월(八月) 열나흘날 저성문을 열리민 추석날(秋夕-) 이싱 오랑 가곡 죽은~ 묻은 디라그네 팔월 보름 당허건, 벌초(伐草)허는 법을 마련한다. 죽은 날은 제섯법(祭祀法) 마련헤엿구나.(서순실심방본풀이)</p>



본풀이	법칙
	<p>구렁이가 구사십생하는 법 가마귀 이싱더레 내려오단 보난 물피쟁이덜 물을 잡았구나. 밧담 우터레 앓안 보난 여피 똥소레기도 앓았구나. 물피쟁이덜 물 잡앙 가 불건, 피나 흥끔 빨아먹젠 이레 앓앙 강금 저레 앓앙 강골강골 울어가난, 물피쟁이덜은 물 발톱 다듬아 혹허게 던지난, 가마귀 이녁 마침시켜부렌, 혹허게 아무 생각 엇이 나난, 짓 놀게 적배진 말더레 떨어졌구나. 구렁인 나오란 먹엇구나. 구렁인 구사십생(九死十生)이라. 아홉 번 죽영 열 번 살아나는 법입네다-(서순실심방본풀이)</p>
	<p>똥수레와 까마귀가 싸우는 법 옆이 똥수레가 잇이난 “나 적배지 판다?” “나 아니 봤져.” “봉갓 걸랑 도라.” “안 봤져.” 그때 싸와난 법으로 이페깎지 똥수레기 하고 까마귀, 득광 주녕이ㄴ찌 싸우난 법입네다.(서순실심방본풀이)</p>
	<p>강님의 큰부인 우웨ㄴ찌 동안마당 원님 앞의 돌려들어, “원님아 혼번 실순(失手) 뺑가(兵家)의 상순(常事)디 우리 나라토 흘앗아 삼식번(三番) 죽을 일을 헤여 지내는다 강님이 저승으로 염 내왕 찻히레 가는다 저승본짱이 어찌 이리 뉘옵네까? 생인(生人)의 소지(所志)는 흰 종이에 감[黑]은 글이나 저승 글이야 어찌 이리 뉘옵네까? 붉은 종이에 흰 글을 써 줍서.” 원님이 “올타 나가 실수(失手) 뉘엿구나.” 붉은 종이에 흰 글 썬 내여 주난, 그때 내온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사람 죽어 맹전법(銘旌法) 서련허엿수다. 강님의 큰부인 집으로 돌아오난, 강님이가 말을 하웨, “이 입성[衣服]은 어느제 출려 놓았느냐?” “불써 영 흘 줄 알고 지어 뵈수다.” 그때 내여 논 법으로 우리 인간법도 인간 사름 죽기 전(前)의 살아신 때 저승입성 호상을 출려놓는 법입네다.(제주도무속자료사전)</p>
	<p>“아바님아, 나 엇이난 어떻 생각나옵데가?” “설운 아기 엇어지난 므디므디 생각나라.” “설운 아바님 죽으민 육항방장대 ㄴ숯ㄴ작[六節] 왕대방장대 설립호곡 왕대 ㄴ작마다 므디므디 아바님 생각하명, 아바님은 즈식상엿 ㄴ음 알을 풀어시니 알 푼 시무웁 둘러입영 연삼년(年三年) 중의 행착 출령 아바님 공(功) 가파 드리리다.” “어머님은 나 엇이난 어떻 생각납데가?” “설운 아기 엇어지난 먹먹허여지어라. 저 올레에 견당도 즈직즈직 생각나.” “어머님은 죽으민 동(東)테레 휘여진 머구낭 가지마다 즈직즈직 생각허여, 어머님 즈식상엿 ㄴ음 알을 감추와시니 알 감친 시무웁 입영 어머님 공 가파드리쿠다.”(제주도무속자료사전)</p>

본풀이	법칙
칠성본풀이	<p>일곱 아기 거느리고 낮인 대로(大路)로 가서 개중싱이 므수와지고 낮인 소롯길[小路]로 밤인 대로(大路)로 함덕(咸德) 금성동산 영끼(令旗) 몸끼 불려두고, 조천(朝天) 만세동산 영끼 몸끼 불려두고, 신천(新村) 열너문거리 영끼 몸끼 불려두고, 질다 질다 진드르 영끼 몸끼 불려두고, 화북(禾北) 벨도(別刀) 쌀쓴거리 영끼 몸끼 불려두고, 베린내를 근당(近當)호난 물이 벤질벤질 허여시난 일곱 아기가 목은 옷 벗어 가시낭에 걸쳐두고 베릿물에 들어간 몸 모옥호고 나와 새옷 입고 나사니, 그때 베릿물에 몸오옥 허여난 때문에 베릿내로 일름[名]을 지웁데다. 일곱 아기가 므으니믄를 치들아 사난 므으스옷 허여져 아뭇 생각이 엇어집데다. 그때 내온 법으로 초온(村) 백성(百姓) 송스(訟事)호레 도성안[都城內] 들어살 때 므으니믄를 근당(近當)호민 므옷므옷허영 송스생각이 엇어집데다.(제주도무속자료사전)</p>

○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분석 사례 2: <세경본풀이>에 이  
입된 외부 문화적 요소들

- <세경본풀이>는 육지에서 전래된 외부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여 형성된 본풀이로,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이 본풀이의 줄거리를 제시해 봄.

집안이 富饒하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던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동개남은중절에 원불수륙을 드리고 자청비를 낳는다. 자청비가 열 다섯 살이 된 해에 빨래를 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을 보고 반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따라가 문도령과 함께 삼 년을 공부한다. 이 때 장가들러 오라는 玉皇의 편지를 받고 문도령이 떠나려 하자 자청비가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이에 문도령은 여자로 꾸미고 자청비의 방에서 함께 석 달을 지내다 신물을 나누어 갖고 하늘로 돌아간다. 자청비네 집 牛馬를 각각 아홉 마리씩 잡아먹은 하인 정수남은 혼이 날까봐 산에 문도령이 노는 것을 보다가 牛馬를 잃었다고 자청비에게 거짓말을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이 있는 곳을 안다는 정수남의 말에 속아 그를 용서하고 함께 산에 따라가나 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劫姦하려는 정수남을 죽인다. 그러나 자청비는 일 잘하는 남자 종을 죽였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난다.(또는 부모가 정수남의 일을 대신하라면서 시킨 종자 파종과 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난다.) 쫓겨난 자청비는 男裝을 하고, 여러 가지 생명꽃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부엉새를 잡아주는 공을 세우고 그곳 황새곤간의 사위가 된다. 그곳에서 생명꽃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리나 다시 쫓겨난다. 청태국할망을 만난 자청비는 그녀의 수양딸이 되어 하늘나라 문도령에게 갈 비단을 짜게 되는데,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짜 넣는다. 이것을 본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나, 문도령은 자청비를 만나지 못하고 도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때문에 청태국할망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가, 문도령이 내려보낸 선녀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은 부모에게 자청비와 결혼할 것을 청하고, 자청비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 마침내 문도령과 결혼한다. 그리고 자청비는 전에 서천꽃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문도령을 그곳에 보내 보름씩만 사위 노릇을 하게 하나,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새의 날개에 편지를 끼워보내 그를 돌아오게 한다. 이때 하늘나라에서는 자청비가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선비들이 모여 그녀를 푸대쌈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잔치를 벌이고 문도령을 초청한 후 술을 먹여 죽인다. 이에 자청비는 여러 가지 기지(機智)로써 푸대쌈을 모면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환생꽃을 가져다가 문도령을 살린다.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는 자원하여 나아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죽음의 꽃을 이용하여 난을 진압한다. 이 공으로 자청비는 ‘열두시만국’과 오곡(五穀)씨를 얻어 칠월 열 나흘 날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부모는 죽어 없고, 굶어 죽어 가는 정수남을 만난 자청비는 그를 위해 밥을 준 늙은이의 밭에는 풍년을 주고, 밥을 주지 않은 아홉 형제의 밭에는 흉작을 준다. 그리고 정수남을 목축신(牧畜神)으로 좌정(坐定)시켜 마불림제를 얻어먹고 살게 한다. 자청비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내려올 때 메밀씨를 잊고 와,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메밀씨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메밀은 시기가 조금 늦게 되었다고 한다.

○ <세경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서사적 전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청비 출생→문도령과의 만남과 이별】 →정수남이 우마(牛馬)를 잡아먹음→정수남이 이로 인해 혼이 날까봐 계락을 꾸며 자청비를 유인→자청비가 자신을 겁간(劫姦)하려는 정수남을 죽임→부모에게 자청비가 쫓겨남(정수남을 죽였기에 또는 정수남이 하던 농사일을 제대로 못해서)→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부엉새를 잡아주는 공을 세움→자청비가 황새곤간의 사위가 됨→자청비가 생명꽃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림→
-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괴이하다며) 부모가 자청비를 다시 쫓아냄→자청비가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됨→문도령을 잘 대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청비가 쫓겨남】 →자청비가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감→ 자청비가 하늘나라에서 부여한 시험을 통과→ 【문도령과 결혼함】 → 하늘나라 선비들이 자청비를 푸대쌈하기 위해 문도령을 죽임→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가져와 문도령을 살림→ 하늘나라에 변

란이 일어남→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멸망꽃으로 난을 진압함→  
 자청비가 열두시만국과 오곡씨를 얻어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옴→  
 자청비가 정수남을 목축신으로 좌정시킴.

- <세경본풀이>에 대한 기존연구에 의하면 서대석은 제주도의 <세경본풀이>는 뒷부분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주설화 <자청비이야기>가 <축영대설화>와 같아서 이를 매개로 연결시킨다면 <세경본풀이> 또한 <양축설화(梁祝說話)>의 수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함.
  - 장주근은 제주도에는 민담 <자청비이야기>, <세경본풀이>가 있는데, 그 근원을 달리해 전승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양산백설화에 근원을 두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보고, 모두 <세경본풀이>가 중국의 <양축설화(梁祝說話)>를 수용하여 형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세경본풀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풀이 전반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뒷부분이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뒷부분의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제주도의 토착적 요소를 드러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 박경신은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제주도 신화적 특징을 찾으려고 하였고, 권태효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경본풀이>의 후반부는 <송당계본풀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음.
  - <세경본풀이>가 설화나 여타 본풀이와 같은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과연<세경본풀이>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을 지에 대해서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고, 현전 <세경본풀이>를 다양한 자료의 복합으로 형성된, 즉 의도된 작품으로 이해하는 데 동의한다면 보다 치밀하게 그 복합성의 정도를 해명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세경본풀이>의 모습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것이 사실일 것이므로, 다른 자료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나마 재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재구된 원래의 모습과 오늘날 전하는 <세경본풀이>를 대비해보면 그 개편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그러면 원래의 <세경본풀이>의 모습을 재구해 보기로 하는데, 그 과정이 잡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기로 함.

- 【자청비 출생→문도령과의 만남과 이별】 부분 : 자청비의 출생, 문도령과의 만남과 이별은 중국의 양축설화나 이의 소설화된 작품인 <양산백전>의 수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자청비의 출생은 고소설의 서두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기자치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임.
  - 문도령과의 만남과 이별은 여자인 자청비가 남장(男裝)을 하고 문도령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후에 여자임을 밝혀 문도령과 부부관계를 맺은 뒤 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양축설화나 <양산백전>에서의 양산백과 축영대의 만남과 이별 부분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정수남이 우마(牛馬)를 잡아먹고 자청비에게 혼이 날 것을 염려하는 부분,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이고 집에서 쫓겨나는 부분 : <괴녀깃당본풀이>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괴녀깃당본풀이>에서 소천국이 소를 잡아먹음으로 인해 백주또와 결별하게 된으며, <세경본풀이>에서도 정수남이 우마(牛馬)를 잡아먹고서 자청비에게 혼이 날 것을 염려했다거나 정수남을 죽인 자청비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결국 ‘우마(牛馬)=정수남=정수남을 죽인 것’으로 정리되기에 이의 실행주체인 자청비가 쫓겨나는 것은 <괴녀깃당본풀이>에서의 소천국과 백주또의 결별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음.
- 하인인 정수남이 계락을 꾸며 상전인 자청비를 유인해서 겁간(劫姦)하려는 부분 : 이는 남자 하인이 여자 상전의 미모를 탐내어 겁탈하는 유형의 설화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부엉새를 잡아주고 황새곤간의 사위가 되는 부분 : 이는 엉터리 활쏘기 실력으로 어떤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는 내용의 ‘엉터리명궁’ 설화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청비가 부엉새를 잡은 것은 자신의 활쏘기 실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잡은 부엉새에 자신의 화살을 꽂아 놓은 것에 불과한데 황새곤간은 이를 모른 채 자청비의 활쏘기 실력이 대단한 줄 알고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됨.
-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괴이하다며】 부모가 자청비를 다시 쫓아낸

→자청비가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됨→문도령을 잘 대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청비가 쫓겨남】부분 : 특히 자청비가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비단을 짜는 부분, 우여곡절 끝에 문도령과 결혼하는 부분 등은 고소설 <숙향전>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숙향전>에서 숙향은 ‘낙양 동촌 이화정의 마고할미’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때 마고할미가 숙향의 얼굴모습을 비단에 자수(刺繡)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히 이선에게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얼굴에 반한 이선이 마고할미를 찾아와 숙향을 만나고자 함.

- 마고할미는 이선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숙향이 겪었던 고난의 여정을 동일하게 겪게 하는, 소위 신부탐색의 여정을 거치도록 해서 중국에는 숙향이 있는 마고할미의 집에 도착하는 점에서 이 부분은 <숙향전>의 남녀주인공의 역할을 바꿔 수용한 것으로 보임.

○ 하늘나라 선비들이 자청비를 푸대썌하는 부분 : 하늘나라 선비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푸대썌하려고 하는데, 문도령이 죽으면 자청비는 과부가 되므로, 이때에 하늘나라 선비들이 그녀를 푸대썌하고자 하는데, 이는 과부의 미모를 탐내어 푸대썌하는 민간에서의 풍습과 그에 관한 설화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임.

○ 세 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서천꽃밭의 생명꽃, 멸망꽃 화소 :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릴 때, 하늘나라에 일어난 변란을 진압할 때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생명꽃과 멸망꽃을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이공본풀이>에서 확인되는 ‘서천꽃밭 생명꽃 화소’의 반복수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청비가 하늘나라에 발생한 변란을 진압하고 열두시만국을 받았다는 부분 : 이것은 농경신(農耕神)으로서의 자청비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발생한 변란을 진압하고 그 대가로 오곡씨를 얻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열두시만국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무장(武將)으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임.

- 이 부분은 <괴뢰깃당본풀이>에서 무속영웅이 강남천자국에 발생한 세변(世變)을 진압하고 그 대가로 제주도의 통치권을 위임받는 내용의 수용으로 볼 수 있음.

○ 이상에서 <세경본풀이>에 설화나 고소설의 내용이 수용되었다고 판단되

는 부분을 간략하게 점검하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음.

자청비의 부모가 자청비에게 ‘좁씨 닳말 닳되 칠세 오리’를 ‘벨진빳’(매우 넓은 밭)에 뿌려놓고 다시 주워오라고 했는데, 좁씨 한 알을 주워오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다.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부여한 시험을 통과한 뒤 오곡씨를 얻어 지상에 내려온다.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내려올 때 메밀씨를 잊고 와,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메밀씨를 가져왔기 때문에 메밀은 시기가 조금 늦게 되었다.

○ 위의 정리에서 보듯 원래의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인 자청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의 본풀이였음.

- 자청비가 좁씨 한 알을 줍지 못했다는 것은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자의 부재를 말해주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주워 담은 좁씨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지만, 신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잃어버린 좁씨 한 알’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 알의 종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을 산출해낼 수 있는 다산성의 상징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엄밀하게 정리하자면 ‘오직 한 알의 종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청비가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그것을 새가 물어가 버렸는지 하는 식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청비가 탐색에 나서게 되고, 그 탐색의 결과 하늘나라에서 오곡씨를 얻어서 지상에 내려와 드디어 농경의 시작을 마련하게 된 것임.
- <세경본풀이>의 본래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내용은 농경기원을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소수민족의 농경기원신화를 참조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상호 내용적 유사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sup>62)</sup>

62) 壯族이 전승하고 있는 설화인 <穀種의起源>([『中國神話故事大全』卷3, 浙江少年兒童出版社, 1991, 353-397면.)을 들어보기로 하는데, 이 설화는 지상의 남성이 천상으로 올라가 神女와 결혼하고 穀種의 씨앗을 얻어오는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세경본풀이>도 이런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인 자청비와 목축신인 정수남의 이야기에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이야기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본풀이로 판단되

- <세경본풀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신인 목축신 정수남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정수남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정수남에 대한 이야기가 본래부터 <세경본풀이>에 없었을까? 위에서는 원래의 이야기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자청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하였는데, 이들 정수남과 자청비의 관계는 실제로 우리가 앞서 살폈던 <괴너깃당본풀이>에서의 소천국과 백주또가 겪는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문화적 갈등, 그것의 수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제주도의 원래 문화는 수렵문화였을 것이므로, 여기에 더 상위의 문화인 농경문화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래의 수렵신(목축

---

기에 이러한 유형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옛날에 지상에 穀種이 없을 때에 인간들은 모두 동굴에 살며 수렵생활을 했다. 어떤 곳에 9형제가 살았는데, 이들은 창과 활을 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렵을 했다. 그 중 막내는 화살은 쏠 수 없었으나 새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수렵물을 지킬 수 있었기에 항상 수렵에 따라갔다. 어느 날 형들이 들짐승을 잡으러 가서 혼자 수렵물을 지키고 있는데, 까치가 날아와서 고기를 조금 떼어주면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고기를 떼어주니 내일 9개의 태양이 솟아 지상의 모든 생물이 타 죽을 것이니, 저녁에 한 마리의 젖소를 죽여 9장의 굴을 파서 묻고 위에는 가시와 9겹의 석판을 덮은 뒤, 그 소의 배속에 1마리의 노루, 말, 개미와 방망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태양이 물러나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막내가 이 말을 형들에게 하니 형들은 듣지 않았다. 이에 할 수 없이 막내 혼자 까치의 말에 따른다. 소의 배속에 있는 지 7일 후에 지상에 나와 보니 대지는 모두 말랐고 사람들은 모두 타죽어 있었다. 막내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늘과 땅의 끝에 있는 天泉에 이른다. 그곳에서 붉은 새의 말에 따라 무화과나무에 금반지를 걸어 두었다가 그것을 발견한 세 神女 중의 막내와 함께 천상에 올라간다. 그리하여 天神이 결혼조건으로 낸 火地 개척, 火地 갈기, 종자 뿌리기, 종자 거두기 등을 셋째 神女와 比亞司東神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셋째 神女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막내는 인간세계를 생각하며 돌아가고자 했다. 이것을 안 天神이 개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주며 이 장화가 다 헐어야 인간세계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막내는 솟을 굽는 노인이 가르쳐 준 방법에 따라 장화를 마모시킨다. 이에 天神은 할 수 없이 막내와 셋째 딸이 지상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고, 유채씨와 元根씨만을 준다. 그러나 天后가 이들이 인간세계에 가면 먹을 것이 없을까 걱정하여 몰래 쌀보리, 밀, 메밀, 호두, 완두를 준다. 셋째는 이것을 입, 코, 귀, 손톱 밑에 숨겨 막내와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 지상에 내려온 몇 년 후 셋째는 하늘에 있는 부모를 잊지 못해 밀가루, 크림, 꿀을 섞어서 만든 꿀떡을 만들어 까마귀를 시켜 天神 가족에게 보냈다. 天后가 이것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 구워 먹기 위해 화로에 넣자 불에 타 금세 없어져 버렸다. 이에 딸이 보복하는 것으로 생각한 天神은 유채는 짧게, 元根은 단단하고 흙냄새가 나는 맛을 갖게 만들고, 귀를 내려 보내 穀種을 모두 먹여치우게 했다. 天后가 이를 알고 고양이를 내려 보내 귀를 잡게 했다. 또 天神이 참새를 보내 穀種을 먹여치우게 하니, 이에 天后도 매를 보내 참새를 잡게 했다. 그러자 天神이 계책을 내지 못하고 화를 냈다. 이때 마다 비가 오고 번개가 친다고 한다.”



신)과 상위의 농경신에 대한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

- 이것은 현재 제주의 무속제의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이 바로 목축신과 농경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 원래의 수렵문화가 쉽게 없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농경신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본풀이를 형성·전승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 줌.
- <괴녀깃당본풀이>에서의 소천국과 백주또가 겪는 문화적 갈등의 수용이라고 해서 원래의 내용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수남과 자청비가 중심이 된 이야기가 원래의 <세경본풀이>에서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세경본풀이>의 원래 모습을 재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자청비와 정수남이 부부로 살았다. 정수남이 牛馬를 잡아먹고, 종자인 좁쌀 한 알도 잃어버린다. 이에 정수남과 결별한 자청비가 선녀들을 도와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부여한 시험을 통과한 뒤 오곡씨를 얻어 지상에 내려온다. 그리고 굶어 죽어 가는 정수남을 살린다.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내려올 때 메밀씨를 잊고 와,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메밀씨를 가져왔기 때문에 메밀은 시기가 조금 늦게 되었다. 이후 자청비는 농경신, 정수남은 목축신으로 좌정한다.

- 이상의 내용은 <괴녀깃당본풀이>에서의 소천국과 백주또 부부 이야기를, 그 신적 성격이 보다 잘 드러나게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괴녀깃당본풀이>가 부부 이야기보다는 그 자식의 영웅성이 부각되는 쪽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원래의 내용으로 추정되는 <세경본풀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의 갈등과 그 해소, 그리고 그것이 농경의 기원과 맞물려 이야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에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이야기가 맞물려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괴녀깃당본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데에 있어서 중국설화인 양측설화, 이의 소설화된 작품인 <양산백전>, 그리고 신비한 사랑을 내용으로 한 <숙향전> 등의 영향이 지대했었다고 봄.
-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본풀이의 내용이 자청비와 문도령 중심으로 바뀌고, 그와 동시에 정수남은 이들과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매우 비정

상적인 관계, 즉 자청비를 겁간하려고 한다든지 자청비와의 관계가 상전과 하인으로 설정된다든지 하는 관계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세경본풀이>의 원래 내용에 정수남이 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로 서술되기는 어려웠을 것임.

- 원래의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문화영웅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본풀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문도령과의 사랑이야기가 개입되면서 애정서사의 본풀이로 변모·확대되었음.

○ 이들의 사랑이야기에는 지상의 여인과 천상의 남자가 펼치는 결연의 신비로움이 내재해 있으면서도 이들의 결연은 현실적인 장애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그 장애는 지상에서 두 번, 천상에서 한 번 있게 되는데, 정수남이 자청비를 겁간하려 한 사건, 청태국할망 집에서 자청비가 문도령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한 사건, 천상에서 주어진 세 가지 시험 등이 그것임.
- 이처럼 이들의 결연은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문도령을 자청비보다는 상층의 인물로 보았을 때—이것은 문도령이 천상의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점, 문도령의 부모가 시험을 통해 자청비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렇다—자청비로 동화될 수 있는 대다수의 무속제전의 여성청중들, 그녀들은 그녀들이 회구하는 사랑이 자청비 식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되기를 꿈꾸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세경본풀이>는 무속제전에서 행해진 한바탕의 사랑굿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자청비의 사랑은 정수남이 보여주는 동물적(또는 수렵문화적)이고 도 강제적인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현전 <세경본풀이>는 이러한 사랑의 회구와 힘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애정서사의 본풀이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수렵문화(목축신)와 농경문화(농경신)의 갈등, 농경문화의 도래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속제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본풀이라고 할 수 있음.

※ <세경본풀이>의 사례는 제주신화, 특히 일반신본풀이가 한반도 육지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거라는 점을 추정케 함. 제주신화의 자생성

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나 <천지왕본풀이>, <차사본풀이>, <삼공본풀이> 등은 한반도의 육지로부터 들어온 외부 문화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요구됨. 자생적으로 생성된 문화도 있겠지만, 외부 문화의 교섭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도 있기 마련임. 문제는 그 외부 문화를 제주 무속집단이 어떻게 수용했느냐가 중요할 것임.

○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분석 사례 3: <칠성본풀이>의 뱀 신앙

<칠성본풀이>가 뱀 신앙 요소를 담지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뱀 신앙의 분석에만 착목할 필요는 없음. 뱀을 자연신의 하나로 보고, 주변 민족에서는 자연신이 어떻게 신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폭넓게 비교 고찰해보는 것이, 제주신화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이누의 카무이 유카르를 주목할 수 있음.

- 카무이 유카르는 각종 동식물을 신화적 숭배대상으로 설정하여 서사를 구성한 것인데, 그 중 가장 대표적 동물신이 ‘곰’인데, 이들 자료에서 ‘곰’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호 증여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줌.
- 이는 증여론이라는 문화론적 관점에서 신화를 분석해 보도록 유도하며, 따라서 아이누의 곰 신화자료와 견취봄으로써 제주신화 <칠성본풀이>에서의 뱀 신앙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명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이때 증여론이라는 문화론적 관점은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는데, 아래에 아이누 신화에서 ‘곰’이 어떻게 신화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를 소개함.

자료 1 [곰 제사의 기원을 곰이 마련해 주었다는 내용]: “내(곰신)가 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내려가 보니 오키쿠루미가 술을 만들어 신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고 있다. 나는 내가 초대를 받지 않는 것에 화를 내어 어느 날 주연석에 들어가 출입구 근처에 앉는다. 오키쿠루미의 여동생이 나를 보고 ‘어디의 신인지 성스러운 신인 것 같다. 검은 코소데를 입은 신이 있다.’고 말하며 나의 옆으로 와서 술을 따른다. 여동생 말을 듣고 오키쿠루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입으로 그의 눈을 붙고 도망갔다. // 나(오키쿠루미)는 처음으로 만난 성스러운 신의 뒤를 쫓아가 강 상류에서 놓치고 만다. 산꼭대기에 기어오르니 금색 집이 있다. 흰 구름을 열고 안을 보니 그 신은 큰 담배 주머니를 갖고 있고, 검은 미케시(옷)를 입고 있다. 그 신이 쪽으로 나의 무릎을 찌르자 나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신은 웃으며 '오키쿠루미, 당신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가르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산의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갈 때는 이나우(木牌)를 부여하고 나의 일족을 잘 대우하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한다면 너를 설려주겠다.'고 말한다. 내가 승낙하자 신이 나의 찌른 데를 입으로 분다. 그러자 아픔이 낫는다. 신은 쪽을 나에게 주며 '이것은 인간이 더 훌륭한 힘을 갖게 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만들어야 할 쪽이다.'고 말한다. 그 때 이후로 나는 인간들이 산의 신을 죽였을 때는 이나우를 바치도록 가르쳤다."

자료 2 [신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이누가 제사를 지내주어야 한다는 내용]:

"나(곰신의 아내)는 곰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인 신의 아내였다. 남자 아이가 하나 태어나, 나도 아이누의 여자들처럼 매일 땔나무를 모으러 산으로 갔다가 등에 지고 온다. 어느 날 남편이 하늘나라의 형에게 초대를 받아 나가자, 나는 아이를 업고 '사쿰달포 하라토운나'라고 되풀이 부르면서 등에 업을 때 쓰는 밧줄을 따고 있는데, 아이가 울음을 퍼뜨려 그치질 않는다. 나는 눈을 감고 남편이 간 곳을 쫓아, 연회에서 형제간에 싸움이 시작되어 지금이라도 서로 죽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 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 신의 위기를 느껴 운 것이었다. // 나(남편 곰)는 호화로운 식사를 먹는 동안에 아이 생각이 나 아이에게 줄 선물로써 기름기 많은 부분을 밥상의 가장자리에 남겨놓는다. 그것을 본 형은 '아이가 없는 나에게 일부러 보이지 말라'고 하며, 굶은 불저가락으로 나에게 덤벼든다. 두 사람 다 크게 상처를 입는다. 신의 나라에서 죽으면 아이누에게 신으로서 받들어 모셔지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는 아이누 마을 근처까지 겨우 내려온다. // 나(아이누인)는 한 아이누로 아내도 아이도 있어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 어느 날 해변 가의 유목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상처를 입은 흰 곰이 한 마리 걸어온다. 내가 타시로(칼)를 뽑고 곰에게 다가가 '존경하는 신이여, 왜 그러한 상처를 입었는가.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가르쳐주세요.'라고 하니, 곰이 내는 숨이 인간의 말처럼 들려 신의 나라에서의 경위를 이야기 하길 '아이누의 화살을 맞으면 원래처럼 신으로서 아내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어서 화살을 한 자루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한다. 내가 몇 번이나 절을 하여 화살을 쏘자 곰은 안심한 듯이 나의 집 쪽으로 향하여 나의 집 제단(祭壇) 옆에 눕는다. 나는 마을 사람들과 가족을 벗겨 이나우와 술을 만들고 선

물을 등에 지게 하여 신의 나라로 고평신을 보낸다. 나는 그날 밤 훌륭한 신이 나타나 '나만이 아니라 성미가 급한 나의 형에게도 이나우나 술을 보내주어서 감사한다. 형도 나에게 사과하여 나도 원래처럼 신으로서 아이누 국토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보답으로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꿈을 꾸다. 그 후부터는 더욱 사냥이 잘 되어 아이도 크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 고 한 아이누가 이야기했다."

자료 3 [인간을 깔보지 말라는 내용]: 나(산악을 영유하는 곰 신의 딸)는 부모와 두 명의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어느 날 부모의 눈을 피해 모르게 피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먹자.'는 생각을 하면서 산을 내려가자 강 하류 쪽에서 노래 소리가 들린다. 보니 인간의 딸이 김을 매고 있기에 죽여서 먹어버리고 풀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큰 냄비를 불에다 데고 풀을 넣으니 냄비의 반쪽에서는 피의 거품이, 다른 한 쪽에서는 보통 거품이 나기 시작한다. 부모는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온 것은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을 밖으로 꺼낸다. 밤이 되자 불의 여신이 내가 저지른 일을 전하면서 '먹은 딸을 소생시키지 않으면 일족을 다 음습의 저승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이 일을 집에 들어온 오빠들에게 이야기한다. 또다시 나간 오빠들은 다음날이 되자 들어와 나를 산으로 유인한다. 기꺼이 따라간 나를 산 안쪽으로 데리고 가 벼락의 키위 덩굴에 붙인다. 오빠는 나에게 '너를 여기에 버리겠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있으면 몸에서 개다래가 나지만 너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흉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새가 열매를 먹으러 와서 똥을 누면 그 똥의 악취로 인해 숨도 못 쉬겠지. 악신만이 열매를 먹고 너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고 한다. 그 말대로 되었으나 나는 오빠가 인간의 딸을 소생시킨 후에 나에게 별을 주었다는 것을 죽은 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나쁜 마음은 품지 말라.

자료 4 [곰이 바다사자를 물리치고 강에 던져 인간의 식량이 되게 했다는 내용]: 옛날, 바다사자는 매우 커 바다에 단 한 마리밖에 없었다. 바다사자는 자신만한 힘이 있는 위대한 자는 없고 육상도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느 날 바다사자는 육상에는 누프리·노시키코로·가무이(산 중앙을 지배하는 신)라는 곰의 왕이 있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든 잘 아는 위대한 신이라는 소문을 듣는다. 그래서 바다사자는 그놈을 물리치려 강을 타고 가 산에 오른다. 강의 수원인 큰 구멍에 이르러 '산의 주인이여, 나와서 나와 한판 붙자'고 외치나 곰 왕은 '이유 없는 싸움은 하지 말자.'고 한다. 그래도 바다사자가 거들먹거리자 곰 왕은 바다사자를 물어뜯어 강에 내던졌다. 큰 바다사자는 강 한복판에서 작은 바다사자가 되어 바다로 내려가 인간의 식량이 되었다.

○ 문화사적 가치 해명을 위한 중점 요소 분석 사례 4: 본풀이 전체의 구조와 의미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4부작은 남아메리카 신화를 토대로 완성한 것임.

-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은 신화 분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현상을 분석하는 유용한 잣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신화가 아니라 제주 신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신화에는 한 민족 또는 한 집단의 사고가 집약되어 있으며, 그 사고는 각종 문화 현상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서 제주신화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제주 및 한국의 문화현상을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 만들기의 전초 작업이 될 수 있음.
- 아래에 남미의 신화 자료집을 제시함.

<남미의 신화 자료집>

Folk Literature of South American Indians(editors: Johannes Wilbert & Karin Simoneau) Los Angeles: UCLA Latin American Center Public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Folk Literature of the Toba Indians 1, 1982.; Folk Literature of the Toba Indians 2, 1982.; Folk Literature of the Caduveo Indians, 1989.; Folk Literature of the Bororo Indians, 1983.; Folk Literature of the Tehuelche Indians, 1983.; Folk Literature of the Yanomami Indians, 1990.; Folk Literature of the Warao Indians, 1970.; Folk Literature of the Selknam Indians, 1975.; Folk Literature of the Yamana Indians, 1977.; Folk Literature of the Ge Indians 1, 1978.; Folk Literature of the Ge Indians 2, 1984.; Folk Literature of the Mataco Indians, 1982.; Folk Literature of the Chorote Indians, 1985.; Folk Literature of the Guajiro Indians 1, 1986.; Folk Literature of the Guajiro Indians 2, 1986.; Folk Literature of the Chamacoco Indians, 1987.; Folk Literature of the Nivakle Indians, 1988.; Folk Literature of the Mocovi Indians, 1988.; Folk Literature of the Ayoreo Indians, 1989.; Folk Literature of the Yaruro Indians, 1990.; Folk Literature of the Makka Indians, 1991.; Folk Literature of the Cuiva Indians, 1991.; Folk Literature of the Sikuani Indians, 1992.

## VI.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 1. 큰굿과 본풀이의 체계적인 보전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 보전을 위해서는 일반신본풀이가 구연되는 큰굿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필요가 있음. 제주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제주큰굿보존회’의 노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제주신화가 제주지역에 한정되어 그 문화사적 가치와 의의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제주큰굿>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고 해서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는 것은 아님.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제주큰굿’에서 구송되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와 의의를 보편타당하게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임.
- 제주신화는 ‘살아 있는 신화’로써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고, 그 신화적 서사의 힘이 제의 및 제주민의 삶에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 언어전승의 측면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하나로써 각종 자료(제상 차리는 법, 기메, 당, 굿에 참여하고 또는 여전히 그에 기대고 있는 제주민들의 신앙적 구술담 등)를 정리하려는 노력과 함께 ‘본풀이’를 등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되면 그 전승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승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집단의 주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 이는 한국의 무속과 마찰을 빚어온 기독교계의 공격을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기도 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주신화를 소개할 수 있는 안정 장치가 마련되는 것임.
- 제주신화의 문화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주신화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여야 하므로, 이를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해명하려는 학술적 탐구 노력이 요구됨.

- 제주신화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제까지의 성과를 묶어서라도 일단은 제주신화 전반의 무형문화사적 가치와 의의를 드러냈다는 것을 목표로 총론서 격의 책이 발간될 필요가 있음.
  - 언어, 예술, 관습, 과학 등 문화사의 영역 내에서 각종 책이 발간될 필요가 있음. 소위 '제주신화 무형문화유산가치의 탐색시리즈'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시리즈에는 비교연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신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동계 자료와 견주어 보았을 때 그 문화적 가치와 의의를 더 타당하게 설명해낼 수 있음.
  -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 신화, 중국 동북지역의 만족 신화, 운남지역의 나시족 신화, 또 저 멀리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신화는 대비 자료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제주신화(특히 일반신본풀이)를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에서 연행되고 있는 본풀이의 '지금·현재'적 모습의 전승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아울러 그 무형문화유산적 가치와 의의에 대한 학술적 탐색에 관한 지원이 요구됨.
-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보전이 기대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본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과 함께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 탐색 시리즈'를 발간할 것을 제안함.

## 2. 모성성을 기반으로 본풀이의 생명력 강조

- <일반신본풀이>는 무속의례에서 속에서 불리는 본풀이, 신화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곳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무가 속에 나타난 여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화를 통해서 재구연의 기회를 제공해 줌.
- 본풀이 구술자료를 일반인, 연구자, 학생 등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성적 이미지와 모성성은 사회나 가정의 일상적 삶을 지속하는 중요한 정신적 기반임을 강조함.
- 무속신화의 여신들은 고난을 겪고 ‘공업’을 통해서 숭앙받는 여신으로 좌절하게 되는데, 제주를 농경문화로 바꾼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자청비’나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가문장아기’는 능력이 남다르거나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해서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음.
- 제주역사상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일그러진 가족이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계기는 여성들이 지닌 모성성이 바탕이 되고 있고, 설문대할망을 비롯한 구전신화의 여신들 속에 내재된 ‘모성성’은 모자란 땅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생긴 생채기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

### 3. 무속신화 유통 공간 조성

- 무속신화의 구연자는 무당 등 무속인으로 무속의례를 행하는 전문가로 볼 수 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무속의례와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금기시 되는 측면도 없지 않음.
- 제주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무속의 <일반신본풀이>를 온전하게 구연할 수 있는 무속인들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고, 실제 무속의례상의 구연 기회는 지극히 적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야기체로 전환 등 장르 변이를 통해 누구나 구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유할 수 있는 유통 공간이 필요함.
- 구연은 문화콘텐츠의 공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스토리텔러들의 텔링화된 자료일 수도 있는데, 일정의 이야기 생산과 전승이 가능한 장소에서 이야기축제(Storytelling Festival)를 만들어 활성화하면서 신화의 유통 공간을 조성<sup>63)</sup>할 필요가 있음.

63) 좌혜경, 강소전, 2017, “제주 신화지 현지조사와 문화자원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114쪽.  
미국의 테네시(Tennessee)의 존스보로(Jonesborough)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1973년에 초라하고 소박하게 전국스토리텔링페스티벌(National Storytelling Festival)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미국 곳곳과 전 세계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축제가 됨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정식, 2015,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 김성례, 2018,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 김혜숙, 1999,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출판부.
- 문무병, 1998,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 문무병, 2009, 『두 하늘 이야기』, 알렙.
- 문무병, 2017, 『신화와 함께 하는 제주 당올레』, 알렙.
- 신연우, 2017,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민속원.
- 쭈뻏 춤싸이, 2014, 『물의 신 나가 : 태국과 서태평양의 문화적 기원』, 노장서, 김인아공역, 솔과학.
- 양영수, 2011, 『세계 속의 제주신화』, 보고서.
- 이수자, 2004,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장주근, 1998,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 제주학연구센터, 2017,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최원오, 2001, 『동아시아 비교서사시학』, 월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81,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1, 9-2,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남춘 외, 2015,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탐라문화연구소.
- 허남춘, 2017,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서.
- 허남춘·강정식·강소전·송정희, 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4,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 현용준,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 현용준, 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 현용준, 2001,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 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 현용준,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 J.G. 프레이저, 2005, 『신화학 1-날것과 익힌 것』, 임봉길 옮김, 한길사.
- J.G. 프레이저, 2008, 『신화학 2-끝에서 재까지』, 임봉길 옮김, 한길사.
- 胡繩 主編, 1999, 『東巴神話研究』, 社會科學出版社.
- 東巴文化研究所, 1999, 『納西東巴古籍譯注全集』(총 100권), 雲南人民出版社.
- 富育光·孟慧英 著, 1991, 『滿族薩滿敎研究』, 北京大學出版社.
- 宋和平 譯注, 1993, 『滿族薩滿敎神歌譯注』,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孟慧英 主編, 2015, 『人類學視野中的薩滿醫療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久保寺逸彦 著, 1977, 『アイヌの文學』, 岩波書店.
- 久保寺逸彦 編著, 1977, 『アイヌ敍事詩 神謠・聖傳の研究』, 岩波書店.
- 稻田浩二·小澤俊夫, 1982, 『日本昔話通觀 1』(北海島(アイヌ民族), 同朋舎.

## 논문

- 강소전, 2008,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호, 탐라문화연구소
- 강소전, 2016,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 27, 실천민속학회.
- 강정식, 1987,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 강정식, 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 강진옥, 2005, “무속 여성신화의 농경적 생명원리 :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회.
- 강진옥, 2010,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문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 강진옥, 2012, “<차사본풀이> 연구 : 강림(姜林)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강진옥, 2014, “저승여행담을 통해 본 제주도 무가 ‘혜심곡’과 ‘차사본풀이’의 관계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구비문학회.
- 권태효, 1999,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31집, 한국민속학회.
- 권태효, 2000, 제주도 <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 한국민속학회.
- 김재용, 2004, “<문전본풀이>의 무속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 김정호, 2016, “굿과 떼이암에 나타난 신화수용 연구-나쁜 여신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2집, 한민족어문학회.
- 김정호·문범두, 2014, “한·일 사체 환생신화 연구-‘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오케 츠히메노가미’를 중심으로-”, 『배달말』 54집, 배달말학회.
- 김진철, 2015, “제주신화 <차사본풀이>의 문화콘텐츠 변용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한국콘텐츠학회.
- 김현선, 2002,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 구조분석, 입무의례, 신화적 성격을 중심으로”,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 김현선, 2005, “제주도 <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연구”,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 김현선, 2005,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제17호, 국립민속박물관.
- 김현선, 2005,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 김현선, 2005,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고전문학회.
- 김형근, 2009, “제주도 <맹감본풀이(스만이 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탐라문화』 36, 탐라문화연구소.
- 김형근외, 2008,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1호.

- 김호성, 2017,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연구 : 업신앙의 제주도 이입과정을 중심으로”, 경기대대학원 석사논문.
- 문무병, 1993, “제주도 당 신앙 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 박경신, 1986,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 변숙자, 2014,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의 양상”, 『탐라문화』 46호, 탐라문화연구소.
- 서대석, 1968, “서사무가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유보경, 2015,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과 신격의 상관관계”-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 이수자, 1990,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총』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이수자, 1989, “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연구소.
- 이수자, 1998,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회
- 안효순, 2010,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 석사논문.
- 장유정, 2002,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특징-아이누의 <카무이후치아이유카르>와의 비교를 통해서”, 『구비문학연구』 제14집.
- 전주희, 2015,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연구”-지장과 새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무속학』 31, 한국무속학회.
- 정진희, 2002,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의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태학사,
- 정진희, 2013, “풍농(豐農)의 원리: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호, 국어국문학회.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제주정체성 정립 및 교육영역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조현설, 2011, “제주여신 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학회.
- 좌혜경, 1998,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여성상과 성격을 중심

- 으로-", 『한국민속학』 제30집, 한국민속학회.
- 최원오, 1997, "차사본풀이 類型 巫歌의 構造와 意味",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 최원오, 2004, "동아시아 구비서사에 나타난 영혼관 비교", 『민속학연구』 제14집, 국립민속박물관.
- 최원오, 2004, "한국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민속적 사실, 그 상상력의 층위와 지향점", 『구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구비문학회.
- 한진오, 2009, "<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 연행방식 고찰", 『탐라문화』 35, 탐라문화연구소
- 허남춘, 2015, "칠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 현승환, 1985,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도민의식", 『제연』 제7집, 제주도문제연구회.
- 현승환, 1993, "'내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 현승환, 1993,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호, 탐라문화연구소.
- 현승환, 2009, "제주도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 : 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35호, 탐라문화연구소.
- 현승환·현용준, 1995,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연구", 『탐라문화』 15호, 탐라문화연구소.

## 부록 1. 이용옥본 일반본풀이(이야기체 구연) 자료

### 자료채록

○ 일 시 : 2017. 09.06 ~ 09.15

○ 장 소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 천지왕본풀이

천지왕(天地王)은 옥황(玉皇)이고, 지부왕(地府王)은 총명부인(總明婦人). 서수 아미엔 허주게. 젠디. 옥황에서 천지왕이, 총명부인안티, 지하에 지부왕신디 느린 거라. 경 허연 느리난. 총명부인은 천지왕이 내리난에 밥을 혼상 출령 내와사 헐 거아니라. 게난 밥을 혼상 출령 내놓젠 허난. 쏘이 엇인 거라. 밥 헐 쏘이 엇이 난. 그 ㄱ을에 수멩이 덩덜<sup>64)</sup> 살앗인디. 수멩이가 잇인디. 수멩이네가 경 잘 살 안. 곡식 [穀食] 을 허면, 동네에, 장네 [長利] <sup>65)</sup>에 붙여주고. 엇인 사람들 꺾단 먹 엇단, 새 곡식허민 물고 허는디. 묵은 곡식 장네 권, 받을 땐 새 곡식으로 받고. 또, 돼로 권, 말로 받아먹고. 말로 주어뵈, 섬으로 받아먹고. 게난 말하자면 완전 옥심쟁이 주게. 이제 대미쑈 [大白米] 에는 대물레 [大沙] <sup>66)</sup>를 섞영 늬을 주고, 소미쑈 [少白米] 에는 소물레 [少沙] 를 섞영 늬을 주고. 게난 이젠 총명부인은 밥 혼상을 출리젠 허난 헐 수 엇이 수멩이네 집이 간. 쏘 혼 돼를, 간 장네에 빚져단. 이제 그걸 혼 작박<sup>67)</sup> 거러난, 찻언. 밥 혼 상을 출런 천지왕안티 상을 들렁 가난.

64) 덩덜: 혈죽. 친죽.

65) 장네(長利): 가난한 농가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고비에 곡식을 꾸었다가 값을 때에 따르는 변리.

66) 대물레: 굵은 모래.

천지왕은 첫 숟가락을 뜯게 머흘<sup>68)</sup>이 씹힌 거라. 게난 총명부인안티

“어떻허난, 첫 숟가락이 머율이 씹헬텐.”

게난

“아이, 그런게 아니고. 이 고을에 수맹이가 잇인다. 수맹이네 집인 묵은 곡식(穀食) 늬 줘뵤, 자기가 받을 땐 새 곡식으로 받고. 이제 뵤로 줘뵤 말로 받고, 대미췌(大白米)에는 대몰레를 섞고, 소미췌(少白米)에는 소몰레를 섞영 경 늬을 췌젠.”

허난. 상을 물린 거라. 상을 물린 허는 말이. 대별왕이 총명부인ㄱ라, 상 물리면 서

“이걸랑 시걸명 잡식<sup>69)</sup>허영, 나 뒤에 삼천명에 금상, 오천명에 중생들이 오랴이 메. 시걸명 잡식해당 줘불고, 그췌룩 나쁜 므음 먹은 수맹이네랑 이제 이 ㄱ을에 놔둘 필요가 없다. 수맹이네랑 사름 죽어난 디, 귀양풀이<sup>70)</sup> 헐 때랑 오곡밥허영. 경 허연. 그걸로 주렌.”

그 법지법(法之法) 마련해 뵤. 그날 밤인, 밤이 어둑언. 초경, 이경, 야사 삼경 넘언. 깊은 밤 넘영 뵤날 아침<sup>71)</sup> 득 울어가난. 천지왕(天地王)은 옥황엘 올라사알 거주게. 게난 올라가젠 허난 총명부인이 허는 말이,

“대별왕님아, 간 밤이 뵤 아기는 나면 뵤엔 이름을 지웁네까?”

경 허난. 대별왕 허는 소리가

“만약, 헐 텃줄에 두 개를 낳뵤. 아들랑 낳건 문저<sup>72)</sup> 난 걸랑<sup>73)</sup> 대별왕, 말췌<sup>74)</sup> 난 걸랑 소별왕. 경 헐 이름 지와주고. 만약 딸을 낳걸랑. 문저 난걸랑 대털왕, 말췌 난건 소털왕으로 허연 이름을 지와도렌.”

“게믄 본메본짱이나 주어뵤 잡서.”

게난 본메본짱 내어준 건 꼭씨<sup>75)</sup> 시 방울을 내준거라. 이 꼭씨를 정월 첫 헤일(初亥日) 날. 게난, 도세기<sup>76)</sup> 날이주게. 게난 첫 뵤날, 이거 싱경, 이거 순이 낭

67) 헐 작박: 한 바가지.

68) 머흘: 밥에 섞인 자잘한 돌맹이.

69) 시걸명 잡식: 제사가 끝난 뒤에 제상에 차린 제물을 조금씩 뜯어 문밖으로 던져 잡귀를 대접하는 일.

70) 귀양풀이: 사령(死靈)을 위무(慰撫)하여 저승에 보내는 곳.

71) 아침: 아침.

72) 문저: 먼저.

73) 난 걸랑: 낳은 것은.

74) 말췌: 나중에.

75) 꼭씨: 박씨

76) 도세기: 돼지.



자라걸랑. 혼 줄랑 지붕 우터레 발을 번게 허고, 두 줄랑 옥황더레 올리렌. 경 헨 가분디. 아닌게 아니라, 이젠 애긴 나난 아들 성제 난 거 아니. 게난 몬저 난 건 대별왕으로 이름을 지으고, 말제 난 건 소별왕으로 헤연 이름을 지완. 이 아기들 이 커 가난 아방국도 츠지허키여<sup>77)</sup>, 어멍국도 츠지허키여 형제가 허여가난. 이젠 죽은 아시<sup>78)</sup>가 더 으망진<sup>79)</sup> 모양이라. 게난 소별왕 허는 말이

“게몬, 성님아, 우리가 예숙이나 제경 이기는 자랑 아방국을 츠지허고, 지는 자랑 어멍국을 츠질헙주.”

허난.

“게건 아멩이나 허렌.”

소별왕이,

“성님아, 어떤 일로 동지 석 덜 설한풍(雪寒風)이 불영 백눈(白雪)이 펄펄 오고. 헤가면, 어떤 낭<sup>80)</sup>은 잎이 푸령 스시스철<sup>81)</sup> 시양삭삭 이제 싱싱허고, 어떤 낭은 잎이 다 떨어집네까?”

경 헨 질문을 허난. 대별왕 허는 말은,

“서룬 나 동싱아, 모른 소리 허지 말라. 속이 옴은<sup>82)</sup> 낭은 잎이 아니 떨어지고, 속이 구린<sup>83)</sup> 낭은 잎이 떨어진텐.”

경 허난,

“성님아, 모른 소리 허지 맘서. 어뎡허난 머구낭<sup>84)</sup>은 속이 옴아도 잎이 떨어집네까? 경 허고, 어뎡 허난 왕대 죽대는 속이 구려도 잎이 아니 떨어집네까?”

경 허난

“나 동싱아, 왕대 죽덴, 속이 믋디므디가 속이 탕탕 옴으난 겨울에도 잎이 아니 진다.”

이젠

“알앗수덴.”

허연.

“게몬 성님아, 어뎡허난 동산에 풀은 이제 메<sup>85)</sup>가 즐르고<sup>86)</sup>, 굴형<sup>87)</sup>에 풀은 메

---

77) 츠지허키여: 차지하겠다.

78) 죽은 아시: 작은 아우.

79) 으망진: 똑똑하고 야무진.

80) 낭: 나무

81) 스시스철: 사시사철.

82) 옴은: 여문.

83) 구린: 고린.

84) 머구낭: 머귀나무.

85) 메: 초목의 묘종.

가 집네까<sup>88)</sup>?”

허난

“동산에 풀은 비가 오라도 물이 잘 엇이난, 메가 졸르고, 굴형에 건 아멩헤도 물이 고이니까 경 허난, 메가 진다. 경 허고 아무래도 햇빛도 맞고 뭐 허난”

“성님아, 모르는 소리 허지 맙서. 우리 인간 사름은, 어떻 허난 머리는 원대잔<sup>89)</sup> 머리, 수페머리<sup>90)</sup>가 뒤편, 발등에 털은 쫄릅네까?”

허난 그것에도 진 거라. 예숙도 제끼단<sup>91)</sup> 전. 게난 아시 허는 말이,

“성님아, 경 말앙. 우리가 꽃춘심<sup>92)</sup>이나 허영 꽃이나 키워 뵙, 번성허는 자랑 어멍국이고, 아방국이, 이녁이<sup>93)</sup> 츠지허구정<sup>94)</sup> 허는 국을 츠지허고, 번성을 못허는 자랑 어멍국을 츠지협주게.”

허연.

“게문 경 허렌.”

허연. 이젠 서천꽃밭<sup>95)</sup>테레 간. 꽃씨를 간 은상귀(銀床龜)에 꽃씨를 하나씩 심 언. 수둑 주고<sup>96)</sup> 물 주언. 텅기단 보난 대별왕 싱근<sup>97)</sup> 꽃은 막 시양삭삭 고와지고, 소별왕 싱근 꽃은 검뉴울<sup>98)</sup>이 뵈 거라. 거난 소별왕이 께를 쓴 거라.

“성님아, 우리 즘이나 혼 즘 잡주.”

허난 성은 아무래도 숫저신ㄴ라<sup>99)</sup>.

“경 허라.”

허연. 이젠 누원<sup>100)</sup> 즘을 자는디, 즘 자는 동안에 꽃을 바파<sup>101)</sup> 놔분 거라. 소별왕이 꽃 바파 놔뵈<sup>102)</sup>,

---

86) 졸르고: 짧고.

87) 굴형: 움푹 패거나 깊이 빠진 구렁.

88) 집네까: 집니까.

89) 원대잔: 원대자, 길다의 뜻—

90) 수페머리: 숲처럼 무성한

91) 예숙도 제끼단: 수수께끼 놀이를 하다가.

92) 꽃춘심: 꽃가꾸기 내기

93) 이녁이: 자기가.

94) 츠지허구정: 차지하고 싶은.

95) 서천꽃밭: 환생(還生)꽃 멸망(滅亡)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96) 수둑 주고: 흙을 모아 올리다.

97) 싱근: 심은.

98) 검뉴울: 시들어가는.

99) 숫저신ㄴ라: 소박하고 껍이 없는 모양이라.

100) 누원: 누워서.

101) 바파: 바뀐.

102) 바파 놔뵈: 바뀐 놔 두고.

“성님아, 일어 납서.”

허난. 일어난 보난 뜻은 바짜진 거 아니. 대별왕 허는 말이

“설운 나 동싱아, 어떻허연 꽃사발은 선후도착(先後倒錯)이 웨언.”

이제 바꾸와져텐 허는 말이주.

“선후도착이 웨엇저만은 기여 늘랑 어멍국을 츠질허라. 날랑 아방국을 츠질허마.”

게난 이제 그 꼭씨 싱경<sup>103)</sup>. 혼 줄은 지붕 우터레<sup>104)</sup> 올리고, 양 줄은 옥황더레 올리난, 대별왕은 그걸 탄 올라사젠 허난. 올라가단 보난 말 모르는 가막세덜<sup>105)</sup>, 새. 그 길짐승들이 오조조조 말을 곤는 거라. 사람굴이 말을 굴으난. 아이고, 영허민 안웨켄 곱<sup>106)</sup>을 갈라야웨켄. 겐 소피(松皮) ㄱ루<sup>107)</sup>터 닷 말 닷 웨 칠세오리 허여단 동서러레 짝 허트난, 말 ㄱ른 가막세들도 세(舌)가 쫄란, 겐 말을 못 곤 게<sup>108)</sup> 멘들고. 아이, 보난, 귀신 갈 디 생인이여. 생인 갈 디 귀신이여 막 서로가 허꺼진 거라. 겐 아이고, 이것도 안웨켄. 겐 이젠 이걸 곱을 갈라사주젠 허연. 남정중(南正重) 화정녀(火正黎)<sup>109)</sup>엔 현 신이 잇어예. 허난 저승법을 마련 현 남정중(南正重), 이승법을 마련 현 화정녀 허난. 남정중, 화정녀(火正黎)를 불러단. 귀신 갈 디 귀신 가게허고, 생인 갈 디 생인 가게허난. 게난 귀신은 저승더레 보내게허고, 우리 생인들은 이승더레 보내게 허연. 이제 곱을 갈란.

겐, 올라사젠 허난. 아이, 하늘 우터레 브리난 낮이도 해가 두개가 떠오고, 게난 해가 두개 뜨난. 인간 백성들이 좇안<sup>110)</sup>. 좇아 살 수가 엇고, 이제 가진 낭에 강목을 메영 죽고, 막 헤가고<sup>111)</sup>. 밤인 웨여가난, 들(月) 두개가 떠오난, 백성들이 천 멧백 명이 고사(渴死), 얼어, 실령. 경 헨에 쟁시 물<sup>112)</sup>에 강 빠져 죽고 막 경 헤가난. 아이, 이것도 아니 웨켄. 이젠 궁정방에 놀려들어 대별왕은 천근들어 백근쌀(百斤矢), 원이둥둥 금올려단. 앞이 오는 일광(日光) 생겨두고, 뒤에 오는 일광(日光)을 화살로 쏘안. 겐, 맞쳐단, 동이와당<sup>113)</sup>더레 받지 헤두고<sup>114)</sup>, 소별왕은

103) 싱경: 심어서.

104) 우터레: 위쪽으로.

105) 가막세덜: 까마귀들.

106) 곱: 경계.

107) ㄱ루: 가루.

108) 곤게: 말하게.

109) 남정중(南正重) 화정녀(火正黎) 『사략(史略)』 전옥(顓頊) 고양씨(高陽氏) 항목에서 따온 것. 여기서는 남정중의 예법(禮法). 또는 다툼의 분한(分限)을 구별하는 법.

110) 좇안: 뜨거움이나 더위, 추위 등에 못 견디는 상태를 말함.

111) 헤가고: 하고 있고.

112) 쟁시 물: 접시 물

113) 동이와당: 동해바다.

이젠 또, 원이둥둥 금올려단 활로 쏘안에. 앞이 오는 월광(月光)을 생겨두고, 뒤에 오는 월광(月光)을 맞쳐단 가운데 받지허니까. 혼 하늘에 해도 하나, 혼 하늘에 들(月)도 하나.

게난 일일광도 도업(都業), 월일광도 도업. 아방국으로 간, 경 해된. 아방국으로, 대별왕은 이제 아방국으로 도올리난. 어떤 사람들은 아방국더레 갈 때 용상(龍床)을 탕 갓덴 헤예. 용상을 탕 가는디 용상 우에 탁 앓이난 용상이 드르릉 허난에,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임제 므른<sup>115)</sup> 용상아, 경 허연 웬 주먹으로 웬 뿔을 탁 치난. 게난 용상은 웬 뿔이 엇젠 헤예. 경 용상도 탕 갓젠허고, 경 허난. 이제 저승법을 마련헌 대별왕도 도업, 소별왕도 도업. 이것이 천지왕(天地王) 본(本)입네다.

---

114) 받지 해두고: 바쳐두고.

115) 임제 므른: 임자 모르는.

## 대별상(마누라) 본풀이

마누라본은. 요즘은 접종허고, 뒤흔고 해부난 잘 엇주만은. 옛날은 홍역. 말하자면 홍역허영. 거, 얼굴에 뽀글 뽀글허게시리. 겐 얼굴에 막 물집이 생건 현 때에. 그 마누라 숭<sup>116)</sup>을 보민, 그걸 막 애기가 막 굵영, 굵어불민 얼굴이 덧냥. 우리 말하자면 곱보, 것이 뒬는 거주게. 덧이 난. 숭 안본디는 경 허여도 곱닥허게<sup>117)</sup>, 오물렉기<sup>118)</sup> 허는 거고. 겐디. 그 마누라본은 얼굴 츠지는, 게난 얼굴 츠지엔 현 건. 얼굴을 곱닥허게 해 주느냐, 어떻 허느냐 그 홍역에 대해서 허는 말인데. 얼굴 츠지는 홍진국대별상, 경 허연 허는다.

홍진국 대별상이 옥황에서 준지 [眞珠] 지기, 책갑(冊匣)지기, 영끼 [令旗] 지기, 몸끼지기, 경 험 거느령 인간땅에 이제 즈순덜신디<sup>119)</sup> 호명<sup>120)</sup>을 허레 내려사는 거라. 겐 호명(呼名)허레 내려삼젠 허난. 인간 명진국할마님이 브름썸<sup>121)</sup>에 구름썸<sup>122)</sup>에 들으난. 아이, 홍진국대별상이 이제 책갑(冊匣)지기덜 거느리명 인간에, 게난 할마님 즈순이주게. 인간 즈순들은, 명진국할마님 즈순인디. 이제 할마님 즈순신디 호명을 허레 완텐 허난. 할마님이 막 불안현 거라. 경 허연. ㄱ만히 들으난 브름썸에 구름썸에 홍진국이 알더레 내려사는 걸 들언. 명진국할마님이 홍진국 안테 옆대를 허연<sup>123)</sup>

“아이고, 홍진국대별상님아, 우리 즈손들안티랑 준지<sup>124)</sup>를 주어도 보기 좋게시리 쥬, 경 준지(眞珠)를 하영 주지 말아 줘센.”

경 허연. 이젠 옆더정 스정 [事情] 을 해가난. 홍진국대별상 허는 말이,

“저 할망은 어떻 현 할망이고?”

“난 인간 명진국할망이우다.”

허난에.

“막상 해봐야 인간에서 애기 내우레 텅기명 무시거 핏네 나는 디나 텅기는, 여

116) 숭: 흥.

117) 곱닥허게: 곱다랑게.

118) 오물렉기: 피부가 깨끗하고 모양이 예쁜

119) 즈순덜신디: 자손들에게.

120) 호명: 마마를 일컫는 말. ‘호명정구’라고도 함.

121) 브름썸에: 바람에 떠도는 소문에.

122) 구름썸에: 구름에 떠도는 소문에.

123) 옆대를 허연: 옆드려 절하면서.

124) 준지(眞珠): 진주. 여기서는 그 모양이 마마자국과 같다고 해서 쓰인 표현임.

정네가 흠부로 남자의 행차길에 이제 험덴.”

할망신디 막 욱을 헌거라. 게난 할마님이 슬그믐찍이<sup>125)</sup> 부에<sup>126)</sup>가 난.

‘응, 나한티 험주만은 두고보자.’

겐 해신디. 아닌게 아니라. 흥진국대별상은 땡기명 즈순들신디 막 준지를 준 거 아니. 경 허연 막 준지를 쥔. 흥명을 허고 막 허는다. 할마님은 흥번 나 즈순을 좇아보주겐 험 간보난. 아닌게 아니라. 얼굴에 엮어진 딘<sup>127)</sup>, 엮어지고. 틀어진 딘, 틀어지고. 막 대닥대닥 준지를 준 거라. 겐 주난. 부에가 꾹죽 ㄴ찌 난 거라 할마님이.

경 허는다. 흥진국대별상 아들이 장계를 간. 게난 메느리가 가메 탄 가가난, 할마님이 가메뻗줄에 똥랑 간 거라. 똥랑 간, 이젠 그 흥진국대별상 메느리안티 치메깅<sup>128)</sup>에 똥르고<sup>129)</sup> 험 간에 포테(胞胎)를 시겅주게. 포테를 시겅 허난. 흥 덜, 두 덜 넘언 석 덜 열흘 넘언, 아호열 덜 준삭(準朔)차도 애긴 안 나는 거 아니. 열흥 덜이 똤가난. 경 해도 아니 난, 열두 덜이 똤가난 애기 어멩도 죽을 스경(死境)이 똤가고, 이젠 베 쏘굽에 잇는 애기도 죽을 스경이 똤가고. 게난, 흥진국이 그냥 메누리 죽는 꼴광, 손지 저추룩<sup>130)</sup> 못뵈 허는 꼴을 어멩 보렌 그냥 탁 탄복을 허연. 이젠 말하자면 아판 눈거주. 경 허난. 흥진국대별상 부인이 이제, 흥진국대별상이 서신국마누라 허고 막 친헌 걸 아니까, 게난 흥진국대별상 부인이 서신국을 좇앙 간거주게. 좇앙 간.

“아이, 야카야카허연. 이제 영영 헌 일이 잇인디 어멩 험네까?”

허연.

“아이고, 경 허건. 이제 흥포관디(紅袍冠帶) 입고 허영, ㄴ람지<sup>131)</sup> 폐와 놓고 허영, 백보 베깅딜로<sup>132)</sup> 할마님안티 강, 굽어 신청을 허영 스정을 허여사 헌덴.”

게난. 이제 대별상, 흥진국 대별상 부인이 오란에

“아이고, 서신국 마누라님신디 좇앙 간 곶으난<sup>133)</sup> 저 이만저만 허렌 험디다.”

허난에, 험 수 엮이 그 며느리 죽는 꼴을 안 보젠허난, 출런, 도폭 입고 허연 출런, ㄴ람지 폐완 백보 베깅딜로. 게난 애기덜이 흥역허영 막 승 뵈. 옛날은 승

---

125) 슬그믐찍이: 슬며시.

126) 부에: 화.

127) 엮어진 딘: 얼굴에 마마 자국이 생긴 곳.

128) 치메깅: 치맛자락.

129) 똥르고: 따르고.

130) 저추룩: 저렇게.

131) ㄴ람지: 이영.

132) 베깅딜로: 바깥으로.

133) 좇앙 간 곶으난: 찾아가서 말하니.

똥은에. 옛날은 애기들이 열세 개 난 반벙작<sup>134)</sup> 허그라, 열 개 난 세 개 살았저. 홍역허멍 애기들이 다 죽는 거라. 승 받. 게난 그처럼 혈 때는 진짜로, 느람지 폐와 놓고. 나도, 경 허연. 나 멧 밧디, 나 간 빌어난 경 현 일이 잇인다. 게난 느람지 폐와 놓고 허연. 었더전 올레로부터 그 상 출린디 깁지<sup>135)</sup> 빌멍 혼 발 혼 발 영 굽영, 경 허영 그 깁지 빌멍 오는 건디. 게난 홍진국대별상이 간 느람지 폐완 이제 었데헤연<sup>136)</sup> 앓으난. 할마님이 영 금법당 안에서 영 문을 올안 보난, 홍진국대별상이 바로 그디완 직낭도포<sup>137)</sup> 입고, 관디 입고 허연 었데 헨 잇이난. 모진 광풍이 불게 할마님이 축지법(縮地法)을 읽은 거라. 막 브름이 불어도 옷이 다 찢어지고 경 해도 꿈짝도 안허연. 그디 끓여 앓안 었데헤연 잇이난. 할마님이 여자에 마음으로서

“저디, 저 시군문<sup>138)</sup> 베끼디, 백 보 베끼디 잇는 건 누구냐?”

허난. 대별상 허는 말이

“저 홍진국대별상입네다.”

“어떻 허연 남정네가 여정네를 좇앙 왔이넨.”

허난

“아이고, 할마님아, 우리 며느리가 포테가 뉘언. 열 둘이 뉘어도 헤산을 못허난, 며느리도 죽을 스경이 뉘고, 배 쏘곶에 잇는 손주도 못 볼 지경이 뉘난, 할마님아, 과연 내가 잘못허엿수넨. 할마님을 몰라 받. 내가 잘못헛수넨.”

허난

“응, 너도 너 자손 보고 싶으냐, 나도 내 자손 고운 얼굴 보고싶으넨. 경 허문, 내 자손안티 강. 옛날 얼굴을 다 못 멘들아도, 내 자손 고운 얼굴을 멘들아도렌.”

허난

“아이고, 할마님아, 과연 잘못허엿수다. 내가 강 메꿀만이<sup>139)</sup> 메짜보고 허쿠넨.”

허연. 이제 경 허연. 홍진국 대별상이 이제 또 내려산, 그 할마님 즈순안티 간. 얼굴에 간 메꾼디 메꾼덴 허난. 경 허난, 그 지금은 수두. 게난, 홍역 잇고, 마누라<sup>140)</sup>가 잇주게. 게난 이제 말제 현건. 마누라 헤 나쁜, 또 홍역허연. 그땐 이제

134) 반벙작: 주로 주인과 소작인이 서로 수확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계약해서, 경작하거나 관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반만 살아남았다는 뜻임.

135) 출린디 깁지: 차린데 까지.

136) 었데헤연: 무릎 꿇고 절하면서

137) 직낭도포: 도포(道袍)의 한 종류.

138) 시군문: 곳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문을 열어 곳을 하다라는 용어를 차용, 대문이라고 볼 수 있음.

139) 메꿀 만이: 메꿀 만큼.

140) 마누라: 마마.

얼굴에 난 것들 또 메짜주고 헌텐 허연. 게난 할마님이 간 보난. 옛날 본 얼굴은 엇언. 경 해도 그냥 칠세오리<sup>141)</sup> 정도 막 더닥더닥 해난 거를, 게도 메꿀만이 메 짜시난. 그땐 알앗텐 허연.

“당신도, 당신 즈순 보고 싶으난 내가 알앗텐.”

허연. 그땐 할마님이 들어사네, 대별상 메누리<sup>142)</sup> 애깃배 맞추게 허연. 경 허연 애기 나오라가난 은꺾웨로 콧주둥이 쏘악<sup>143)</sup> 건드난, 옥동자가 팔락허게 씨더지 난<sup>144)</sup>. 그땐엔 대별상 허는 말이

“아이고, 나 기술만 좋텐 허단 보난 나 기술보다 더 좋은 할마님도 잇구나.”

경 허연. 그땐엔 애기를, 손지를 본 법으로서, 홍진국대별상은 홍역 혈 때에 이 건 비는 거. 홍진국대별상이엔 허영 홍역 혈 때 비는 본풀이입니다.

---

141) 칠세오리:

142) 메누리: 며느리.

143) 쏘악: 끝이 날카로운 것이 연한 무 같은 것을 찌를 때 쉽게 들어가는 꼴.

144) 씨더지난: 쏘아지니.



## 멩진국 할마님 본풀이

멩진국할마님은 천왕불도(天皇佛道)할마님, 지왕불도(地皇佛道)할마님, 인왕불도(人皇佛道)할마님. 공(空) 씨. 게난, 공방에 떠다닌다 해서 공(空) 씨, 방방곡곡을 다닌다 해서 방(方) 씨, 서역불법 할마님이라 해서 서씨여리. 게난 공(空) 씨, 방(方) 씨, 서씨여리 인간 멩진국 사암불도할마님 허영 해넌.

할마님은 옥황에 명전대왕땀님아기로서, 하도 열렬허고 똑똑허고 으망지난, 옥황상제의 영을 반안

“넨랑 인간에 내려강. 인간 즈순덜 포테도 시겨주곡, 해산도 시겨주곡, 경 허영 법지법을 마련 허라.”

허연. 게난 내어주는 건 보니까. 할마님은 남방사주(藍紡紗紬) 저고리에 북방사주(白紡紗紬) 말바지 입고, 열두복 대홍대단(大紅大緞) 훗단치마 입고, 물명지 [水禾紬] 장장옷에 단추도 열두 단출 들고, 이제 금주란 철죽대, 은주랑 만족대를 짚으고, 춤썰<sup>145)</sup> 혼 제, 은 ㄱ췌<sup>146)</sup>. 그걸 들런 만산족두리 둘러썸, 나막창신에 웨코<sup>147)</sup> 접은 백농보선 신고허연. 이제 이구산으로 허연, 할마님은 정월 초사흘 날, 정월 초사흘 날 인간에 내려산, 이구산으로 딱 내려산보난,

할마님 들어갈 딴 보난, 이제야 뭐 땃 층경 집덜 막 나오주만은. 웨국 같은 딴 땃 층도 나오고 허주만은. 그 옛날 구한국 시절이난, 십이 층경 집이 최고 높은 생인고라. 십이 층경 집을 지언. 누룩으로 다 성을 싸고, 이제 문 베끼던<sup>148)</sup> 보난. 걸레삼승<sup>149)</sup>, 업게삼승<sup>150)</sup>, 구덕삼승, 일흔으담 보살청덜, 창 안네도 일흔으담, 창 베끼디도. 게난 창 안네, 창 베끼디엔 헌건. 문 안네, 문 베끼디엔 헌 말이주. 이 창문 안네와 베끼을. 경 허연. 이젠 잇이난, 할마님은 쏘옥허게<sup>151)</sup> 금법당더레 들어산. 글로 들어가난 금법당 잇이난. 그디 들어간 할마님은 앓아 천리를 보고, 사만리를 보난. 아, 가난헌 집이도 자손이 귀허고, 막 잘사는 부잣집이도 자손이 귀허고. 게난

---

145) 춤썰: 명주실.

146) 은 ㄱ췌: 은 가위.

147) 웨코: 보선 코가 하나

148) 베끼 단: 밖에는.

149) 걸레삼승: 아기 업는 포대기의 수호신.

150) 업게삼승: 업저지의 수호신.

151) 쏘옥 허게: 쏙 하게.

‘아이고, 이거 자손을, 이거 주젠허민<sup>152)</sup> 가난헌 자손에도 강 포테를 줘야 텔 거고, 이제 부제칩이 즈순에게도 간 포테를 줘야 텔로구나.’

헤연. 할마님은 이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경을 읽은 거라. 할마니가 경을 익언. 이제 앓아 천리를 보고, 사 만리를 보양. 가난헌 즈순에게도 포테 주고, 이제 부제칩이 자손에게도 포테를 주는다. 하루 앓양 천 명을 포테 주고, 해산을 시기젠 허면, 하루 만 명을 해산을 시기는다.

첫째는, 아방 몸에 석 덜 열흘 붉은 피를 빌고, 경 허연. 빼를 빌고, 이제 아호 열 덜을, 어멍 몸에 이제 흰 피를 빌어. 게난 석 덜 열흘 백일이 넘어가민. 아기, 이제 인간 사름으로. 이제 다, 할마님이 고운 얼굴, 고운 메치<sup>153)</sup>를 그렁. 아홉열 덜 받은 덜은 돼민. 원래는 애기가 우이로 앓앗단, 우이로, 머리는 여기 잇고, 영 앓앗단. 아홉 덜 돼민 여기서 돌아, 돌아갈 거꼴로 애기가 내려강, 머리는 밑으로 가는 거라. 겐 할마님이 여기서 영급을 쥔 애기도 숙언. 경 허연.

이제 할마님이 그 열 덜 준삭(準朔) 차면 아무리 발전되고 뭐 헤엿젠 해도. 할마님에서. 뭐 요즘 제왕절개 허면 애기 나는 거 뭐 허주만은. 옛날식으로 허면, 할마님이 힘을 안 주고는 애길 낳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 인간 뭐헌텐 해도. 게난 할마님이 딱 열두복 대홍대단(大紅大緞) 치메 벗언 걸어두고, 딱 즈순<sup>154)</sup> 포테 웨언 애깃배 맞추는디 들어간 보난. 막 공단 이불, 서단 이불, 원앙칭칭 잣배게 폐와놓고 허연 잇이난. 할마님은 그거 다 걷어 뒀. 북덕자리 출련. 옛날엔 보리낭 깔안. 보리낭 깔안, 거기서 이제 할마님이 애기 어멍 상가메<sup>155)</sup> 머리를 술술허게 연세 번을 썰어두언.

이제 어멍 오모순이<sup>156)</sup> 알더레 술술허게 할마님이 썰어 가난. 게난 아들은 낳젠 허민 일주일이나 삼일 전에 이슬을 내리는데, 붉은 이슬이 내리고. 좀 붉으름허게 줄 잇게끔 허영 붉은 이슬이 내리고, 딸은 낳젠 허민 흰 이슬을 내려. 경 허연 할마님이 들어간. 이제 애기 어멍 오모순이 알드레 술술허게 썰고, 할마님이서 힘을 주게 헤가든. 이제 아끈 장식, 한 장식. 애기 어멍 열두빠에 다 무너지게 헤연. 애기 어멍이 아끈 장식 힘을 내드로민<sup>157)</sup>, 할마님이 인간더레 애기를 탄생허젠 허민. 할마님 손콥으로 애기 붓을<sup>158)</sup> 내 튼영, 영 허게시리 탁 내 튼으면, 애기 머

---

152) 주젠허민: 주려고하면.

153) 메치: 땀시.

154) 즈순: 자손.

155) 상가메: 머리의 가마.

156) 오모순이: 오목가슴.

157) 내드로민: 내지르면.

158) 붓을: 태반.

리 받은물 물 씌어지명<sup>159)</sup> 애기가 태어나는 거라.

겐 태어나민 할마님에서 이젠, 옥황에서 올 때 춤쉴을 혼 제 가져 오난, 그 춤 쉴로 애기 베또롱줄<sup>160)</sup> 묶영, 할마님이 은그췌를 가져 왓주게. 게난 그췌로 애기 베또롱줄 끊영, 게 즈친<sup>161)</sup> 거, 이제 내완 곱 갈란. 즈친 거엔 현 건 태반. 태반 이제 곱 갈라된, 애긴 몸모옥 시견. 할마님이사 애기광, 어명광 곱을 딱 갈랑 놓 지면, 사흘 돼민, 애기 낱 사흘 돼민. 이제 치셋메<sup>162)</sup> 지언 올리곡, 속 숭안<sup>163)</sup> 애기광 어명광 몸모옥 시기고. 또 일뤼 돼민 치셋메 올리고. 또, 이제 속 숭안 몸모옥 시기고, 경 허영 허민. 세 설 돼민, 할마님이 초겔렛벨<sup>164)</sup> 뱃기고, 또 일곱 설 돼민 이걸레 뱃기고, 열다섯 십오세가 돼면 삼겔렛베를 뱃경.

이젠 할마님이 머리 뱃경 내는 거라. 이제 성인이 뵈 거라. 열다섯이 뵈면. 겐 성인이 뵈면, 할마님은, 거난 애기들 열다섯 안네엔 할마님이. 할마님은 언제 상 받느냐면, 초사흘날, 초일뤼, 열사흘, 예일뤼, 쓰무사흘, 쓰무일뤼. 경 혼 들 앓앙 으섯 번 할마님이 상을 받고. 할마님에서가 이제 꽃을 취급을 허젠 허면, 번성 꽃을 허영. 꽃을 싱그면 동더레 벌은 가지는 동청목, 서더레 벌은 가지는 서백금, 남더레 벌은 가지는 남장수, 북더레 벌은 가진, 이제 북하수를 시겨췌. 거 허는디. 할마님에서가 그 애기 날 때에, 애기 날 때에 옛날은 방에서 막 둥글멍게<sup>165)</sup>, 자기 멋대로 둥글멍 허당 애길 나면, 그 애기가 머리가 동쪽드레 헨 애기가 나면.

‘아따, 이 애긴 동더레 머리헨 난, 잘 살키여.’

경 허고. 서더레 머릴 헨 나민,

‘요거 서가난 험직허다.’

허고. 남더레 머릴 헨 나민,

‘남장수(南長壽)가 뵈키여.’

경 허고. 북더레 머릴 헨 나민,

‘아이고, 이거 공이나 헨 드러사 허키여. 이거 북단명(北短命) 험직허다.’

경 허영 이제 허는 거. 할마님에게서는 애기를 키우젠 허민.

‘이제 물웨<sup>166)</sup> 크듯, 당베치<sup>167)</sup> 크듯, 넘늬물<sup>168)</sup> 키와 가듯, 버룻 버룻허영 할마

159) 씌어지명: 쏘아지면서.

160) 베또롱줄: 탯줄.

161) 즈친: 따른, 쫓은.

162) 치셋메: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방의 구석이나 벽 위에 차려두는 상에 올리는 메.

163) 속 숭안: 쭉 삶아서.

164) 초겔렛벨: 아기 업는 포대기.

165) 둥글멍게: 뽕굴면서.

166) 물웨: 물외.

님에게서 잘 키와 줘센.’

허영 이제 우리가 할머니한테 불도맞이도 하고, 할머니한테 공 들이는 거, 이것  
입니다.

---

167) 당배치: 배추.

168) 넘늬물: 나물.

## 구할망본

이번에는 구 할망본입니다.

구할망은 뭐고 허면. 열다섯 살 안네에, 이제 죽어부는 애기들은 구할망이 데령 가는<sup>169)</sup> 거. 서천꽃밭더래. 우리 열다섯이 넘영 어른 역할허는 사름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체스가, 사자가 데리고 저승을 가지만은, 애기들은 구할망이 데령 서천꽃밭더래 가는 거. 거난 이거 구할망본인데.

옛날 동이용궁말젓뜰아가가 혼 설적엔 어멍 젓가심을 두드린 췌, 두 설적엔 아바지 삼각수(三角鬚) 홀튼<sup>170)</sup> 췌척<sup>171)</sup>, 시 설적엔 뽀<sup>172)</sup> 의복을 버물린<sup>173)</sup> 췌척, 니 설적<sup>174)</sup>엔 동네 델척종저<sup>175)</sup> 우막음제<sup>176)</sup> 준 췌척, 다섯 살엔 날레 널영 놔두민, 그거 다 허데겨분<sup>177)</sup> 췌척, 경, 다섯 술까지 마련허연. 무쇄설갑 [鐵石匣] 을 짠. 이거 그냥 보내민 안텔 거난. 글 삼제 [三字] 를 백이기를 ‘임브로 임박스 시절 나건 계문 계탁’ 허연. 그 무쇄설갑에 글을 썬. 강남천자국에서 그냥 그걸 보내난 물 우이도 연삼 년 흥당망당 살고, 물 아래도 연삼 년, 중간에도 연삼 년 살안 떠덴기단. 들물썰물에 지쳐네<sup>178)</sup> 올른 건 보난, 백물레왔디<sup>179)</sup>에 그 무쇄설갑이 올른 거라. 거난 임박스 시절이 나난, 임브로 임박스는 아무생각 엇이 츠에 물가에 느려다보난 무쇄설갑이 잇인 거아니. 거난, 저건 무신건고 허영 간 보난. ‘임브로 임박스 시절 계문 계탁’ 행 써젓이난. 아,

‘어멍헨 날ㄴ라 이걸 열렌헤연 이것이 써진 거라. 무신 거 들엇인고.’

허연. 그걸 건져 놓안 올안 보난. 꽃글은 애기씨가 앓아잇인 거라.

“넌 누게냐?”

허난.

169) 데령 가는: 데리고 가는.

170) 홀튼: 잡아 뽑은.

171) 췌척: 죄목.

172) 뽀: 뽀.

173) 버물린: 더럽게 한.

174) 니 설적: 네 살적.

175) 델척종저: 될 성 부른 종자

176) 우막음제: 식물을 옷자라지 못하게 순을 자름.

177) 허데겨분: 흘뜨려버린.

178) 지쳐네: 치여서.

179) 백물레왔디: 백모래밭.

“나는 동이용궁말젖뜰아기가 됩니다.”

허난.

“너 잘허는 게 뭐냐?”

허난.

“나는 모든 걸 다 잘 합니다.”

허난.

“경 허민. 우리 집이 안부인, 강 혼 번 포테(胞胎)나 시겨보라.”

허난

“시겨지크냐?”

허난. 시겨지켄. 경 허거들랑 우리 안부인 포테시기렌. 게난 이젠 간 임박서 안부인은 포테는 시기난. 아이, 혼 덜 두 덜 아호열 덜 준삭(準朔)은 차도, 해산을 못 시기는 거라. 포테는 줄줄 알고, 해산을 못 시기는 거라. 아이 게난 그디도 또 애기어명도 죽을 스경이 당허고, 임박서가 탁 천만낙심(千萬落心)을 허연 잇단, 아이고, 아멩해도 이제 옥황더레 등장(等狀)을 드러보주긴 허연. 백물레왓딜로 간. 낮인 춘<sup>180)</sup> 뱃<sup>181)</sup> 맞고, 밤인 춘 이슬 맞으멍 옥황드레 금바랑 소리를, 옥황상저님안티 등장(等狀)을 드난. 옥황상저님이

“야, 성관도서야, 저 굽어보라. 어떻허난 뭐가 칭원(稱冤)헌 일 잇인 백성이 이렇게 이제 밤낮으로 금바랑<sup>182)</sup> 소리를 올렸이나?”

허난. 성관도서가 내려산 들으난,

“아이고, 우리 안부인 포테는 뉘어도 해산을 못 허연. 이제 애기 어명이 죽을 스경이 뉘었습네다.”

허난. 이젠 옥황상저가 이제 할마님신디 연락을 헌 거주게. 명진국 할마님신디. 게난, 명진국할마님은 들어오멍 지동더레 열두폭 대옹대단(大紅大緞) 치메 벗언, 탁허게 걸어 두고, 만상 죽두리 호양미 감테<sup>183)</sup> 벗어 놔두고 허연. 들어 완, 북덕자리<sup>184)</sup> 출런. 아끈<sup>185)</sup> 장식<sup>186)</sup> 한<sup>187)</sup> 장식에 할마님 들언. 그 애긴 내완. 놔 두 난. 아이, 동이용궁말젖뜰애긴 어디 텅기단 보난 난데엇이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허난.

---

180) 춘: 찬.

181) 뱃: 별.

182) 금바랑: 요령과 바라.

183) 감테: 모자의 일종.

184) 북덕자리: 짚을 두툼하게 깎 자리.

185) 아끈: 작은.

186) 장식: 몸이 불편할 때 내는 쿵쿵거리는 소리.

187) 한: 큰.

“아이고, 난 해산을 안 시겨신디 어떻 했인고?”

이젠 들어와보난, 명진국 할마님이 앓안 잇인 거라. 경 허난 이젠,

“아이고, 내가 포테준 거 감히 누게가 이거 해산을 시겟이넌<sup>188)</sup>.”

이젠 싸움바라기 켜 겨주. 게난 명진국할마님은 옥황더레 도올라산<sup>189)</sup> 옥황상저 님한티 간, 이만저만 허연.

“동이용궁말젯뜰 아기가, 지가 포테헌 거 나가 해산 시겟텐 헤연 영영 했우다.”

허연 이르난. 경 허민 너네 둘이 다 이리 오렌. 경 불러단. 은동이 낫동이에 꽃 씨 싱근 그걸 준 거라. 너네가 이거 수둑 주고<sup>190)</sup> 물 주명 잘 키와보렌. 겐 주난. 할마님이 싱근 꽃<sup>191)</sup>은 보록보록 허연. 빨리<sup>192)</sup>는 하나에, 웨 불리에. 가지가지 송에송에가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벌어지고, 동이용궁말젯뜰애기 싱근 건, 가지는 웨가지<sup>193)</sup> 하나가 딱 올라오고, 빨리는 사만오천육백 가지로 막 벌어진 거라. 게난, 너네 이걸 보나, 저걸 보나. 경 허건, 명진대왕땡님아기랑 명진국할마님으로, 널랑 들어 상, 이제 법지법(法之法)을 마련허고.

동이용궁말젯뜰아기랑 명진국할망이 포테를 쥔 놔두건. 석 달, 열흘 백일 쯤만 돼 걸랑. 물로, 피로 흐르게 멘들고. 또, 애기 낭<sup>194)</sup> 사흘 일주일 백일 쯤만 돼 걸랑 애기 어멍 젓네<sup>195)</sup> 맞췄, 경 허영 그 애기 들앙가고, 경 해근에게 널랑 얻어먹길 마련 허렌. 게난 할마님이 포테 쥔 놔두민. 혼 백일쯤 돼민, 그냥 낙태(落胎) 돼게시리 낙태증을 불러 쥔. 경 허연 구할망이 이제 허고, 또 애기 낭 며칠 아니 돼민, 애기 어멍 핏네<sup>196)</sup> 맞추왕 오랑. 애기 들앙 가불고, 또 애기, 혼 백일쯤 돼영. 업영 땡겘이믄<sup>197)</sup> 젓네 맞추왕 애기어멍 업영 땡겘이민 젓네 나고 허난, 애기 지성기<sup>198)</sup>에 붙언, 경 허연 들앙가불고. 경 허명 허난. 명진국할마님은 혼 달 앓으민 여섯 번을 상을 받는데, 구할망은 혼 달 앓으민 세 번백이 상을 못받아. 초 아흐레, 열 아흐레, 스무 아흐레. 이 아흐렛날은 구할망 날이엔 허영 이제 허고, 서천꽃밭더레 열다섯 안네 즈손들 들앙가부는 것은 구할망본 입니다.

188) 시겟이넌: 시켰느냐.

189) 도올라 산: 올라 사서.

190) 수둑 주고: 흙을 모아 올리다.

191) 싱근 꽃은: 심은 꽃은.

192) 빨리: 뿌리.

193) 웨가지: 외가지.

194) 낭: 나서.

195) 젓네: 젓 냄새.

196) 핏네: 피 냄새.

197) 땡겘이믄: 다니고 있으면.

198) 지성기: 기저귀.

## 초공본풀이

초공본풀이를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옛날이라 옛적에. 게난 초공 임전국 상시당 허난. 임전국 허고, 천하(天下) 임전국, 지하(地下) 짐전국 낙신땅에 부베간이 살앗인디.

애기가 엇인 거라. 아무리 잘 살앙. 강나룩<sup>199)</sup>도 좋아지고, 초나룩<sup>200)</sup> 밧도 남전북답(南田北沓) 너른 전지도 좋고,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을 허영, 기는 중, 낙는 중, 종덜 데령 살아도 자식이 엇언.

허를은

‘에, 경 말앙. 혼번 저 산천(山川)에 강나룩도 밧, 초나룩 밧이나 돌아뵙 오저.’

허연. 이제 물을 턱허게 탄. 아이, 강나룩 밧, 초나룩 밧은 들안 보젠 가단 보난, 말 믋른 길중싱<sup>201)</sup>들이 오조조조 앳안 다 까먹었어, 그걸. 게난

“주어 저 새!”

허연 썰 다올린 게<sup>202)</sup>. 그 새들이 놀아가멍, 아방 본 새는 아방 콤데레<sup>203)</sup> 들어가고, 어멍 본 새는 어멍 콤데레 들어가고. 게난 그걸 보난

‘아, 이거 말 믋른 길짐승도 새끼 계왕, 어멍 강골 아방 강골 허건만은. 날 그 뜰<sup>204)</sup> 팔즈가 어디시리.’

허연. 이제. 물 타 앳언 오단 보난, 삼천선비덜이 앳안 두어 바둑 두어 장길 떼이난. 그디 간

“나도 혼번<sup>205)</sup> 바둑 두는 게 어찌호오리파?”

허난.

“어서 경 험셴.”

허연. 천하임전국 대감이 두어 바둑 두어 장기를 둔 게, 삼천선비덜 돈을 문딱<sup>206)</sup> 따 분 거라. 겐 그 돈을 다 따난. 일어산 오젠 헤 가난. 삼천선비덜 허는 말이,

---

199) 강나룩: 발벼.

200) 초나룩: 찰벼.

201) 길중싱: 길짐승.

202) 다올린 게: 멀리 가도록 내물거나 내쫓다.

203) 콤데레: 품으로.

204) 날 그 뜰: 나 같은.

205) 혼번: 한번.

206) 문딱: 전부. 모두.



“임전국 대감님아, 그 돈을 앓앙 가민 어느 누게 우는 애기가 잇영 주쿠과? 경 말앙. 우리 삼천선비덜 혼 입씩 다 갈라줘동 가는 게 어떻 호오리과?”

그 말 끝에는 대답할 말이 었어. 기냥 그 돈 다 갈라줘 뿔. 이젠 돌아산 집더레 고개 꼭 숙연. 힘이 다 빠진 거주게. 경 헨 오노렌 허난. 비주리 초막<sup>207)</sup>에서 막, 황천대소(仰天大笑) 웃음 소리가 막 나.

‘아이, 이 집인 어떻 허난. 무신 일이 좋은 영 웃없인곤.’

허연. 담 고망으로 영 눈을 쏘안 브려보난, 애기 하나 놓안. 애기가 폴폴폴폴 기영 어멍신데레 기어가민 막 웃고, 또 기영 아방신데레 가민 막 웃고, 게멍<sup>208)</sup> 애기 하날 놓안 막 웃는 거라. 그때서야 애기 없는 한탄을 헨 거라.

“하이고, 날 만 못한 얻어먹는 게와시(乞人)도 애기를 낳안 저렇게 웃음을 웃으 명 살암건만은, 나 팔즈는 무슨 팔즈고.”

허연. 집으로 돌아완 이젠 상깃지동<sup>209)</sup> 앞이 앓안, 삼백도리 진서낭갓<sup>210)</sup> 벗언 놓아두고 앓은 게 비세(悲鳥)글이 올라가난. 짐전국 부인이

“아이고, 어떻 허난 경 울없수과?”

허난.

“경 헨게 아니고, 우리만 못한 길짐승도 새끼 께왕<sup>211)</sup> 어멍 강골 아방 강골 허고, 얻어먹는 게와시 [乞人] 도 애길 난 웃음들을 웃영 살건 만은, 우리 둘이 부베간<sup>212)</sup> 팔즈는 뭇 놈에 팔즈라서 우리가 애기도 하나 었인고.”

허연 허단. 짐전국 부인이 나상 허는 말이

“아이고, 대감님아, 경 허지말앙 잇입서. 나가 웃음 웃을 일을 허쿠다.”

뭇 허젠 헐인고 보난<sup>213)</sup>, 간 은단펑 [銀唐瓶] 에 서단마게<sup>214)</sup>를 막고, 춤실 혼 질 줄라 메언<sup>215)</sup> 미단이 안으로 꺼낸 거라, 그거를. 꺼내언 각장장판에 놓안, 이레 둥글럭 저레 둥글럭 해봐도 웃음이 안 나와. 그거 둥글려도. 게난 부베간이 한탄을 허영, 상깃지동 앞이 앓안 막 한탄하노렌 허난. 시군문 베깃디서<sup>216)</sup>, 올레로

207) 비주리 초막: 아주 작은 초막.

208) 게멍: 그렇게 하면서.

209) 상깃지동: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둥. 제주어로 ‘생깃지둥’이라고 함

210) 삼백도리 진서낭갓: 갓의 테두리인 양태를 짜는데 대를 아주 가늘게 하여 삼백 회선(回線)으로 정교하게 짠 좋은 갓.

211) 세끼 께왕: 새끼를 까서.

212) 부베간이: 부부간에.

213) 헐인고 보난: 하는가 보니.

214) 서단마게: 마개. ‘서단-’은 ‘은단-’에 맞춘 조운(調韻).

215) 줄라 메언: 짧게 묶어서.

216) 베깃디서: 밖에서.

스님이 들어온 거라. 겐. 스님은 누젠곤 허민, 황금산(黃金山) 도단땅에 절이 있는데, 도단땅 추접절이 있는데, 추접 선생이라. 겐 스님이 들어완. 짓알로<sup>217)</sup>

“소승 절이 뵈네다.”

허난

“어느 절에서 옵데가?”

그땐 스님 대답하기를

“예. 나는 동계남 [東觀音] 은 상저절, 서계남 [西觀音] 은 금법당(金法堂) 황금산(黃金山)은 추접절에서 오랏습네다.”

허난.

“어떻허연 오십데가?”

허난.

“내가 오기는 우리 당도 헐어지고, 우리 절도 헐어지난. 인간에 내려상 시권제를 받아다가 헐 당도 수리허고, 헐 절도 수리허고, 인간에 명 없는 자엔 명도 주고, 복 없는 자엔 복도 주고, 생불환싱(生佛還生) 없는 자는, 자손은 생불환싱 취급을 시겨줄까 해서 권제를 받으레 내럿습네다.”

허난. 이제 가지쟁이<sup>218)</sup>에 쏘을 떠단,

“높이 들렁 비옵서. 이거 혼 방울이 떨어지민 명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집네다.”

허연. 전대(纏帶)더레 스르르허게 비웁.

“추접 선생님아,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 봄서. 오용팔괘(五行八卦)을 혼번 집어 봄서.”

게난. 딱 짚으단 허는 말이,

“어떻 허난 당신님넌 고대광실 들 높은 집도 잇고, 남전복답 너른 전지도 좋고, 느진덕정하님을 거느런 살았우다만은. 어떻허난 부베간에 아기가 엇영 호호탄복을 허엿수까?”

허난.

“경 허민 우리 부베간에 애기가 잇이쿠과? 엇이쿠과?”

허난에. 영 단수육갑 짚어봐. 엇이렌 헐 팔즌 아니우다.

“게문 어떻 허문 우리덜 애기를, 포테를 줘네까?”

허난에

“경 말앙. 우리 법당에양 출령을 읊서. 잘 출리나, 못 출리나 그것은 당신네 성의난, 출령 완 수록이나 드러봄서. 수록 들이민 허다 못허민 딸즈식이라도 남직허

---

217) 짓알로: 아래로.

218) 가지쟁이: 개지. 놋그릇의 뚜껑.

우다.”

허난. 게른 스님은 권제 받안 올라가불고. 그날부면 부지런히 느진덕 정하님들 한티 다 곁안. 강나룩<sup>219)</sup>도 비어 오라. 초나룩<sup>220)</sup>도 비어 오라. 비어단 홀탄<sup>221)</sup> 테작허연 장만 허난, 제일 우이로, 이제 그거 불공허레 갈 쏘이난, 제일 우이로 고장썰<sup>222)</sup> 거런. 감은 암췌<sup>223)</sup>에 상백미도 일천 석, 중백미도 일천 석, 하백미도 일천 석, 송낙배<sup>224)</sup>도 구만장, 장삼배도 구만장. 일천 석이엔 해도 그 일천 석 못 시끄주<sup>225)</sup> 옛날 애기난 영 곤는 거주. 경 험. 그걸 다 시경<sup>226)</sup> 절에 올라 간. 이젠 상탕에 간 메 짓고, 중탕에 간 몸모욕허고, 하탕에 간 수족 씻언. 그날부면 불공을 들어간 거라. 불공을 들어간, 석 달 열흘 백일 동안 불공을 허난, 이제 마지막 불공이 끝나는 날은 대추낭<sup>227)</sup> 은저울로 출령간 걸 딱 저울리난. 정성이 부족허연, 혼 근이 부족허연 백 근 근량(斤量)이 못 찬 거라. 게난 추접 선성님 허는 말이,

“당신님네, 이거 정성을 드려서 허영 왔이면 백 근 근량이 창 아덜을 날걸. 정성이 부족허연, 혼 근이 부족허연 백 근이 못 찹우다. 게난<sup>228)</sup> 뜰이라도 취급 [處給] 시겨<sup>229)</sup> 줍직 허난, 가당, 내려가당 올로 요만이 가당보민 꿈산이 잇이난 그디 강양 몽중(夢中)성에 꿈이나 꿔 감서.”

“우리 팔즈엔 뜰도 종수텐.”

경 험 부베간이<sup>230)</sup> 법당을 하직 허연 이젠 내려오는 거 아니. 경 험 오단 보난 꿈산이 잇인 거라. 게난 잠깐 그디 부베간이 앓은 게 줍을 든 거라. 꿈에, 임전국 대감님 꿈에는 물 아래<sup>231)</sup> 옥돌 곁은<sup>232)</sup> 애기씨, 가마귀 첫날개<sup>233)</sup> ㄱ똥 애기씨가 아바지신디 폴폴폴폴 기어오란에 아바지 통설대도 문직어<sup>234)</sup> 뽕곡, 짐전국

219) 강나룩: 발벼의 일종, 거친 땅에서도 경작이 되는 발벼.

220) 초나룩: 찰벼.

221) 홀탄: 훑어서.

222) 고장썰: 가장 품질이 좋고 깨끗한 백미

223) 감은 암췌: 검은 암소.

224) 송낙배: 고깔을 만드는 천감인 배 .

225) 시끄주: 짐 따위를 옮길 것에 차례로 얹어 놓다. 신지.

226) 시경: 실어서.

227) 대추낭: 대추나무.

228) 게난: 그러니까.

229) 취급 시겨: 낭게 하여.

230) 부베간이: 부부가.

231) 물 아래: 물 아래.

232) 곁은: 같은.

233) 첫날개: 앞날개.

234) 문직어: 만져.

부인님 꿈에는 가마귀 젓눌게 곁은 애기씨가 어명신디레 폴폴 기어완 어명 젓가  
심도<sup>235)</sup> 헤싸보고<sup>236)</sup>, 젓 먹젠.

둘이가 퍼쩍허게 깨난 보난 몽중(夢中)성 꿈인디 같은 꿈이라. 게난 집으로 내  
려완. 조은 날 합궁일을 잡안 부베간이 천상베필을 무엇더니만 그날부터 포테가  
웬거라. 아방 몸에 뻘<sup>237)</sup> 빌고, 어명 몸에 술<sup>238)</sup> 엷고 석 덜 열흘 백일이 넘언 아  
홉열 덜 준삭(準朔) 채완 애긴 나난. 이름을 짓젠 허난 애긴 곧 털어지고,

“느진덕정하님아, 지금 이거 때가 어느 때고?”

허난에,

“아이고, 지금양, 구시 월 단풍 들언양, 녹하가 지엿우다.”

게난 우리가 즉청(自請)허연에, 절에 간 즉청(自請)허연 난 애기씨면 녹하지언  
단풍들엿덴 허연 녹하단풍즉치명왕애기씨로 이름을 지은거라. 아이, 게난 이 애기  
씨 귀허연 불면 놀아나카<sup>239)</sup> 췌민 까질건가, 여름이 돼민 상다락에서 애길 노념허  
고<sup>240)</sup>, 봄광 가을이 돼민 중다락에서 노념을 허고, 겨울은 돼민 하다락에서 노념  
을 허고, 경 헨 이 애길 노념을 허는디 혼 술 두 술 열다섯, 십오세가 돼어가난.  
천하임전국 대감님이랑 천하공스(天下公事)를 살레 읍서. 지하 짐전국 부인님이랑  
지하공스(地下公事)를 살레 읍서 허연. 편지가 온거라. 겐 옛날은 강 베슬<sup>241)</sup>을  
살아오민 멧 년을 7만히 앓아서 먹고, 입고, 쓸 그계 다 나왕 허난. 베슬 살레가  
젠 허난, 아고 이 애긴 어떻허민 좋코. 이걸 어떻 놓아뒀 가코. 아덜로 나시민 책  
실(冊室)로나 들양 거주만은 딸로 나부난 책실로도 못 들양가고, 느진덕정하님을  
불러다 난 허는 말이,

“우리 애기씨, 궁 안네서, 문 안네서 가두왕 궁 안네서 밥을 주고 옷을 췌 키얏  
이민<sup>242)</sup>, 느 잘 키얏이민 우리 강 오랑 느 살을 도리를 해주켄.”

거난

“어서 경 험셴.”

허연. 이젠 가젠 허난, 아버지가 중근<sup>243)</sup> 문은 어머니가 수리두고, 어머니가 중  
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를 두웨. 빗골장 모람장 지게살장<sup>244)</sup> 문을 헤연. 게난 말하

---

235) 젓가심: 가슴.

236) 헤싸 뵈고: 풀어 헤쳐 보고.

237) 뻘: 뻘.

238) 술: 살.

239) 놀아나카: 날아갈까.

240) 노념허고: 놀이하고.

241) 베슬: 벼슬.

242) 키얏이민: 키우고 있으면.

243) 중근: 잠근.

자면 아버지가 중근 문 열쇄<sup>245)</sup> 주게, 아버지가 중근 문 열쇄는 어머니가 갖고, 어머니가 중근 문 열쇄는 아버지가 갖고 경 헨 애기를 궁 안에 들어난 문을 탁 채와된 베슬 살레 가분거 아니. 경 헨 가부난, 하루 이틀 사는 게,

흐를 날은 추집 절에서 스님들이 다 모연. 아멩헤도<sup>246)</sup> 절이 큰 절인 생인<sup>247)</sup>라 스님들이, 각 처도에서 스님들이 모여 앓안 하늘 우터레<sup>247)</sup> 브리난<sup>248)</sup> 돌(月)이 떠서 계난

“어따가라 저 들은 곱긴 곱다만은 계수나무나 박헛저. 침 곱기도 곱다.”

허난. 그때엔 추집 선성님 허는 말이,

“저 들은 곱긴 고운 가운데 계수나무 박헛건만은, 우리 법당에 오랑 수록드런 낱은 인간에 녹하단풍즈치명왕애기씨만큼은 못 곱덴.”

경 허난. 아이고, 저 들보다 더 고운 애기씨가 어딴이리엔, 스몛<sup>249)</sup> 스님들이 다 환호를 허는 거라. 경 허민 그 애기씨안테 강 본메<sup>250)</sup>를 뒤두영 오렌. 계난 추집선성이 나사명

“나가 갖다 오겠습네다.”

허연. 이젠 흐 침 질러 굴송낙<sup>251)</sup> 둘러쓰고, 두 침 질러 비랑장삼(備郎長衫), 목에는 백과염줄 [百八念珠], 손에는 단줄(短珠) 메연. 이제랑 금주랑 철죽대 만주랑 철죽대 들르고, 석 자 호름줌치<sup>252)</sup> 어깨에 탁 두러매연 금바랑 옥바랑 들르고 허연 내려산거 아니. 먼 올레로 들어사명,

“짓알로<sup>253)</sup> 소승 절이 뵈네다.”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나상

“어디서 읍데가?”

허난.

“난, 이디 녹하단풍즈치명왕애기씨 수록드런 난 절에서, 추집 절에서 오고렌.”

허난

“어떻 허난 읍데가?”

244) 빗골장 모람장 지게살장: 살장의 종류.

245) 열쇄: 열쇠.

246) 아멩헤도: 아무래도.

247) 우터레: 위로.

248) 브리난: 바라보니.

249) 스몛: 사몛.

250) 본메: 증거물이 될 만한 사물.

251) 굴송낙: 창호지로 만들어 쓰는 고깔.

252) 호름줌치: 종이 쌀을 얻으려 다닐 때 쌀을 넣ерж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

253) 짓알로: 아래로.

“내가 온 거는 이디 애기씨가 명과 복이 졸르난, 명과 복을 잇으레 권제를 받으  
레 오랏습네다.”

허난

“아이고, 이디 큰상전님네영, 안상전님네영, 문딱<sup>254</sup> 베슬 살레 가명<sup>255</sup> 아버지가 중근 문은 어머니가 수리두고, 어머니가 중근 문은 아버지가 수리두언, 경 헨가부난, 애기씨는 궁 안네 잇어부난 권제를 못 안넵니다.”

경 허난.

“나가 안네쿠다.”

허난

“느진덕정하님 손으로 혼 말 주는거쌍, 애기씨 손으로 혼 홉 주는 걸 맞서질 못  
헉니텐.”

“겐 문 중근 걸 어떻헉네까?”

허난. 경 허민 애기씨안티 강 들어쌍 오렌 허는 거라.

“무시거옌 들어 봅네까?”

허난

“강 중근<sup>256</sup> 문을 내가 올라<sup>257</sup> 주크메, 베깃디 나왕<sup>258</sup> 권제를 줄 티옌<sup>259</sup> 강  
들어 보렌.”

게난. 느진덕정하님은 상전님안티 간

“애기씨 상전님아, 저디양, 영영헌 추접 선생이 절에서 시권제를 받으레 왔인디,  
문 중근 거 올라 주민 권젤 내보넬텐 강 들어쌍 오렌 헉수다.”

허난

“게민, 경 허렌. 게민, 나, 중근 문 올라주민 나가 권젤 내보내켄”

게난 이젠. 그때옌. 천안낙화금정옥술발<sup>260</sup> 들러 받안, 그 스님이 이젠 중금중  
금 들어산. 혼 번을 둘러치난 천지가 요동허고, 두 번을 둘러치난 지에<sup>261</sup>가 요동  
허옌. 이젠 일흔으덥 빗골장<sup>262</sup> 문이 절로 싱강허게<sup>263</sup> 문이 올라진거라. 게난 애

---

254) 문딱: 전부. 모두.

255) 베슬 살레 가명: 벼슬 살러 가면서

256) 중근: 잠근.

257) 올라: 열아.

258) 나왕: 나와서.

259) 줄 티옌: 줄 것인지.

260) 천안낙화금정옥술발: 요령을 일컫는 말.

261) 지에: 지하.

262) 빗골장: 살장의 종류.

263)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어지거나 닫히는 소리.

기썬 나온 거 보난, 하늘이 볼 건가 청너울을 둘러 쓰고, 땅이 볼 건가, 게난 얼굴 뽀지 말젠. 땅이 볼 건가, 지하님이 볼 건가 흑너울을 둘러 썬. 권제 가지깁이<sup>264</sup>)에 쫄 들런 중금중금 베깃더레<sup>265</sup>) 혼 발자국 두 발자국 나오난 풀려 앓안. 스님은 전대(纏帶)를, 권제 받는 전대를 혼착 귀는 입에 물고, 혼착 손은 엇언, 입에 문 거라. 손으로 영 허질 안허연, 입에 무난,

“어떻허난. 스님아, 손 혼착은 어디 갓습네까?”

허난에, 하늘옥황에 단수옥갓 쥘으레 갓덴. 손 혼착은 곱져불어난 거주게. 곱전, 장삼 쏘곶에 곱젓단애

“거난, 혼 방울도 떨어지지 안허게 이걸 스르르 스르르 비웁서.”

허난. 스르르 스르르 비우는다. 비우단 입에 물엇던 전땃길 잘락허게<sup>266</sup>) 내분거라. 게난 알더레 그 쫄 다 쏘아진 거 아니. 게난 은제 돛제를 주멍 이걸로 다 쫄으렌 이걸. 혼 방울도 떨어지지 안허게, 이거 떨어지민 상전님 명과 복이 떨어지는 거우덴. 거난 이걸 다 쫄습센 허난. 걸 줍젠 곱영 줍노렌허난, 아이, 혼착 손<sup>267</sup>) 옥황에 단수옥갓 쥘으레 갓덴 현 손이 뜬금엇이<sup>268</sup>) 나오란 애기씨 상가메 머리를 세 번을 술술허게 썬어분거라. 애기썬 그거 쫄으멍 춤막춤막<sup>269</sup>) 놀렌거주게 거 손 나오란 머리 썬어가난. 게난 춤막춤막 놀레멍

“아, 이 중 저 중 꿔썬헐 중이여. 양반침이 못 땡길 놈으 스서로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나민 큰일이 날 중이옴.”

막 욱을 현거라. 애기씨가. 게난 스님 허는 말이,

“아이고, 지금은 나신디 경 옥했우다만은, 섯 덜 열흘 백 일만 잇어봅서. 날 생각이 남네다.”

경 굴아된<sup>270</sup>) 나가젠 해가난. 아기씨가,

“야, 느진덕정하님아, 저 강 추접 선생ㄱ라이<sup>271</sup>) 중가난 문 올라 논 거 이 문이라도 중가된 가렌허라.”

거난 이젠 베깃디 나완 이젠. 나가 가가난

“아이고, 느진덕정하님아, 저 스님이 이상허다. 석 덜 열흘 백 일만 땤민 지 생각이 난덴 허멍이<sup>272</sup>), 지 좇아올 일이 잇젠 허난, 강이 송낙지<sup>273</sup>)도 혼착 강 브

264) 가지깁이: 돛사발의 두껍.

265) 베깃더레: 밖에.

266) 잘락허게: 무거운 것이 아래로 힘없이 쓰러지거나, 늘어져 처지다.

267) 혼착 손: 한쪽 손.

268) 뜬금엇이: 난데없이.

269) 춤막춤막: 놀라서 갑자기 조금 움직이는 모양.

270) 경 굴아된: 그렇게 말해두고.

271) 추접선성ㄱ라이: 추접선생한테

령오라<sup>274</sup>). 장삼(長衫) 옷도 혼착<sup>275</sup>) 강 브령오라. 게 그거 브런 오난 스님이 이젠 돌아산 허는 말이, 녹앙낙하금정옥술발<sup>276</sup>) 들러 받안 또, 혼 번을 둘러 치난 천하가 요동(搖動)허고, 두 번을 둘러 치난 지하가 요동허연. 이젠 빗골장, 모람장 지게살장<sup>277</sup>) 문이 싱강허게<sup>278</sup>) 절로 증가진거라. 다 축지법으로 허난게. 겐 그 문 증가전 돌아산 가명

“이루제<sup>279</sup>) 날 좇앙 올 일이 생깁네다. 날 좇앙 올 때랑, 나 철죽대 그릇 그어 두영 가크메 그 철죽대 그릇만 보멍 날 좇앙 읍서.”

허여된 가분거 아니. 가부난 애기씨가 그날부떠 먹던 밥도 먹기 실푸고<sup>280</sup>) 속이 니울니울헌 게, 그냥 석 덜 열흘 백 일이 웨어가난 돌큼돌큼헌<sup>281</sup>) 연드레도 먹고 정 허고<sup>282</sup>), 세금세금 오미즈도 먹고정 허고.

“아이고, 느진덕정하님아, 나 연드레나 오미즈나 먹고정 허덴.”

막 헤가난. 느진덕정하님은 멍텅이<sup>283</sup>) 들런, 높은 낭에 열매라부난 타지는 못허고, 낭 아레 상 열매만 털어지카부텐 암만 기다려도 열매 안 털어지믄

“아이고, 하늘님아, 브름이나 불영 열매, 오미즈<sup>284</sup>)나 연드레<sup>285</sup>)나 털어지게 험서. 우리 상전님 애기씨 이거 먹고정 허연 죽을 스경 웨엿수다.”

허난. 추접선생은 법당에 앓아도, 앓아 천 리, 사 만 리 보난, 낭 아레 강 느진덕정하님이 막 열매 타지 못헿 우는 거를 봤주게. 경 허연 축지법으로 브름이 불게 멘든거라. 게난 브름부난 그거 방울방울 털어진난 멍텅이에 담앙 오란

“아이고, 상전님아, 혼저 이거 먹영 정신 출립서. 나 이거 탕 오랏수덴.”

아, 것도 혼 두 방울 먹으민, 얼마나 먹을 듯이 헤뵈 혼 두 방울 먹으민

“아이고, 낭에 낭네 났저<sup>286</sup>). 풀에 풀네 낭 못 먹키여. 이것도 나 못 먹키여.”

272) 난텐 허멍이: 난다고 하면서.

273) 송낙지: 고깔.

274) 브령오라: 찢어오라.

275) 혼착: 한쪽.

276) 녹앙낙하금정옥술발: 요령을 일컫는 말.

277) 빗골장, 모람장 지게살장: 살장의 종류

278)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어지거나 닫히는 소리

279) 이루제: 나중에.

280) 실푸고: 움직이거나 일하기가 싫다.

281) 돌큼돌큼헌: 달콤 달콤한

282) 먹고정 허고: 먹고 싶고.

283) 멍텅이: 주로 곡식 따위를 담아두거나 담아 나르거나 할 때 쓰려고 짚을 곱게 엮어 만든 망태.

284) 오미즈: 오미자.

285) 연드레: 연다레.

286) 낭네 났저: 나무 냄새 난다.



옷도 빨앙<sup>287)</sup> 그 옷 입지믄  
 “아이고, 땀네<sup>288)</sup> 낭 못 입으키여.”  
 밥도 행 안네민  
 “풀네 낭 못 먹키여.”  
 물도 안네민  
 “펼네<sup>289)</sup> 낭 못 먹키여.”

그냥 막 요빈닥이<sup>290)</sup> 험거라. 점점 잇어가난 베가 점점 불려진 거 아니. 벤 불려지고, 애기는 죽을 스경(死境)이 돼어지고. 경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편지 답장을 보내기를,

‘아이고, 임전국 대감님아, 짐전국 부인님아, 삼 년 살 공스(公事)결랑 단 석 털에 살앙 읍서. 석 털 살 공스(公事)건 단 사흘 살앙 읍서. 아기씨 상전님이 죽을 스경(死境)이 돼엿수다.’

허연 편지를 떠우난, 아이고, 그땐 임전국 대감님하고 짐전국 부인님은 이것사 뭇 말이니? 그만이 우리가 다 문을 다 증가똥 왓인디, 문 중강 와부난 무신 송시가 나신고. 그냥 살던 공스 다 내불어 두언 온 거라. 겐 오난. 느진덕정하님이, “상전님아, 아버지 어머님신디 선신문안 [現身問安] 을 드려사 험 거 아니꽈?” 허난.

“게메이. 아버지안틴 어떻 선신문안을 드리코이?”  
 허난.

“아버지는 남 부모에 여 즈식이기 때문에 팽풍 두이<sup>291)</sup>로 가뉘, 아버지안티랑 풀 죽은 옷을 입엉 치메도 풀 죽엉 멘지글랑<sup>292)</sup> 험거 저고리도 경 험거 입엉, 소곡소곡 굽엉, 소곡소곡 소곤정<sup>293)</sup>으로 가근엿에 선신문안(現身問安)을 드립서.”

게난 느진덕정하님 곤는 데로 이젠. 문딱 그추룩 출렁 아버지안티 간. 팽풍 두이로 간 선신 문안을 드린

“아이고, 나 톨아, 아버지 어머니 엇어부난 고생 하영 헛저. 겐디 어떻허난 머린 경 주치산이 메방석<sup>294)</sup>이 돼엇이니?”

허난

287) 빨앙: 빨아서.

288) 땀네: 땀 냄새

289) 펼네: 펼 냄새.

290) 요빈닥이: 요망스러운 짓.

291) 두이: 뒤.

292) 멘지글랑: 촉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꼴.

293) 소곤정: 늘상 부친에 대해 지닌 정으로

294) 주치산이 메방석: 평이나 매가 거쳐하는 짚을 이용하여 지은 방석과 같은 자리

“아바지 어머니, 오카부텐 메날 머리 굽으멍 허단 보난 주치산이 메방석이 돼엿우다.”

“눈은 무사 경 곰박눈<sup>295)</sup>이 돼불엇이니<sup>296)</sup>?”

허난

“창고망으로, 무슨 사람 소리 브스락<sup>297)</sup> 소리만 나도 아바지 어머니, 오랏이카부텐<sup>298)</sup> 메날<sup>299)</sup> 마당드레만 브리단보난 눈은 영 곰방눈 돼어불엇우다.”

“게난, 코는 무사 뭇똥코<sup>300)</sup>가 돼엿이니?”

“콘양, 하도 울멍 콧물이영 눈물이영 하도 썰어부난<sup>301)</sup> 뭇똥코가 돼엿우다.”

“게난, 입은 무사 경 작박입<sup>302)</sup>이 돼엿이니?”

“하도 울어불고 허난 영 뻗우다.”

“벤 어떻 허난 두롱둥베가 돼엿이니?”

허난에

“느진덕정하님이, 아바지 어머니님 엇일 때 ‘상전님아, 하영 먹영 현저 콕서’ 허멍. 아바지 어머니님 잇일땐 흙으로 마련을 헛인디, 아바지 어머니님이 엇이난 뉘로 마련 허영 밥을 줘부난 먹단 보난 벤 영 불엇우다.”

자기 자신도 애기 베진 건 몰랐지. 경 허난.

“아이고, 나똥 아기 착실허다. 느 방으로 가라.”

허연 보내난. 이젠 어머님신디 가젠 허난

“어떻허영 가느니?”

허난. 느진덕정하님 허는 말이,

“여 부모에 여 즈식이난 무슨 승허물<sup>303)</sup>이 잇입네까, 어머님신디 갈 때랑 풀썩<sup>304)</sup> 치메 입고, 풀 썩 치메 저고리 입고 경 허영 꿩똥 베끼디레<sup>305)</sup> 말앙 그냥 어머님신디레 강 선신문안(現身問安)을 헛서.”

허난. 이젠 어머님신디레 제직제직<sup>306)</sup>허영, 영영허연 제직제직허난 벤 이만이

---

295) 곰박눈: ‘곰박’에 난 구멍과 같이 일그러진 모양

296) 돼불엇이니: 되어버렸다.

297) 브스락: 바스락.

298) 오랏이카부텐: 오고 있을까봐.

299) 메날: 매일.

300) 뭇똥코: 말의 분(糞)처럼 일그러진 코.

301) 썰어부난: 쓸어서

302) 작박입: 주걱처럼 생긴 입모양이 큰 것을 표현함.

303) 승허물: 흙이나 결점 따위를 일컫는 말.

304) 풀썩: 풀을 강하게 해서 옷감이 뻗뻗한

305) 베끼디레: 밖으로.

306) 제직제직: 허리를 뒤로 젖히고 걸어가는 모양.

헐 거 아니. 경 제직제직허영 제직헌 정으로 강 선신문안을 가난. 어머님도 아바님 질문허듯이 다 질문 허난, 젠디 어명은 아멩해도<sup>307)</sup> 내가 헤 본 경험이라 이상헌거라. 아멩해도 이상허다 나, 딸애기야 이레 오렌, 즈꿏디에<sup>308)</sup> 오렌 허난. 치멜 확허게 걷영보난. 아이고, 가슴에, 젓줄이 푼푼 산 거 아니. 젓에.

“아이고, 애야, 이거 궁 안네도 브름이 드느냐? 이거 어떻게 일이고?”

애길 벤거라.

“아이고, 이거 큰일났젠.”

이젠 암만 아깝고 해도 양반집이 즈식이기 때문에 죽여불어살거 주겐 허연. 애기씨 죽이젠 허민 느진덕정하님이 왕,

“아이고, 상전님은 아무 췌도<sup>309)</sup> 엇우다<sup>310)</sup>. 나가 잘못된 일이주 애기씨 아주 췌도 엇우덴 헤영 날 죽여 줍센.”

허고. 이제 또 느진덕정하님 죽이젠 허민 녹하단풍애기씨가 오랑

“아이고, 느진덕정하님 잘못된 일 하나도 엇우다. 나가 잘못된 일이주. 날 죽여 줍센.”

허고. 아, 서로가덜 영 헤가난. 은대양에 물을 떠단, 원 이상허덴 헤연 앓전보난<sup>311)</sup> 중이 아덜 삼 형제가 베 쏘곶에<sup>312)</sup> 잇인 거라. 야, 이거 양반집이 스단공즈 낫저. 이거 하나 죽이젠 헤가민 다섯 목숨이라. 베 쏘곶엇 애기 세 개에, 녹하단 풍애기씨에, 느진덕정하님에. 계난 이제 다섯 목숨 죽이민 무시거 허고, 경 말앙 우리가 귀양정배(定配)라도 보내영 아무디라도 그자, 가지는 디라도 강 살렌허영 보내불주긴 허연

이제 가젠 허난, 아바지도 울고 어머님도 울고 이젠 애기씨도 비세굴인<sup>313)</sup> 울어가난, 아바지신디 하직 인사를 허레 들어가난. 아버진 비세굴이 울명,

“설운 나똥아, 아멩이나 아무딜 가도 명만 불영 살렌 허명, 울명, 금봉채 [金扇]를 내어준 거라.

“이건 무시결<sup>314)</sup> 허는 거봐?”

허난

“이거 앓앙 땡기당, 가당가당 땡겨도 질이 안 나건 이걸로 땅을 탁탁 세 번을

---

307) 아멩해도: 아무래도.

308) 즈꿏디에: 가까이예.

309) 췌도: 죄도.

310) 엇우다: 없습니다.

311) 앓전보난: 앓혀보니

312) 베 쏘곶에: 베 속에.

313) 슬픈 새처럼

314) 무시결: 무엇음.

치민 느 갈 질<sup>315</sup>)이 나온다.”

계연 내어주고. 어머님신디 가난. 어머님도 비세 곶이 울멍

“설운 나똥아, 느 어떻 허연. 느 얼마나 공들게 허연 난 똥인다. 이게 무신 일이고.”

어멍도 비세곶이 울멍, 연봉채 [銀扇] 를 내어준 거라.

“이거 무시거파?”

“이것도 느 가당가당 질이 아니 나건, 땅을 연시 번만 때리민 질이 흰허게<sup>316</sup>) 난다.”

허연. 이젠 아바님도 하직허고, 어머님도 하직허고 금마답<sup>317</sup>)에 수리를 두고, 이젠 올레에 간 막음 두연. 느진덕정하님허고, 감은 암셀 내어주난. 그것에 탄, 둘리가<sup>318</sup>) 하직 허연 올레에 나간 거 아니. 올레에 나강 보난, 스님 가명 그은 그 철죽대 그똥이<sup>319</sup>) 흰허게 잇인 거라. 게난 그거 의지 삼안 가단 보난. 그냥 산에 불이 활활 부뜨는<sup>320</sup>) 산이 잇어.

“느진덕정하님아, 저건 무신 뉘이고?”

허난.

“아이고, 상전님아, 부모 즈식이 생이별을 허젠 허난, 죽어 이별은 나라에 대똥이고, 살아 이별은 생초목에 불이라. 이거 살아 이별허젠 허난 부모님네 가슴에 불이 활활 부뜨는 뉘이우다.”

“아이고, 경 허냐.”

이젠 그덜 넘어산 가단 가단 보난, 물이 동산에서 알더레 내려와사혈 곶, 아랫물이 동산 우터레<sup>321</sup>) 막 치데기는거라<sup>322</sup>).

“저건 무신 뉘이고?”

허난

“저건 부모 즈식 생이별허연 나가젠 허난, 거슨물 건드리우다<sup>323</sup>).”

“경 허냐.”

이젠 가는 거 아니. 가단 가단 바려보난, 이젠 우이는 퍼지고 알은 쫄아진<sup>324</sup>)

---

315) 느 갈 질: 너가 갈 길

316) 흰허게: 환하게.

317) 금마답: 마당. 전정(前庭)을 일컫는 말.

318) 둘리가: 둘이서

319) 그똥이: 금이

320) 부뜨는: 붙는

321) 우터레: 위쪽으로.

322) 치데기는 거라: 치올리는 거라.

323) 거슨물 건드리우다: 거슬러 흐르는 물, 거슬린 다리입니다.

산이 있어.

“야, 저건 무신 산이고?”

허난.

“저건양, 상제님아, 건지산<sup>325</sup>)이우다. 남편 본메 못 보아도, 이젠 혼전싱을 그리 첫우께.

게난 옛날은 총각머리<sup>326</sup>) 허영게, 두이로 머리, 그냥 영 세 개로 갈라근에 하나로 땅왕<sup>327</sup>) 이디 영 놓양 텅기단. 이젠 그 산 우이 올라가근앵에 건지를 허여사 협니텐.”

건지를 허든 이젠, 남편 본메를 못 봐도, 말하자면 결혼식 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지주게. 게난 그디 강 앓양 비세굴이 울명 이젠 건지를 현거라. 삼동냥 용얼레기<sup>328</sup>) 내난 머리 빗언. 세갑머리<sup>329</sup>)를 으섯개 갈라다완, 육갑 머리로 허연, 땅와 앓언, 건지허연. 젠 그디 건지산으로 허연 앓안, 건지허연

“느려 글라.”

가젠 허연. 나사난. 동해산, 서해산, 남해산을 넘어사난. 아양동축산이 잇인 거라. 아양동축산을 넘언 잘도 걸엇주. 경 허연 가단 가단 보난, 동이 청산이 잇고, 청산을 넘어사난 청수와당(靑水海)이 잇는 거라. 청수와당(靑水海) 넘어가젠 허난 질이<sup>330</sup>) 안 난 거 아니. 이제 아바지 준 금봉채(金扇) 내어 놓안 딱딱 연세 번 치난, 질이 흰허게 난거라. 그 질로 허연 가단 보난 청물레왓이 나오고, 서이 백산, 백물레산도 넘어사고, 이젠 남해 적산 흑물레왓을 넘어사고, 넘어앓언 가노렌 허난. 가단가단 보난 낙수와당 수삼천릿길 [數三千里路] 이 나온 거라. 낙수와당 수삼천릿길, 큰 강인지 바당인지 경 헨 나오난. 그거를 넘어가젠 어멍 준 은봉채를 내 어난 연시 번을 후려도 질이 아니 나. 이젠

“아이고, 이디도 못 넘어가고 이 노릇을 어멍헨 좋고.”

헨. 느진덕정하님허고 애기씨허고 앓안 비세굴이 우노렌 헨. 아, 울단보난 무정 눈에 줌이 소로록허게 온 거 아니. 경 헨 자노렌 허난 꿈에 선몽을 허기를, 하양 현 백강생이<sup>331</sup>) 나완 풀랭이<sup>332</sup>) 혼돌혼돌허멍

324) 졸아진: 좁아진.

325) 건지 산: 건지머리 (머리를 올려 결혼했음을 나타냄) 상.

326) 총각머리: 처녀나 총각이 양쪽으로 땅아 길게 늘어뜨린 머리.

327) 땅왕: 땅아서.

328) 삼동냥 용얼레기: 삼동나무로 만든 빗.

329) 세갑머리: 세 가닥으로 갈라 땅은 머리.

330) 넘어가젠 허난 질이: 넘어가려고 하니 길이.

331) 하양 현 백강생이: 하얀 백(白)강아지.

332) 풀랭이: 꼬리.

“아이고, 상전님아, 무사 이디서 영 앓안 올곡 즐았수파<sup>333)</sup>?”

경 허난.

“난, 이 질을 못 넘어간 헐저.”

허난에.

“게난, 는 누게고?”

허난

“난, 옛날 상전님에 집이 백강생이로 강 살앗우다만은, 상전님 하도 날 애껴주  
언 허단 죽으난, 난 요왕황제국(龍王皇帝國)뜨님애긴디 하도 췌가 만허연 우리 부  
모님네가 날 인간에 백강생이로 귀양정배 보내부난, 상전님네 집이 간. 나 살단  
죽으난 요왕황제국 던져부난, 난 요왕황제국똥이우텐. 이디 잇입서. 아바지 어머니  
안티 강 등장을 들영 이디 건너갈 걸 나가 마련을 허쿠텐.”

겐. 흐꿈<sup>334)</sup> 잇이난 큰 거북이가 온 거라. 거북이가 완 영 눈짓으로 이제 지 등  
더레<sup>335)</sup> 타렌. 게난 그디 녹하단풍즈치명왕 애기씨허고 느진덕정하님허고 둘이 타  
른 종주. 감은 암췌<sup>336)</sup> 깎지 테왕 갈 순 엇인 거라. 게난 이젠 아이고, 감은 암췌  
랑 클러 줘 볼게. 아무데라도 지 살 도리를 행 살게. 겐 클러 뵈. 그걸 탄 넘어가  
노렌 허난 느진덕정하님이 영 뒤돌안보난 놈이 곡석 밧디 든 거 아니.

“아이고, 상전님아, 저거 뵈서. 감은 암췌 그동안 놈이 곡석밧디<sup>337)</sup> 들엇우다.”  
허난.

“아이고, 본 말랑 본디 브리고, 들은 말은 들은 디 브령 흔저 글라.”

겐 헐. 가단 보난, 벌써 추접선생은 이제 녹하단풍애기씨가 이녁<sup>338)</sup> 좇아 오는  
거를 안거라. 알안 질을 닦으렌 허연, 이제 열두 문을, 다 질을 닦아근에게<sup>339)</sup> 문  
을 잡으렌 허고, 흔 착 찻어분<sup>340)</sup> 송낙도 큰 낭에 간 탁허게 돌아메고, 장삼도 찻  
어분 거 돌아메고. 게난 애기췌 그걸 다 콤에 콤언<sup>341)</sup> 놔뵈주게. 그 찻어논 거를.  
게 본메본짱이난. 질을 닦으는 인정을 드렌 현<sup>342)</sup> 거 아니. 무슨 인정, 돈 가정  
가서. 돈도 안 가정 갓인디, 돈도 엇고. 이젠 상전님 열두폭 치메를<sup>343)</sup> 입엇단 흔

---

333) 즐았수파: 즐고 있습니까.

334) 흐꿈: 조금.

335) 지등더레: 자기의 등에

336) 감은 암췌: 검은 암소.

337) 놈이 곡석 밧디: 남의 곡식 밭에.

338) 이녁: 자기를.

339) 질을 닦아근에게: 길을 닦아서.

340) 찻어분: 찢어버린.

341) 콤에 콤언: 품에 품어서.

342) 드렌 현: 달라고 한.

343) 치메를: 치마를.

폭씩 브러네<sup>344)</sup> 열두 문에 인정 걸어부난. 치메가 엇인거라, 허리백이. 게난, 느진 덕정하님 그라,

“아이고, 그 치메 우리 으섯 폭씩 갈라 입젠.”

젠, 느진덕정하님 치메 브령 이녁<sup>345)</sup> 허리더레, 허리만 남으난, 허리더레 들안. 경 허연 먼 올레로 가단보난, 혼 착 엇인 송낙도 브름에 년들넌들 했고, 장삼도 혼 착 풀 찢어져분 거 년들넌들 했이난, 이녁 가슴에 요디 콤엇단 거 슬짝 앓아 내언 그디 간 맞춰보난 똑히 맞으는거라. 아이고, 이거 분명히 잘 좇앙 오랏젠. 이젠 스님한티 좇안 들어가난에, 추접 선생 허는 말이,

“날 좇앙 오랏건 초나록을 내어주크메 그거 반착짜리 쫄 하나토 엇이, 착쫄 <sup>346)</sup> 하나 엇이 그거를 문딱<sup>347)</sup> 깡 혼 동이를 올리면 날 좇앙 온 게 분명허덴.”

허난. 아이고, 이젠 그걸 앓안 느진덕정하님허고 둘이가 그걸 베끼디<sup>348)</sup> 나오란 니빨로<sup>349)</sup> 까젠 허난 니빨 아프고, 손콥으로<sup>350)</sup> 까젠 허난 손콥 아프고. 이젠 그거 까단 스로록허게<sup>351)</sup> 줌 들어분 거라. 줌드난 컷설메에<sup>352)</sup> 막 생이들 소리가 오조조조 소리가 나난. 그냥 새 다울림이엔<sup>353)</sup>

“주어 저 새!”

헨 다울린 게, 새들이 놀멍<sup>354)</sup> 놀게로<sup>355)</sup> 퍼딱 허난, 새들이 완 다 까준 거라. 젠 까난, 채는 채대로 쫄은 쫄대로. 게난, 착쫄 하나토 엇이. 아이, 혼 동일 다 까진 거 아니. 젠 그걸 추접 선생안티 바찌난,

“아이고, 날 좇아 온 자가 적실허다<sup>356)</sup>. 경 허면 우리 법당에는 부부출령 사는 법이 엇이난 내가 시왕 곱은연질을<sup>357)</sup> 놓아주크메 시왕 곱은연질을 탕 그디 내려사민 불도망이난 그디 강 해산도 허고, 그디 내려사렌. 게난 시왕 곱은연질을 추접 선생이 놓아주난 내려산 불도망에 간 거라. 가난 예산 신구월 초여드렌 뉘난

344) 혼 폭씩 브러네: 한 폭씩 찢어서.

345) 이녁: 자기.

346) 착쫄: 반쪽 쌀.

347) 문딱: 모두.

348) 베끼디: 밖에.

349) 니빨로: 이빨로.

350) 손콥으로: 손톱으로.

351) 스로록허게: 알맹이나 액체 따위가 가볍게 빠져 나가거나 들어가는 꼴. 곱게 잠이 드는 꼴.

352) 컷설메에: 실체가 없는 소리를 잠깐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듯한 환청 현상.

353) 다울림이엔: 내쫓는다고.

354) 놀멍: 놀면서.

355) 놀게로: 날개로.

356) 적실허다: 틀림없이 확실하다.

357) 곱은연질: 꼬부라진 길. ‘연질’의 ‘연-’은 접두사.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애긴 낱젠 허난. 둥글단 보난 베 쏘굽에 애긴 알로 낱젠 헤도 알은 아바지도 못 본 궁문이여. 느단 겨드랑이<sup>358)</sup>로 헤우천<sup>359)</sup> 튼언<sup>360)</sup> 나온 거라. 겐 그 애기 왕이 자랑 왕이자랑 헤노렌 허난, 아, 열으드렌 댜난 또 신명두가 나오젠 허난, 알로 낱젠 헤도 아바지도 못 본 궁문이고, 느단 겨드랑이론 성(兄)이 나와부난 부정이 만허고, 이젠 웬 겨드랑일 헤우천 나온 거라. 경 험 나오난, 왕이자랑 왕이자랑. 이제 또 스무여드렛 날은 댜난, 살아살축 삼명두가, 이젠 신명두 본명두 경 험 솟 아나고, 살아살축 삼 형제가 나오젠 허난, 웬 쪽도, 느단 쪽은 제일 큰 성이 나와 나불고, 웬 쪽은 죽은 성이 나와난 부정들 허고, 게난 이 오모손이<sup>361)</sup>, 요 가슴을 헤쌍 나온 거라. 겐 나오난 이 애기덜 왕이자랑 왕이자랑 허멍 키워가난, 혼 서너 설 댜언, 대으섯 설 댜난 동네 친구덜 도둑질 허는 친구들이영 놀민 도둑질만 허젠허고, 또 칼들렁 무신 쉼나 잡고 무슨거 허는 친구들이영 놀민 칼들렁 그것들 허젠허고. 아이고, 이거 아니 댜키여. 이거 벅을 잘헤사 애기덜을 잘 키울로구나허연. 게난 그 동네에 거무 선생이 잇어난 쉼이라. 거무 선생안티 좇앙 간, 어머님이,

“거무 선생님아, 우리 식구들 이디 씨 줍서. 날랑양 부엌데기로<sup>362)</sup> 들어사고, 우리 큰아덜랑 굴묵지기<sup>363)</sup>로 들어사고, 셋아덜랑 베리지기<sup>364)</sup>로 들어사고, 죽은아덜랑 문지기로 들어상, 우리가 거무 선생 집이 일을 허쿠다.”

허난.

“게문 경 허렌.”

허연. 어멍은 부엌지기로 들어상 부엌에서 하간거<sup>365)</sup>, 거무 선생안티 물도 떠가고, 밥도 행 올리고, 큰아덜은 굴묵에서 앗앙 어둑어가민, 얼어가민 굴묵도 지더<sup>366)</sup> 안네고, 셋아덜은 선생 글 쓰젠허민 즈끗디<sup>367)</sup> 앗앙 먹 곶아 안네고, 죽은아덜은 문 옆이 샷당<sup>368)</sup> 그디 글 공부허는 아이들이영 문도 올라주고 뒹어주고, 경 허는디, 눈치로 보멍, 거무 선생 글 허는 걸, 아이덜 글 허는 걸 눈치로, 율 눈

---

358) 느단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359) 헤우천: 헤쳐서.

360) 튼언: 뜯어서.

361) 오모손이: 오목가슴.

362) 부엌데기로: 부엌일을 맡아서 하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363) 굴묵지기: 온돌 아궁이 불 때는 사람.

364) 베리지기: 베틀지기.

365) 하간거: 이것저것의 모두.

366) 지더: 불을 떼서.

367) 즈끗디: 걸 또는 가까운 곳.

368) 샷당: 샷다가.



으로 브레멍<sup>369)</sup> 글 공부를 배운거라. 겐 그날 배운 공부는 어둡영 아이들 다 가 불민 굴묵에 강 고는 대로 슬슬허게 재 등겨다 낳<sup>370)</sup>, 경 헨 손으로 끈끈허게 눅 들어 낳에<sup>371)</sup> 그날 배운, 복습을 허는거라 말하자면. 경 허멍 공부를 허는 것이, 흐를 날은 거무 선생이 집안 올라틸 돌단 보난, 굴묵에 천하 명필 글씨가 잇인거라. 보난, 재 우이 천지혼합(天地混合) 천지개벽(天地開闢) 세상에 없는 글이라. 아이고, 이 아이들 이거 이렇게 똑똑헌, 으망진 아이들이로구나. 마침 서울 상시관이 시월동당 과거가 잇젠허난, 과거보레 가젠 삼천 선비들을 이제 다 준비들을 허는디, 이젠 그 애기덜토<sup>372)</sup>

“어머님아, 우리도 과거보레 가민 어떻허우파?”

허난.

“아이고, 느네덜<sup>373)</sup> 과거를 보레 가젠 허민 옷도 엇고, 어떻헨 갈타<sup>374)?</sup>”

느네들 공부나 다 허영 나사민 구쟁이, 점벙이나 하나씩 행 입지젠<sup>375)</sup> 돈 세입, 툇툇허게<sup>376)</sup> 소중기<sup>377)</sup>에 썬 곱전 낫단 이제 그거 내난 구쟁이<sup>378)</sup> 점벙이<sup>379)</sup> 하나씩 행 입지고, 느네들, 게걸랑<sup>380)</sup> 명심허여근에 강 오렌 허연. 보낼 때에 거무 선생이 허는 말이,

“저 아이들 삼형제 들앙가민 느네들 과거 낙방헌다. 절대 저 아이들 글이 명필이라라.”

허연. 굴아분 거라<sup>381)</sup>. 재에 쓴 거를 본 거를, 경 헨 굴아부난. 이젠, 가가민 삼천선비들은 가이들 안 들앙가젠 돌맹이로 맞쳐 불고, 가가민 두드려 불고, 막탱이로 앓앙 떼려 불고 허멍, 가가민 기어코 쫓아 간 거라. 겐 하도 쫓아 가가난 이젠 삼천선비들도 귀찮은 모양이지. 경 허연 쫓아가노렌 허난 베퍼수 고을은 딱 들어사난, 베 낳 우이 베가 드랑드랑 올라시난에<sup>382)</sup> 삼천선비들이 께를 쓴 거주게.

369) 읍 눈으로 브레멍: 옆 눈으로 보면서.

370) 등겨다 낳: 당겨다 놓고.

371) 눅들어 낳에: 눌러 놓고

372) 애기덜토: 애기들도.

373) 느네덜: 너희들.

374) 어떻헨 갈타: 어떻게 해서 갈거니.

375) 입지젠: 입히려고.

376) 툇툇허게: 단단하게.

377) 소중기: 무명이나 삼베로 만든 여자의 속옷인데 폭이 넓고 길이는 무릎까지 읍.

378) 구쟁이: 일할 때 입는 얇은 웃옷.

379) 점벙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훌바지.

380) 게걸랑: 그렇다면.

381) 굴아분 거라: 말해버린 거야.

382) 올라시난에: 열려있어서

“경 말앙이 느네들 우리영 혼디 가컬랑은에게<sup>383)</sup> 저 베 낭 우이 올라강 혼 사  
름이 천 방울씩 탕이, 우리 삼천선비들 혼 방울씩, 너네 삼형제난 삼천 개 타당  
우리 갈라주민<sup>384)</sup> 너네 들앙가키여.”

허난. 그 아이들은 아이고, 베라도 탕 삼천선비들 주민 곱게 들앙 가주카부텐  
베 낭 우이 올라간 거 아니. 베 낭 우이 곱은 디 곱억 곱은 디 곱억 허명들 올라  
간. 베 혼 사름이 천 방울씩, 다님<sup>385)</sup>은 묶으고 허리만 클렁 이 쏘곶더레 타명 담  
은 거라. 양 가달에 소뻑허게시리<sup>386)</sup> 천 방울씩 담으난, 돌베주게 요만씩 현 거게  
경 헨 담으난, 올라가도 못허고 내려오도 못허영 허난 삼천선비들은

“우리 가자.”

허연. 와르르르 다 돌아나분 거 아니 . 그 아이들은 베 낭 우이서 비세글이 운  
거라. 게 울어가난 아, 그날 이 베좌수 꿈에 선몽허기를, 베 낭 우이 청룡 황룡  
뱀이 얹어지고 틀어진 거라.

‘아이고, 피라곡절(必有曲折) 허다.’

뒷날 아척은<sup>387)</sup> 베지근이<sup>388)</sup> 동 터가난, 베 낭 우이 히뚜룩헌 거<sup>389)</sup> 뭐 있어.

“야, 너네 귀신이나, 생인이나? 귀신이건 썩 물러나고 생인이건 어서 내려오렌.”

허난. 가이들 삼형제가

“우린, 귀신이 어찌 여기 올 수가 잇입네까. 우린 젓북이삼형젠디 과거보레 가  
단 삼천선비들이 베 삼천 방울 땅완<sup>390)</sup> 하나씩 갈라 주민 들앙가켄 허난, 이디  
완 벤 타 놓고 올라가도, 내려가도 못헨 영 울었우다.”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게건 다님<sup>391)</sup> 풀어불라.”

겐 다님 풀어부난. 벤, 삼천 방울 다르르허게 알더레<sup>392)</sup> 털어진 거 아니. 게난  
그땐 이젠 너네 혼저 느려오렌 허연. 그 애기덜 느루완

“아이고, 느네 어제 저녁부떠 올라간 그 진진현<sup>393)</sup> 밤을 세고 허젠 허난 베고프

---

383) 가컬랑은에게: 가고 싶다면.

384) 갈라주민: 나눠주면.

385) 다님: 대님.

386) 소뻑허게시리: 가득하게.

387) 아척은: 아침엔

388) 베지근이: 헤지근이. 주로 날이 밝으려 할 때 빛이 약하고 가늘게 퍼져 오르면서 희미하  
게 밝아 오다.

389) 히뚜룩헌 거: 어느 정도 흰색이 떠올라 비치다.

390) 땅완: 따와서

391) 다님: 대님.

392) 알더레: 밑으로.

393) 진진현: 길고 긴.

진 안허냐?”

이레 오렌들 허연. 식은 밥에 물즙이<sup>394)</sup>허연 혼 그릇씩 줌안 맥연.

“설운 애기덜아, 니네 가민 분명히 당선웁다.”

그 청룡 황룡이 막 엮어지난, 꿈에 경 허난,

“느네, 당선웁다. 혼저 가렌.”

허연. 보내난 삼형제가 가노렌 허난. 청만주에미<sup>395)</sup>가 그냥 웨우느다<sup>396)</sup> 갈라가는 거라. 게난 그 법으로 시왕맞이<sup>397)</sup> 혈 때는, 우리 일 허레 강 시왕맞이 혈 때는 이런 물색<sup>398)</sup>이나 막 허영 이레 감고, 저레 감고 천장에 막 만주에미 베염 질 갈라난 식으로 그걸 막 엮으는 거주게. 경 허연 이젠 넘어산. 이젠 들으멍 기멍 소못, 요즘 사람 말 마땅이나 발바닥에 불이나게 간 보난, 동문 서문 남문을 다 잡아 분거라. 상시관에, 동안문 마당에, 게난 들어가도 못허고 올레에 수양청버드낭 하나 잇이난, 그거 의지삼양, 그늘 삼양 그디 앓아둬서<sup>399)</sup> 이 노릇을 어멍 허민 좋고허연 그깟지 가두고 허연 헤가난. 아이, 주모 할망 꿈에 선몽을 헌거라. 게난 주막 집이 할망이주게. 주막 집 할망 꿈에 스님이 선몽(現夢)허기를,

‘아무 디 강 보민, 수양청버드낭 아레 도령들 서이가 앓앙 비세굴이 울었이메 그 아이덜 돌아당 시장기도 멀려주고, 그 아이덜 밥 먹는 동안에 붓전에 강 붓도 사다주고, 종이전에도 강 종지도 사다주고, 베리전에 강 베리도 사다주렌.’

경 헨 선몽 [現夢] 을 딱 시킨 거라. 경 헨 가이덜 글 쓰결랑, 할망 손지가, 웨손지<sup>400)</sup>가 상시관이, 아멩헤도<sup>401)</sup> 몸종사 돼신ㄴ라. 경 헨 글 쓰결랑 손지안티 주렌. 경 허영 꿈에 선몽을 허난, 퍼쩍 깨난 보난 꿈이라. 아이, 이젠 훗아앗영<sup>402)</sup> 간 보난, 수양청버드낭 아레

삼형제가 앓앙 비세굴이 우는 거 아니. 베 고프고 허난.

“아이고, 느네들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허연. 그 애기덜 돌아단 밥 허영 주고,

“느네들, 밥 먹없이라이.”

헤 뉘. 나산에, 베리전에 강 베리사젠, 영 심젠 허민 청주녕이가<sup>403)</sup> 그레 바르

394)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395) 청 만주에미: 작은 뱀

396) 웨우느다: 좌우로.

397) 시왕맞이: 시왕에게 축원하는 곳 이름. 무혼(撫魂), 치병(治病) 등을 위하여 함.

398) 물색: 알록달록하게 물들인 천.

399) 앓아둬서: 거동하지 않고 가만히 앓아 있으면서.

400) 웨손지: 외손자.

401) 아멩헤도: 아무래도.

402) 훗아앗영: 찾아서.

르허게 기고, 붓전에 강 붓 사젠 허민 흑주녕이가 바르르허게 기고, 아이고, 첨  
이거 피라곡절 [必有曲折] 헨 일이옴. 경 헨 그거 문딱<sup>404)</sup> 베리영<sup>405)</sup> 상 완.

“느네들, 글 쓰라.”

허연. 겐 글 썬.

“걸 날 쥐 똥 가렌.”

허연. 걸 할망이 맡앗단. 점심 시간에 손지가 점심 먹으레 왓이난, 이거, 강 상  
시관이 독무릅<sup>406)</sup> 앞더레 강 슬쩍이<sup>407)</sup> 놓아불렌. 게난 손진 앓앙 간, 상시관 독  
무릅더레 슬쩍이 논 거 아니. 독무릅 밋더레<sup>408)</sup>. 과거를 다 끝난. 과거를 주젠 삼  
천선비들 글을 지은 것이. 과거 줄 만한 글이 엇인 거라. 이젠 무릅 아레 낫던 거  
를 내난 보난.

아, 세상없는 천지개벽, 천지혼합, 천앙베포 경 허연 췌이난. 아이고, 이거 세상  
없는 글이라고.

“이거, 누게가 췌느냐?”

삼천 선비들<sup>409)</sup>라 곱으난, 아무도 안 췌텐 허는 거라. 게난 할망 손지가 허는 말  
이,

“저 올레 베깃디<sup>409)</sup> 보난, 수양청버드낭 아레 도령 서이가 앓아십디다.”

허난.

“게건, 가이덜을 돌아와보라.”

허난. 그 아이덜을 들앙 완

“이거 너네가 췌느냐?”

허난

“예, 췌습니다.”

“게문, 너네들 또 혼 번 써 볼 수 잇겠느냐?”

허난.

“예. 쓰겠습니다.”

게난, 삼형제가 붓을 먹 적정은에<sup>410)</sup> 입에 물엿 입으로 영영훼훼 써도 그췌  
룩<sup>411)</sup> 쓰고, 손가락에 꿩엿 써도 경 쓰고, 발가락에 꿩엿 써도 경 쓰고. 아이, 천

---

403) 청주녕이가: 청지네가.

404) 문딱: 전부. 모두.

405) 베리영: 벼루하고

406) 독무릅: 무릎.

407) 슬쩍이: 살짝

408) 밋더레: 밑에

409) 베깃디: 밖에.

410) 적정은에: 적서서.

하 멩필이로구나. 삼천선비들 다 낙방을 시겨분거라. 가이들 과거 당선허연 과거를 준 거라. 겐 과거를 주난, 유정성 아들이 그디 과거를 보레 가나신ㄴ라<sup>412)</sup>, 유정성 아들이 상시관(上試官)신디 간.

“왜? 우리 양반에 자식은 과거를 안주고, 중이 족식은 과거를 줘네까?”

허난.

“중이 족식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허난.

“흔번 배석상(拜席床)을 출렁 술허고 께기하거 쥘 뵘서. 자이네<sup>413)</sup> 먹는냐.”

허난. 이젠 술허고 께기허고 상에 출려주난. 아이, 아닌게 아니라.

‘이거 아바지도 아니 먹어난 건디 이거 먹으믄 뉘랴.’

헨. 가이들 안 먹어 부난 또 낙방시겨분 거 아니. 겐 낙방 시견. 재과거를 허젠 허난.

이젠 연주문을 활로 맞추는 자를 이제 과거를 주기로 헛어. 게난 화살들을 다 하나씩 주난, 삼천 선비들이 다 맞쳐도 연주문을 못 맞쳐. 맞추는 사름 하나도 엇인 거라. 게난 그 아이덜이 딱 간 허는 말이,

“우리도 과거는 아니 주어도 좋수다만은, 흔 번 활이나 흔 번 등겨똥 가쿠다<sup>414)</sup>.”

게난

“경 허렌.”

허난. 늣잇 아이덜 쏘아난 거, 활이영 쌀이영 좃영, 문딱<sup>415)</sup> 발루완<sup>416)</sup>, 꺾꺾 놀리명<sup>417)</sup> 발루완, 그걸로 제일 큰 성은 맞친 게 쥘 우이 간 맞친 거라. 이제 셋 성은 맞치난 가운데 복판을 간 맞친 거라. 족은 아신 맞친 게 제일 굽동허탈<sup>418)</sup> 맞치난 연주문이 왈랑허게<sup>419)</sup> 씨더젓어<sup>420)</sup>. 부서질 정도로 맞쳐부난, 에이씨, 우리 과거도 낙방시겨 불고 허난, 부엌 질에<sup>421)</sup> 앓앙 등겨분 거주게<sup>422)</sup>. 게난 그 연

411) 그추룩: 그렇게.

412) 가나신ㄴ라: 갔던 모양이라.

413) 자이네: 저 아이들.

414) 등겨똥 가쿠다: 당겨두고 가겠습니다.

415) 문딱: 모두.

416) 발루완: 바르게 해서.

417) 꺾꺾 놀리명: 꺾꺾 누르면서.

418) 굽동허탈: 밑동의 허리를.

419) 왈랑허게: 한꺼번에 덤비거나 쓰러지는 꼴.

420) 씨더젓어: 쓰러졌어.

421) 부엌 질에: 화가 난 상태에서.

422) 등겨분 거주게: 당겨버린 거지게.

주문이 부슬라져부난<sup>423)</sup>, 아이고, 과거 당선 뻘젠. 과거를 준 거아니. 재과거를 허연 주난, 와라차락 막 허난, 이젠 유정싱 아들이, 삼천 선비들을 시킨 거지. 빨리 강, 옛날은 부모가 죽으민 과거를 헤여도 과거를 안줘낫덴.

게난, 빨리 혼저 강, 어멍 잇일 거난<sup>424)</sup>, 어멍을 간 짚은 궁더레 가두와볼렌 현 거라. 겐 가두와뵤 어멍 죽엇젠 거짓말 허영 이것들 과거 불합격 허게 헤볼젠. 경헨 이제 앞이 높아완<sup>425)</sup> 어멍은 이제 물명지 전데로 걸려단 짚은 궁에 간, 아들들 너무 별란허게 낫젠 허영 간, 가되 불고. 이제 느진덕정하님은, 어멍 속곳하나 허영 이젠, 봉분을 멘든거주게. 속곳<sup>426)</sup> 하나 담아 난 봉분<sup>427)</sup>을 멘들안 잇이난, 삼형젠 과거 허영 비비등당 앞엔 선배, 뒤엔 후배 막 어수에 비수에 청금 옥단지 비리단지 불명, 막 빠라바바 허멍 오는 거라. 과거 허영 와 가난, 이젠 오단 보난 느진덕정하님이 먼 정까지<sup>428)</sup> 나산거라.

아이고, 어느제랑 강 우리 어머니 기쁘게 헤 드리콘. 삼형젠 기분 좋게 오는다, 느진덕정하님이 올멍,

“아이고, 죽은 상전님네야, 과거는 허민 뵤 허곡, 등당은 허민 뵤 험네까? 상전님, 어제 그지겿 날<sup>429)</sup> 죽언에 출병막<sup>430)</sup> 헛우덴.”

허난. 그뻘 오금<sup>431)</sup>이 느큰현<sup>432)</sup> 거 아니. 아이고, 어멍 엇인디 과거는 허민 무시겿 허여. 이제 과거덜 다 돌아가렌. 앞인 선배, 뒤엔 후배, 일과노 일기생들이고, 다 돌아가렌 허연 문딱 보내어 뵤. 행경(行纒) 벗언 통두건으로 데가리에 쓰고, 두루막 벗언, 어멍은 웨가난, 웬짝 팔 내어 난 이제 좇쟁이<sup>433)</sup> 알로 묶으고, 경 허연.

“어멍, 우리 어멍 어디 묻엇이니? 출병막이나 ㄴ르쳐도렌.”

경 허연 강 보난, 산이 잇인 거라. 경 허연이고 우리가 어머님 그냥 영 묻영만<sup>434)</sup> 볼게 아니고 죽은 어멍 얼굴이라도 보켄. 경 허연 그걸 판 보난, 어멍 얼굴 이랑마랑 어멍은 엇고 어멍 속곳<sup>435)</sup> 하나 잇인 거라. 게난 그거 들런 나산디<sup>436)</sup>

423) 부슬라져 부난: 부스러져 버려서.

424) 잇일 거난: 있을 거니까

425) 높아완: 날아와서. 날아서 오는 것만큼 빨리 왔다는 말.

426) 속곳: 속옷.

427) 봉분: 묘. 산.

428) 먼 정까지: 먼 올레의 정까지.

429) 그지겿날: 그저께 날

430) 출병막: 정식 매장을 하기 전에 송장을 가까운 곳에 임시 묻어 두는 일. ‘토롱’이라고도 함.

431) 오금: 허벅다리나 무릎의 구부리는 안쪽.

432) 느큰현: 충격을 받아 힘이 빠져 나른한.

433) 좇쟁이: 겨드랑이.

434) 묻영만: 묻어서만

산 봉분 우이로 옷 상제가 딱허게 벌러지는 거라. 게난 우터레 가라 허는 거주게.  
게난 느진덕정하님 ㄴ라 들은 거라.

“우리 웨가가 어딜로 가민 잇이넨?”

허난.

“천하임전국 대감님은 웨하르방<sup>437)</sup>이고, 느신땅에 지하짐전국 부인은 웨할망<sup>438)</sup>  
이난 아멩 아멩이영 좇앙 갑서<sup>439)</sup>.”

허난. 이제 삼형제가 어멍 속곳은 들른 거주. 어멍 속곳을 본메본짱<sup>440)</sup>으로 그  
걸 들르고 허연 웨가를 좇으멍 좇으멍 간 거라.

가난, 가멩문<sup>441)</sup>도 안 올라 쥘. 웨손지들 왓젠 허난, 그 스님 애기들엔 헨게,  
양반칩이게, 암만 웨손지라도. 경 헨 가멩벧줄<sup>442)</sup> 문도 안 올라주난 죽은 문으로,  
이제 먼 올레에 앓안, 경 헨 앓젠 허난, 그 애기덜 앓아난 디 풀사 죽으카부텐산  
디. 웨하르방 웨할망이 초석을 하나 준거라. 그거 주멍 그거 풀앙 앓앗당, 그거  
풀앙 앓으렌. 게난 그거 풀앙 앓으난,

“우리 성가가 어딴네까?”

허난.

“느네 아방을 좇으켄, 황금산 도단땅에 가민 추접절이 잇인디. 그디 추접선생이  
느네 아바지여.”

그덜 좇앙 가렌. 게난 생각을 허난 궤썸헌거라. 웨하르방 웨할망사 게도 암만  
뒹 허주만은 문도 안 올라 주고, 올레 베깃디서<sup>443)</sup> 초석 주멍 앓으렌, 초석을 그  
자 우리 앓아난 것도 물이라도 털어지카부텐 험시카부텐 뽕뽕 몰아앓언<sup>444)</sup> 룬땡  
이에<sup>445)</sup> 탁허게 끼어앓언 앓안 가부는 거라. 겐 황금산을 좇아 앓언 올라가노렌  
허난 팽즈낭<sup>446)</sup>이 소박허고<sup>447)</sup>, 유저낭<sup>448)</sup>이 소박헌 디가 잇어. 그 질을 헤우

435) 속곳: 속옷.

436) 들른 나산다: 들어서 나서는데

437) 웨하르방: 외할아버지.

438) 웨할망: 외할머니.

439) 아멩 아멩이영 좇앙 갑서: 어떻게 어떻게든 찾아서 가세요.

440)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증거물.

441) 가멩문: 가마 문

442) 가메벧줄: 가마의 밧줄

443) 베깃디서: 밖에서.

444) 뽕뽕 몰아앓언: 뽕뽕 말아서.

445) 룬땡이에: 옆에

446) 팽즈낭: 팽나무.

447) 소박허고: 가득하고.

448) 유저낭: 유자나무.

천<sup>449)</sup> 가단 보난, 어떤 도령들 서이가 앓앙 비세글이 우는 거 아니. 울어 가난

“느네 무사 이디 앓앙 울엎디??”

“아이고, 말도 말고, 이르도 맙서. 어멍 아방 다 죽어 불고, 일가 켜당 엇고 영 허난, 갈 데 올 데 엇언 앓앙 울엎우다.”

허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느네나 우리나라 혼 팔즈, 혼 스주여. 경 말앙 우리 육형 제나 삼젠.”

그 어멍 속곳 앓앙 텅기단 어멍 속곳으로 웨으로 들어강 느다 나오고, 느다 들어강 웨로 나오고, 게난 어머니가 낳았다는 표실 허젠게<sup>450)</sup>. 겐 육항열(六行列)을 삼아 두언. 이젠

“경 말앙이, 느네들 이디 앓앙 잇이라. 아무 날 아무 시가 돼민, 아무 때가 돼민 우리 만날 날이 잇일 거여. 어디 가지말앙 이디 꼭 잇이렌.”

허연 헤 된. 아방국을 가느디 첩첩산중이라 제우제우<sup>451)</sup> 간 거라. 가난, 올레에 간 앓으난, 마당 너구리 땅 너구리 개는 드르쿵쿵 내쿵쿵 주끄는<sup>452)</sup> 거아니. 겐 아버지가<sup>453)</sup> 피라곡절(必有曲折)허다 허연 나완 보난, 도령들 삼형제가, 첩 아들이 완 앓은 거라. 아버지는 벌써 아들들인 줄 알았주게. 경 해도 아들들은 아버지를 몰라. 봐 보지도 안허고, 원 뉘허난, 손 심영 들어 완

“느네 어멍 허연 오란디?”

허난.

“우리 아버질 좇안 오랏우다.”

“게난 느네 외가영 어멍 이름 곱아보라.”

허난에. 아, 곱는 건 보난 다 맞앗어. 아방 이름도 다 곱고, 게난.

“설운 애기덜아, 잘 좇안 오랏구나.”

경 헤연, 이때에 어떤 사름은 절에서도 상을 출령<sup>454)</sup> 췌텐<sup>455)</sup> 허여. 절에서도 술허고 췌기허고 놓안 스님이 딱 출령 주난, 이건 우리 아바지도 안 먹어난 음식 이난 안 먹켄. 게난, 안 먹영 내려와 부난, 내 자식이 적실허다<sup>456)</sup>. 경 헨 헛텐도 허고

---

449) 해우천: 해쳐서.

450) 표실 허젠게: 표시를 하려고.

451) 제우제우: 겨우겨우.

452) 주끄는: 짚는.

453) 아버지가: 삼형제의 아버지, 추접 선생을 말함.

454) 출령: 차려서

455) 췌텐: 주었다고.

456) 적실허다: 틀림없이 확실하다.



“아이고, 설운 애기들 느네 이디 오젠 허난, 하늘 보멍 오랏이나? 하늘 천자, 땅 보멍 오랏이나? 따 지자, 물으멍 오랏이나? 물을 문자. 올레 보멍 오랏이나? 올레 문자.”

경 허영 그 천문에 하늘 천, 물을 문자허고 딱 글을 배견<sup>457)</sup> 경 허영 주어진.

“설운 애기들아, 느네들이 어멍을 좇젠 허민<sup>458)</sup>, 과거는 허민 당대고, 심방 질<sup>459)</sup>은 허민 전대전손(傳代傳孫) 만대유전(萬代遺傳) 유래전득(遺來傳得) 웰거여, 게난 느네가 어멍을 좇젠허민 심방질을 헤사 헐다. 게난, 아무건들 어려웁네까. 머리 삭발, 아버지가 문딱 삼형제를 머털 박박 깎아 두언. 아무 거라도 허쿠텐. 경 허민, 곳을 허젠 허민 뭐가 잇어야 헐 거난. 설운 애기들, 글렌 허연. 게난 아방 본메는 천문이주. 게난, 그 하늘 천자 따 지자 물을 문자 쓴 거는 아방 본메로, 낭에다가 동골락허게<sup>460)</sup> 남천문<sup>461)</sup>을 만든 거라. 남천문을 만들고, 어멍 본메로는 모옥상잔<sup>462)</sup>, 동골락 헐거로 이건 어멍 본메로, 그걸 나무로 다 판, 아방이. 다 팡 본메를 멘들안. 이제 이 애기덜 돌아왔언 어덜 가신고 허면 백몰레왔디<sup>463)</sup>를 간 거라. 그디도 간, 아끈 도간<sup>464)</sup> 한 도간<sup>465)</sup>, 아끈 모레 한 모레 일언, 거기서 이젠 문딱 본메 놓안 멧 번을 멘들아도 안돼어. 게난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허텐 허연. 이젠 득 하나 잡안 희생(犧牲) 시견. 겐 옥황드레 등장을 드난 검은 옷 입영 전정록이가 내려완에 아끈 도간 한 도간에 아끈 불미<sup>466)</sup> 한 불미<sup>467)</sup> 허연 이젠. 일월조상<sup>468)</sup>을 딱 지완 고운 얼굴 고운 메치<sup>469)</sup> 내노난, 조상(祖上)만 잇텐 돼여. 뭐 연물<sup>470)</sup>이 잇어사 헐거난. 이제 굴묵이낭<sup>471)</sup> 간 끈언. 첫통은 골라단.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절에서 불공도 허곡 허난, 절에, 절간 북으로 놓아 두고, 두 번째 통은 졸라단 삼천기덕(三千器德) 북을 멘들고, 장기통 졸란

457) 배견: 세기어서.

458) 좇젠 허민: 찾으려고 하면.

459) 심방질: 심방일.

460) 동골락허게: 동그랗게.

461) 남천문: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의 놋쇠판에 ‘천지문(天地門)’ 또는 ‘천지일월(天地日月)’ 등이라 새겨져 있음.

462) 모옥상잔: 놋으로 만든 술잔 비슷한 무점구(巫占具).

463) 백몰레왔디: 하얀 모래밭에.

464) 아끈 도간:

465) 한 도간:

466) 아끈 불미: 작은 풀무(治)

467) 한 불미: 큰 풀무(治)

468) 일월조상: 일가내지 일족 수호신

469) 메치: 맷시.

470) 연물: 무악기(대영, 설쇠, 북)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471) 굴묵이낭: 느티나무.

삼동맥<sup>472)</sup>이 멘들안, 질로 죽은 뭉생이<sup>473)</sup> 텡겡이난<sup>474)</sup> 그거 가죽 벳건, 나전방<sup>475)</sup>에 놀러들언 나전허고, 부전방<sup>476)</sup>에 놀러 들언 부전허고 허연. 왕대 죽대 깎아단, 꿩이메 나게<sup>477)</sup> 깎아단 체 멘들아 놓고, 장귀 체<sup>478)</sup> 멘들고 허연. 이제 그 걸 들런, 이제 절에 들안 온 거라, 아바지가. 다 헨 절에 들안 완. 허멍 혈 때에 아바지안티 곶은 거라.

“우리 영영 허연, 우리 ㄱ튼 팔즈사주(八字四柱) 현 아이들 잇이난, 그 아이덜신디 곶아네<sup>479)</sup> 우리 육형제를 무엇우다.”

가이들 들앙 오랜 허연. 게난 가이들 소미(小巫)로 허고 허연

“너네가, 경 말앙, 곶을 허여 보라. 큰 아덜랑 청관디 [靑冠帶] 를 입영 초감제<sup>480)</sup>를 허여 보고, 셋아덜랑 황관디(黃冠帶)를 입영 초공맞이<sup>481)</sup>를 허고, 죽은아덜랑 홍관디 [紅冠帶] 를 입영 시왕맞이<sup>482)</sup>를 허렌.”

이제 그 너사무 삼형제들은 들안 오난, 소미(小巫)로 허연 두들렌허고<sup>483)</sup>, 경 헨 막 곶 행 해가난, 짚은 궁에 든 어머니가 번뜩허게<sup>484)</sup> 나산 거라. 게난

“짚은 궁에 든 어멍 얇은 궁더레 내놀립서. 얇은 궁에 든 어멍 신가심<sup>485)</sup> 내울령<sup>486)</sup> 아주 혈씩 나삽서.”

허멍 곶을 해가난, 어멍이 나온 거라. 게난 애기들이 심방이 돼니까 그 갇혔던 사람들이 어멍을 내 준거지. 과거허영 양반으로 했이민 어멍을 안 내줄건디, 경 허연 어멍을 내주난. 아이고, 어멍 만난.

“어머님아, 어머님 경 보고픈 웨진 땅<sup>487)</sup>으로 갑주긴.”

어멍 들안, 삼형제가 웨하르방네, 임전국 대감 지하 짐전국 부인님신디 느신 땅을 들앙 간거라. 경 허연 들안 가난, 어멍 아방이 멘발로들 나왕 비세곶이 운 거

472) 삼동맥이: 무악기인 장구의 별칭. 삼동막 살장구라고 함.

473) 뭉생이: 망아지.

474) 텡겡이난: 다니고 있어서.

475) 나전방: 부전에 조운(調韻)

476) 부전방: 장구의 줄을 조일 수 있게 달아 놓은 가죽 조각.

477) 꿩이메 나게:

478) 장귀 체: 장구 체

479) 곶아네: 말해서.

480) 초감제: 곶을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481) 초공맞이: 초감제를 한 후 다시 한 번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482) 시왕맞이: 맞이곳의 하나로 시왕을 청하여 하는 곶.

483) 두들렌허고: 두드리라고 하고

484) 번뜩허게: 도드라지거나 선명하여 돋보이는 상태이다.

485) 신가심: 깨끗이 씻음.

486) 내울령: 밖으로 나오거나 퍼지게 하다.

487) 웨진 땅: 외가가 있는 땅.

아니.

“아이고, 설운 나 뜰아, 그동안 어떻 살았어디?”

경 허멍 막 울언, 그땐 부모 즈식이 일부 혼 잔 허연, 부에가<sup>488)</sup> 난 집에 삼형제가 그디서 연물을 막 두들어 분거라. 그 웨하르방 웨할망도게 중이 즈식<sup>489)</sup>이엔헨게 문도 안 올라주고, 무신 털이라도 털어지카부덴 초석 쥔 끌양<sup>490)</sup> 앓게 허고 헤가난 돼손지들이주 만은 암만 웨하르방 상이라도 썩썩은 헛거라. 경 헨 그디서 연물<sup>491)</sup>을 와상와상<sup>492)</sup> 두들연. 게난 신칼은, 웨하르방네도 마음을 돌린거지. 신칼, 신칼은 웨하르방이 내어준거라.

겐 내어주멍, 뭇 으든 닷단 [八十五尺] 이여, 일흔 닷단 [七十五尺] 이여, 이제, 그 칼이주. 그 혼 닷단(一五尺)이여. 경 허멍 저 칼을 내어 쥔. 겐 이제 돌아왔언 젓부기삼형제 허고 허연. 어주에 삼녹거리 완. 비즈냥<sup>493)</sup> 탕즈냥<sup>494)</sup> 비고, 이제 물사옥이 실사옥이 허여단 악기도 멘들고, 이제 마흔으덥 초간주, 서른으덥 이간주, 스물으덥 하간주를 이젠 당춥방을 지어 논거라. 경 헨 지어 놓안. 아, 잇이난, 옥황에서 젓부기삼형제랑 삼시왕으로 도올랑 앓으렌<sup>495)</sup> 명령이 내려온거라. 게난 올라가젠 허난. 아이고, 불쌍헌 어떻, 설운 어떻 내불어뵈우리만 어떻 가코. 이젠 막 탄복이 뵈우 거 아니. 어떻이영 만나난 생전이영 살아가지카부덴 헛디, 올라오렌 허난, 올라가멍, 느진덕정하님이영 너사무삼형제ㄴ라,

“아무 날 아무 시나 뵈민 이 츠지혈<sup>496)</sup> 조상이, 즈손 나올거난 그때ㄴ지만 잇이렌.”

해 뵈.

“어머님아, 하도 우리 엇젠<sup>497)</sup> 썩썩헛 생각 맙서. 브름 불건 브름 뚜벽청 살고, 초스름에랑<sup>498)</sup> 우리들 보고정 허건 베깃디레<sup>499)</sup> 나오란 하늘더레 브리민 동산 새별 떴이난 그거 브레멍 살고<sup>500)</sup>, 어머님이랑 삼하늘<sup>501)</sup>로 좌정을 헛서.”

488) 부에가: 화가.

489) 중이 즈식: 중의 자식.

490) 끌양: 깔아서

491) 연물: 무악기를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492) 와상와상: 사기 그릇 따위를 아주 세게 부수는 소리.

493) 비즈냥: 비자나무.

494) 탕즈냥: 탕자나무.

495) 도올랑 앓으렌: 신으로 좌정하여서의 뜻.

496) 츠지혈: 차지할.

497) 엇젠: 없다고.

498) 초스름에랑: 초 저녁이랑

499) 베깃디레: 바깥으로.

500) 브레멍 살고: 보면서 살고.

아덜덜은 저승 삼시왕이 돼고, 어머니는 삼하늘은, 당주방<sup>502)</sup>에 딱 지경 앓고, 느진덕정하님 허고.

경 허난 옥황에 도올란 7만히 생각을 허난, 유정싱 아들이 들언 우리 과거 현 것도 낙방을 시겨 불엇덴 말이어. 거난 유침이 강 원수 갇음을 허주겐 헐. 유침이 심방을 내왕은에게<sup>503)</sup> 멘들아 불주겐<sup>504)</sup> 헐. 게난 유정싱 아들이 경 해부난, 아들이 누이주게, 게난 유정싱따님 애기 으섯 설에 텅겅이난<sup>505)</sup>, 놀레 텅겅이난 하숫 물가에 가네 놀았이난, 간제비<sup>506)</sup> 으섯 개를, 파란 거 으섯 개를 간 채와 분 거라, 신력으로. 채와부난, 베끼디 놀레갈 땀 그거 들렁 막 놓고, 집이 들어 올 때엔 어멍 아방안티 옥 들어지카부덴 집가지에<sup>507)</sup> 곱져불고,,경 허멍 헐게 일곱 설 땀 난, 눈이 어둑어 분거라. 십 년에 흐 번씩, 열일곱 땀난 눈 턴, 쓰무일곱 땀난 눈 어둑언, 서른일곱 땀난 또 눈 턴, 마흔일곱 땀난 눈 어둑언, 예순일곱 땀난 눈이 트거라. 아이, 예순일곱에 눈이 트난, 이젠 그 신이 불어노난게, 막 어정쩡헐 텅긴 거주게. 어스럭 더스럭<sup>508)</sup> 텅기단 혼번인<sup>509)</sup> 어딜론가 내려오노렌 허난, 아랫녘에 즈북장제네 집이 보난, 막 우념<sup>510)</sup> 꽃이 풀아 저서<sup>511)</sup>, 우는 소리가 나는 거라. 게난, 아, 이 집인 무사 영 울었인고 허연. 이젠 들어가난에

“누젠디다가<sup>512)</sup> 왔이넌?”

허난.

“아, 이 집이 막 우는 소리 난 왔우덴.”

허난

“무사 완디엔.”

허난.

“아니, 어뎡헐 일 잇언?”

“아이고, 곤도 말고 일르지 말고 가렌. 우리 단뜰 애기 하나 잇인디. 어제 그지 갯날<sup>513)</sup> 죽언에 울었젠.”

---

501) 삼하늘: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당신.

502) 당주방: ‘당주’는 심방집에 무조신(巫祖神, 곧 守護神)을 모신 곳.

503) 내왕은에게: 나게 해서.

504) 멘들아 불주겐: 만들어 버리자고

505) 텅겅이난: 다니고 있으니.

506) 간제비: 무구의 하나. 엽전 모양처럼 생긴 것이 모두 6개 있음.

507) 집가지에: 지붕의 가장자리. 처마.

508) 어스럭 더스럭: 이리저리 어지럽게 다니는 모양.

509) 혼번인: 한번은

510) 우념: 울음.

511) 풀아 저서: 깔아졌어.

512) 누젠디다가: 누구인데

허난.

“게민, 나 혼번 진맥이나 헤 뵙 가쿠다.”

허난.

“진맥 행 뵙 헐거고?”

허난.

“이녁 명에나 가시냐? 늬이 명에나 가시냐? 진맥이나 행 가쿠다.”

허난. 딱 진맥을 허난, 이견 삼시왕에 걸럿우다. 대번칙이<sup>514)</sup> 점을 잘 헐 모양이라.

“삼시왕에 걸럿우다.”

허난

“거른 어떻허든 좋으니?”

허난.

“저 문전더레 상 하나 놓앙예, 쪼꼴락헌<sup>515)</sup> 상 낵앙<sup>516)</sup>, 향불 피와 눅서. 물 혼 사발 거러 눅서. 쫄 혼 사발 거러 눅서.”

허여근에. 곶을 말은 없고 그자, 공신강신 그자, 내릴 강신 경 허영. 단지 그 말만 헤팅, 쫄 쫄, 뽕뽕 감안 육급 우에 쫄 주멍,

“이거 머리말더레<sup>517)</sup> 놓곡앙, 나 가불걸랑, 이 애기 살아나건 날 좇앙 읍서.”

허난에

“아, 어딜 좇앙 가느니?”

허난. 이녁 입으로도 몰르게 나오는 소리가

“어주에 삼녹거리 서강베포 땅에만 읍서.”

경 곶아텡 후딱 나와분거라. 아, 나가부난 죽엇던 애기가 게꿈<sup>518)</sup> 보게기<sup>519)</sup> 물명<sup>520)</sup> 살아나는 거 아니. 겐 살아나난, 이젠

‘아이고, 사름을 좇아사 헐 건디 어디강 좇으콘.’

허난. 십 년 동안을 좇앙 텡겡텐. 그디서는 십 년 동안을 좇앙 텡기는데, 이젠 유정승떡님애기는 어리퀼이 두리퀼이<sup>521)</sup>가 뵙분거라<sup>522)</sup>. 막 머리로 허부썸뽕

---

513) 그지겡날: 그저께 날

514) 대번칙이: 단박에.

515) 쪼꼴락헌: 아주 자그마한

516) 상 낵앙: 상 놓고.

517) 머리말더레: 머리말에.

518) 게꿈: 거품.

519) 보게기: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모양.

520) 물명: 물면서.

521) 어리퀼이 두리퀼이: 미친 사람.

고<sup>523</sup>), 귀신도 아니고 생인도 아니고, 신이 붙어노난 막 헛거주게. 막 텅기단 탁 간 었더정 잇인디<sup>524</sup>), 어주에 삼녹거리에 강 었더진 거라. 경 허난, 자기 생각에는 어주에 삼녹거리가 어딘중도 몰랑 간 었더지난, 삼시왕이

“야, 젓부기 삼형제야, 저디 왕 었더진 건 누게고?”

허난에.

“ㄴ만 십센. 강 들어 보쿠텐.”

헨 강 보난, 유정승뜨님애기라. 게난

“이젠, 이래 물명지로 걸려 들이렌.”

명주 허연 영 야게기에<sup>525</sup>) 걸령 그 앞더레 완. 하도 냄새도 나고게 귀신도 아니고 생인도 아니고 허난, 향불 피완 머리로 다 헨 부정 서정 게이고, 술 허영 뿌령 연임허고<sup>526</sup>) 허연. 심방질을 허연 그 집이강 곳을 헤질 건가, 못 헛건가 허연 딱 산을 지으난, 자격이 없어. 심방 텔 자격이, 백 근이 안 차는 거라. 거난 이젠, 젓부기삼형제가 무당서 삼천 권을 내어주멍

“이거 가정 강 다 통달(洞達)을 허렌. 이거 가져가근에게 다 통달(洞達)허영 오렌.”

거난, 그거 가정 간 통달(洞達)을 허난 십년이 걸린 거라. 그거 읽는 것이. 일흔 일곱 나는 해엔 또, 그거 다 익어지니까. 또 그디 완 었데허난<sup>527</sup>), 그땐 물명주로 허연 걸려단 향불허연 다 부정(不淨) 가이고<sup>528</sup>), 서정<sup>529</sup>) 가이고 허연, 장대 내어난 딱 저울리난 백 근이 차는 거라.

“야, 이젠 뒤텐.”

경 허연 이젠 등으로 금님(金印) 옥님(玉印), 감봉수리 막음 두언에<sup>530</sup>)

“이젠 당당한 심방이 텃으니까 강 곱헨 오렌.”

젠 너사무삼형젠 소미로 보내고, 경 헨 이젠 즈북장제네 집이 간, 곱을 헤연, 그 애기 이제 살아나난 그디 강 곱헨 완. 일흔일곱에 그디 강 곱헨 완, 그자 유정승뜨님애기 일홉일곱에 돌아가신거. 이 까지가, 이 일로 해서 다 지금 연줄연줄 다 줄이 받고 발이 받아 심방 뒤텐 사람도 뒤텐, 그런 본풀이입니다.

---

522) 뒤텐거라: 되어버린 거라.

523) 허부찌놓고: 머리털이나 옷을 어지럽게 풀어놓다.

524) 었더정 잇인디: 었어져서 있는데

525) 야게기에: 목에.

526) 연임허고:

527) 었데허난: 었드리니.

528) 가이고: 개이고. 씻어내고.

529) 서정: 부정에 대한 조운(調韻)구.

530) 감봉수리 막음 두언에:

## 이공본풀이

옛날이라 옛적에 짐진국 대감님은 가난공신 서난ᄃᆡ계<sup>531)</sup> 살고, 원진국 대감님은 막 부자로 잘살엇어예. 계신디<sup>532)</sup> 두 대감님들이 다 애기가 없어. 애기가 었이 난<sup>533)</sup>, 원진국 대감님이 짐진국 대감님을 좇안 간

“짐진국 대감님아, 읍서. 우리 절에 강 수록이나 드려보게마씀.”

허난.

“아이고, 난 절에 가젠허여도<sup>534)</sup> 양 출령 갈 게 아무것도 엇우다게. 난 뭐, 앓<sup>535)</sup> 갈 게 엇우다게.”

허난.

“허다 못허영 빈 찬물 혼 그릇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가면 그것이 정성이니까 어떻게 하우짜?”

허난.

“게민 경협센.”

허연. 원진국은 절에 가명 구루마에 슴빻 ᄃ나<sup>536</sup>), 송낙배<sup>537</sup>)여 장삼배<sup>538</sup>)여, 쓸도 대백미(大白米)여, 소백미(少白米)여 막 실령<sup>539</sup>) 가고, 짐진국은 가정 갈 거 잇이난, 물 ᄃ 그릇 평<sup>540</sup>) 아침이민, 밤이민 이제 춘 이슬을 맞히고, 낮인 춘 뱃을 맞히명 장항 뒤에서 경 허명 지극정성을 헨 간 거라. 절에 간 원수륙은 드련. 장대로 내어난 저울리난, 막 하영 출령 간 원진국 대감님네는 출린 건 많이 출리나 정성이 부족허연 백근이 못 차 불고, 짐진국 대감님은 물 한 그릇 정성을 헨 갓인디 아. 백 근이 차분 거라. 게난 스님 허는 말이.

“짐진국 대감님은 출령 온 건 엇어도 하도 정성이 기특허니까 아덜을 취급시켜<sup>541)</sup> 줄 듯 허고, 원진국 대감님은 출령 온 건 많은디 정성이 부족 허난 딸을

531) 가난공신 서난헝계: ‘가난하고 서럽다’란 뜻.

532) 게신디: 그런데.

533) 엇이난: 없으니

534) 가젠허여도: 가려고해도

535) 앓앙: 가지고.

536) 숨뻑 흐나: 가득하게 하나.

537) 송낙배: 고깔을 만들 감.

538) 장삼베: 승려의 옷옷을 만들 감.

539) 실령: 싯고

540) 땡: 떠서.

541) 취급시겨: 처급(處給)시켜

취급시켜 줄 듯 허난 이제 내려 갑센.”

헨.

“좋은 날을 골리 잡앙 합궁일(合宮日)을 무어 봅서.”

허난. 내려 완. 좋은 날 골리잡앙<sup>542)</sup> 합궁일(合宮日)을 무엇더니만은, 짐진국 대감님은 아덜을 낳고, 원진국 대감님은 딸을 난 거라. 이름이나 지와보젠 허연. 짐진국 대감님이 난 아들은 이제 사라국 사라도령으로 이름을 지우고, 원진국 대감님이 난 딸은 월강아미로 이름을 지왔인디<sup>543)</sup>. 간 수록 두어 된 내려오명 그냥 장난삼아 곁은 말이주게. 장난삼아 원진국 대감님이 곁는 말이,

“양, 짐진국 대감님, 우리 둘이가 영 완 수록 드령 가명 강, 당신이 아들 낳고 나가 딸을 나나, 나가 아들 낳고 당신이 딸을 나나, 우리가 구덕혼스<sup>544)</sup> 허영 사둔 이추룩 허게양.”

허연. 장난말로 넘어가는 소리로. 경 헨 곁안 내려왔인디. 아닌게 아니라 이젠 사라도령허고 원강아미 나난. 이 애기덜이 혼 술 두 술 넘언. 혼인헐 때가 돼어오난, 월강아미신디 하간디서<sup>545)</sup> 중진<sup>546)</sup>이 오는 거라 부제로 잘살고 허난. 경 해도 시집을 아니만 가쿠텐<sup>547)</sup> 허는 거라. 아니만 가쿠텐 헛인디. 짐진국 대감님네 집에서 사라도령한티 이젠 시집오렌 허연 중진을 오난. 아, 대번칙에<sup>548)</sup> 대답을 허는 거라. 가쿠텐. 계난, 아버지 어머니 곁는 말이,

“아이고, 애야 스몏<sup>549)</sup> 험다 험 집이서 와도 다 물리쳐 땡, 경 가난험 집이 강 어뎡 살젠 느 그디 시집가젠 험디.”

허난. 그뎡 베지도<sup>550)</sup> 안 헐 때주게.

“아버지, 어머님, 절에 갓단 내려오명 무시거옌 곁읍디가<sup>551)</sup>? 아버지 곁은 말 잇어봬데가<sup>552)</sup>?”

경 허멍.

“구덕혼스 허지 안헛수가?”

경 허난.

---

542) 골리 잡앙: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서.

543) 지왔인디: 지었는데.

544) 구덕혼스: 아기 구덕에 눕혀 키울 때 미리 서로 약혼시킴.

545) 하간디서: 여기저기서.

546) 중진: 중매

547) 아니만 가쿠텐: 아니만 가겠다고.

548) 대번칙에: 단번에.

549) 스몏: 사몏.

550) 베지도: 아기를 베지도.

551) 무시거옌 곁읍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552) 잇어봬데가: 잊어버렸습니까.



“느 알앙 허라.”

허연. 이젠 둘이가 혼인 허연 사는디, 애긴 벤 거 아니. 애긴 벤디 물구덕 지언에 물 질레 간 오노렌 허난 편지 답장이 툇허게 마당에 털어진단, 그걸 봉간<sup>553)</sup> 익어 보난에. 사라도령이랑 서천꽃밭디 꽃감관(花監官) 꽃생인(花聖人)을 살레 오렌. 게난 월광아미 허는 말이,

“아이고, 나도 혼디 가쿠다. 나 혼자만 이디 잇이민 어떻힙니까, 나도 혼디 가쿠다. 가쿠다.”

허난.

“아이고, 베는 두룽둥 베<sup>554)</sup> 뉘고 어떻 허연 갈티?”

허난.

“가단 죽는 한이 잇어도 낭군님 딸앙가쿠다<sup>555)</sup>.”

허난.

“경 허렌.”

허연. 이젠 서천꽃밭디레 돌아왔언<sup>556)</sup> 가는디. 헨 서산열락 [西山日落] 에 지어부난. 이젠 어욱밧디<sup>557)</sup> 영 으지 [依支] 허연 눈 게, 천하 독은 목을 들런 즈지반반<sup>558)</sup> 운 거아니. 경 허난, 확 일어나젠 어욱을 심언 확 동긴게 손이 어욱에 베여 먹은 거라<sup>559)</sup>. 게난 우리 손이 마디마디 잇는게 그때에 어욱에 비어부난 마디가 생긴 거고, 어욱이, 땡기단 보민 뽕경현 줄거리가 잇어예, 어욱에. 그것은 월강아미 피라, 그것이.

“아이고, 낭군님아, 저건 어디서 우는 득이우파<sup>560)</sup>?”

허난.

“제인 들어 제인장제네 집이서 우는 득이옐.”

허난.

“경 허파.”

허연. 이젠 또 흐꿈<sup>561)</sup> 뉘 누워자노렌 허난. 지하 독이 목을 들런 즈지반반 울어 가난.

553) 봉간: 물건이나 돈 따위를 거저준다.

554) 두룽둥 베: 둥그렇게 차오르거나 부풀어 오른 베.

555) 딸앙가쿠다: 따라가겠습니다.

556) 돌아왔언: 데리고

557) 어욱밧디: 억새밭에.

558) 즈지반반: 닭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것.

559) 베여먹은 거라: 베인 거라.

560) 득이우파: 닭입니까.

561) 흐꿈: 조금.

“저 독은 어디서 우는 득이우파?”

허난

“만년들어 만년장제(萬年長者)네 집에서 우는 득이옌.”

허연.

“아이고, 경 허건. 낭군님아, 날랑양 저 집이 강 폴아두언<sup>562)</sup> 갑서. 난 질에 질 병 나고, 발에 발병 난 더 이상 걸영 가질 못 허쿠다.”

허난

“어서 경 허렌.”

허연. 이젠 그 집이 들어간

“이디 종이나 삼서.”

허난에. 제인장제는 앓아눕서로

“야, 큰딸애기야, 저레 나상 보라<sup>563)</sup> 저디 누게 왔이니?”

“아이고, 아버지 종사렌 왓우다만은. 사지 맙서.”

또 흐뭇 시난에<sup>564)</sup>

“종 삼서.”

허난에.

“셋딸애기 나상 보라.”

“아이고, 아버지, 사지 맙서. 우리집이 신세 먹을 놈이 종이우다.”

죽은딸 애기 곁아,

“저 디 나상 보라 누게 왔이니?”

허난.

“종 사렌 했우다. 아버지 상 낫단양, 아버지 심심풀이라도 험서.”

허난. 경 험 나간

“얼마 받젠 했이네<sup>565)</sup>?”

허난. 보난 베는 이만이 불고

“애긴 이제 곧 날거우다만은 어명이랑 돈 백 냥을 주고, 베 쏘곶에 잇인 애기랑 은 백 냥을 줍서.”

계난

“경 허렌.”

---

562) 폴아두언: 팔아두고.

563) 나상 보라: 나가 보아라.

564) 흐뭇 시난에: 조금 있으니까.

565) 했이네: 함이냐.

허연. 이젠 돈 백 냥에 은 백 냥을 주언, 사난. 이젠 저 올라가젠 허난에  
“아이고, 낭군님아, 가불민 이 애긴 나민 이름은 무신거옌 지옵네까?”  
허난에 .

“이 애기랑 나걸랑, 아덜랑 낱걸랑 한락궁이로 지우고, 딸랑 낱걸랑 한락데기로  
이름을 지와도렌.”

“젠디 본메본짱<sup>566</sup>)이나 주어텨 감서.”

아이, 내논 건 보난, 삼동낭 용얼레기<sup>567</sup>)를 딱 허게 끓엿 반착을<sup>568</sup>) 주는 거라.  
이거 반착 가지고, 나가 반착 가정 가켄. 경 헨 반착 주난, 그거 앓안. 사라도령은  
이젠 서천꽃밭드레 가 분거 아니, 가 부난. 그날 밤인 즘자노렌<sup>569</sup>) 허난 천연장제  
가 호롱불 싸고 헨 문을 동동동동 두드리는 거라.

“아이, 누구 돼시파<sup>570</sup>)?”

허난에.

“나, 천연장제.”

옌 허난.

“무사마썸<sup>571</sup>)?”

허난.

“나, 여기 온 이올 몰르크냐?”

허난.

“아이고, 이제 베 쏘곶에 애기가 잇인디다가 베 속에 벤 애기 낱앙 석 덜 열흘  
백일은 돼어사. 이 국에 법은 모르쿠다만은 우리 국에 법은 백일이 돼어사 몸 허  
락을 합니다.”

허난

“경 허넌.”

허명 속안 넘어가서. 이제 그 애기 난. 아덜을 나난 한락궁이로 이름을 지은 거  
아니. 한락궁이로 이름 지왓인디 그 애기 난 백일이 돼난, 또 호롱불 들르고 허연  
천연장제가 문을 동동동동 허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난.

---

566)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567) 삼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빗.

568) 반착을: 반쪽을.

569) 즘자노렌: 잠자려고

570) 누구 돼시파?: 누구 되십니까?

571) 무사마썸: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 국에 법은 양 몰르쿠다만은 우리 국에 법은양, 이 애기가 흐뎡 킁 마당에 작데기<sup>572)</sup> 해근엥에<sup>573)</sup> 몰 타근엥에<sup>574)</sup> 으려씩씩 으려씩씩

허영 들러가사<sup>575)</sup> 몸 허락을 헉네다.”

허난. 알앗젠 허연 또 넘어간 거라.

또 살았이난, 그 애기가 옥안, 마당에 작데기 해영 강알에 담양, 몰타는 식으로 으려씩씩 행 들러가난. 또, 이젠 밤중이 완

“문 열라. 문 열라.”

허난. 이 국에 법은 모르쿠다만은 해가난. 너, 이년 저년 날 속엿젠. 경 헨 막 죽일팔로 허는 거 아니.

“큰딸애기야 저것들 어떻 해부느니?”

허난.

“죽여봅서.”

“셋딸애기야 어떻허믄 종암직허니?”

“죽여봅서.”

“죽은딸애기는 어떻 헉이민 종암직허니?”

허난.

“아바지, 돈 백 냥 은 백 냥 쥘 사 논거양, 죽여불민 그거 다 일러불 거난<sup>576)</sup> 헨 벌역(罰役)이나 시겨 봅서.”

“그 말도 들언보난 맞텐.”

허연.

“계민 어명이랑 굽 터진 항에 물 혼 항을 채완 놓고, 아덜랑 오늘 굴미굴산노조 방산아야산<sup>577)</sup>에 올라 강, 줍씨 닷 말 닷 돼 칠세오리 앳안 강, 몰들 잇곡 헨 강, 그 밧 다 갈양 씨 뿌령, 갈양, 불러두엥<sup>578)</sup> 오렌.”

헨. 헨 벌역(罰役)을 시킨 거라.

계난, 어명은 물을 서너 허벅 질어단 풍풍풍풍 비우난. 아, 굽 터진 항이 탁 막 아져 분 거 아니. 어디서 영급(領給)을 준거라. 경 헨 막아 전. 세 번 질어오난, 물 혼 항이 돼 분 거라. 이젠 한락궁이도 간에, 올라간. 그 들진 밧<sup>579)</sup> 벨진

---

572) 작데기: 막대기.

573) 해근엥에: 해서.

574) 몰 타근엥에: 말 타서.

575) 들러가사: 달려가야.

576) 일러불 거난: 잃어버릴 거니까

577)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아주 깊은 산중을 뜻함.

578) 불러두엥: 밭아 두어서.

579) 들진 밧: ‘달이 지거나 떨어진 밧.’이란 뜻인데, ‘넓은 밧.’을 가리킴.

밧<sup>580</sup>)이영 간, 문딱 단장허연에, 줍씨 삭삭 뿌런, 몰허연 불런 허난, 확 허연 헤진 거 아니. 이젠 집이 왓이넌에 한락궁이신더레 허는 말이 천연장제가,

“아이고, 오늘은 펠망일 [滅亡日], 고추일, 하와일 오늘 씨 뿌령은 곡식은 안 돼는 날이난, 이제 강 그 줍씨를 닷 말 닷 돼를 문딱 주워오렌.”

허는 거라.

“아이고, 나 이거 줏으레 어떻 가린.”

옴 허연.

‘강 이거 어떻 줏으리옴.’

울멍 올라가노렌 허난. 게염지<sup>581</sup>), 큰 장게염지 이디 움막 들어 간 장게염지가 줍씨 혼 방울 물언, 겨울 양식허젠<sup>582</sup>) 물영 값이난, 발로 바락허게 준둥일<sup>583</sup>) 불른 거라. 경 블라부난<sup>584</sup>) 게염지는 허리가, 이디가 깎는덴. 경 옴 이젠

“아이구, 게염지야. 저 게염지야”

아, 강 문딱 줏영오렌 허난, 강 줏으레 간. 막 울단보난 새덜이 문딱 느려완에 오조조조 허멍 줍씨를 다 줏어다 논거라. 퍼쩍<sup>585</sup>) 깨어난 보난, 새들이 막 잇고 줍씨가 다 모아 전. 그걸 가정 제인장제네 집이 오난 제인장제가,

“아이고, 혼 방울이 또 떨어졌저. 빨리 강 그걸 줏영오렌.”

아이고, 침 그걸 줏으레 가단 보난, 개미가 그걸 물언 겨울 양식허젠 값이난, 인척 쥐 불엇이민 나 두 불 걸음을 안 혈걸. 무사 이제사 줏이넌 허연. 경 옴 이제 그거 가전 오난. 이젠 옴 벌역(罰役)도 아니 똬거고. 이젠 노, 쉼 동일 꼬렌 허난. 산디짚 허연에 노 혼 서너 번 박박 멩게난 쉼 동이가 확허게 꼬아진 거 아니. 그 벌역도 아니 똬고. 경 허난, 흐를날은 천연장제 어디 가부난, 비는 축축허게 오고 허난에 한락궁이가 허는 말이,

“어머님아, 제인장제네 집 콩장막이나 털영봅서.”

“무사?”

허난

“콩 잇건 콩이나 볍아줍서. 나 먹저.”

허난. 경 허렌 허연에. 이젠 콩장막 털어단 콩 볍음이옴 빗자락 앓단 놓고 허연에 볍으노렌 허난. 베깃디 갓단 한락궁이가 안터레 들어오멍 정지에 완.

580) 벨진 밧: ‘별이 떨어진 밧.’이란 뜻으로, ‘넓은 밧.’을 가리킴.

581) 게염지: 개미.

582) 양식허젠: 양식하려고.

583) 준둥일: 잔둥이. 허리 부분.

584) 블라부난: 밝아버려서.

585) 퍼쩍: 별떡.

“어머님, 어머님 혼저 저 올레 가봅서.”

허난.

“무사?”

허난에.

“제인장제 불렀우덴<sup>586</sup>).”

허난. 확하게 나가분 트멍에 빗자락이고, 남수리고 문딱 곱저분 거라. 젓으는 거 다 곱저동

“아이고, 어머니 제게<sup>587</sup>) 읍서. 뭐 했우과? 콩 다 카불엄수게<sup>588</sup>).”

허난. 이젠 완, 젓젠은 허난<sup>589</sup>), 아무것도 엇인 거 아니. 남술이<sup>590</sup>)도 곱저불고, 빗자락도 곱저불고, 다 허난, 어멍 손을 솟창더레<sup>591</sup>) 꼭허게 눌린 거라

“어머니, 바른 말 험서.”

“아이고, 거 무신 말이고?”

“제인장제, 우리 아바지 아니지양? 어서 바른 말 험서.”

허난.

“기여, 느네 아방은 서천꽃밭디 꽃감관(花監官) 꽃생인(花聖人) 살레 갓젠.”

허난.

“알앗수덴.”

허연.

“어머니, 이제랑 범벅을 해줍서. 소금 닷 돼 걸랑, 는쟁이 ㄱ루<sup>592</sup>) 닷 돼 놓앙, 범벅 두 덩어리만 해주고, 또 소금 혼 줌이건, 춤 ㄱ루를 닷 돼 놓아근앵에 범벅 두 덩어리만 해줍센.”

허난.

“어서 걸랑 경 허렌.”

허연. 이젠 그거 해주난 어멍신디

“어머니, 제인장제네가 왕, 암만 어머닐 죽이켤 허고 어머니가 뭐를 해도, 나 어디 갓젠 곱으민 안 웹니덴. 비밀이우덴. 절대 곧지맙서.”

헤 된. 서천꽃밭더레 가분 거라. 이젠, 가노렌 허난 제인장제넌 벌써 알안, 천리

---

586) 불렀우덴: 부르고 있다고.

587) 제게: 어서 빨리.

588) 카불엄수게: 타고 있잖습니까.

589) 젓젠은 허난: 저으려고 하니.

590) 남술이: 넓적 길쭉한 나무로 만든 죽젓개.

591) 솟창더레: 솔바닥에

592) 는쟁이 ㄱ루: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내어 남은 것으로, 갈린 껍질과 가루가 뒤섞인 상태.

둥이 개, 만리둥이 개를 내 논 거라. 한락궁일 강 물영오렌. 가노렌 허난 천리둥이 개가 물젠 왕왕왕왕 허멍 놀려든<sup>593)</sup> 거 아니. 범벅 소금 닛 뒤편에 는쟁이 그루 닛 뒤편 현거, 훌허게 던지난. 그거 먹으난 짬짬 허난에게, 그거 먹영 물 먹으레 가분 트멍에<sup>594)</sup> 천리도 가고, 또 가노렌 허른 또 만리둥이 개가 나오랑 막 물젠 허른, 범벅 짬짬 현거 혼 덩어리 주른 그거 먹영, 물 먹으레 가분 틸멍엔 만리 질도 나고 가고.

경 허연 간. 서천꽃밭디 간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간 앓안. 영 보난, 서천꽃밭디 열다섯 십오 세 안네에 죽영 간 애기들은 막 물을 질어감서. 겐디<sup>595)</sup> 부제칩<sup>596)</sup>이서 살앙 낫그릇에 밥 먹어난 애기들은, 이제 낫동에 허여 물 잉영<sup>597)</sup> 물 질영가단, 마이정당 쉼정당<sup>598)</sup>에 강 어디 칙 그든<sup>599)</sup> 것애나 뒤편, 발 걸령 푸더지민, 탁 그 사발이 털어져도 물만 손아져불주 사발은 안 벌러지주게. 게른 또 일 어낭 강, 그 사발 가정 강, 물을 질어단 꽃밭디강 물을 주민, 그 꽃이 막 살앙 막 히양삭삭<sup>600)</sup> 좋아지고, 막 가난하게 살앙 옛날엔 남박세기에<sup>601)</sup> 밥 먹고, 사기그릇에 밥먹고 경 해난 애기들은, 물 잉영 가당 발 탁 창 푸터지민<sup>602)</sup>, 남박세기도 벌러져불고<sup>603)</sup> 사기그릇도 벌러져불고 허민 물거령 갈 그릇이 엇어. 그릇이 엇이민 꽃에 물은 못주민, 꽃은 막 검뉴울꽃<sup>604)</sup> 뒤편 시들시들 물리와불민<sup>605)</sup>, 꽃감관 [花監官] 은 꽃춘심 오랏당 이거 누게 꽃이고 허영, 아랫저고리 걸어 세왕. 이 꽃 잘 관리 아니헛젠 막 두드려부는 거주게. 경 두드려불민, 그 애기덜은 인간덜에 돌아앓앙. 날 낳안 나 아바지, 날 낳안 나 어머님, 무사 나 멍 졸르게<sup>606)</sup> 납디젠 허영, 비세굴이 울어불민, 형제간들도 즈박즈박허고 애기덜, 경 허영 막 해가난. 무에낭 상가지에 앓앙 그걸 보단, 산손가락을 꼭허게 짬. 피를 혼 방울을 똑허게 떨어친 거라. 떨어치난 그 물 질어단 서천꽃밭디 주난, 꽃들이 다 검뉴울 뒤편 거

593) 놀려든: 달려든.

594) 가분 트멍에: 가버린 틸에.

595) 겐디: 그런데.

596) 부제칩: 부잣집

597) 잉영: 머리카 어깨 따위의 위에 이다. 이어서.

598) 마이정당 쉼정당: 땡땡이 덩굴의 한 가지.

599) 칙 굴은: 칙 같은

600) 시양삭삭: 몹시 흰.

601) 남박세기에: 나무바가지에.

602) 푸더지민: 넘어지면.

603) 벌러져 불고: 깨져 버리고

604) 검뉴울 꽃: 시들어 가는 꽃.

605) 물리와불민: 말려버리면.

606) 멍 졸르게: 멍 짧게.

아니. 아이, 게난 아방, 꽃감관 꽃생인은 꽃춘심 완 보난 꽃밧디 문딱<sup>607)</sup> 꽃 검뉴  
울이 쥔 거라. 게난 이거 어떻헌 일이고 허난, 애기덜 곤는 말이,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어떤 총각이 앓안 피 빠네 물에 뇌부난, 그 물을 떠당  
주난<sup>608)</sup> 이추룩<sup>609)</sup> 했우다.”

허연. 주천강 연훤몏덜 딱 내려산 보난. 아닌게 아니라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어떤 도령이 앓앙 잇인 거라.

“너 누게냐? 이리 내려오라.”

허난. 내려오난.

“너 성진땅이 어디냐?”

허난.

“나 성진땅은, 이제 아바지는 사라국 사라도령이고, 어머니는 월광아미고, 우리  
성하르방<sup>610)</sup>은 짐진국 대감이고, 우리 웨하르방<sup>611)</sup>은 원진국 대감이옴.”

허난. 내 자식이 분명헌 거라. 겐디, 확실헌 거를 몰라. 게난, 은동이에 물 떠단,  
이젠 아방 피도 혼 방울, 아들 피도 혼 방울 경 험, 물 우터레<sup>612)</sup> 툽 떨어치  
난<sup>613)</sup> 그것이 동골동골동골 떠 뎡기단<sup>614)</sup> 탁허게<sup>615)</sup> 간 합수가 쥔 붙은 거라. 아,  
영 허난 내 자식이 분명허다. 게난, 옛날부터 자식을 잘 모르면은, 그 피 검사허  
영 우리 그 디옴에이 검산가, 무신 거 허는 법. 그것도 뉘고. 게난

“설운 아들아, 느 오멍 보난 발등 친 물 엇어냐?”

“아이고, 잇입데다.”

“게, 오단 보난 무릅<sup>616)</sup> 친 물 엇어냐?”

“잇입데다.”

“오단 보난 목 친 물 엇어냐?”

“잇입데다.”

“그거이 느네 어멍이, 느 엇이난.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받단, 느네 어멍은 죽  
엇저.”

---

607) 문딱: 전부. 모두.

608) 떠당주난: 떠다주니.

609) 이추룩: 이렇게.

610) 성하르방: 성할아버지.

611) 웨하르방: 외할아버지.

612) 우터레: 위에.

613) 떨어치난: 떨어뜨리니.

614) 뎡기단: 다니다가

615) 탁허게: 탁하게.

616) 무릅: 무릎.



“아이고, 경 헛수과? 게믄 서천꽃밭 구경이나 시겨줍서”

게난 아들 들앙 서천꽃밭더레 간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믄.

“검뉴올 꽃이여.”

허믄 똑기<sup>617)</sup> 꺾으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믄.

“그건 싸움혈 꽃이여.”

허믄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믄.

“거논이 씨멜죽(種滅族) 혈 꽃이여.”

허믄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믄.

“그건 막 웃음 웃을 꽃이여.”

허믄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믄.

“그건 사름 살리는 꽃이여.”

허믄 똑기 꺾어 낫.

“알았수덴.”

허연. 이젠 어멍국, 어멍 신디 좇아앗엉 이젠, 인간에 온 거 아니. 겐 완 보난, 벌써 제인장제네 켜당<sup>618)</sup> 일족이 다 모인 거라. 한락궁이 오민 막 죽이젠. 경 허연 다 모영 가가난 다들 와상와상 막 헤가난.

“아이고, 상전님네들 어뎡 허난 영 헛우과?”

허연. 웃음 웃을 꽃을 내낫, 다글다글 흥그난<sup>619)</sup> 그자 켜당 [眷黨] 들이 막 하하 하하 웃이멍 다 자빠지는 거라. 하하호호 막 헛. 겐 싸움혈 꽃 내어낫, 와글와글 흥글어 가난 서로가 머리들 메멍 막 싸움을 허는 거라. 이젠 씨 멜죽혈 꽃을 내

---

617) 똑기: 똑.

618) 켜당: 권당(眷黨).

619) 흥그난: 혼드니.

난, 와글와글 흥그난 다 죽어분 거라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디 갓인고.”

허노렌 허난. 장방(長房) 쏘곱<sup>620</sup>)에서 제일 죽은뜰, 죽이지 못헌 죽은뜰

“아이고, 상전님.”

허멍 나오난

“야, 느가 상전이주. 나가 상전이가? 우리 어멍 잇인디 곶아 주민. 나, 느 살려 주마”

허난. 뒤에 간 보난 신돔박낭<sup>621</sup>) 아래, 돔박낭 아래 간, 청댓섭<sup>622</sup>)으로 목 걸련 에 영 목 메영 돔박 낭 아래서 죽여분 거라. 게난 아이고, 이거 보난 거미줄은 막 헤영허게 쓰고,

“아이고, 설운 어멍 이거 나 엇이난.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받안 영 죽엇구나.”

허연.

그 거미줄 썬 법으로. 지금 저 고리동반에<sup>623</sup>) 너울지, 너울지. 우리 어디 곳 허레 가멍 공깃상<sup>624</sup>)에 항상 댓섭<sup>625</sup>) 헤영을 찌르나, 돔박낭 행, 영 찢렁 노는, 고망 베롱베롱 현. 영 동글동글 현 떡 쏘곱에 담앙 현 거. 그 법으로 저 너울지 허고. 이젠 대로 목 줄란<sup>626</sup>) 죽엇젠 허영 댓섭으로 영 동글락허게 영영영영 꼬웁 니다 그거. 경 꼬아 놓고, 돔박낭 아래서 죽엇젠 허영 돔박낭 영 찢르고.

그 땅을 판 거라. 판 보난 어멍 빼만 슬그랑허게<sup>627</sup>) 남앗이난. 피 오를 쫓, 슬 오를 쫓, 오장육부, 말 굴을 쫓, 사름 생길 쫓 난. 연시 번을 송악낭<sup>628</sup>) 막테기로

“이건 내가 어머니 때리는 메가<sup>629</sup>) 아니고, 어머니 살리기 목적으로 때리는 뽕 니텐.”

허연. 세 번을 딱딱 후리난 와들랭이<sup>630</sup>) 어멍이 일어나멍

“아이고, 나이 봄 즈이난 너미 자젼저.”

허난. 그 때엔 이젠 어머니 살려 된. 어멍 누워난 자리도, 땅도 하도 아까운 거

---

620) 쏘곱: 속.

621) 신돔박낭: 동백나무.

622) 청댓섭: 청댓잎.

623) 고리동반: 고리동반떡을 이름. 이는 소위 ‘심방떡’이라 불리는 것으로, 방석 역할을 하는 병개떡과 7개의 방울떡으로 이루어짐. 떡 위에는 너울지를 씌웁.

624) 공깃상: 삼명두(요령, 신칼, 산판)을 모신 상.

625) 댓섭: 댓잎.

626) 목 줄란: 목 줄라서.

627) 슬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빼만 남아 있는 상태.

628) 송악낭: 두릅나뭇과의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

629) 메가: 매가.

630) 와들랭이: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

라. 어멍 누웁 잇어난 거 어멍 내불린. 그걸 동골동골 손에 낀 멘든 거라. 게난, 개인집이 굿헐 때는 일곱 방울, 큰굿 스당클 [四祭棚] 메영 정의 곶은 디 강, 당클 네 개 메영 대 세왕 허는 디는 열네 방울, 곱빼기. 심방칩이 굿헐 때는 곱빼기 곱빼기 허난, 이제 스무으덥 방울. 네 부를 허니까. 스무으덥 방울 헤영 허곡, 아랫건 이제 병거떡<sup>631)</sup>이엔 현거, 둥글락허게<sup>632)</sup> 멘들안 그 우터레 놓아근에게, 이제 고리동반 허는 법. 게난 이공본은 그것이 주목예.

---

631) 병거떡: 신에게 바치는 떡을 고리동반떡이라고 하며, 병거떡과 방울떡으로 이루어지는데, 병거떡은 밑에 받치는 방석 역할의 하는 떡.

632) 둥글락허게: 둥그렇게.

## 삼공본풀이

옛날은 옛적에 옷상실<sup>633)</sup>은 간이영성이 살고, 알상실<sup>634)</sup>은 홍문수천이 살았으니, 옷상실에서는 막 송년(凶年)들었. 막 송년드난 소문에 듣기를, 알상실에 막 풍년 들었덴 소문이 나고, 또 알상실에서는 옷상실에 풍년이 들었덴 소문이 난거라. 서로서로 소문이 잘못 댜언.

게난 둘이가 다 얻어먹는 게와시 [乞人] 덜인디, 옷상실에선 간이영성이 알상실 데레 얻어먹으레 내려살 때고, 알상실에선 홍문수천이 옷상실 데레 얻어먹으레 올라사는 도중에 질레서<sup>635)</sup> 둘이가 만난 거라.

“어드레 가는 아주망이파?”

허난에.

“난 알상실 사는 홍문수천인디 옷상실에야 막 풍년 들었젠 허난, 우리 세젠 막 ㄱ물안 송년(凶年) 지어부난 얻어먹으레 값우다.”

허난.

“게난 아주방은 어디레 값수파?”

허난.

“난 옷상실에 간이영성인디, 우리 옷상실에 막 송년들었 소문에 들으난, 알상실에 막 풍년 들었젠 허연 그디 얻어먹으레 값우다.”

허난. 아, 서로가 질레에서 통성명 허명 어땡어땡 허단 보난

“경 말앙 읍서. 우리 둘이가 부베간이나 삼앙 삼주.”

젠 둘이가 이제 부부가 뉘 거야니. 경 부부가 뉘연 사는 게, 물고랑<sup>636)</sup>에서 산 거라. 물고랑에서 사느디, 애긴 베연 낳는 거 보난, 딸이 난거라. 겐, 이름이나 지와보저 허연. 은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이젠 또 살단살단 보난. 또 애길 베연. 나난, 딱시 딸 난거라. 게난 돗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겐디 큰딸 난 때 ㄱ지는 물고랑에서 살단, ㅎ끔 베지그랑허연<sup>637)</sup> 이젠 비주리초막 행 간 살단, 돗장아긴 나난 ㅎ끔 더 이젠, 눈이 베지그랑헨 거라. 경 헨 이젠 이칸 집이허연 살단. 또 임신뉘연 낳는 건 보난, 딱시 딸 난 거 아니. 게난 이결랑 가든장아기로 이름을

633) 옷상실: 가든장아기 신의 부신명(父神名). 또는 그 출생지.

634) 알상실: 가든장아기 신의 모신명(母神名). 또는 그 출생지.

635) 질레서: 길에서.

636) 물고랑: 마굿간.

637) 베지그랑허연: ‘베지근ㅎ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는 의미임.

지으겐 허연. 아, 가문장아가 난 살아가는 게, 그냥 삼시간에 경 부제(富者)가  
돼어부는 거라. 게난, 막 천개의 집도 헤연에 소실 대문 들안 살고, 남전북답(南  
田北畓) 너른 밧덜토 나고 부제 [富者] 가 웨언. 막 살아가난 이 애기덜토 아멩헤  
도<sup>638)</sup> 일고 으듬 설에 으남은 설 췌인<sup>639)</sup>라. 흐루는 심심허고 야심허난 이젠 딸을  
불른거주게. 큰딸을 불런,

“은장아기야.”

허난.

“예.”

허난에.

“이레 와보라.”

허난. 이젠 아바지 방에 들어가난 어멍허고 앓아둬서로

“야,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行動發身) 해서 사느냐?”

허난.

“예. 아바지도 덕, 어머님도 덕,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에 살았우다.”

허난

“하 참, 나 딸애기 적실허다<sup>639)</sup>. 느 방으로 가라.”

허연 보내고. 이젠

“늦장아기야.”

허난

“예.”

허난

“이레 오라보라.”

허난.

“넌, 누게 덕에 살았느냐?”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 아바님도 덕, 어머님도 덕에 살았우다. 먹고, 입고,  
행공발신 [行功發身] 했우다.”

허난

“어 참, 나 딸애기 착실허다. 느 방으로 가라.”

허고. 가문장아기 불런에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행공발신 허느냐?”

허난

---

638) 아멩헤도: 아무래도

639) 적실하다: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 아버지 어머니도 덕이우다만은. 나 베포롱<sup>640)</sup> 아래 선그릇이 덕이우다.”

허난.

“아, 요년, 생긴 년, 너 베포롱 아래 뭐 선그릇이 덕이고.”

허멍 딱리젠<sup>641)</sup> 헤가난. 베킷디레<sup>642)</sup> 돌아나분거라. 통설대로<sup>643)</sup> 딱리젠 허난 돌아나부난. 이젠 아버지영 어머니영,

“야, 은장아기야, 저디 강 느네 아시 강 들앙오라.”

허난. 올레에 간 물팡 우이 올라사멍 곤는 말이

“가문장아기야, 혼저 저레 돌아나불라. 아버지 통설대 들르고, 어머니 부깃탱이 들린 느 두들젠 앓저.”

허멍 허난. 겐 그 말 곱아똥 알더레 탕 내려사난 아, 청주녕이<sup>644)</sup>가 똥분 거라. 청주녕이로 변장 헤불언.

이젠 낫장아기<sup>645)</sup>라

“야, 어떻허난 느네 성도, 느네 아시 들레가당 안 앓이니? 간 보라. 강 돌아오라.” 허난. 이젠 간. 걸름 우터레<sup>645)</sup> 올라사멍

“야, 가문장아기야 혼저 돌아나불라, 아버지영 어머니영 느 딱리레 오랴저.”

헤될. 탁 느려사젠 현 게 용달버섯<sup>646)</sup>이 똥분거라. 게난, 어떻 아방은 똥 삼형제가 나간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 아니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 [必有曲折] 현 일이옴.”

이젠 아방은 베킷디레 나가젠 현게 저 대문에, 문대방<sup>647)</sup>에 눈, 강 탁 쳐부난에 아야야야 허단보난 오꽃 눈이 어둑어불고, 어멍은 정지에서, 정지로 나가젠 현게. 정짓문에 문대방에 강 그냥 앓앙, 눈, 간 쳐부난 아야야야 둥글단보난. 정신 출령 하르방, 하르방, 할망, 할망 좇안 보난, 둘이가 다 오꽃 눈이 어둑어<sup>648)</sup> 분거라 그냥. 게난 짐작삼아 손으로 영영영영 헤연. 이젠. 하르방, 할망, 할망 좇안. 경 허연 현디. 가문장아긴 그 질로 나산 집인 돌아올 순 엇고, 가노렌 허난.

큰 마통이가 마 파는디가 있어. 마 파는디 둥굴랑 둥굴랑 허멍 마 팸시난,

---

640) 베포롱: 배꼽.

641) 딱리젠: 때리려고.

642) 베킷디레: 바깥으로.

643) 통설대로: 긴 담뱃대.

644) 청주녕이: 청지내.

645) 걸름 우터레: 거름 위에.

646) 용달버섯: 음달버섯. 말뚝버섯.

647) 문대방: 문지방.

648) 어둑어: 어두워.

“아이고, 말이나 헛꿈 물으쿠다예. 어디가민 인간처가 잇인고예?”

“에이그, 여잔 꿈에만 시꾸와도<sup>649)</sup> 새물 [邪物] 인디 예편년이 말 시겨부난, 오꽃  
나, 마 빨리 끊어져 불어라.”

허멍 막 욱을 해 분거라.

이젠 또 가당가당 보난, 셋 마통이가 둥굴랑 둥굴랑 마 팜시난

“말이나 헛쓸 물으쿠다.”

허난에

“아이고, 여편년이 말 시겨부난 오꽃, 마 데가리 끊어져 불어렌.”

막 욱을 허여.

또 가단보난 또 죽은 마통이가 마 파는디 잇이난에

“아이고, 말이나 헛꿈 물으쿠다예?”

허난. 죽은 마통이는

“예. 곱읍서.”

허난

“어디가민 인간처가 잇인고양?”

허난

“요 제 녀고, 저 제 녀고 강 보민양. 비주리초막<sup>650)</sup>에양 노인네 할마님 혼자 잇  
인디 잇우다. 그디 강 오늘밤이 가근앵에 주인이나 땃영 감서.”

경 곱아주는 거라. 경 헨 이젠

“아이고, 고맙수다게.”

헤 뉘. 가노렌 허난, 춤 요 재 녀고 저 재 녀고 강 보난에 잇어, 집이. 집 잇이  
난 그때엔 할망신디 간

“나 주인이나 헛꿈 땃젠 헛수다.”

허난.

“아이고, 이제 우리 마통이들 들어오민 우리 마통이들 누울 방도 엇인디다가 나  
그네까지 줄 방이 엇젠.”

허난.

“나, 정지 구석에라도 좋수다.”

경 헨. 아이, 어둑어가난 둥굴랑 둥굴랑 허멍 거 무슨 소리가 나는 거라. 겐

“이거 무슨 소리파?”

허난 우리 큰 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엔. 헛꿈 잇이난 또 둥굴랑 둥굴랑 소리

---

649) 시꾸와도: 비추어도.

650) 비추리초막: 매우 작은 초막.

나난

“이건 무슨 소리파?”

허난 이젠 셋 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엔. 죽은 마통이 마 팡 오는 소리가 둥굴랑 둥굴랑 허연. 마통이들이 집이 완, 마 팡 온 거 찻언. 숯안 앓아 온 건 보난. 큰마통인 데가린 어멍을 안네고, 꼴랑진 손님을 안네고, 복판은 이녁이 먹고. 셋 마통인 데가린 어멍을 안네고, 꼴랭인 손님을 주고, 복판은 이녁이 먹고. 죽은 마통인 출렁 온건 보난, 데가린 이녁이 먹고, 꼴랭인 어멍 안네고, 복판은 손님을 안넌 거라. 그걸 얻어 먹언.

“에이구, 나도 무시거 대접을 혜사주긴.”

헤연. 가문장아기도 히양삭삭 ㄴ은 졸 뉘 곤밥<sup>651)</sup>허연. 큰 마통이한테 들어나상 허난. 욱만 후려<sup>652)</sup>허는거라.

“어디 버랭이밥 혜단 우리 조상 전이도 안 먹어난 거 가정 들어왔덴.”

막 욱허연 앓앙 나가렌. 셋 마통이한테도 앓앙가난 그냥 손더레 영 거려와 가난

“아이, 아이 나 말덴. 버랭이밥 치우렌.”

허연 안 먹으켄 허고. 이젠 죽은 마통이한테 앓아가난 죽은 마통인,

“아이고, 영 맛 존 밥이 어디 시넌.”

허멍 그냥 손으로영 숟가락으로영 막 먹어가난. 이젠 큰 마통이, 셋 마통인 그땠 간, ㄴ만히 산 바리단

“나도, 흥뽀 드라. 나도 흥뽀 쥐 보라. 쥐 보라.”

허멍. 하도 죽은 아시 맛 좋게 먹어가난 먹구정 허연. 경 현디. 이젠 그거 다 치와 뉘. 줌은 자젠 허난 큰 마통이 방에 가난, 막 욱을 허는 거라

“여펜이 누게 발에 눕젠 헛이넌.”

막 허연. 이젠 셋 마통이 신디도 가도 막 욱허연. 죽은 마통이 신딘 가난

“죽은 마통이가 저 나 발더레라도 눕서.”

경 허연. 발에 누원 허는 게, 이제 가문장애기 하고 부베간이 뻗어. 경 부베간이 뉘난, 뒷날 아침인 큰 마통이 마 파난디 둘이가 간 보난. 개똥, 쉼똥만 문딱 이디 저디 데작데작 허고. 셋 마통이 마 파난디나 강 보주긴 허연 간 보난. 돌맹이만 왕그랑 현 거아니. 죽은 마통이 마 파난 디나 강 보주긴 허영 간 보난, 파민 금이여, 파민 은이여 그냥 금과 은이 보화가 막 나온 거라. 경 헛 그냥 삼시간에 큰 집도 나고, 큰 밧도 나고, 부제가 뉘 거라. 게난 가문장애기가 ㄴ만히 생각허난

“설운 낭군님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사 살았인디, 어떻사 뉘인디 혼번 좇

651) 곤밥: 쌀밥.

652) 후려: 마구.



아 보는게 어떻 허우파?”

허난.

“게믄 경 허렌.”

허연.

“게믄 걸인 잔치나 헤 보게마썸.”

허연. 이제 걸인 잔치를 허는디, 이제 춤 각처 도에 잇인 거지덜은 다 오는 거 주게. 맹인 들이영. 경 허영 다 오는다. 메날 아버지가 오랴인가, 어머니가 오랴인가. 두일레 열나홀 걸인 잔치 허는디, 암만 기다려도 아니 와. 말제 끝 마무리<sup>653)</sup> 웨가난, 손덜 심영 둘이가 봉사 웨연 막댕이<sup>654)</sup> 꿋고 쥘으고 허연 오는 거 보난,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라. 경 허난. 그디 간 앓으난에 제일 말제<sup>655)</sup> 어떻 못가 게 허젠 허난. 우이로 맥여가단<sup>656)</sup> 딱, 그 어멍, 아방 앓은 디 가민 꿋영, 맥여불지 말고, 또 알로 맥여가단 어멍 아방 신디 가결랑 딱 꿋영, 맥여불지 말렌 허연. 시긴 거라. 게난 우이로 맥여오단 꿋어불고, 이제 우티나 강 앓으민 주카부덴, 알로 맥여 오단 그 디 가민 꿋어불고 허난. 윈, 일로 강 앓아도, 절로 강 앓아도. 숟가락 소리, 돌고락 돌고락 숟가락 소린 나고. 밥은 못 먹고 경 허단 마지막 두일레 열아홀이 꿋나난. 이젠 그디 그 부하들<sup>657)</sup>라 곶은 거주게

“저 디 앓은 할망, 하르방이랑 못 가게 심영 가지 못허게 허연 놔두렌.”

경 허여 된.

“헤치자.”

허난에. 전국적으로 게와시(乞人)들이 문밖 가게 된 거 아니. 다 가불어가가난 이제 아방 어멍은 막 손 삭삭 부비멍

“아이고, 죽을 췌를 지엿우다. 우리 살려 줘서. 우리 췌엔 헛 건 아무 췌도 엿우덴.”

막 헤 가난.

“게난 어디서 읍디젠?”

허난.

“아이고, 난 옷상실 강이영성이고, 각신 알상실 홍문수천이우덴.”

허난

“게건 옛말이나 곶아봅서. 들은 말이나 곶아봅서.”

653) 끝마무리: 맨 마지막 끝 무렵

654) 막댕이: 막대기.

655) 말제<sup>655)</sup>: 맨 마지막까지

656) 맥여가단: 먹여가다가.

“아이고, 우린 옛말도 엇고, 들은 말도 엇수다.”

허난.

“게건 살아 온 말이라도 알아봅서.”

경 허난. 이때부터 아방 어멍이 거지에서부터, 만냥 물고랑에서 애길 나고 현 말로부터, 쪽 놀레<sup>657)</sup>로 불러 왕 이제 가문장아기 집 나가분제<sup>658)</sup>지. 그<sup>659)</sup>지뻘이 몰르주게. 게 그<sup>660)</sup>지만 불르민. 이젠 가문장아기도 나도 노래 불르쿠텐 허연. 이젠 그 집에서 나완 마통이들 만냥 헤난 말로부터 허영. 이 잔치허는, 걸인 잔치허는디 <sup>661)</sup>지 허영 곶아. 경 허영 허민, 이제

“나 술 혼 잔 받으시오.

허민. 술, 딸 가문장아기가 술 들렁은엥에 잔더레 비왕 헤 가민, 잔이 다락 털 어저부난 눈이 번뜩허게 떠져분거라. 어멍, 아방이. 눈이 번뜩허게 뜨난, 어멍 아방이 입어난 옷 싹 벳건. 이젠 그거 들렁 청스록(靑邪氣)<sup>658)</sup>도 내놀리자<sup>659)</sup>, 흑스록 [黑邪氣] 도 내놀리자. 나무광대 정자스록 내놀리자 허영. 스록들 거느리멍 다 놀려불고 경 헤된. 이제 어멍 아방 입어난 옷 허영 헤된 그 옷은 불 케와<sup>660)</sup> 불고, 새입성 [新衣服] 허영 어멍 입정은엥에 허는 거. 이거 원칙으론 두 번, 그 노래 부를 때에 처음부터 허연 부르고, 반에서부터 끝까지, 또 이건 가문장아기 불르곡 허면 본풀이가 돼는 겁니다.

---

657) 놀레: 노래.

658) 스록: 되어가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기(邪氣).

659) 내놀리자: 내쫓자.

660) 불 케와: 불 태워.

## 지장본풀이

지장본은,

지장이 아기씨에 대한 본입니다.

이제 나까시리 놀려 나면 청하늘 청도전, 흑하늘 흑도전,

백하늘 백도전, 도전에 풀이로 지장이 본풀자 허여.

강남은 천저국, 일본은 주년국, 서천은 서역국 허시던 말쌈이.

남산국 본이여, 여산국 본이여,

옛날은 옛적에, 남산과 여산이 자식이 없어서 호호 탄복을 헛거라.

소문에 들으난, 어느야 당에사<sup>661)</sup> 영급(靈及)이 좋고, 수덕(授德)이 좋덴 허난. 송낙베 구만장, 가삿베 구만장, 백근을 중중이 출려서 이제 동계남 상저절, 서계남 금법당, 이제 절에 간 수륙을 들인게. 지장이 아기씨가 소로롱 소로롱 솟아난 거 아니.

계난 혼 설 [一歲] 이 나는 헨, 어머님 무릅에 앉안 연즈세 허고<sup>662)</sup>. 두 설 [二歲] 은 나난, 아버지 무릅에 앉안 연즈세를 부리고. 세 설 [三歲] 은 나난, 할마님 무릅에 연즈세 허고. 네 설 [四歲] 은 나난, 할아버지 무릅에 연즈세를 허고. 아이, 다섯 설 [五歲] 은 나난, 어명부터 오꼳<sup>663)</sup> 죽어분거 아니.

여섯 설 [六歲] 나난, 아버지가 죽어 분거라. 이젠, 일곱 설 [七歲] 은 당허난, 할망이 죽어불언. 거꿀로 혜영 죽엇이민. 옛날도 경 허난. 어명 죽어분 애긴 불쌍허고, 아방 죽어 분 애긴 불쌍허지 안 헛다고. 이젠 8덥 살 [八歲] 나난, 오꼳 하르방까지 죽어부난. 이제 갈 디가 엇인 거라. 지장이 아기씨, 경 허난.

동네에 웨삼촌<sup>664)</sup>, 웨삼촌이 금방산에 사난. 웨삼촌 텍으로 수양(收養)을 간 거라. 수양을 가난. 그 애기도게 버릇이 곳언. 하도 빌흐럽<sup>665)</sup>을 허연. 계난 개 먹던 접시에 술납을 달레고<sup>666)</sup> 허연 사는디. 하도 버릇이 곳이난 삼도전 시커리<sup>667)</sup>로

---

661) 당에사: 신당.

662) 연즈세 허고: '어리광을 부리다' 의 뜻.

663) 오꼳: 곧. 즉시. 아무런 흔적이나 자취도 없이.

664) 웨삼촌: 외삼촌.

665) 빌흐럽: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울며 조르거나, 조그마한 일에도 잘 울며 버티는 것.

666) 술납을 달레고: 술밥의 음변(音變). '술랍을 달렌다'함은 숟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하여 준다는 뜻.

667) 삼도전 시커리: 세거리를 말함.

그냥 나아도 가더라. 겐 그디 삼도전 시커리에 가난, 하늘은 옥황에서 부영새가 짓날아오란<sup>668</sup>), 혼 늘게<sup>669</sup>)는 끌리고, 혼 늘게는 덮으고, 겐 사는게. 이런승 저런승 그자 그럭저럭 고생고생허멍 어떻어떻 사는 게.

열다섯, 십오세가 돼어가난 하도 착허난. 착허텐 소문이 동서로 나난. 하늘은 옥황에 문왕상 문도령에서 중전 [仲媒] 을 오는 거라. 게난 허급(許給)을 허난. 이젠 이바지<sup>670</sup>)가 오고, 신랑이 오고 신부가 가고, 경 시집을 가난. 가는 날 저녁에 조은 일을 허난. 이젠 애기를 가진 거라. 게난, 조은 일 허난에 지장이 아기씨 포테 [胞胎] 가 뉘난. 시어멍 시아방 ,

“아이고, 나 며늘애기씨, 출림도 출렸저<sup>671</sup>). 착험도 착허텐.”

오명싸라<sup>672</sup>) 이제 애기를 가지난. 유기((鑰器)야 전답(田畓), 말모쉬 [馬牛] 아올라 문딱<sup>673</sup>) 재산을 물러쫓어. 겐 물러 쫓인디 열으섯 나난, 시어멍부터 죽어분거 아니. 열일곱 나난, 또 시아방이 죽어불엇어. 열으덟은 나난, 낭군이 죽어분거라. 서루신<sup>674</sup>) 낭군이 죽어도 가느고, 열아홉은 뉘난, 이젠 애기 아올라 오골렉이<sup>675</sup>) 죽어분 거라. 아이고, 게난

“이젠 어딜로 가리오.”

이젠 팔즈(八字)가 험악허난 생남저 ㄱ지<sup>676</sup>) 다 죽어부난. 동네에 시누이가 사난 시누이 사는 디 가난. 시누이, 나 딸년은 혼지방 넘으난 베흥<sup>677</sup>)이 닷 뉘, 니<sup>678</sup>)가 닷 뉘, 이제 시누이 테<sup>679</sup>)를 험거라. 시누이 테허난, 그디도 못 살안.

주천강 연훼못디 연세답<sup>680</sup>)을 가난. 쫓고만 애기씨허고, 예숙을 제끼난<sup>681</sup>), 예숙이 지언. 게난 물명지 치메, 단 치메 흐나 입엇단 거ㄱ지 다 벗언 쥐두고 허연 오는게. 동으로 오는건 은장에 거리여, 서으로 오는건 뉘장에 거리여. 은장과 뉘장은 다 버려두언 오노렌 허난, 이제 스님이 온 거라. 스님이 땡겼이난. 동으로 오

---

668) 짓날아오란: 날아와서.

669) 혼 늘게: 한 날개.

670) 이바지: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혼례에 필요한 물품.

671) 출림도 출렸저: 차리기도 잘 차렸다.(家具 등 遺産을).

672) 오명싸라: 오자마자.

673) 문딱: 전부. 모두.

674) 서루신: 겐으로는 ‘서러운’의 뜻이나, 단순한 ‘서러운, 불쌍한’의 뜻이라기보다는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애정이 담긴 말로 보임.

675) 오골렉이: 고스란히

676) 생남자 ㄱ지: 생남자(生男子) 까지.

677) 베흥: 벼룩.

678) 니: 이(虱).

679) 시누이 테: 시누이 티.

680) 연세답: 빨래.

681) 예숙을 제끼난: 수수께끼를 하니.

는 건 대스(大師)님 오시고. 서으로 오는 건 소스(小師)님 오시고. 대스(大師)님, 소스(小師)님 심어 놓안.

“나 팔즈(八字)나 골려 줘서. 나 스주나 골려 줘서. 나 팔자 곁써서.”

허난. 딱, 스님 허는 말이

“어떻허난 초본엔. 게난 어린 때는, 초년에는 조은 팔즈(八字)에 잘 살안 해도, 중년에는 굿수다. 말년에는 조쿠다. 그대신 말년에 좋젠허민. 시아방, 시어멍, 남편, 원아방, 원어멍, 이제 생남자까지 라도 다 전새남<sup>682)</sup>을 해 줘서.”

헌 거라. 게난 전새남을 허젠 허난. 아무것도 엇이난게 무신거 헤사 전새남을 헐 거 아니. 원데자 구덩이<sup>683)</sup> 헤우쳐 판, 그디 뽕낭 싱건. 그 디 뽕 잎 나난. 그 뽕잎 타단, 누에 질루완. 누에 밥을 주고, 누에 즙을 재우고, 경 허연 그 누에를 키완. 이젠 강명지 [强明紬] 꼬리여 물명지 [水明紬] 꼬리여 누에 실을 뺀 거라.

실을 뺀. 왈그락 잘그락 강명지도 짜고, 물명지도 짰. 이제 그거 짜 난. 이제 할 마님 드리여, 이제 시왕(十王)의 드리<sup>684)</sup>여, 초공전 드리여, 이젠 각 일만팔천에 드리에 다 츠서(差使)에 드리여. 멩감(冥官)에 드리여, 일월(日月)에 드리여. 본향(本鄉) 드리, 영가(靈駕) 드리, 경 헨 다 허단. 남은 건 잇이난,

열대자(十帶子) 들어서 아강베포<sup>685)</sup>, 게난 큰 포파리를 멘들고, 일곱 자 들어서 호름쭈치<sup>686)</sup>를 허고, 게난 찰리<sup>687)</sup>를 멘들고, 석자 들어서 호름쭈치에 다 멘들안. 그걸 이제 둘러메연 권제를 받으레 땡긴 거라. 쓸을 마련 헤사 이제 전새남을 헐 거난.

게난 동으로 들어서 서으로 나시고, 서으로 들어서 동으로 나시고. 게난 권제 받으레가민 불쌍허텐 허영 흠으로 줄 때는 돼로 주고, 돼로 줄 때는 또 말로 주고. 게난 흠흠 [合肅] 히, 세세히 메와단. 그 쓸을 이젠 짓넙은<sup>688)</sup>, 굽넙은 다라에 물적저 등근다<sup>689)</sup>. 물적저 등그난.

이제 그걸 건전 굴묵낭 방에<sup>690)</sup>에 도에낭 절곶대<sup>691)</sup>로,

682) 전새남: 병자를 살려주기를 기원하는 곳.

683) 구덩이: 구덩이.

684) 드리: 다리. 굿을 할 때 걸어놓거나 깔아놓은 긴 천을 말하는데, 신이 이 다리를 밟아 내 린다고 함.

685) 아강베포: 중이 떼고 다니는 땀뻥.

686) 호름쭈치: 중이 쌀을 얻으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자루.

687) 찰리: 천이나 형겅 따위로 기다랗게 만든 큰 주머니. 자루.

688) 짓넙은: 넓은.

689) 물적저 등근다: 물 적시어 담근다.

690) 굴묵낭 방에: 느티나무 방아.

691) 도에(桃花)낭 절곶대: 복숭아나무 절곶공이.

‘이어도 방에여, 이어도 방에여,’

콩콩히 지언.

계난 체할망<sup>692)</sup> 불러단 체바컬 탁 치난. 체 아래 ㄱ루<sup>693)</sup>는 줌짐도<sup>694)</sup> 줌질고, 체 우에 ㄱ루는 흙음도<sup>695)</sup> 흙으난. 체 아래 ㄱ루는 강남서 들어 온 땃시리<sup>696)</sup>에, 일본서 들어온 땃숫디<sup>697)</sup>. 초징 이징 삼중을 놓안. 불낙시(火食)<sup>698)</sup> 시견. 시리떡을 멘들고, 체 우에 ㄱ루는 흙음도 흙으난 즈는펜<sup>699)</sup>, ㄱ는펜. 물펜<sup>700)</sup>이여 펜 멘들고 경 허연 시리 멘들안에.

이젠 시왕(十王) 스지(小紙)에 올련. 그거 동골동골 노념허연<sup>701)</sup>. 옆도전 네여단. 연당 [靈筵祭棚] <sup>702)</sup>, 만당(滿堂)

비어 잇인디 문딱 올련. 그 전새남을 올리난. 살단살단 지장이 애기씨가 죽언 가난. 넌 인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헤엇젠. 서천꽃밧디 통부체 몸으로 환싱(還生)을 허난.

“서천은 꽃밧디 이제 새 앓아 오는고, 천왕새 드리자<sup>703)</sup>, 지왕새 드리자, 인왕새 드리자, 옥황엔 부영새, 땅아렌 도닥새, 준지새, 만을새, 영낙엔 호박새, 안땅에 노념새, 밧땅에 시념새 허영. 쓸 기린<sup>704)</sup> 새랑 쓸주고, 물 기린<sup>705)</sup> 새랑 물주멍 쥐라 휘~얼쭈!”

허영. 새 드리는 거. 지장만보살 신평엿습니다.

---

692) 체할망: 가루를 치는 도구인 체를 치는 할머니라는 의미임

693) ㄱ루는: 가루는.

694) 줌짐도: 가늘기도.

695) 흙음도: 굽기도.

696) 땃시리: 시리.

697) 땃숫디: 술에.

698) 불낙시(火食): 불을 피워 찌는군 의 뜻.

699) 즈는펜: 김으로 찢 돌레떡.

700) 물펜: 물에 삶은 돌레떡.

701) 노념허연: 놀음놀이해서.

702) 연당(靈筵祭棚): 영연(靈筵) 당클(祭棚)의 약어. 곧 제상(祭床).

703) 드리자: 쫓아내자.

704) 쓸 기린: 쌀 먹고 싶은.

705) 물 기린: 물 먹고 싶은.

## 멧감본풀이

삼멧감 [三冥官] 하늘님은, 천왕(天皇)은 열두 멧감 [十二 冥官] . 지왕(地皇)여섯 멧감. 인왕(人皇) 아홉 멧감 [九冥官] , 동(東)이 청멧감 [靑冥官] , 서(西)이 백멧감 [白冥官] , 남(南)이 적멧감 [赤冥官] , 북(北)이 흑멧감 [黑冥官] , 중앙(中央) 황신 멧감 [黃神冥官] , 산으로 산신멧감 [山神冥官] , 물로 요왕멧감 [龍王冥官] , 배로 선왕멧감 [船王冥官] , 책 보는 집인 책불멧감 [冊佛冥官] , 삼싱할망 집인 불도멧감 [佛道冥官] , 농사 하영 짓는 집인 세경멧감, 우리 ㄴ추룩<sup>706)</sup> 텅기는 집인 당주멧감 [堂主冥官] 경 험. 일흔으덥 도 멧감이엔 허고.

멧감본 [冥官本] 은,

옛날 옛적에 주년국 스만이가 살았인디.

어렸을 적 조실부모를 헤여서 살단. 고생고생 일천 고생 다 허연. 이제 춤실로 거리 개똥 줍다시피<sup>707)</sup> 허연 살단. 이제 스만이 안부인을 만난 살젠 허난. 애긴 보릿ㄴ루, 밀ㄴ루 애기덜은 하영 나고. 옥은<sup>708)</sup> 애긴 옷 줍서, 밥 줍서. 두린<sup>709)</sup> 애긴 젖 줍서. 경 허연 울고. 경 허영 살 수가 엇어 가가난.

이젠, 흐를 낚은 스만이 안부인이 머릴 막 하영 질렀단<sup>710)</sup> 그 머리를 꿇영 주멍

“이거 애기들 배고판 살아지쿠가. 장에 간 무시겨 쓸이라도 곡식 [穀食] , 식량이 라도 반양<sup>711)</sup> 읍서. 이 머리, 강 폴양<sup>712)</sup> 반양 읍서.”

허난. 그 머리 들린 간 보난. 이 장, 저 장 텅기단 보난. 젊은 청년이 막 연설을 허는디. 이 총 하나만 잇이면은 할 일도 나고, 살을 도리<sup>713)</sup>가 나고. 이 총 흐나만 잇이면 먹을 연도 나고, 입을 연도 나고 헌덴, 하도하도 선전을 험이난. 스만이는 그 선전허는 거에 그냥 허연. 얼마뻬? 허난. 아니. 저, 머리부터 간 폴안. 머리부터 폴아뉘. 그 돈 들렁 텅기단. 그 총 선전 험이난 그디 간 사네

706) ㄴ추룩: 같이. 처럼.

707) 춤실로 거리 개똥 줍다시피: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의 표현.

708) 옥은: 성장한.

709) 두린: 어린.

710) 질렀단: 길렀다가.

711) 반양: 받아서.

712) 폴양: 팔아서.

713) 살을 도리: 살 도리.

“얼마쥬?”

허난.

“돈 석 냥이엔.”

허난. 머리 석 냥에 풀안. 쫄 받아오렌<sup>714)</sup> 현 일을 간, 석 냥에, 간 총을 오꼴 사분 거라게. 경 사부난. 집인 들어오난 스만이 각신

“아이고, 이 어른아, 쫄은 어느거파? 애기덜은 어느 때 울고, 혼저 당신 오민 아이들 밥 헨 주젠 험덴.”

허난. 총을 오고생이<sup>715)</sup> 들렁 온 거라.

“아이고, 쫄은 아니 받아 오고, 이건 무시거파?”

허난. 이것만 잇이민 쫄도 나고, 밥도 나고, 돈도 나고, 별거 다 난덴 헤렌 허난. 원, 어이척량<sup>716)</sup> 엇인 거라. 경 헨 이젠. 스만이가 각시보고 허는 말이

“나 사농허레 나가크메 상물(香-) 삶아놓고 허여근에게, 메 삼끼 지어 놓고, 저 레 찬 물 올리고 허영 허렌.”

헨. 문전드레 출렁 뉘. 이제 문밖 절 허영. 사농을 나간 거 아니. 사농을 나간 그날 밤인 간, 동더레도 팡허게 쏘아도 헛총질만, 서더레 팡팡 쏘아도 헛총질만 허여내언. 눈은 그냥 봉이대작<sup>717)</sup>으로 와 가고, 동서남북더레 총을 쏘아도 무신거 물건은 하나 못 허고. 아이고, 그대로 집이 들어 올 수가 엇인 거라. 그 머리 쫄 른 돈 앓아 강은에 총 상 완 뭐 헤부난. 이젠 그때엔 그 산에 굴 쏘굽이 잇이난 굴 속에 들어간. 모닥불을 피워 앓안. 영 그 불을 찻는게 바싹 언 디 탱기단 모닥 불 잇인디 간 쪼이난, 소로록 허게 즐아운 거라<sup>718)</sup>. 경 허연 눈 영 허연 즐아가난

“스만아, 스만아.”

허명. 막 스만일 불르는 소리가 나.

“아이고, 이거 어디서 불렀인고.”

번쩍허게<sup>719)</sup> 깨 난 거라. 깨 나난.

“스만아, 스만아 나도 너처럼 사농을 좋아허영 탱기단 사롬인디. 탱기단 이 산 천에서 죽언 백골이 뉘언. 백년 데굴이<sup>720)</sup>가 뉘단 보난. 베고프고, 시장허고, 얻어 먹을 디 엇언. 이제 스만이 그디 사농 왓단<sup>721)</sup> 굴속에 잇젠 허난 좇안 오고렌.”

---

714) 쫄 받아오렌: 쫄 받아오라고.

715) 오고생이: 물건을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모양.

716) 어이척량: 어처구니가

717) 봉이대작: 눈 송이가 크고 많이 쌓인 모습

718) 즐아운 거라: 즐린 거라.

719) 번쩍허게: 번쩍하게.

720) 백년 데굴이: 백년 해골(骸骨)이.

721) 사농 왓단: 사냥 왔다가.



허난.

“게난, 뭘 때문에 날 좇았수젠<sup>722)</sup>?”

허난.

“경 말앙. 나를 너네 집이 안고팡에 강 몸 모옥 시경 모상. 츠흐를 브름을 헤여 주면 너 먹을 연도 내와주고, 입을 연도 내와 부제팔명 [富者八命] 시겨주키여.”

“경 허우겐.”

경 허연. 거 좇아 왔언 그 굴 에염<sup>723)</sup>으로 쑥 땡기단 보난, 그제 백년 데굴이가 잇인 거라. 그거 좇아 왔언. 이젠 집더레 오명 저 올레에 먹구슬낭 걸어정 잇이 난. 츠마 각시신딘 들렁가진 못허고 그 먹구슬낭 우이 간 걸어 두언에. 집이 완 부인신디 사실 야카야카허고 허연 백년 데굴이 봉강<sup>724)</sup> 오고랜 허난. 이놈이 어른 아, 저놈이 어른아, 쓸데기엇인<sup>725)</sup> 것만 막 허영 땡겜텐<sup>726)</sup> 막 허영. 간 보난, 오 쑥 백년 데굴인 알더레 털어진거라게. 먹구슬낭에서. 털어정 막 데같이 올려부난, 우리 여름웨민 먹구슬낭 아래 간 누민 막 머리가 아픈덴. 그 법지법이 잇고. 그거 앓안 집이 들어간에 각시한티 곱으난에 각시는 막 봉당봉당 허난. 아무소리도 허 지 말앙 그런거 허민 부정 탕 아니웨난 그런거 허지 말아근에게, 이걸 저리 올리 렌. 경 험. 몸모옥 시기고, 상물 솟앙 허고. 게난 이제 백년 데굴이 허는 말이

“날 초흐루 보름<sup>727)</sup> 허영 잘 위허민 널 먹을 연도 내세와주고, 입을 연도 내세와주고, 부제팔명 시겨주키여.”

허난. 이제 그거 허영 몸모옥 시기고, 고팡(庫房)에 달앙 메연<sup>728)</sup> 그 우터레<sup>729)</sup> 놓고, 물 떠 놓고 경 허연. 이제 초흐루 보름을 허는 게. 아닌게 아니라 사농<sup>730)</sup>을 가민 동으로도 팡 허민 대각녹(大角鹿)이여, 서으로도 팡 허민 소각녹(小角鹿)이여. 노루, 사슴이여. 꿩 사농이여, 매 사농이여. 엄청 허는 거라. 게난 막 가족은 벳경 이제 풀고, 꿩기광 술<sup>731)</sup>은 지네<sup>732)</sup> 먹고, 경 허명 이젠 막 부제가 웨난. 흐를은 사농허레 스만이 나가부난에 저승서, 멧질<sup>733)</sup>이 돌아오난. 강 조상들ㄱ라,

722) 좇았수젠: 찾고 있습니까.

723) 에염: 길이나 담장의 옆.

724) 봉강: 주워서.

725) 쓸데기엇인: 쓸데없는.

726) 땡겜텐: 다니고 있다고.

727) 초흐루 보름: 초하루 보름.

728) 달앙 메연: 달아 메여서.

729) 우터레: 위에.

730) 사농: 사냥.

731) 꿩기광 술: 고기와 살.

732) 지네: 자기네.

멧질을 먹었오렌 보낸 놔두난. 다른 영가(靈駕)들은 다 가느디 스만이네 하르방, 할망 일가 켜당<sup>734)</sup>들은 저승 막문에들 그만히 앓은 거라. 게난 초공문에들 다 앓으난 어떻허난 염라왕이

“어떻허난 이승엘 안 값이니? 식게<sup>735)</sup> 멧질 먹으레 안 값이닌?”

허난.

“우린 가도 식게 멧질 해 주는 사름도 엇고.”

“아들 엇이넨?”

허난.

“아들 잇우텐. 지금 백년 데굴을 봉가당 뵈, 그것에만 이제 위허멍 우린 위헤주 질 안헐젠.”

경 골안. 허거니 이젠 스만이는, 스만이 각시는 집이 앓앙 불노렌. 백년 데굴이가 땡땡땡 땡구르르허멍

“스만아, 스만아 나는 살곡, 너는 죽어불민 무엇을 허느냐. 느 엇어불민 나도 나 놓아난 곳으로 데려다 주렌.”

하도 웨여온다<sup>736)</sup>, 웨여간다 해 가난. 그때엔 이젠 스만이 부인은 정지에서 불 솟단 부짓땡이에 불 벌경 헌 거 아시난<sup>737)</sup>

“이놈이 조상 우리 집이 와네 초허루 보름허멍 잘 먹어가난 베야지<sup>738)</sup> 불영 뒤흔텐.”

경 허연. 백년 데굴이가 땡땡 땡구르르허멍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무엇을 허것느냐. 이제 저승서 염라왕이 명령을 내려완 삼체스 [三差使] 가 널 데리레 앓젠. 부모조상 식게 멧질 안 해부난. 경 헐 데리레 앓젠.”

하도 헤가난. 부지땡이<sup>739)</sup> 앓안 눈깔이 께영 뒷밧디레 혹 데껴부난. 이젠 스만인 어디 땡기단 완 저녁을 먹젠 앓으난 뒷밧디서 땡그르르 땡그르르허멍

“스만아, 스만아, 스만아.”

하도 허는 거라.

“아이고, 이거 어떻헌 일이고.”

---

733) 멧질: 멧질.

734) 켜당: 친척.

735) 식게: 제사.

736) 웨여온다: 소리친다.

737) 벌경 헌 거 아시난: 빨강 한 것 가지니.

738) 베야지: 배(腹)의 낮은말.

739) 부지땡이: 부지깽이.

허난 각시가

“배아지사 붙어신디사. 우리집이 완 잘 먹고 잘 살아가난, 하도, 노망사 험신지, 하도 ‘땡그르르 땡그르르’ 헤가난 저 밧디더레 데껴불엇우다<sup>740</sup>).”

허연. 이제 그디 간 보난 백년 데굴이에서

“스만아, 스만아 너는 죽고 나는 살면 무엇을 허것느냐.”

경 하도 헤 가난.

“게른 조상님아, 어떻허민 나 명(命)과 복(福)을 잇입네까?”

허난. 빨리 혼저 출령<sup>741</sup>) 집안으로랑 저 대통기<sup>742</sup>) 시긴 거 낱. 이제 큰굿을 허고, 베깃딜로랑 가결랑 산으로 가근앵에. 어디 고요헌 딜로 강 쯡풍<sup>743</sup>) 쳐 놓고, 축지랑 스만이앵 써 놓고. 신도 세 개, 물도 세 개, 쓸도 세 개 경 허연 떠 뇌근에. 이제 빨리 액을 막아야켤. 저승서 삼체스가 돌려오람덴. 경 허난 이젠.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허민 좋고.”

허연. 빨리 가속한티<sup>744</sup>) 곁안. 집이선 대 싱건 이젠 굿을 시작허연 허고, 또 질레론<sup>745</sup>) 테역단풍<sup>746</sup>) 조은 딜로<sup>747</sup>) 간, 출령 간에, 초석 폐와 놓고 허연. 물도 세 그릇, 쓸도 세 그릇, 돈도 세 개, 신도 세 개 모든 것을 세 개씩 허여 난. 이제 멀리 옆데헨<sup>748</sup>) 잇이난 삼체스(三差使)가 내려산거라. 내려사난 베 [腹] 고팡<sup>749</sup>) 죽 어지켤 밥을 후려 쳐먹고, 혼 체스(差使)는 왕래노숙(往來路宿) 엇덴허연 돈을 앓안 담고, 혼 체스(差使)는 이제 옷도 다 떨어지언 신발 다 헐고 허난. 신발을 신으켤 허연 신발을 신고허연. 아이고, 이거 누게사 이거 놓아신디사 한번 쯡풍더레, 누게 이름이나 축지방을 혼번 보켤 보난. 스만이앵 허영 딱 써져서

“아이고, 이거 스만이, 우리가 잡으레 왓인디 스만이거 앓안 가민 뉘랴.”

이젠 그거 문서를 내여놓안. 삼십(三十)이앵 쓴 거를 삼천(三千)으로 강 고쳐분 거라. 글자를 우에 새 혼 므리<sup>750</sup>) 앓언. 경 천자(千字)로 고쳐부난 저승선 염레왕 [閻羅王] 이 암만헤도<sup>751</sup>) 이젠 누구를 안 들앙오는 거라, 스만이를. 경 말앙 검은

740) 데껴불엇우다: 던져버렸습니다.

741) 혼저 출령: 빨리 차려서.

742) 대통기: 큰굿 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대에 달아매는 기.

743) 쯡풍: 병풍.

744) 가속한티: 딸린 식구에게.

745) 질레론: 길엔.

746) 테역단풍: 잔디.

747) 조은 딜로: 좋은 곳으로.

748) 옆데헨: 옆드려서.

749) 베(腹)고팡: 배고파서.

750) 혼 므리: 한 마리.

751) 암만헤도: 아무리 해도.

숫, 내가 내여주크메 앓앙 강 싯찌근에게<sup>752)</sup> 흰 숫을 멘들앙 오렌 허난에. 그걸 앓앙 주천강 연훼뫼디 간. 검은 숫을 히 [白] 게 싯젠 저 골체<sup>753)</sup> 담앙 왕글랑 왕글랑 햅이난에 동방색인 넘어가단

“거 뭐허는 짓이고?”

허난.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맙서. 우리 아바지 중병 들언 생전 좋길 안허난, 이거 허영 딸령 검은 숫을 히(白)게 싯찌당 딸령 먹으민 좋은텐 허난 딸렸우다.”

“양, 으마<sup>754)</sup> 삼천(三千) 년을 살아도 그런말 못 들엇텐.”

경 골아부난

“아이고, 이거 스만이로구나.”

허연

“어서 가자. 바빠 가자.”

허연. 저승을 들앙 간 거라. 그 스만이엔 축지방에 팽풍에 썩 붙지난 이젠 그걸 보안 혼저 글렌 허난

“아이고, 체스(差使)님네야. 여기서 날 데령갈게 아니고 우리 집으로 강, 계도 우리 마누라 신디라도 가노렌 행 가쿠텐.”

“게, 어서 글렌.”

집인 간 보난 큰대 [大竹] 세와놓고 상버리줄 메어놓고 막 이제 곳을 허는 거라. 경 허난 마침 방액 [防厄] 때가 된 거라. 다라에 쓸 하나 거려놓고, 초신 삼베 놓고 경 허연. 막 황쇄<sup>755)</sup> 대령허고 허연 액(厄)을 막았이난, 삼체스가 그 액(厄)을 발안, 그걸 받아앗언 저승을 간. 저승가난 염레왕이

“스만이 안 들앙 왔이넨?”

허난. 벌써 스만이 데리레 간 삼체스가 뇌물을 받아먹으난. 완에 삼십(三十), 열십자에 새 혼 마릴 앓언 천자(千字)를 만들어분 거라. 문서지기한티 돈 벌어온 거 햅뫼<sup>756)</sup> 쥐뫼. 경 허난 이젠 경 허민. 문서 앓앙 와보렌. 염라대왕이 문서 앓앙 와보난

“아이고, 염레왕님아 큰일날 뻔 헛습네다. 삼천(三千)이엔 현 걸 삼십으로 알앙 우리가 강 들앙 와볼민 어떻헐거렌.”

“경 허민 너네 건 잘허고, 강 동방색이 삼천 [三千] 년 잡앙오렌.”

---

752) 싯찌근에게: 싯어서.

753) 골체: 삼태기.

754) 으마: 놀랐을 때 ‘아아, 어마’ 따위의 소리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

755) 황쇄: 노란 숫소를 일컬음.

756) 햅뫼: 조금.

허난. 그 검은 솜을 히 [白] 게 씻젠 골체에 담안 씻없이난.

“난, 동박색이 삼철 년 살아도 검은솜 씻어 히게 된텐 허는 말은 아니 들엇젠.”  
허난.

“아이고, 이게 동방색이로구나. 어서 가자. 바빠 가자.”

허연. 게난, 헨다 헨 삼척동자도, 이제 삼척동자 곁은 동방색이도 저승체스님한테 들민 이제 당해내지 못허고 가야만 허는 길이고, 그것이 법. 이것이 이제 사만이 본입니다. 이 분은 사농해난 집이, 사농해난 집이 가문<sup>757)</sup> 푸는 분.

---

757) 가문: 가면.

## 차사본풀이

이번에는 우리 제주도말로 체스 [差使] 본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다 살다 돌아가실 때는, 체서님이 왕 데령<sup>758)</sup> 가는 거. 게난, 이 체서본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옛적에 동개남은 상저절, 서개남은 금법당 절이 있었습니다. 절이 잇인디, 절에는 대스 [大師] 님허고 소스 [小師] 님허고 아이 중허고 경, 살앗인디. 대스님이 흐를 낚은 말을 허뻐, 소스를 불러다 난,

“야, 소스야, 소스야, 난 이 아멩헤도<sup>759)</sup> 칠십 곶에 팔십 뉘민 내가 속곡 허민<sup>760)</sup> 죽어짐직허다. 날랑 죽거든 난 천 바리 들영 화장시켜 텡. 느 혼자만 어뎡이 법당을 직홀타<sup>761)</sup>. 인간에 내려 상 보민이 버물왕이 잇저. 겐디 버물왕이 애기 사 낚는 게 아덜로 아홉 성제를 솟아 낫인디, 우이로<sup>762)</sup> 삼형제도 오꼳<sup>763)</sup> 죽어불고, 알로 삼형제도 오꼳 죽영 갈림 헤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중간으로 삼형제 백인<sup>764)</sup> 엇다만은<sup>765)</sup>, 이 아기덜을 돌아당 명과 복을 잇영, 열다섯 십오 세도 뉘겨 주곡, 이 애기덜을 소스중으로 경 시경<sup>766)</sup> 이 법당을 직하라.”

소스님은,

“예. 알았습니다.”

허연. 아닌게 아니라, 흐루 이틀 살단 보난, 대스님이 흐루는 속곡허난 돌아가신 거아니. 게난 죽어부난. 살아계신 때에 곶은 대로, 이른 대로, 나무 천 바리를 헤단 화장을 시킨 거라. 화장시켜 뉘. 소스님도게 대스님 돌아가성 경 헤나난, 탁지침도 허난. 아이, 법당에 완 누원<sup>767)</sup> 자노렌 허난. 대스님이 꿈에 선몽(現夢)을 허길

“야, 소스야, 소스야, 내가 그만큼 산 때에 경 곤고 이르던 말을 잇었이냐? 흐저 일어낭 동이용국 버물왕네 집더레 어서 흐저 신수풀렌.”

---

758) 데령: 데리고

759) 아멩헤도: 아무래도

760) 속곡 허민: 인기척 없이 숨어지다.

761) 직홀타: 지키다

762) 우이로: 위로

763) 오꼳: 곧. 즉시. 아무런 흔적이나 자취도 없이. 행하게

764) 백인: 밖에

765) 엇다만은: 없지만

766) 경 시경: 그렇게 시켜서

767) 누원: 누워서

게난 이젠. 퍼쩍 깨난 보난 꿈이난. 혼 침 질러<sup>768)</sup> 굴송낙<sup>769)</sup>, 두 침 질러<sup>770)</sup> 비랑장삼<sup>771)</sup>, 목에 염주, 손에 단주를 허연. 금바랑 옥바랑 잡고 허연. 이젠 소곡 소곡 내려사단 보난, 아이덜이 집에 잇는게 아니고 팽즈낭<sup>772)</sup> 그늘 아레서 막 삼 천선비들 하고 노념을 허는 거라. 게난 스님이 넘어가단 딱 그 아이덜을 보더니만 그 아이덜 신더레

“야, 느네덜이 암만 글을 잘 허민 무시걸 허고, 활을 잘 허민 무시걸 허느니. 느네덜이 명이 단단 쫄라지어 열다섯 십오 셀 못 냉김직허다.”

경 곱아 된. 단지 경 곱아 된, 스님은 소곡소곡 지나가부는 거라. 겐 넘어가부난 아, 삼형제가 놀단 ㄱ만이<sup>773)</sup> 생각을 허난. 아, 스님 이상현 말 해된 넘어가분 거 아니. 이제 집으로 간 거라. 삼형제가 가명 질레서<sup>774)</sup> 울멍 갖주게. 집이 울멍 간. 아바지, 어머니신디 간 허는 말이, 막 울멍 가가난

“느네 무사 영 올업디?”

허난에.

“아이고, 모른 소리 맙서. 아명아명 현 소스님이 우리 놀았이난 넘어가단 우리덜 ㄱ라 열다섯 십오 세도 못 냉기켄<sup>775)</sup> 해연 곱아된<sup>776)</sup> 넘어 갑디다.”

허난

“어디 경 잘 아는 스님이 잇영 경 곤느니<sup>777)</sup>?”

허난

“아이고. 경 곱앗우텐.”

허난. 게민 느진덕정하님 불러단,

“지금 어느 때나 뵈이니?”

허난에.

“이제 열만이 아니 가실거우다.”

이제 느진덕정하님 ㄱ라,

“혼저 저 먼 정<sup>778)</sup> 나강 보라. 어떻헌 스님 잇걸랑, 중이 땡점 걸랑 우리 집더

768) 혼 침 질러: 고깔 꼭지의 모양 표현.

769) 굴송낙: 모자

770) 두 침 질러: 장삼 소매자락의 모양 표현.

771) 비랑장삼: 스님들이 입는 장삼

772) 팽즈낭: 팽나무

773) ㄱ만이: 가만히

774) 질레서: 길에서

775) 냉기켄: 넘기겠다고

776) 곱아된: 말해두고

777) 곤느니: 말하느냐

778) 먼 정: 먼 올레의 정.

레 모시렌.”

젠 벌써 나간 보난. 스님은 자기 데리레 올 거를 알안, 논두렁<sup>779)</sup>을 돌아난 디  
돌악 돌악, 자꾸 거기만 돈 거라. 경 도난. 느진덕정하님이 간,

“스님아, 우리 집이 양, 안 상전님이 스님 모셔오렌 했수다.”

허난 이젠.

“경 허렌.”

허연 이제 온 거아니. 경 허난 것알로 도느리멍

“소승 절이 뽕네다.”

허멍 시군문<sup>780)</sup> 베깃덜<sup>781)</sup>로 소곡소곡 들어산 허난. 시권제는 가지깁이<sup>782)</sup>에 뽕  
주난, 그걸 비완 이젠 곁는 말이, 버물왕 안부인이,

“소스님아, 소스님아,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 뽕서.”

허난.

“소면<sup>783)</sup> 헐 듯 허오리다.”

영 짚을 듯 말듯 허단 허는 말이

“어뎡허난, 당신은 아덜을 아홉 성제 납데가?”

“예. 낫수다.”

“우이로 삼형제도 죽엇수까?”

“예.”

“알로 삼형제도 죽엇수까?”

“예.”

“지금 중간으로 삼형제 납앗수까?”

“예.”

“이 아기들이 명이 단단 졸라지언 열다섯, 십오 세를 못 넘길 것 뽕수다.”

허난.

“것사 어뎡 현 말이우짜?”

“경 허건, 원천강(袁天綱) 화주역(畫周易)<sup>784)</sup>이나 혼 번 내와 뽕서 보게.”

아이, 원천강(袁天綱) 화주역을 내난. 초장, 이장, 제 삼장을 걷영 보난, 딱 그  
추록 글 삼자가 뽕여진 거라.

---

779) 논두렁: 논두렁

780) 시군문: 군문. ‘시-’는 접두사. 여기는 그저 문의 뜻으로 쓴 것.

781) 베깃덜로: 밖으로

782) 가지깁이: 개지. 낫그릇의 뚜껑.

783) 소면:

784) 화주역(畫周易): 주역의 효사(爻辭)를 나타낸 책.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 허민 좋으코.”

“게른 소스님아, 굴송낙이나 혼 번 빌려 줍서. 굴장삼<sup>785</sup>)이나 빌려 줘 봅서. 우리 애기덜 법당에 보내젠 허민, 경 해도 소서 행착(行着)이 님아사 보낼 거 아니 파?”

허난.

이젠 송낙<sup>786</sup>)도 벗언 주고, 장삼도 벗언 주난

“야, 큰아덜부떠 이레 오라.”

경 헨 이제 큰아덜 모자 씌웁고, 송낙 씌우고, 옷 입지고 허연

“영 저레 걸어보라.”

허연. 걸영 보난. 앞 정도 보난, 소서 행착. 뒷 정도 보난, 소서 행착이 분명허여. 거 뱃견<sup>787</sup>) 셋아덜도 씌우난, 걸리와 보난 분명허고, 죽은아덜도 씌완, 걸리와 보난, 소스 행착들이 분명허여. 이젠 뱃겨두언

“소스님아, 가십서. 가시민 우리 애기덜 내일 모레 스시 날<sup>788</sup>) 법당으로 보내쿠다.”

허연. 소스님은 첩첩산중으로 올라가불고 그 애기덜 돌아단 허는 말이,

“설운 애기덜아, 느네들 어떻 아방이영 혼디 살민 열다섯 돼기 전이 죽넨 헛이네. 못 냉긴텐 허난. 법당에 강 열다섯만 강 아멩이나 살앙이, 열다섯만 넘경 오라.”

경 허난. 그 애기덜도 울명도

“경 헛셴.”

허연. 경 가젠<sup>789</sup>) 허난

“느네덜 은기, 돛기를 내어주젠 헤여도. 그걸 지영 텡기젠 허민 짐이 돼영, 무거왕 짐이 텔거난. 경 말앙 비단을 삼삼은 구, 아홉 필을 내어 주커메. 그 비단을 이 느네가 지영 텡기단이. 아이고, 텡기단 보른 난데엇이 길로변에서 시장기가 날때가 잇나. 시장기가 ㅁ이 나걸랑 아무 집이라도 들어 강, 그 비단 세 치 썩만 끊어 주멍 식은밥에 물즙이<sup>790</sup>)라도 얻어 먹영 시장기라도 물리멍 절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허영 가라.”

허연 보내난. 그 애기덜도 울명 이젠 아바지도 하직허고, 어머님도 하직허고

785) 굴장삼: 소매 폭이 넓은 장삼.

786) 송낙: 창호지로 만들어 쓰는 고깔 모자

787) 뱃견: 벗겨서

788) 날<sup>788</sup>): 날까지

789) 가젠: 가려고

790)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잘 살암십서. 우리 강, 명과 복 잇영 왕, 아버지 어머니한티 효도허쿠다.”

허연 된. 이젠 금마답에 수리두고 올레에 간 막음두언 첩첩산중으로 삼형제가 올라간 거아니. 경 험 올라간 싱근드러<sup>791)</sup> 돌팡돌 [下馬石] 이 잇이난 그 디 간 앓은디. 메여 논 개가 그냥 막 하늘이여, 땅이여 막 주끄는 거라 절에 메여 논 개가. 켜디 이 개가 양반(兩班)이 오민 양발을 들렁 주꾸고, 무반(武班)이 오민 누웠 주꾸고 허는 개라. 게 영 보난

“아이 중아, 저디 나상 보라. 어떻허난 개가 저추록 주꿨이니?”

나산 보난

“양발을 들언 주건게만은 올레에 간 보난, 어떻 도령덜 서이가 싱근드러 돌팡드레 앓앙 막 비새글이 올었수다.”

이젠 소스님이 나온 거라. 나완

“설운 애기덜아, 잘 오랏저. 올지 말앙 이레 들어오라.”

젠 손 심영 들어간. 머리부떠, 간 고칼<sup>792)</sup> 디런 갇아 두언. 이젠 상탕(上湯)에 간 메 짓고, 중탕(中湯)에 모옥허고, 하탕(下湯)에 수족 씻언 부처님 앞이 들어 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허멍. 이젠 부처님전에 칠성단에, 신중단에, 이제 독거단에, 조왕단에, 불공을 허는 거라. 켜 불공을 허멍 사는 게 해가 바파진 거라. 이젠 스님 노릇을 허연 애기들은 사는디, 뒷 해가 바파지난<sup>793)</sup> 아멩헤도, 삼스월 뒤편 산천에 꽃이 만발헸던 모양이라. 게난 삼형제 허는 말이 스님신디 간,

“소서님아, 우리 여기 완도양, 해가 바파전 저 산천에 보난 막 꽃이 만발허엿수다. 우리가 강 꽃 구경이나 강 허영 오쿠다.”

허난.

“아이구, 경 허건, 강 행 오라.”

경 허난, 삼형제 좋다고 이젠 꽃구경 허젠 산천에 간 거 아니. 간 이산, 저산 막 튀언 텅기멍 꽃구경 허멍 허단. 브려진 치 아니허연<sup>794)</sup> 하늘 우터레 브려보난, 검은 구름이 둥글둥글 떠오는 거라. 켜 그 구름을 보난 아이들이 그냥 탄복을 허는 거라.

“아이고, 저 구름은 동으로 오멍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굴 보안 일로 넘어가젠 허난, 우리들 삼형제 얼굴도 보안 넘어 감건만은. 우리사 살아 잇어도 아

---

791) 싱근드러:

792) 고칼: 중의 머리를 깎는 칼.

793) 바파지난: 바뀌어지니

794) 브려진 치 아니허연: 바라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바지, 어머니 생이별 허여 오란 이게 무신 일인고.”

허난. 아, 삼형제가 하나가 돌아가는 게 벗 붙이멍 서이가 다 울어분 거아니. 겐 막 돌아가난, 절에서 돌아가신 스님이, 대스님이 소스님 꿈에 선몽 [現夢] 을 헌 거라.

“야, 그 애기덜 무시것허레<sup>795)</sup> 산보 구경허레 보넨디. 그 애기덜 이제 오민이 아방도 강 보양 오키여, 어명도 강 보양 오키여 허영이 허구데나, 절대로 보내지 말라이.”

허연. 깨난 보난 꿈인디. 앓안 잇이난 삼형제가 손심영 영영 울멍덜 들어오는 거 아니. 깨난

“느네들 무사 경 울엎디?”

허난

“아이고, 소스님아 우리 가지 말 질<sup>796)</sup>을 가전. 갓단 난디엇이<sup>797)</sup> 아바님 어머니 하도 그리완 살수가 엇우다. 우리가 예, 강 아바지, 어머니 얼굴 보양 바로 돌아산 왕 살아도, 강 와사 살쿠편.”

경 허난.

“경 허민 느네 나가 잇들<sup>798)</sup> 알더레 춤<sup>799)</sup> 바꿀테니<sup>800)</sup> 그 춤 마르기 전에 갓 다올타.”

허난

“아이고, 경 해도 갓다오쿠편.”

스님은 못 가게 힘으로 춤 바끄크메 그 춤 마르기<sup>801)</sup> 전에 갓다오렌 허는 거주게. 경 허여도 갓다오쿠편 허난. 아이고, 이만허민 이 아기덜 얼마나 아방,어명 보구정 허영 영 헐인고 허연

“게문 느네들이, 가기랑 가라만은 이, 과양땅이랑 들어가건 명심허영 간 오라이.”

허연 달레연<sup>802)</sup>

“느네들 마, 이 비단 정 온 거, 지영 강 오라.”

계난 비단 아홉 필 지영 온 거 짚어 전. 보내난. 좋다고 아이들이 춤추멍 뛰어

795) 무시것허레: 무엇하러

796) 가지 말 질: 가지 말아야할 길

797) 난디엇이: 근거나 이유 없이 엉뚱하여 어리둥절하다. 난데없이

798) 잇들: 섬돌, 디딤돌

799) 춤: 찰

800) 바꿀테니: 뺄테니.

801) 마르기: 마르기

802) 달레연: 잘 타이르다.

갓다, 돌아샷다 허멍. 아이고, 어느 제랑 강 아버지, 어머니 얼굴보곤 막 종안 가는 거라. 아, 한참 가단 과양땅을 근당 허난 갑자기 배고픈 기가 막 난거라 원. 한 발자국을 앞더레<sup>803)</sup> 영 노른, 뒤터레<sup>804)</sup> 두 발자국이 넘어가고, 걸을 수가 없어. 배고프고 시장헌디도 눈을 영 배롱허게<sup>805)</sup> 턴 우터레<sup>806)</sup> 바레난<sup>807)</sup> 니 귀<sup>808)</sup> 에 풍경 들안 사는 집이 있어. 이거 누게네 집인고 허연 문패를 간 보난 과양생이 네 집이라. 그 집이. 이젠 큰 성 허는 말이,

“나 동성들아<sup>809)</sup>, 우리 영 배고팡 갈 수가 잇이나. 나가 저 집이 들어 강 식은 밥에 물제미라도 빌영 오크메<sup>810)</sup> 우리들 갈라 먹영 가게.”

허난.

“어서 경 험센.”

허연. 큰성님이 들어가명 짓알로

“소승 절이 뽀네다.”

허연. 스님들은 아무디라도 들어가민 ‘소승 절이 뽀네다.’ 허는 거난. 경 허난. 아따, 과양생이 각시 난간에 걸터 앓앗단 손가락질 허멍.

“아침부터 제수까리 벗어지게<sup>811)</sup> 중이 즈식 들어왔이니. 야, 수장남(首長男)<sup>812)</sup> 수별감(首別監)<sup>813)</sup>아, 저 중 귀 잡앙 저레 처불렌. 뽀다 처불렌<sup>814)</sup>.”

헌 거라. 경 안해도<sup>815)</sup> 배고프고, 힘도 없고게 허난에. 귀 심영 톡 건드난, 톡허게 드러눈 거아니. 이젠 암만 기다려도 안 와가난, 이젠 셋 성이 들어간 거라. 셋 성이 들어가난, 그 셋 성도 경 귀 잡안 뽀다 처분거라<sup>816)</sup>. 죽은 아신 암만 올레서 기다려도 원. 가난, 큰 성도 안 나오고, 셋 성도 안 나오고.

‘가난 배고픈 짐에 우리 성님네 원, 아시 생각 안허연 지네만 먹어 불었인가?’

허연. 이젠 죽은 아시 들어 가가난.

803) 앞더레: 앞으로

804) 뒤터레: 뒤로

805) 배롱허게: 눈을 감지 않고 가늘게 뜬 상태가 되다.

806) 우터레: 위쪽으로

807) 바레난: 쳐다보니. 바라다보니

808) 니 귀: 네 귀통이

809) 동성들아: 동생들아.

810) 오크메: 올테니

811) 벗어지게: 재수가 매우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

812) 수장남: 머슴들의 우두머리.

813) 수별감: 수장남과 같은 뜻.

814) 처불렌: 때리거나 부딪히게 하는 것.

815) 경 안해도: 그렇지 않아도

816) 처분거라: 때리거나 부딪히게 하다.

“아이고, 오늘은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 떼죽<sup>817)</sup> 채우멍 들어오랴이니. 오늘 제 수까리 다 봤젠.”

허멍 과양생이 각시가 저 중도 귀 잡앙 네훈들렌<sup>818)</sup> 허난. 죽은 아시가 허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네 동녕<sup>819)</sup>을 안 해주면 쪽박조차 껌니까? 우리도 원래 소스 죽식이 아니라마썸. 우리도 원래 동경국 버물왕이 아들이우다. 명과 복이 쫄르텐<sup>820)</sup> 허난. 절에간 불공허단, 아버지 어머니 보고판 가는 길에 하도 시장하길래 시장기나 물령 갈까 해서 잠깐 들었나이다.”

허난. 왕의 아들이엔 허난 겁이사 파작 난 거라. 그때엔 이제 밥 혼 숟가락 거려놓고 냉수에 딱딱 잠안 숟가락 세 개 걸친, 앓은 디 앞더레 앓아단 주난. 아이, 그거 혼 숟가락씩 먹으난 눈이 베지그랑 허연<sup>821)</sup>. 이만 허면 산이라도 넘어 가질 듯, 물이라도 넘영 가 질듯. 이젠 그때엔 죽은아시 허는 말이

“형님네야, 어머님이 우리 올 때 뉘엔 굴앗수과<sup>822)</sup>. 어디 간 식은 밥에 물즙이<sup>823)</sup>라도 혼 숟가락 얻어 먹으민 놉이거 공허게 먹고, 공허게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린텐 헛수게. 이거 비단 아홉 치만 과양생이 각시 애기라도 잇이민 속적삼이라도 해주렌 허주만은<sup>824)</sup>, 머리 땡기라도 들이게 아홉 치만 꿰어져뉘 가기가 어떻허파<sup>825)</sup>?”

허난

“경 허렌.”

허연. 아이고, 그 비단 아홉 치 꿰영주난. 경 잘 살아도 비단이엔 현걸 안 봐난 생이라. 아이, 비단 보난 그냥 엇인 탐이 나는 거라. 그뎐

“아이고, 도련님네야, 우리 집이 들어왕 봅서. 안 스랑도 좋수다. 밧 스랑도 좋수다. 내외스랑도 좋수다.”

하도 권허난. 이젠 들어간 거야니. 들어간 앓으난 술허고 케기허연 막 출령 들여 온 거라. 경 허난.

817) 떼죽: 무리

818) 네훈들렌: 내두르거나 휘두르다.

819) 동녕: 동녕아치나 거지가 먹을 것이나 돈푼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 동냥.

820) 쫄르텐: 짧다고

821) 베지그랑 허연: ‘베지근헛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생기가 약간 돌아나는 모양을 나타냄.

822) 굴앗수과: 말하였습니까.

823)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824) 해주렌 허주만은: 해주라고 하지만은.

825) 어떻허파: 어찌합니까.

“절에 있어부난 술허고 께기는 아니 먹읍네다.”

허난

“아이고, 모른 소리 맙서. 절간 안네서는<sup>826)</sup> 안 먹어도양, 절간 베꼈던 나오민  
다 먹영 땡집니텐.”

하도 권헤난<sup>827)</sup> 법으로. 지금도 스님덜 제라허지<sup>828)</sup> 아니헌 스님덜 보민. 돼지  
고기도 먹곡, 술도 먹영 땡기는 스님도 있고. 경 허연. 이제 그걸 술을 혼 잔 썩  
호록호록 마신게. 동더레<sup>829)</sup>도 비식, 술에 취헤연게<sup>830)</sup>. 서더레<sup>831)</sup>도 비식, 남더레  
도 비식 영 드러누원 잇이난. 광양생이가, 영 귀주언<sup>832)</sup> 삼형제가 들으난, 정지에  
간 솟두껍이 왈그랑탕 왈그랑탕 소리가 나. 아, 우리 비단이영 끓어주난 땡땡  
헌<sup>833)</sup> 점심이나 헤주젠<sup>834)</sup> 햏인가. 점심 헤 주걸랑 땡땡이 우리 먹영 가주젠 허  
연. 아, 삼형제가 눈게, 소로록허게 줌이 들어분 거라. 줌 들어부난 과양생인 밥이  
랑 말앙, 오년 묵은 찰지름에 삼년 묵은 간장물에 솟디 난 불 숭아<sup>835)</sup> 가난 오근  
도근도근 데와지난. 그걸 그릇에 걸언 난 문을 확 올안보난. 삼형젠 코 골멍 잠  
주게. 술 먹어부난게. 겐 잠시난 웬 귀<sup>836)</sup>로 느단 귀<sup>837)</sup>더레 스로록허게<sup>838)</sup> 비와  
불고. 또, 느단 귀로 웬 귀더레 소로록 허게 비와부난. 삼형제가 얼음산에 구름  
녹듯 스로록허게 다 죽은거아니.

“어따, 이놈이 새끼들 잘 죽었저.”

비단을 확허게 빼연 금동궤상에 난 상거슴 통채 허연 싱강허게<sup>839)</sup> 중가된<sup>840)</sup>

“야, 수장납 수벨캅달아, 이레들<sup>841)</sup> 오라. 오늘 밤이 막, 밤 짚영<sup>842)</sup>이. 짚은 밤  
이 돼거든이. 요것 덜 가맹이<sup>843)</sup>에 툃툃허게<sup>844)</sup> 몰아 앓영이. 지게에 지영 강 이

---

826) 안네서는: 안에서는

827) 권헤난: 권했던

828) 제라허지: 떳떳하지 않은. 격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829) 동더레: 동쪽으로

830) 취헤연게: 취해서

831) 서더레: 서쪽으로

832) 귀주언: 귀 기울이다.

833) 땡땡헌: 따듯한

834) 헤주젠: 해주려고

835) 불 숭아: 불을 때다.

836) 웬 귀: 왼쪽 귀

837) 느단 귀: 오른쪽 귀

838) 스로록허게: 알맹이나 액체 따위가 가볍게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꼴. 곱게 잠이 드는 꼴.

839) 싱강허게: 열쇠나 키가 쉽게 열리지거나 닫히는 소리.

840) 중가된: 잠가두고

841) 이레들: 여기에.

842) 밤 짚영: 밤 깎아서.

843) 가맹이: 가마니.

거 어디 잘못 데끼당<sup>845)</sup> 발각이 돼민 큰일난다. 이거 버물왕이 아들이엔들 헤라. 게난 준등들에<sup>846)</sup> 큰큰헌 돌맹이들 하나씩 돌아 메영<sup>847)</sup> 주천강 연훼못디 강 다 디물리와 불라<sup>848)</sup>. 발각웨게<sup>849)</sup> 말앙. 큰일나게 말앙.”

“알앗수덴.”

허연. 종덜이사 뭐, 상전 말 들어살거난. 이젠 그날 밤 짙은 밤이 뉘난. 개, 고 냉이<sup>850)</sup> 문딱<sup>851)</sup> 줌 자분 때에 지게에 지연, 가맹이<sup>852)</sup> 툽에 물연, 물안 주천강 연훼못디 간. 돌맹이 하나씩 돌아메명 데껴분거라. ‘도둑놈이 들으카 헛단 우뚝 사는 제격<sup>853)</sup>.’으로. 지 헤진<sup>854)</sup> 짐작이 잇이난. 아침인 동세백이<sup>855)</sup> 일어난 거라. 과양생이 각시가 일어난 줌자는 수장남(首長男)들 강 깨완.

“헛저 일어낭이, 그냥 가민 놈이 알면 수상허게 생각을 허니까. 물 이깁<sup>856)</sup> 물 맥이는<sup>857)</sup> 핑계에 헤근에게, 강 뺑, 주천강 연훼못디 간 보라. 영장(靈場)이나 올 르지 안 헛이나. 강 보라.”

허난. 이젠 물 이꺼앗언<sup>858)</sup> 간 보난. 아, 어적께도 엇엇던 고장(花) 세 개가. 삼 색 [三色] 베기 고장 [花] <sup>859)</sup>이 동골동골허게 뜬 거라. 게난 물은, 간 물 먹젠 헤가 민 천리만리, 또 고장이 그냥 확허게 어느동안 놀아왕<sup>860)</sup> 물 먹는 물 주둥일 박 박허게 모지려. 게난 판드레나<sup>861)</sup> 강 맥여보주긴 허연<sup>862)</sup> 물 꺾엉 판 딜로 간 맥 이젠 허믄, 또 어느동안 그레 놀아완 물 주둥일 막 무지려부는<sup>863)</sup> 거라. 게난, 이

844) 툽툽허게: 빈틈없이 탄탄하다.

845) 데끼당: 던지다가

846) 준등들에: 잔등이. 허리 부분에

847) 돌아 메영: 달아 매여서

848) 디물리와 불라: 들이밀어 불어라.

849) 발각웨게: 발견되게

850) 고냉이: 고양이.

851) 문딱: 모두

852) 가맹이: 가마니

853) 도둑놈이 들으카 헛단 우뚝 사는 제격: 도둑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의 한일을 되돌아 보는 격을 말함

854) 지 헤진: 자기가 했던.

855) 동세백이: 이른 새벽에.

856) 물 이깁: 말을 매어서 이끌어 가다.

857) 물 맥이는: 물 먹이는.

858) 물 이꺼앗언: 말 이끌고서.

859) 삼색베기 고장: 세 가지 색의 꽃.

860) 놀아왕: 날아와서

861) 판드레나: 다른 곳으로

862) 맥여보주긴 허연: 먹여볼까 해서

863) 무지려부는: 모질게 비틀어 꺾다. 풀이나 배추를 손으로 뒤틀어 뜯다.

젠 그 법으로 물이, 주둥일 무지려부난 앞밭로 물을 팡팡허게 그 치영<sup>864)</sup> 물 먹어나난. 그 법으로 옛날 돌들 헐 때에 돌 이켈 물 맥이레 가민 들어가민, 앞밭로 물부터 팡 팡 치워놔사 물을 먹어. 그 법지법으로. 경 허연 이젠 집이 오란.

“간 보난 무슨 폐적(表迹) 엇어냐?”

“아이고, 상전님 모른 소리 맙서. 삼색 백이 고장이 동골동골 떠신디양 물 먹젠 혜가민 물 주둥일<sup>865)</sup> 하도 무지려부난 물 못 먹연 그냥 오랏수다.”

아이고, 고장이엔 허난 그것에도 탐난 거 아니. 구덕 하나, 엇인 연서답<sup>866)</sup> ㄱ는 대구덕에<sup>867)</sup> 담안 물막개 놓고. 게, 주천강 연훼못딜 이젠 허울허울 간 거라. 간 빨래랑 와랑자랑 빠는 체허단, 삼색베기 고장은 동골동골 떠시킨 물막개로 활활활 이녁<sup>868)</sup> 앞더레<sup>869)</sup> 등기멍<sup>870)</sup>

“어따, 요 고장 곱기도 곱다. 나에게 테운<sup>871)</sup> 고장이건 나 앞더레<sup>872)</sup> 오렌.”

허멍 물을 활활 동겨가난 고장 세 개가 동골동골 떠온 거라. 제일 앞이 오는 건 보난. 빨강 헌 고장인디 병실병실 웃는 형치(形體)를 허고, 가운데 오는 건 보난 노린<sup>873)</sup> 고장인디 싱긋싱긋 용심 내는<sup>874)</sup> 형치를 허고, 조름<sup>875)</sup>에 오는 건 푸린 고장인디 우는 형치를 헌 거라. 손은 물 알더레<sup>876)</sup> 쪽헛게<sup>877)</sup> 드물환<sup>878)</sup>, 준둥이<sup>879)</sup>로 똑똑허게 꽃 세 개를 꺾언 구덕에 놓안 집이 오란. 이제 이 꽃을, 앓아도<sup>880)</sup> 보고 사도<sup>881)</sup> 보고 땡기멍<sup>882)</sup>도 보젠 어디 꺾으민 좋고 막 허연. 이젠 일문전(一門前)에 하나 꽃고, 뒷무똥<sup>883)</sup>더레 하나 꽃고 생깃지동<sup>884)</sup>더레 하나 꽃고.

864) 치영: 처서.

865) 물 주둥일: 말의 입.

866) 연서답: 서답=빨래. ‘연.’은 접두사.

867) ㄱ는 대구덕에: 가는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

868) 이녁: 자기. 자신.

869) 앞더레: 앞으로

870) 등기멍: 자기 쪽으로 오게 끌어당기다.

871) 테운: 주어진 ‘복을 타고나다’의 ‘타다’의 사동관형사형

872) 앞더레: 앞으로

873) 노린: 노란.

874) 용심 내는: 화를 내는

875) 조름: 쪼무니.

876) 알더레: 밀으로.

877) 쪽헛게: 쏘옥 내밀거나 살그머니 내미는 꼴. 가벼운 움직임으로 쪽 들어가는 꼴.

878) 드물환: 들이 밀어서

879) 준둥이: 허리 부분으로

880) 앓아도: 앓아서도

881) 사도: 사서도

882) 땡기멍: 다니면서

883) 뒷무똥: 집 뒤쪽의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884) 생깃지동: 상방(上房)과 큰방 사이의 기둥.



아, 썬은 게, 과양생이 밥 먹어난 밥상 들렁가젠<sup>885)</sup> 영 허민. 그자, 그 썬이 과양생이 각시 허운데기<sup>886)</sup> 상고박<sup>887)</sup>도 심영 박허게<sup>888)</sup> 둥겨불고<sup>889)</sup>, 이제 또 뒤에 장 거리레 가젠허민<sup>890)</sup>, 뒷슬작<sup>891)</sup>도 허운데기 심영 그자, 복허게 메불고, 무똥드레 나가젠허민, 앞슬작 허운데기도 심영 복허게 메불고, 부에가 썬죽굴이 난 거라 원<sup>892)</sup>. 사름도 아닌 허운데기를 고장신디 심지텐<sup>893)</sup> 말이 무신 말이닌, 박박허게 그냥 무지런<sup>894)</sup> 정동화리 [靑銅火爐] 더레 불을 팍허게 붙여분거라. 경 험 이젠 올레에 나간, 게도<sup>895)</sup> 부엔<sup>896)</sup> 나고 유왕유리<sup>897)</sup> 험이난. 그 동네엔 청토산이 마고 할마님은 불망굴<sup>898)</sup>이 잇건 하나 빌어단 식은밥에 물즘이<sup>899)</sup> 데왕 먹젠

“과양생이 각시야, 나 불망굴<sup>900)</sup> 혼 방울만 드라.”

허난에

“저, 우리 정지에 간 봅서.”

허연. 이젠 정지에 간 솟강알이<sup>901)</sup>에 아멩 헤쌍봐도<sup>902)</sup> 불망굴이 엇인 거라. 이거

‘정동화리에 불 잇인가.’

허연. 안네 들어 간. 정동화리 헤쓰단<sup>903)</sup> 보난 불망굴은 엇고 구슬 세 개가 나온 거라. 구슬 앓안 베깃디<sup>904)</sup> 나완

“과양생이 각시야 이거 보라. 이거. 정지엔 간 보난 불망굴은 엇고이, 정동화리 헤싼 보난<sup>905)</sup> 구슬 세 개 잇이난 봉간<sup>906)</sup> 오랏저.”

885) 들렁가젠: 들고가려고

886) 허운데기: 머리카락.

887) 상고박: 머리 가운데 정수리 부분

888) 박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풀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 풀.

889) 둥겨불고: 자기 쪽으로 오게 끌어 당기다.

890) 가젠허민: 갈려고하면

891) 뒷슬작: 귀밑털. 머리털을 낮이 이르는 말.

892) 부에가 썬죽굴이 나다: 팔죽이 꿸듯 몹시 화가 난다는 말.

893) 심지텐: 잡힌다는

894) 무지런: 모질게 비틀어 꿰다. 풀이나 배추를 손으로 뒤틀어 뜯다.

895) 게도: 그렇더라도.

896) 부엔: 화는

897) 유왕유리: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

898) 불씨.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별정게 된 것.

899) 물즘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말다.

900) 불망굴: 불씨.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처럼 별정게 된 것.

901) 솟강알이: 아궁이

902) 헤쌍봐도: 속이 드러나게 펼치다. 호트러뜨리다. 헤치다.

903) 헤쓰단: 속이 드러나게 펼치다. 호트러뜨리다. 헤치다.

904) 베깃디: 밖에

905) 헤싼 보난: 헤쳐 보니

허난. 아이. 그걸 또 박허게<sup>907)</sup> 빼앗으멍

“아이고, 이거 이 늙은이, 저 늙은이 불망굴이 없걸랑 그냥 오주. 나 애기 나민 주젠 더 곱질 디<sup>908)</sup> 엇이난, 불화리에 재 쏘곱<sup>909)</sup>에 구실을 곱정<sup>910)</sup> 놔뒀인디 판 오라불엇젠.”

박허게 빼앗은 거라. 게 손에 놓아 이레 놓아 동굴동굴, 저레 놓아 동굴동굴 허는 게 이녁 자신도 모르게 입에 들어 간 거라. 그것이. 입에 들어간 동굴동굴 허단 보난, 구슬 세 개가 다 녹안 오물렉기<sup>911)</sup> 목 알더레 내려가분 거라. 아, 그 날부떠 포테(胞胎)가 뒀언 현 게 아홉열 덜 준삭(準朔) 채완 낳는 건 보난.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구들에서, 구들 니<sup>912)</sup> 구석을 다 텅굴언, 막 애기 나젠 허난. 겐, 난 건 보난, 아들 헉나 난 거 아니. 아, 이제 또 즈친<sup>913)</sup> 거 날건가

허연 텅굴단 보난, 또 아들을 난 거라. 아이고, 이제 쌍둥이 낳았구나. 이제사 즈친 거 나오테주 허연 또 텅굴단 보난, 또 아들을 난 거라. 게 혼 날에 아들 세 개를 난 거라. 아이, 과양생이 각시가 자닥을 부리뒀<sup>914)</sup>, 이 나라 백성 누계가 아덜 세 개를 난 사람이 잇냐고 말이지, 나나 아덜 세 개를 낳고렌. 이거 어전에 보고허민 큰 베실을 내리올거옴. 이젠 어전에 보고를 헛어. 아들 세 갠 낳았습니다. 허연 보고 허난, 어전에선

“사람이 어찌 애기 세 개를 낳느냐. 개 삼시렁<sup>915)</sup>이나 혼 배에 애기 세 개 난 텐 허연, 무신 베슬은 안 내려오고 체 세 가마니를 마련허연 보내온 거라. 체 맥 이는 개옴. 겐디. 아, 이 애기덜이 일곱 술 뒀난, 한문서당 보내민 읽어도 장원, 써도 장원, 외워도 장원, 그렇게 역역허고<sup>916)</sup> 똑똑허는 거라 애기덜 삼형제가. 게 난, 이젠 이디도 아닌게 아니라 서울 상시관이 과거허레들 이젠. 삼천선비들 다 가젠 허난, 이 아이덜도 가젠 허난 어멍은 하도 아들덜 아깁완<sup>917)</sup>

“니네, 가지 말라. 잘못 땡기당 어느 놈 손땅에 죽어진다. 어느 놈 발땅에 죽어

906) 봉간: 물건이나 돈 따위를 거저 줌다. 어떤 것을 노력 없이 거저 얻다.

907) 박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908) 곱질 디: 숨길 곳.

909) 쏘곱에: 속에

910) 곱정: 숨겨서

911) 오물렉기: 먹이를 입 속으로 쏙 집어 넣어 삼켜버리는 꼴.

912) 니: 네(四),

913) 즈친: 압평. 여기서는 딸 아이를 말함.

914) 자닥을 부리뒀: 남을 업신여겨 있는 체 잘난 체 뽐내는 상태.

915) 삼시렁: 삼시렁 하다(불품이 없다는의 전라도 말.)

916) 역역허고: 사람이 약아서 미련하지 아니하다.

917) 아깁완: 귀여워서.

진다. 가지 말라.”

허난.

“우리가 안 가민 누계가 갑네까. 우리가 강 와사 이루저 어머니, 아바님 돌아가신 후에라도 축지방(祝紙榜)이라도 쓸 거 아니헐.”

경 허연 우견<sup>918</sup>). 삼형제가 과걸 가부난. 메날<sup>919</sup>) 과양생이 각시는 이날이나 올 건가, 저날이나 올 건가. 막 질레서만<sup>920</sup>) 살아. 질레서만 살단, 흐를은 높은 동산에 간 불림질<sup>921</sup>)을 흐노렌 허난. 아이, 브려진 체 아니 허연 보난. 동으로 과거 당선 댜언, 막 주네나팔<sup>922</sup>)들 불명 비비둥당 허명, 과거들 댜영 와라차락 막 들어오는 거 아니. 게난 지네 아덜덜인중은 몰르고. ㄱ만히<sup>923</sup>) 허는 불림질이나 허지 안 허연

아이고, 저디 과거허연 오는 건 저거 어느 집안 산천인고, 어떤 놈이 집안은 과거 노민 저추록<sup>924</sup>) 과거도 잘 댜는고. 우리 집이 애기들은 아이고 어디 강 죽엇인가, 살앗인가. 어느 놈 손땅에 가신가, 발땅에 가신가. 생각허명

“그자 저 과거 허영 오는 것들랑, 그자 요 우리 목다리 썸에만 오거들랑 오도독기<sup>925</sup>) 그자 다 죽게 헤줍서.”

허명 막 하느님신디 빈 거라게. 그것도 게. 아, 과거 허영 오는 건 보난 과양생이네 집더레 들어오는 거 아니. 과양생인 그땐 그냥 불림질 허단 빈 술박 들르고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우리 집안 산천도 그럭저럭 댜어간다.”

허명 막 춤을, 덜썩덜썩 춤을 춘 거라. 경 험 막 춤 췌. 가메<sup>926</sup>)를 하메 [下馬] 허연. 큰아덜은 동방급제를 허엿수덴 허연, 문전(門前)에 출려놓안 절을 허렌 허연. 이젠 문전에 출려난 절을 허난 속곡허게 죽어불언. 일어나질 안허여. 셋아덜은 팔도도장원(八道都壯元)을 허엿수덴 허연 동네 어른덜 불려단 절을 허렌 허난. 속곡허게 절헤 게 아니일어나. 죽어분 거라. 죽은아덜은 조왕(寵王)에 강 조왕할마님 덕택으로 우리 영 과거 험 오랏수덴. 허영 강 절 허렌 허연. 아이, 절을 허난 속곡허난 다 죽어분거아니 삼형제가. 아이고, 과양생이 각신 누원 둥굴댜,  
“우리 애기덜 혼 날 혼 시에 낳고, 혼 날 혼 시간에 과거 다 당선(當選)댜고,

918) 우견: 되지 않은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다. 우겨서.

919) 메날: 매일

920) 질레서만: 길에서만

921) 불림질: 곡식을 바람에 날려서 쪽정이 등을 날려버리는 일.

922) 주네나팔: 피리.

923) ㄱ만히: 가만히

924) 저추록: 저렇게

925) 오도독기: ‘오도독’ 하는 소리를 내며 단번에 부러지는 꼴.

926) 가메: 가마

흔 날 흔 시간에 다 죽어불엇덴 허는 게 된 말인고.”

막 누원 둥근 거라. 님 둥글어도 어떻 해결 혈 판이 엇인 거라. 게난, 이제 느  
진덕이영, 이제 장남덜 ㄴ라,

“앞बाट, 뒷बाट 출병<sup>927</sup>)을 허영 놔두라.”

허연. 출병허여 된. 내가 어느 놈을 물어도 내가 이 얘기를 꼭 허고야 말켤. 이  
제 짐치원(金緻員)을 좇앙 간 거라. 이젠 짐치원님 좇앙 간.

“원님아, 원님아, 경 현게 아니고양. 난, 흔 시 흔 날 삼형제 낳고, 흔 날 흔 시  
간에 과결허연 다 당선(當選)뉘고. 아, 겐 완. 문전에영 조왕에영 다 절들 허단양.  
흔 날 흔 시간에 다 죽어부는 일이 어디시느니. 해결을 해줍서.”

허난

“경 허건 집이 강. 아침이랑 아침 소지(所志)를 올리고, 낮이랑 점심 소지(所志)  
를 올리고, 어둑어가민 저녁 소지를(所志) 올리뉘, 석 덜 열흘 백일 동안에 아홉  
상자 반을 소지(所志) 절체 [炠處] 를 드령 오민 나가 그 얘기를 허여주마.”

허난. 이젠 집으로 완. 막 청소허고 무시거 허연. 아침이도 보민 소지허영 슬고,  
낮이도 뉘든 소지 슬고, 저녁에도 뉘든 소지(所志) 슬고 허난, 첫 덜 열흘 백일이  
뉘난, 요만이<sup>928</sup>) 현 상자로 아홉 상자 반을 다 쓴 거라. 겐 원님 또 좇아 간 거  
라.

“원님아, 나 저. 아홉 상자 반 소지 슬안<sup>929</sup>) 왔습니다.”

허난. 원님 허는 말이,

“누게영<sup>930</sup>) 싸왕<sup>931</sup>) 죽으나, 도투단<sup>932</sup>)을 죽으나, 매를 맞안 죽으나, 경 헤엇이  
든 해결을 허주만은. 이녁으로 이녁 옥살이 지영, 이녁 애기 죽은 거 나 이 해결  
못허키여.”

허난. 아이고, 성 담 베깃디레<sup>933</sup>) 나간게 만든 빙빙 돌아다니명

“개ㄴ든 짐치원아, 쉼ㄴ든 짐치원아, 이만 현 절체(節次)도 못허명 이 고을에  
사름 엇이난<sup>934</sup>) 완에<sup>935</sup>) 원님살이 험덴.”

막 옥을 현 거라. 원님신디.

927) 출병: 정식 매장을 하기 전에 송장을 가까운 곳에 임시 묻어 두는 일.

928) 요만이: 이만큼.

929) 슬안: 불태워서.

930) 누게영: 누구와

931) 싸왕: 싸워서

932) 도투단: 다투다가

933) 베깃디레: 밖으로

934) 엇이난: 없어서

935) 완에: 와서

거난 원님이 하도 어이가 엇인 거라. 사름 닳아진 거 신디<sup>936)</sup> 헛이민<sup>937)</sup>. 과양생이 각시 만씩헌 거 신디 내가 이런 옥을 들었어 어떻 살린. 안으로 문을 딱 잡안<sup>938)</sup> 거라. 게난<sup>939)</sup> 문 중간<sup>940)</sup> 누난, 지동통인 [妓童通引] 은 밥상을 들린 들어와 보난 문이 중가지언<sup>941)</sup>

“이 문 엽서. 이 문 엽서.”

혜도 문을 안 올라. 거 이제 안부인신디<sup>942)</sup> 간 골으난 안부인이 밥상 들르꼭 허연 완

“원님아, 원님아, 어떻허난 문을 중간 눕디강. 이 문을 올라 칭원훈<sup>943)</sup> 말이 잇이나, 원통훈 말이 잇이나 나한티 골읍서. 애기엿게 말도양 귀 넘어 듣지 말렌 헛수다. 골아 봅서<sup>944)</sup>.”

허연. 이젠 문 올라 곤<sup>945)</sup> 건 보난 과양생이 각시네 사건이라. 게난. 이제 아이고, 게난 여자 머리가 빨라. 이젠 그때엔 원님 안부인 허는 말이,

“아이고, 원님아, 혼 일 알고, 두 일은 몰람수파<sup>946)</sup>. 경 저 어른만 즈들<sup>947)</sup> 일이 이수파. 이 고을에양 역력하고 똑똑한 강림이가 살았수께<sup>948)</sup>. 강림이가양 하도 똑똑허연양, 문 안네도 아홉 각실 허연 살고, 문 베끼디도<sup>949)</sup> 아홉 각실 허연 살고, 이구 십팔 열으엿 각실 행 살았이난. 강림이 안티랑<sup>950)</sup> 곤지 말앙 사흘 동안 개폐문(開閉門)법 열리웨. 사발, 방문허영, 문딱<sup>951)</sup> 어른, 아이 다 동안(東軒) 마당에 나오렌. 사흘 동안을 방문을 허웨, 강림이 신디랑 곤지 안허문. 강림인, 진, 지신단<sup>952)</sup> 아니 골으난, 아니 나와도 웰 건줄 알앙 잇결랑, 강 심어당 궐(闕)을 시경, 저승 강 염라왕 잡허오렌 허영<sup>953)</sup> 해결 허는 게 어떻허우파<sup>954)</sup>?”

936) 거 신디: 것 예게

937) 헛이민: 헛으면

938) 눈: 누운

939) 거난: 그렇게 해서

940) 문 중간: 문을 잠가서

941) 중가지언: 잠가져서

942) 안부인신디: 안부인에게

943) 칭원훈: 稱寃한. 분하고 억울함을 들어 말하는.

944) 골아 봅서: 말해 보세요.

945) 곤는: 말하는

946) 몰람수파: 모르십니까.

947) 즈들: 걱정할

948) 살았수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949) 베끼디도: 밖에도

950) 강림이안티랑: 강림이에게는

951) 문딱: 모두

952) 지신단: 자기에게는

953) 잡허오렌 허영: 잡아오라고 해서

허난. 아, 안부인 말도 들었보난 맞아썬 거라. 겐, 이젠 사흘 동안을 사발통문을 다 현 거라. 동안 마당에 시간돼건<sup>955)</sup> 딱 다 나오렌. 문딱 해도<sup>956)</sup> 강림이 신딘 안 곤 거라<sup>957)</sup>. 안 ㄴ난 그날 아침인 문딱 나온 중에 강림이만 안 나온 거아니. 게난 그때엔 이제,

“강림이 꺾이여!”

이제 강림이 강 심영 오렌<sup>958)</sup> 허연. 심으레 간 보난. 강림인 진 안 나와도 웰 건줄 알안. 기생첩들 품에서만 노념놀이개<sup>959)</sup>를 허는 거라. 게난 이제 강림이 너 이레 당장 나오렌 허연. 큰 칼을 씨완 동안 마당에 연단위에 세워 난. 이제 즈각 [刺客] 놈 불르렌 허연. 즈각 놈은 칼 허연 춤을 춘 거라.

“야, 강림아, 너 이 자리서 목숨을 바쳐 죽겠느냐? 저승 간 염라왕을 잡혀 오겠느냐<sup>960)</sup>?”

아, 영 보난 즈각 놈은 칼 심언 춤을 뿔 뿔 취 가난. 죽으켄 허믈 저걸로 확 혼 번 후려볼민 죽어짐직 허여 허난. 그때엔 확 생각허기를

‘짐승은 나면 가죽을 냉기고<sup>961)</sup>, 인간은, 사름은 나면 명예를 냉기렌.’

허난. 큰 소리로,

“예. 저승 간 염라왕 잡혀오겠습니다.”

허난.

“경 허믈. 너 저승 강 오렌.”

“겐디 나 저승가렌 현 이유는 뭘니까? 뭘 때문에 날 저승을 가렌했수까?”

허난에

“경 현게 아니고. 이 고을에 과양생이네가 아덜 삼형제를 낳고, 삼형제 과거 현 오고, 삼형제가 현 날 현 시 다 죽으난, 이 얘기를 못허난 염라왕을 잡혀단 해결 허젠 했저.”

허난.

“저승 가렌 현 폐적 [表迹] 이 잇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가져야 저승을 갈 거 아닙니까?”

허난. 내어준 건 보난, 흰 종이에 검은 먹 글을 써 쥔 내어준 거라. 이거 본

---

954) 어떻허우파: 어찌합니까.

955) 시간돼건: 시간되면

956) 문딱 해도: 모두에게 해도

957) 안 곤 거라: 말하지 않은 거야.

958) 심영 오렌: 잡아오라고

959) 노념놀이개: 놀이하다. 놀며 지내다.

960) 잡혀오겠느냐: 잡아오겠느냐.

961) 냉기고: 남기고

메<sup>962</sup>)난 가정가렌. 이제 그거 들르고 허연. 아이고, 저싱 길이 어딘고, 저싱은 가  
젠 허른 어디로 어떻 허연 가는 길인고. 이제랑 동네에 유지급 들이나 좇아강 들  
어보젠 유지어른들 좇앙간

“저승은 어딜로 가는 거파?”

허난

“아이고, 난 몰른다.”

어딜 가든 좋고. 이제 성방(刑房) 방에 놀려든 거라.

“난 몰른다.”

이젠 스령 [使令] . 사또 방에 놀려들어도

“난 몰른다. 저승은 우리 몰른다<sup>963</sup>).”

이별 잔으로 이별이여. 술 혼 잔 이거 반앙가렌. 술이나 가는 디마다 주고. 이  
젠 제일 친허게, 막 혼디 기생 침도 텅기고, 술 먹으레도 텅기고, 나도 가마. 나도  
가마 허는 친구가 잇이난, 친구덜 좇안 간 거라. 간

“야, 친구 벗덜아 오라. 나영 혼디<sup>964</sup>) 저싱이나 강 오게.”

허난

“아이고, 난 말다. 저승이고 어디산디 난 말다.”

허난

“야, 느네들 너미<sup>965</sup>) 경 허지 말라. 나 옛날 돈 잇영 기생집이 가고 술집이 갈  
때엔, 나도 가마, 나도 가마. 느네 벗덜도 하더라만은 저승은 가젠 허난 이거 나  
혼자 뿐이로구나 이.”

알앗텐 헨. 이제 텅기단 수양 누님을 좇앙 간<sup>966</sup>) 거라. 누님신디 간,

“수양 누님아, 나 저승 값우다.”

허난

“아이고, 오라방. 저승질은 머나먼 질 삼천칠백 리 질이엔<sup>967</sup>) 허연게 저승은 가  
젠 허른이. 눈물도 나고, 땀도<sup>968</sup>) 나곡이<sup>969</sup>) 보인 안개도 끼고, 산 안개도 끼꼭  
허메.”

젠 눈물 수건을 꿇영 주는 거라. 땀 수건이영 꿇영 주멍 이결로, 가멍 눈물 나

---

962) 본메: 증거물이 될 사물.

963) 몰른다: 알지 못한다.

964) 혼다: 함께

965) 너미:너무

966) 좇앙 간: 찾아가다

967) 질이엔: 길이라고

968) 땀도: 땀도

969) 나곡이: 나고

건 눈물 닦으멍 가고, 뚝 나건 뚝 닦으멍 가렌. 겐 청백베, 흑백베를 내어 준 거라.

“가당, 보인 안개, 산안개. 안개가 끼걸랑 청백베로 영 두르고, 흑백베로 영 두르곡 허영 강 오렌.”

겐 주난 그거 말안. 아이, 곰곰이 생각 허난. 아이고, 이거 큰각시, 시집오고 나장게 갓젠 허여도, 하루 저녁 누워보지도 못 허고, 그냥 나 사모관디 [紗帽冠帶] 벗언 읍드레<sup>970)</sup> 놓아두고, 큰각시 족두리 뱃견<sup>971)</sup> 놓아두언. 그 질로 나오란 이구 십팔, 열으덥 각시들만 좇앙 땡겐이난<sup>972)</sup>. 아이고, 큰각시가 얼굴 잊어불언 이거 어평허든 좋고. 이제랑 마지막으로 큰각시나 사는디나 강 얼굴이나 보양 가주게 허언. 이제 큰각시 사는 텔 간 거라. 허울허울 가당 보난 큰각신 굴묵낭<sup>973)</sup> 방에<sup>974)</sup>에 도훼낭(桃花木) 절깃대<sup>975)</sup>에 물보리 섞어놔 이녁 전승 팔즈 생각허멍 “이여도 방에야, 이여도 방에야~”

허멍. 좋은 소리 내걸천<sup>976)</sup> 방에를 쿵쿵 찼었주게. 게난 강림이가 허울허울 들어 가가난, 방에 지단 툅허게<sup>977)</sup> 방엘 놓아 뒀.

“아이고, 어평허난 오늘은 저 우리 올레에 정문이 열어져십디가 범주리낭 가시가 걸어져십디가?”

영 곱아도 속숨. 저영 곱아도 속숨. 그냥 구들문 올라뒀<sup>978)</sup> 허울허울 들어가는 거라. 거난, 강림이 큰각신 방에 만지단 ㄴ만히 생각허난.

‘잘나도 내 낭군이요, 못나도 내 낭군이요. 내 낭군이 워낙 잘 나부난, 각시덜토<sup>979)</sup> 기생첩년덜 이구십팔 여래덥 개를 행 땡겐이난<sup>980)</sup>. 경 해도 나 집이 온 손님이난 구들에 간 보주겐.’

허언.

방에 지단 거 내불어뒀 구들에 간 문 올언 보난 막 었더전<sup>981)</sup> 울었어. 영영 울었이난.

---

970) 읍드레: 옆으로

971) 뱃견: 벗겨서

972) 좇앙 땡겐이난: 찾아서 다녔으니

973) 굴묵낭: 느티나무

974) 방에: 방아

975) 절깃대: 절구공이

976) 내걸천: 내면서.

977) 툅허게: 탁하게.

978) 올라뒀: 열어두고

979) 각시덜토: 각시들도

980) 땡겐이난: 다녔으니

981) 었더전: 배를 바닥에 대고 쓰러지다.



“어떻허난 옷을 일 날 때 날 아니 좇앙 완게 만은, 울 일은 나난 날 좇앙 읍디 가?” 경 허난.

“나 꺄사<sup>982)</sup> 당신님 들어올 때에 그만 썩 저만 썩 곁은 말에 애들안<sup>983)</sup> 울었수과? 여자엔 현 건 양, 동산에 앓앙 소피<sup>984)</sup>를 봐도 치메깁<sup>985)</sup> 젓을 줄 모르는 건, 여자의 믯음 아니파?” 허난. 강림이가 와들랑탕 일어나는 거라.

일어난. 아이고, 손 심언

“이 사름아, 저 사름아. 나, 자네 그만썩 곁은 거 애들안 울거민, 나 이디 뭇 허레 오는고? 그게 아니고. 나, 저승 염라왕 잡으레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저 사름 얼굴이나 보양 가젠 나가 마지막 길을 오랏노라.”

허난.

“게믄 저승은 무신거 허레 값수과?”

“염라왕 잡으레 값저.”

허난.

“게난 저승 가렌 현 본멘 줍데가?”

아이, 내어 논 건 보난. 흰 종이에 검은 먹글이라. 그때엔 그걸 갓엿 연훼뭇디 우터레<sup>986)</sup> 치돌안 올라산 거라.

“어떻 현 판삽니까? 어떻 현 슝똥니까? 이 글은 이싱<sup>987)</sup> 글 아니우파. 저싱 글은 붉은 거에 흰 글을 써야 저싱을 가는 법이우덴.”

게난. 그때엔 맹전(銘旌), 우리 이제 맹전허는 게 강림이 큰각시가 내온 법. 경 허연 그 법으로 이제 맹전법이 강림이 큰각시가 내온 법이고. 경 헨 그거 들러 앓언 집이 완. 아이고, 이거 살아도 막번, 죽어도 막번 호강이난. 옷이나 이제랑 멘들안 입진 보내주겐 허연. 남방사주(藍紡沙紬) 저고리에 북방사주 [白紡沙紬] 말바지에, 벌통 행경 [行纒] 에, 웨코 접은 백농 [白綾] 보선<sup>988)</sup>에 이제 출려 놓고, 한산 모시 두루마기에 이제 남수와단 [藍水禾] 서단쾌지 [快子] 출려 뉘. 이제 그거 허여 놓고, 이제 가명 또 베고프른 어떻허리 헨. 강남서 들어온 쫓끄만<sup>989)</sup> 뻬시리<sup>990)</sup>에, 일본서 들어온 쫓끄만 뻬숫디<sup>991)</sup>에 이젠 시양삭삭 고운 쓸 굴안, 초징,

982) 꺄사: 이제 막. 금방.

983) 애들안: 마음으로 섭섭해 노여워하다.

984) 소피: 소변

985) 치메깁: 치맛자락.

986) 우터레: 위쪽으로.

987) 이싱: 이승

988) 보선: 버선

989) 쫓끄만: 자그마한

990) 뻬시리: 시루

이징, 삼징 놓안 시리떡<sup>992</sup>)을 친거라. 떡 치언. 제일 우잇층은 앓아 놓안, 문전에  
강 스지 삼장부떠 슬고, 절 삼배 허고,

“우리 낭군님 저승가느디 질 인도시겨 줘서.”

허연 허고, 또 혼층은 떼어 놓안, 조왕할마님 한티 간 이제 그추룩<sup>993</sup>) 골안  
에<sup>994</sup>) 스지 삼장 슬고, 제일 아랫 건 떼어 난 강림스제님 가명 시장기 멀릴 걸  
로<sup>995</sup>) 포따리<sup>996</sup>)에 툄툄허게 썩. 다 출리단<sup>997</sup>) 보난. 강림이 큰 각신 옷 멘들  
저<sup>998</sup>), 떡 멘들저 허단 보난. 동세백이<sup>999</sup>) 히영허게 붉아가는 거라. 날이. 구들에  
완 보난, 강림스제는 막 코만 굴멍 잠서.

“아이고, 이 어른아, 저 어른아, 혼저 일어 납서. 저승질허고, 군대서 오랜 허는  
일은, 대신도 못강 본인 백인<sup>1000</sup>) 못 갑니다. 혼저 일어 납서.”

일어난 보난, 천하득 [天下鷄] 은 목을 들어 즈지반반<sup>1001</sup>) 울고, 지에득 [地下鷄]  
은 출릴<sup>1002</sup>) 치영<sup>1003</sup>) 구구구구 대명천지가 붉아오는 거라.

아이고, 큰일났젠. 이젠 큰각시 허여논거. 옷 즈근즈근 문딱<sup>1004</sup>) 입고, 떡 시장  
기 들릴 거 허여논거 포따리에 허엿이난 존등들에<sup>1005</sup>) 툄허게 묶으고. 큰각시신디  
근는 말이

“설운 정네야, 멍 질게 살았이라. 살았이민이 나 강 오랑 검은 머리 백발이 뒤  
도록, 이제 파뿌리가 뒤도록 살젠.”

게 굳은 언약을 허여 뒤. 올레 곧 나사난 어떤 여자가 빈허벽 전 이레 주왓, 저  
레 주왓 험서. 게난 그 여자는 강림이가 저싱감텐 말은 들어신디게 그때 나가는중  
몰란, 확허게<sup>1006</sup>) 나강 보난 강림이 나오난. 어드레, 그자 ㄱ썉사젠<sup>1007</sup>) 현게. 이

---

991) 멧숫다: 술에

992) 시리떡: 시루떡

993) 그추룩: 그렇게

994) 골안에: 말하고서

995) 들릴 걸로: 없앨 것으로

996) 포따리: 보따리

997) 출리단: 차리다. 준비하다.

998) 멘들저: 만들저

999) 동세백이: 이른 새벽에.

1000) 본인 백인: 본인 밖에는

1001) 즈지반반: 고요한 밤의 닭 울음 소리.

1002) 출리: 꼬리를

1003) 치영: 치면서

1004) 문딱: 전부

1005) 존등들에: 잔등이에. 허리부분에.

1006) 확허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꼴.

1007) ㄱ썉사젠: 비켜서려고

레 주악, 저레 주악 해진 거주게. 게난 강림이가 삼각산 [三角巔] 을 거슬리고, 봉에는 [鳳眼] 을 브릅뜨고 정동ㄱ뜰<sup>1008)</sup> 폴딱지<sup>1009)</sup>를 확하게 걸어 난. 주먹으로 “여자엔 현 건. 꿈에만 시꾸와도<sup>1010)</sup> 새물 [邪物] 인데 왜 강림이 저승 가는 길에 어떤 여자가 빈 허벅을 지어서 어지르느냐고.”

말이여. 게난 주먹으로 그 허벅을 와쌍헝게<sup>1011)</sup> 벌러 붙었어. 겐 벌러난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어나민, 그 구들에 사기그릇 허여근에게 이제 와쌍와쌍 벌르고, 푸대더레<sup>1012)</sup> 사기그릇 놔근에 방에 강, 와쌍와쌍 소리나게 시리 이제 그 법지법을 마련해두고. 이젠 곧 올레 나산 가노렌 허난, 어떤 청토산이 마고할마님, 등 수구룩허게<sup>1013)</sup> 굽고 허연. 아그랑 작데기<sup>1014)</sup> 불 붙어난 거 쥔으고, 불 붙어난 행주 치메 둘러 입고, 게난 앞이 막 걸엄서.

‘아이고, 저 할마님은 어떻헌 할마님이고. 저 할마님이영 말 벗어나 허연 혼디 가카.’

허연. 강림이가 제게 가가민 할마님도 제게 걸어불고, 앞이 가는다. 강림이가 할망 미치젠<sup>1015)</sup> 뜨게 가가민, 할망도 뜨게 가고. 겐 가단 가단 높은 동산 잇이난. “호이~”

허멍 할망이 앓으난. 강림인 절을 허울허울 삼 배 허난.

“아이고, 어떻헌 도련님이 넘어가단 이런 똥내 지렁내 나는 늙은이안티 절을 했수파?”

허난.

“아이고, 말도 많서. 우리 집이도 강 보민양 백난 하르바님, 할마님 다 잇수다. 읍서 배고판 시장기나 멀령 가게마썸”

아, 내 논 건 보난. 똑ㄱ뜰<sup>1016)</sup> 떡이라.

흔 솜씨에, 흔 솜씨에 솜씨라.

“어떻허난 할마님 떡허고, 나 떡이 영 똑ㄱ뜨우파<sup>1017)</sup>?”

허난에

1008) 정동ㄱ뜰: 청동(靑銅) 같은.

1009) 폴딱지: 팔딱

1010) 시꾸와도: 나타나도. 보아도.

1011) 와쌍헝게: 유리 따위가 깨지는 소리. 과자나 호두 따위를 바삭 깨무는 소리.

1012) 푸대더레: 포대에

1013) 수구룩허게: 고개나 등을 어느 정도 구부리다.

1014) 아그랑 작데기: 오그랑 막데기

1015) 미치젠: 따라가려고

1016) 똑ㄱ뜰: 똑같은

1017) ㄱ뜨우파: 똑같습니까.

“강림아, 모른 소리 말라. 난 느네 큰각시네 집이, 조왕할망인디, 너 허는건 행실이 께쌌허더라만은<sup>1018)</sup>, 너 큰각시 하도 지극정성이 기특허난 너 저승질 곶아주젠<sup>1019)</sup>. 너 큰각시 생각허영 나오랏이메. 나 떡이랑 너가 먹영 가고, 너 떡이랑 쌍<sup>1020)</sup> 가당 보민, 문전하르방이 잇일꺼메<sup>1021)</sup> 문전하르방 안네영 저승질 곶아도렌<sup>1022)</sup> 허라.”

허연.

“아이고, 고맙수텐.”

허연. 그 떡 갈라 먹언. 절을 허울허울 삼베 헤여뒀. 아, 고개 들렁 보난 할망이 감감무중이라. 엇어. 피라곡절 [必有曲折] 허다 허연. 이젠 또 가노렌 허난. 담뱃대 진진헌거 물고, 혜영 헌 하르바님이 높은 동산에 잇어. 간 절을 허울허울 삼베 허난.

“아이고, 어디 도련님이 넘어가단 영 헌 늙은이한테 절을 허엿수과?”

“우리 집이도 백난 아바지, 어머니 다 잇수다. 읍서 하르바님, 우리 시장기나 멀령 가게<sup>1023)</sup>.”

게 배 고프고, 시장 허난 시장기 멀리젠 떡 내 놓은 건 보난 그쁜 떡이라. 이젠 “어떻허연 하르바지 떡허고, 나 떡 영 그쁘파?”

허난에.

“난 너 큰각시네 문전하르방인데, 너 허는 건 께쌌허드라만은 너이 큰각시 하도 지극정성이 기특 허난. 너이 큰각시 생각허난 저승질 곶아주젠 나왔다.”

게난

“너 걸랑, 너 떡이랑 너가 먹영가고, 나 떡이랑 지금부터 너 들어갈 질은 일흔으덱 공 거름질로 세언 강. 들어강 보민. 질 닦으단 허기버천<sup>1024)</sup> 질토레비<sup>1025)</sup> 질감관이 이원스제가 이제 누웠이메 너 그 떡을 주영. 시장기 멀리게 허영 저승질 곶아도렌 허라.” 허연.

“경 험서.”

허연. 하르바님이 손 심언 그땐 질을 다 곶아준 거라.

“강림아, 요 질은 보라. 시왕감스 신병스(十王監司 新兵使)가 들어간 질이여.

---

1018) 께쌌허더라만은: 께쌌허더라만은

1019) 곶아주젠: 말해주려고

1020) 쌍: 싸서

1021) 잇일꺼메: 있을테니

1022) 곶아도렌: 말해달라고

1023) 멀령 가게: 없애고 가자.

1024) 허기버천: 매우 시장하여 힘에 겹다.

1025) 질토레비: 길을 보수하는 사람.

요 질은 보라. 원왕감스 원감스(元王監司 元監司)가 들어간 질이여. 저 질은 보라. 짐추염나태선대왕 [金緻閼羅泰山大王] 이 들어간 질이여. 요쪽 질은 보라. 범 ㄱ든 스천대왕 [四天大王] 이 들어간 질이여. 요 질은 보라. 츠지 진강대왕(秦康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이제 초강(初江), 제삼(第三) 송결전(宋缺典)에, 오간(吳官), 다섯 염나대왕(閼羅大王)이 들어간 질이여. 으섯 변성대왕(變成大王)이 들어간 질. 일곱 태선대왕(泰山大王), 으덟편. 경 형. 아홉 딱시 열, 십전대왕(十戰大王) ㄱ지 들어간 질이여. 강림아, 요 질은 보라. 천양처스(天皇差使)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지하처스 [地下差使] 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인왕처스(人皇差使) 들어갈 질, 요 질은 원직. 연직(年直), 월직(月直), 일직사자(日直使者)가 들어갈 질이여. 요 질은 보라, 황스제 [黃使者] 가 들어갈 질. 요 질은 적스제 [赤使者] 가 들어갈 질. 요 질은 보난 옥황방나장(玉皇방나장)이 들어갈 질. 요 질은 저승 이원스제<sup>1026</sup>)가 들어갈 질. 요 질은 보난, 강림이 들어갈 질을 보난, 개미 혼 뿐 현 질. 이견 너 들어갈 질이여.”

허난

“아이고, 하르바님아, 이 질을 어떻게언 날 ㄱ라<sup>1027</sup>) 들어가렌 했수과?”

허난

“그 질을 너가 해우청<sup>1028</sup>) 들어가사 헐거옴.”

게난,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 죽으민, 심방 빌어단 질치곡 허는 것이 죽을 때는 강림사자님허고 데려서 저승을 가는 때문. 강림사자 들어가는 질이 하도 나쁜 질 이라부난, 이제 그 질을 닷으멍 들어가는 거. 그 법으로 질치는 법이 돼고. 겐 그 질을 가난

동드레 왕상허게<sup>1029</sup>) 벌은 건, 서더레도 확허게시리 눅지고. 서이 왕상허게 벌은건 동더레도 눅지고. 경 제우제우 해우천 들어간 보난, 질토레비 질감관 이원스제가 질 닷으단 허기버천 누운 거라.

“아이고, 이거 나 점심밥 먹엉, 저 떡 먹엉 시장기 멀립서.”

허난. 하도 베고프난, 듣도 뵈도 안허영 그걸 막 먹은거 아니. 먹언 이제 정신 출리난.

“당신 누군데 여길 왓습니까?”

허난

1026) 이원스제: 저승의 사자(使者) 이름.

1027) 날 ㄱ라: 나에게

1028) 해우청: 뜰어서.

1029) 왕상허게: 풀, 마른 가지, 가시 따위가 거칠게 널려져 있다.

“나는 인간 짐치원 몸 받은 강림이가 뵈네다.”

허난

“어떻헌 일로 이딜 읍데가?”

허난

“난 염라왕 잡히젠 이디 왔수다.”

허난

“여기는. 이거, 인간이 오는 길이 아니고, 나는 저싱 염라왕이 인간에 원복장제 네 집이, 곱허는 디 느려사젠<sup>1030</sup>) 허난, 질을 닦으단 허기버천 여기 누웠수다. 게 난, 경 말앙 나영 혼디 이디 샷단양, 스오시가 뵈결랑 이디서 잡힙서.”

허난

“아이고, 아이 뵈네다. 아멩해도<sup>1031</sup>) 저승을 강 와사주. 이디 샷단 아니 뵈니 텐.”

“경 허건양. 나도 놈이 거 공거 먹고 공거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리난, 속적삼이 나 입영 읍디가?”

허난

“예. 입언 왔수다.”

“이레 벗읍서, 계건.”

경 허연. 이구산<sup>1032</sup>)더레 올라산 츠흔, 이흔, 삼흔을 췌언. 게난 그 법으로 사람 죽으민 옛날은 지봉상상 츠추믄루에 올라강 속적삼 들렁 ‘누구 누구 보~’ 허명 혼을 불렀주만은. 요즘은 또 이젠 장례식장에서 허딘가, 경 안허민 어디 묻으레 강. 산에 강 혼 불렁. 경 헨 이젠 혼 불려주난, 저승 초군문에 들어간 거라. 가신디. 아닌게 아니라 와라차라 앞엔 선배, 뒤엔 후배, 뭇 일과라 일기생애. 막 와라차라 와가난

‘아, 저기 염라왕이 잇구나.’

허연. 첫 번째 가메<sup>1033</sup>)를 심어 보난, 빈 가메. 두 번째도 심언 보난, 빈 가메. 세 번째도 빈 가메. 네 번째도 심언 보난 빈 가메. 다섯번 켜 벌런독게(別輦獨驕), 벼락 천둥 소리에 와지끈 땅에 심언 보난, 염라왕이 앓은 거라. 아이고, 보난 눈은 통대왈 만인 허고, 말관 쓰고, 입은 작박<sup>1034</sup>) 만이 허고, 코는 뭇똥코<sup>1035</sup>)에.

---

1030) 느려사젠: 내려사려고

1031) 아멩해도: 아무래도

1032) 이구산:

1033) 가메: 가마

1034) 작박: 주걱.

1035) 뭇똥코: 뭇똥같은 코.

흔 번 보고, 두 번 믱스완 볼 수가 없어. 줍작<sup>1036)</sup> 헨 물러산거라. 강림이가 생각 허기를

‘때는 요 때다. 요 때 안 잡혀버리면 이 노릇을 어떻게린.’

믹습고시고<sup>1037)</sup> 놀려들언 홍사줄을 그자, 율이 찻단 다르르 풀언 간, 스문절박을 풀에 간, 탁 헌거라 계난. 아이, 염라왕이 용심을 내웨,

“야, 도대체 누게가 나, 저승왕인 나를 잡히느냐?”

계난. 강림스제가 허는 말이,

“예. 저승왕도 왕이요. 이승왕도 왕이요. 나는 인간에 짐치원 몸 받은 강림입네다.” 허난

“뭔 일로 나를 잡히느냐?”

“우리 인간에 과양생이가 있는데, 흔 날 흔 시에 아들 삼형제 낳고, 흔 날 흔 시에 아들 과거 헨 오고, 흔 날 흔 시에 다 죽으난 이 절체를 못해서 염라왕을 잡으레 왔습네다.”

허난

“야, 강림이 역력하고 똑똑하다.”

경 헨 이제 인정 주난. 염라왕이 강림이한테 인정을 준거주. 경 허난. 이제 인정 받안, 홍사줄 풀련.

“경 말앙이. 강림아, 나영 혼디<sup>1038)</sup> 아랫녁에 원복장제 단뜰아기 다 죽어간 전 새남<sup>1039)</sup> 허엿이메 글라, 그디, 곱허는 디나 강, 곱이나 받아먹영 가게.”

허난.

“경 험서.”

허연. 뜰라앗언<sup>1040)</sup> 간 보난. 올레에 간 보난 허택이엔 현 심방이 곱을 했인디, 저승왕도 읍서. 이승왕도 읍서. 뭐, 처스님네도 읍서 해도, 강림이 읍셴은 허지도 안허여. 올레에 쫄 케우리명도<sup>1041)</sup> 부예가 꾹죽곶이 난 거라<sup>1042)</sup>. 딱시<sup>1043)</sup> 홍사줄 내어난 곱허던 허택이엔 현 심방을 스문절박을 톤톤허게 시겨불엇어. 경 허난. 그 중에서도 똑똑헌 신소미가 확허게 나사며 허는 말이,

“어제, 그지게 신관쳐스, 강림쳐스도 살려 읍서.”

1036) 줍작: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다.

1037) 믱습고시고: 무섭더라도

1038) 혼디: 함께

1039) 전새남: 무구와 제기가 없어서 빌어서 하는 곳. 환자의 병이 나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곳

1040) 뜰라앗언: 따라서

1041) 케우리명도: 멀리 훌쩍리거나 획 내던지면서

1042) 부예가 꾹죽 곶이 나다: 팔죽이 끓듯 몹시 화가 난다는 말.

1043) 딱시: 다시

허연 쫄 케우리난 그때엔 홍사줄을 풀어가난, 죽어가던 큰심방이 푼푼 살아  
난거 아니. 게난 옛날엔 아마도 시왕맞이 할 때는 시왕 당클만 메연 해낫인고라,  
강림스제 나시<sup>1044</sup>) 아래 혼저 스지 상 싱그라<sup>1045</sup>), 그다음 앓아 살 거난<sup>1046</sup>) 떡도  
흐뽀뽀<sup>1047</sup>) 흐뽀뽀 멘들젠<sup>1048</sup>) 허민 시간 오래 걸릴거난에, 흔꺼번에 그자 담아난  
시루떡 치여근에게<sup>1049</sup>) 그레 올리라. 경 헨 이젠 문딱 강림스제 앓을 자털 멘들어  
노난<sup>1050</sup>). 시왕 당클 알로. 상당도숙으난<sup>1051</sup>) 염례왕은 청댓썰<sup>1052</sup>) 고고리<sup>1053</sup>)로,  
변장을 허연 올라사분 거라. 게난 강림이는 암만 좇아봐도 염례왕이 엇어져분거  
아니. 아이, 이 노릇이여 이제 이따지 와놓고 이제 어드레 엇어져불영 나 헛걸음  
헨 이 노릇을 어떻허연 좋고. 푼리 몸으로 환생허연 청대썰 고고리 우에 간 톱허  
게 앓으난

“야, 강림이 침 역력허고 푼푼허다. 혼저<sup>1054</sup>) 느려글라<sup>1055</sup>), 아래 느려글라.”

허연 느려완

“강림아, 느 몬저 가시라. 가시몬이<sup>1056</sup>). 나, 넬모레 스짓날 당허민 틀림도엇이  
나 동연(東軒)마당에 연단우이 느려사마<sup>1057</sup>).”

허난

“아이, 아니웁네다. 아멩해도<sup>1058</sup>) 가사주양<sup>1059</sup>). 아니가민 나 인정을 헤 줘니  
까?”

허난

“가시라. 가시몬 나가 틀림엇이 약속을 지켜마.”

“나, 혼도 불러불고 허난양. 나, 인간에 가질 못헉네다.”

허난.

---

1044) 나시: 몹

1045) 싱그라: 심어라. 제상을 차려 세움의 뜻.

1046) 앓아 살 거난: 앓아야 할 거니까

1047) 흐뽀뽀: 조금씩

1048) 멘들젠: 만들려고

1049) 치여근에게: 찌서

1050) 멘들어노난: 만들어노니.

1051) 상당도숙으난: 곳을 마쳐 당클과 제상을 정리하니.

1052) 청댓썰: 큰굿할 때 마당에 번기를 달아 높이 세우는 대(竹).

1053) 고고리: 꼭대기.

1054) 혼저: 어서 빨리.

1055) 느려글라: 내려가자.

1056) 가시몬이: 가있으면

1057) 느려사마: 내려사마.

1058) 아멩해도: 아무래도

1059) 가사주양: 가야지.



“돌아사라.”

허연. 앞인 임금 왕 제, 뒤엔 놀룬 비 자를 써 주고, 백강생이<sup>1060</sup>) 하나 내어주  
명

“이 강생이 안양 가당, 웨 나무<sup>1061</sup>) 웨 드리<sup>1062</sup>)에 행기수<sup>1063</sup>)가 잇이메, 강생  
이 노민 광허연 들어가건, 니도 혼디 강생이 뜰랑 광허게 들어가민 느 몸천<sup>1064</sup>)  
잇인디 가 진다. 경 허민 느 몸천, 그레<sup>1065</sup>) 삼화혼정(三化魂情)<sup>1066</sup>) 들엉 경 허  
연 느네 집이 좇앙 가라.”

일러 주난

“경 험센.”

허연. 그날 안 내려오민 큰일납니다예. 막 굳은 언약을 헌 거라. 경 험 이젠. 강  
생이 안아 앓앙 오단<sup>1067</sup>), 웨나무, 웨드리에 드물런<sup>1068</sup>) 혼디 들어가난, 몸천이  
혼 불러부난 강림이 몸천만 잇인 거라. 그땐 그 몸천들에 삼화혼정(三化魂情) 들  
언. 일어난 보난 동도 왁왁, 서도 왁왁, 남도 왁왁, 북도 왁왁. 천지가 컴컴한 밤  
이라. 영 멀리 베려보난<sup>1069</sup>), 불이 베롱허게<sup>1070</sup>) 싸진 집이 잇이난.

‘아이고, 오늘밤이랑 저 집이나 좇안 강 어떻 마당 구석에라도 앓앗당 널랑 큰  
각시 사는 집을 좇앙 가주<sup>1071</sup>).’

허연. 가단 보난 마침 큰 각시가 시결명 잡식<sup>1072</sup>) 허연, 식계(祭祀) 넘어난 올  
레 완 흑흑 데껴뒀<sup>1073</sup>) 안으로 들어 가명 문을 툃툃허게 중가부는<sup>1074</sup>) 거 아니.  
“이 문 올라. 이 문 올라.”

막 허난에

“앞집이 김서방네건 널랑 읍서. 식계(祭祀) 테물<sup>1075</sup>) 안네쿠다. 뒷집이 이서방이

1060) 백강생이: 흰 강아지.

1061) 웨 나무: 한 그루의 나무

1062) 웨 드리: 한 개의 다리

1063) 행기수: 솥그릇에 담긴 물. 행기물

1064) 몸천: 몸 형체

1065) 그레: 그리로. 그곳으로.

1066) 삼화혼정: 인간은 육신은 하나요 혼은 셋이라 함.

1067) 앓앙 오단: 안아서 가지고 오다가.

1068) 드물런: 들이밀어서.

1069) 베려보난: 바라보니

1070) 베롱허게: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켜지다.

1071) 좇안 가주: 찾아가야지.

1072) 시결명 잡식: 제사 끝난 뒤에 제상의 각 제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잡신(군졸)에게 먹으  
라고 바깥에 던지는 일.

1073) 데껴뒀: 던져두고.

1074) 중가부는: 잠가버리는.

건 넬랑 읍서. 식계(祭祀) 테물 안네쿠다.”

허난.

“난, 이 김서방도 이서방도 아니고이. 나, 강림이여.”

허난.

“아이고, 참 우리 낭군은 저승 간 양 연삼 년 넘언 오늘 이거 첫 식계(祭祀)우다.”

허난.

“난, 저승 간 사흘 백이<sup>1076</sup>) 아니 살았저 만은 건 뭇 말이고?”

허난. 하도 경 해도 강림이노렌 막 헤가난.

“경 허진, 우리 낭군이 적실허면 내가 본메 본짱 논게 잇이난 창고망<sup>1077</sup>)으로 켜자(快子) 썸<sup>1078</sup>)이나 내몰아 봅서.”

허난. 이제 창<sup>ㅁ</sup>망으로 켜자 썸 영 내모난, 바농 혼 썸<sup>1079</sup>)을 본메본짱<sup>1080</sup>)으로. 그 옷 지을 때에 본메본짱으로 논게 문딱 삭단, 바농 하나가 남은 거라. 게난,  
“아이고, 내 낭군이 적실허텐<sup>1081</sup>).”

이젠 문을 다 올안. 게난 이제 강 아바지도 돌아 오라<sup>1082</sup>). 어머님도 돌아 오라. 형제간 덜도 돌아 오라. 이구십팔 열으답 각시도 돌아 오라. 문딱<sup>1083</sup>) 돌아 오라 허난. 아바진 들어오멍 느단 홀목<sup>1084</sup>)을 잡안 앓안 비새<sup>ㅁ</sup>찌 울고, 어머님은 윈 홀목을 잡안 비새<sup>ㅁ</sup>찌 우는 거라.

“아바지, 아바진 나 엇이난 어떻 험데가?”

허난.

“아이고, 곤도 말고<sup>1085</sup>), 일르도 말라. 느 엇이난<sup>1086</sup>)이 믋디므디<sup>1087</sup>) 마다 느 생각이 나라.”

허난.

---

1075) 식계 테물: 제사를 치르고 남은 음식.

1076) 사흘백이: 사흘 밖에

1077) 창고망: 창구멍

1078) 썸: 옷의 깃.

1079) 혼 썸: 한 썸.

1080)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1081) 적실허텐: 틀림없이 확실하다.

1082) 돌아 오라: 데리고 오라.

1083) 문딱: 모두. 전부

1084) 느단 홀목: 오른쪽 손목.

1085) 곤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1086) 엇이난: 없어서

1087) 믋디므디: 마디마디(節節).

“아버지는 느단 홀목 잡아부난, 성주성편(姓主姓便)을 마련허고. 아버지는 나 생각을 믋디므디 해부난. 아버지 살당 살당 돌아가시민 왕대, 방장(喪杖)대 혜영, 믋디므디 아버지 생각허멍, ‘아이고, 데고’ 허영 아버지 공을 갇아 드리쿠다.”

젠디, 아버지는 아멩해도<sup>1088)</sup> 남자의 부모라 즈식들 안티라도 영 감싸주는 일이 엇영 그냥 팍팍 곁아부난, 시무옷<sup>1089)</sup>을 해도 아버지 죽은 때 입는 시무옷은 알단을 아니 감추와. 감추질 안허여.

“젠 이제 어머님은, 나 엇이난 어떻 험디가?”

허난.

“아이고, 동더레 돌아사도 가슴이 먹먹, 서더레 돌아사도 가슴이 먹먹. 원, 그냥 가슴이 먹먹허연 살 수가 엇어라.”

허난. 어머님은 웬 홀목<sup>1090)</sup>을 잡아부난 웨주웨편을 마련허고.

“어머닌, 살당살당 돌아가시민, 동더레 벌은 머구낭<sup>1091)</sup> 방장 [喪杖] 대혜영 어머니 생각 먹먹허게시리 어머님 생각허멍 연삼 년 공 갇아 드리쿠다.”

젠디, 어머님 돌아갓이민, 어머닌 즈식들 곶은 일 해도 항상 감추와. 아이고, 영 영 딸을 감추완 해나부난 이 시무옷 보민, 요즘은 신식이난 다 박아붙어서라만은, 시무옷을 보민 어떻 죽은 때에는 영 감싸근에게<sup>1092)</sup> 박앙잇고. 아방 죽으민 그냥 년들년들 현양 그냥 잇고. 게난 형제간들 돌아오라 허난. 형제간들 돌아오난

“나 엇이난 어떻 해니?”

허난

“형님아, 모른 소리 맙서. 어디 간 우리만 잘 먹고, 잘 쓰곡양 헐 때엔 형님 적 시도<sup>1093)</sup> 우리가 갈라먹고, 갈라쓰난, 더 하난, 막 기분이 좋읍니다마는, 어디 텡기단 친구들신디나 선배들신디라도 메나 복삭<sup>1094)</sup> 얻어 맞을 때엔. 아, 이럴 때 우리 형님도 잇엇이민 권력이 좋으난 펜백<sup>1095)</sup> 해줄걸. 형님 생각 납디다.”

허난

“아이고, 형제간은 옷 우잇 브름<sup>1096)</sup>이여. 걸름<sup>1097)</sup>만 못 허다.”

---

1088) 아멩해도: 아무래도.

1089) 시무옷: 남자 손자 상주의 복옷.

1090) 웬 홀목: 왼쪽 손목.

1091) 머구낭: 머귀나무.

1092) 감싸근에게: 감싸서.

1093) 적시도: 몫도.

1094) 복삭: 마구, 힘껏, 마음껏.

1095) 펜백: 편벽. 한쪽 편을 들다.

1096) 옷 우잇 브름: 옷 위에 바람.

1097) 걸름: 거름.

거난 형제간은 수리대, 방장대도 수리대를 주는 거라. 게 수리대 짚으민 거 형제간이나 조케나 경 돼는 거. 경 해연 이젠 마련해여 된.

“이구십팔 열으덱 각신 어디 가시넨?”

허난. 그날 그 시간으로 문딱 서방들 얻영 도망들 갖젠 허난. 이젠 큰각시 ㄱ라 “자넨, 나 엇이난<sup>1098</sup>) 어떻헤니?”

허난

“아이고, 곤도 말고 일러도 맙서. 잇인 때엔 각시만 얻영 탱기멍 부수 날<sup>1099</sup>) 속상허고, 죽들리왓주 만은<sup>1100</sup>) 엇이난 양 혼 믋음 혼 뜻 허영 소상도 냉겨수다, 대상도 냉겨수다. 나 첫 식게도 허엿수다. 정절수절 직허영 앓젠 허엿수다.”

허난

“경 허난, 열 각실 얻영 탱겨도 큰각시가 큰각시여.”

허연

“아바지도 갑서. 어머님도 갑서. 이제 형제간들도 가라.”

문딱 보내여 된. 시집가고, 장가를 가도 부부간에 관계를 안 맺언 각시만 얻영 돌아텡겄인디, 그날 밤이 이젠 둘이가 누원. 열두 스랑을 다 풀리운 거라. 막, 말에 말 붙연가젠허민

“줍쫄<sup>1101</sup>) ㄱ찌 스랑<sup>1102</sup>) 스랑 줌진<sup>1103</sup>) 스랑, 줍쫄 ㄱ찌 줌진 스랑, 스랑 스랑 둥근 스랑, 보릿쌀 ㄱ찌 둥근 스랑, 모밀쫄<sup>1104</sup>) ㄱ찌 귀난 사랑이여. 곤쫄<sup>1105</sup>) ㄱ찌 궁근 사랑이여.”

경 허는디. 경 헨 허단 보난. 뒷날 아침이 동성방이 히영헤도<sup>1106</sup>) 안 일어나분 거라게. 붉는 처리<sup>1107</sup>) 물란. 게난 과양생이네 두가신, 어느 제민 강림이가 염라 왕을 들안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해 줄 건고, 메날<sup>1108</sup>) 강림이가 앓인가, 안앓인가. 강림이 큰각시 집 메날 나드는 거라. 강림이가 앓인가, 안앓인가. 빨리 와사 지네<sup>1109</sup>) 애기 덜 해결 헐 거난.

---

1098) 엇이난: 없으니까.

1099) 부수 날: 많은 날.

1100) 죽들리왓주 만은: 걱정시켰지 만은.

1101) 줍쫄: 줍쌀.

1102) 스랑: 사랑.

1103) 줌진: 가는.

1104) 모밀쫄: 메밀쌀.

1105) 곤쫄: 흰 쌀.(白米)

1106) 히영헤도: 하얗게 되어도

1107) 붉는 처리: 밝는 것을.

1108) 메날: 매일.

1109) 지네: 자기네.

경헌디<sup>1110)</sup>, 그날 아침인 간 보난, 문을 툇툇 증갓주게. 이 시간 돼민 큰각시가 일어난 땡기는디 어뎡허단 영 헛인고 허난. 손가락에 춤 불란<sup>1111)</sup> 창그망을 똥 환<sup>1112)</sup> 보난. 몸전은 하나고, 머리는 두개라. 아이고, 이거 저승 가노렌 헤될. 우리가 속앗구나. 밤인 돼민 큰각시영 혼 이불 쏘곶에 줌자고, 낮인 돼민 뎡풍 뒤에 간 곱안<sup>1113)</sup> 살암덴. 거난 오곶<sup>1114)</sup> 짐치원신디 간 밀고(密告)를 헤분거 아니. 게 난 이젠 또 큰칼 씨완 강림일 또 동안마당 연단 위에 꺾어단 세완에 죽일팔로 막 허는 거라.

“넬 모리 스오시갓지만 기다령 염라왕이 아니 내려사건 날 죽여 줌서.”

허난. 아난게아니라 스오시가 돼여가난, 동으로도 날씨가 거뭇거뭇 헤가고, 서으로도 거뭇거뭇 헤 간게. 삼시간에 그랑 빗발 또록또록또록 떨어지단 그냥 대오방 수천리 비가 넘실넘실 막 내려오는 거라. 겐 비가 막 오난. 이젠 너른 목에 번개 판짝 허듯이 허난. 좁은 목에 와지짱짱허연 벼락치난. 그 벼락 천둥소리에 염라왕이 연단 위에 탁 산보난. 비오고 벼락 천둥소리에 문딱<sup>1115)</sup> 변장들 허명, 다 그디 잇인 사람들 곱아불어신디<sup>1116)</sup>. 강림이는 이디 큰칼을 씨와노난 들도<sup>1117)</sup> 기도<sup>1118)</sup> 못허연 그만히 그 비 맞으멍 앓은 거라.

“강림아, 너 이거 뭐허는 짓이냐?”

허난.

“아이고, 염라왕님아, 일 분 일 초만 늦엇이민 머리털 하나가 그류왕<sup>1119)</sup> 죽을 뻔을 헛습니다.”

허난.

“야, 저 집은 저거 누계가 지엇이니?”

허난.

“강태공 서목시가 지엇수다.”

“혼저 불리오라.”

불러단,

---

1110) 경헌디: 그런데.

1111) 춤 불란: 춤 문혀서

1112) 똥 환: 똥어서.

1113) 곱안: 숨어서.

1114) 오곶: 곧. 즉시.

1115) 문딱: 모두.

1116) 곱아불어신디: 숨어버렸는데.

1117) 들도: 달리지도.

1118) 기도: 기지도.

1119) 그류왕: 가려워서.

“저 집 지을 때에 너, 지동<sup>1120</sup>) 몇 개 세웠느냐?”

허난

“스물네 지동을 세웠수다.”

허난

“흔저 세어보라. 느 세운 거 맞으냐?”

세단 보난 굴목<sup>1121</sup>)에 공깃지동<sup>1122</sup>)은 안 세운 거라. 스물다섯 개가 잇인 거라.  
지동이.

“굴목에 공깃지동은 아니 세웠수다.”

허난. 염라왕은 벌써 짐치원이 그걸로 변장 헨 간 걸 알앗주게. 경 허연.

“툽 앓아단<sup>1123</sup>) 싸불라<sup>1124</sup>)”

허연. 툽 앓단 싸가난, 즈짓피(紫朱血)가 불끗허게<sup>1125</sup>) 나난, 관디 [冠帶] 섭으  
로 확 닦아부난 별건헨 거 아니. 이디 필 닦아부난. 게난 그 법으로 우리 심방덜  
토 큰긋허영 염라왕 청허는 곳 헐 때는 홍색, 홍포관디를 입어야 염라왕을 청허는  
거고. 이젠 짐치원이 나오난, 염라왕 허는 말이,

“어떻헨 일로 날 청헐디가?”

허난.

“아이고, 스실 [事實] 은 야카야카허연 과양생이네 이만저만 허난 청헐수덴.”

허난,

“과양생이네 불러들이렌.”

허연 불러오난,

“너네 애기덜 어디 묻엇느냐?”

허난

“앞बाट, 뒷बाट 출병헐수다.”

“겐 팡 보라.”

간 팡 보난. 애기랑 말앙 아무것도 엇어 편편이라.

“영 헤도 바른말 못허것느냐?”

허난

“아이고, 우린 양 죄엔 현건 양 손톱만이도 죄가 엇수다.”

---

1120) 지동: 기둥.

1121) 굴목:방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주식의 아궁이.

1122) 공깃지동: 벽장 위에 가로 건너 자른 나무를 받치는 기둥.

1123) 앓아단: 가져와서.

1124) 싸불라: 잘라버려라.

1125) 불끗허게: 발긋하게.

허명 하도 허난.

“경 허민. 알았저. 어른, 아이 막론허고 이 동네에. 이 고을에 사람덜 족박들은 이 함박들은 이 문딱 나오렌.”

경 헨. 주천강 연화못 그 버물왕 아들들 드물화분<sup>1126)</sup> 물을 다 푼 거아니. 경 허연 다 푸단 보난, 빼만 슬그랑허게<sup>1127)</sup> 남은 거라 애기덜이. 염라왕이 서천꽃밭<sup>1128)</sup> 도올란<sup>1129)</sup> 피 오를 꽃, 솔 오를 꽃, 오장 오를 꽃, 사름 생길 꽃, 말 골을 꽃. 이제 꽃을 문딱<sup>1130)</sup> 사름 생길 꽃을 푹푹푹푹 꺾어다 놓안. 츠레데로 놓안 송악낭<sup>1131)</sup> 막데기로 연 세번 착착 후리난, 애기덜이 와들레기<sup>1132)</sup> 일어나명 “아이고, 봄 즈이라 너미<sup>1133)</sup> 자젓우다.”

허난, 염라왕이 울면서

“설운 애기덜아, 느네덜 물 아래 누원 얼마나 고생 하영 헤엿이니. 혼저 보고픈 어멍국도 좇앙 가라, 아방국도 혼저 좇앙 가라.”

경 헨 이젠 보내 났.

“너네덜 영 헤여도 바른말을 못 허것느냐?”

과양생이네 두가시<sup>1134)</sup>를 쉼베<sup>1135)</sup>로 묶은 거라. 일곱 쉼베 아홉 장남을 거느린 벌통 돌아메고 허연, 벌통 또꾸망에 돌아메고 허연. 그냥 물에, 쉼베 튀어가민. 벌은 왕~허민 그냥 막 놀려들영 허명. 가시덤불마다, 돌갈퀴마다 그냥 하도 꽃언 땡기단 보난. 문딱<sup>1136)</sup> 갈기갈기 찢어지단 남은 건 빼만 슬그랑허게<sup>1137)</sup> 남아서.

“야, 이 동네에 열, 칠 팔세 난 애기씨덜 힘때 좋다. 혼저 이레 모이렌.”

허연. 굴묵낭<sup>1138)</sup> 방에 난 독독 못안<sup>1139)</sup>. 거품 불언 푸~허연 불려부난. 여름웨 민 모기가 웨고, 칠팔월에 극다기<sup>1140)</sup>가 웨언. 산 때도 사름을 뱃경 먹언게, 죽어

1126) 드물화분: 넣어버렸던

1127) 슬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빼만 남아 있는 상태.

1128) 서천꽃밭: 환생(還生) 꽃 멸망(滅亡) 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1129) 도올란: 올라가서.

1130) 문딱: 모두.

1131) 송악낭: 두릅나뭇과의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

1132) 와들레기: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

1133) 너미: 너무.

1134) 두가시: 부부.

1135) 쉼베: 마소에 짐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조금 굵직하고 기다란 참바.

1136) 문딱: 모두. 전부

1137) 슬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빼만 남아 있는 상태.

1138) 굴묵낭: 느티나무.

1139) 못안: 쪼아서

1140) 극다귀: 각다귀

도 사름 피 뽕앙 먹어. 경 허연 모기 몸으로 이젠 환생을 시기난. 이젠 염라왕은 가젠 허난. 일곱 쉼에 아홉 장남, 과양생이네 꾀언 땡겨난 거.

“아이고, 우린 사름 죽여놔젠 허연양. 어디가민 붙여주지도 안허고 경 허난. 우린 어디 강 얻어먹읍네까?”

허난.

“너네랑 사름 죽영 귀양풀이 혈 때랑 큰 상 알로, 일곱 신앙 아홉 귀양으로 얻어먹으라.”

헤 된. 이젠 가젠 허난. 염라왕이 짐치원 ㄱ라,

“강림이 나 들앙 강 쓰쿠다.”

“어딜 말잇과?”

허난

“저승 강 마씀게.”

허난

“아이, 우리 이승도 똑똑헌 사름 잇어사 혈 거 아니파?”

허난.

“아이고, 경 허건양, 우리 하나씩 갈랑 가집주.”

“어떻 사름 하날 낱 두 개로 갈릅니까게.”

허난

“날랑 저승 가명 혼을 빼영 가크메, 짐치원이랑게 몸천 앓입서.”

허난. 짐치원은 혼 일은 생각하고, 두 일은 생각 못 허연

“예.”

허연. 대답을 헤 분거라.

계난 염라왕은 저승 가명 강림이 혼정 뺄 가분거 아니. 혼정 뺄 가부난. 이젠 연단 우이 오고생이<sup>1141)</sup> 사난.

“야, 박포수야. 저디 강 강림이 ㄱ라 들어보라. 저승이 어떻 헌 디라니 혼 번 들어보라.”

허난. 간.

“야, 강림아, 야, 강림아, 헤도 편편. 대답도 안허여. 저 강림이 봅서. 저거 저승 갓다오고렌 큰양 험양 대답도 안 했수다.”

“그 새끼 이제부떠 경 큰양 헤염 건 아그랑 작데기 자락 거러밀려불라 뒤여지게.” 허난 아그랑 작데기 톡허게 건드난, 헛드랭이<sup>1142)</sup> 갈라지명 코로 귀로 쉬푼

---

1141) 오고생이: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꼴. 흩어짐 없이 고스란히.



리<sup>1143</sup>) 뽕뽕뽕뽕 허는 거 아니.

“아이고, 죽었수다. 죽었수다.”

허난. 이젠 큰각시한테 연락을 해야 뉘겐. 큰각신 어느 제민 해결 해여된 왕, 젊은 때엔 각시만 얻영 땡기명 즈들리완게<sup>1144</sup>) 이제 나이드난 즈들리지 안허영 살 건고. 바농 허연 손으로 옷 땡들단. 편지가 온 걸 깐 보난. 죽었젠 현 편지라.

“아이고, 나 노릇이여.”

막, 구들에서 지만 누원 둥글명 올고, 막 누원 둥그는게 상방 다 누원 둥글고, 마당까지 가난. 확 생각허난 이거 누게

‘거짓말 허연 허지 안했인가? 귀 소문 말앙, 강 눈 소문 허연 눈으로 강 봐사주 겐.’ 허연. 확 일어난 가젠 허난 머리가 이만이 헛거라. 막 누원 둥글어부난. 머리 확확 영영 허연. 영 허연 이거 무신 걸로 묶언 가코 허연 보리낭 확 둥건 영 묶으난 확 끊어져부는 거라. 산디짚(山稻) 확 둥건<sup>1145</sup>) 묶으난, 산디짚으로 묶으난 뉘는 거라. 질건. 게난 그 법으로 옛날은 사름 죽영 성복(成服)허기 전인, 산디짚 허영 머리 묶어근엥에 우리 상제덜 경 험 땡겨난 법 마련허고. 간 보난 진짜로 죽은 거라.

“우리 낭군 무신 거 잘못 허영 죽입디가. 저승을 가렌 허난, 저승을 아니 가십디가. 염라왕을 잡혀오라 허난, 염라왕을 아니 잡혀 오라십디가. 무신 일을 잘못 허영 죽었수가. 누게 나상 말을 험서.”

헤도 아무도 안 나사는 거라. 게난 강림이 큰 각시가 그때에 그냥 아멩이라도<sup>1146</sup>) 영장도 헤 불었이민 지금도 험겘. 그때에 초수렴(初小殮)도 허여도 섭섭허다. 정수렴(中小殮) 허여줘도 섭섭허다. 이제 대수렴(大小殮) 헤여줘도 섭섭허다. 호상<sup>1147</sup>) 허연 문딱 입전 입관허여도 섭섭허다. 아이고, 이젠 또 그거 헤줘나난. 복 옷덜 문딱 이제랑 갈라 입지주겐, 복 옷덜 갈라 입저 줘도 섭섭허다. 이젠 성복제(成服祭)허여도 섭섭허다. 이젠 그거 헤나난 일포(日晡) 헤여줘도 섭섭허다. 동관(動棺)허연 산에 가명 소리들 내걸쳐 어양어양허명 이제 소리허영 내영 가도 섭섭허다. 산에 간. 먹술 놓안, 땅을 판 그레 하관허여도 섭섭허다. 달귀지는 소리를 헤 봐도 섭섭허다. 모든 걸 허여도 섭섭허는 거라. 겐 테역단풍<sup>1148</sup>) 고사리 이

1142) 헛드랭이: 덩글랑이. 땡강. 덜렁.

1143) 쉬팍리: 똥파리.

1144) 즈들리완게: 걱정시키다.

1145) 둥건: 당겨서

1146) 아멩이라도: 아무렇게나

1147) 호상: 수의(壽衣)

1148) 테역단풍: 단풍.

불 뒤어도 섭섭하다. 산담 해봐도 섭섭하다. 겐 집이 완 초우제(初虞祭), 이우제[再虞祭], 삼우(三虞) 졸곡(卒哭)까지 허여도 섭섭하다. 상식(常食)허여도 섭섭하고, 이젠 초하루 보름허여도 섭섭하고, 뭘 허여주면 나 ㅁ음이 풀어지코. 대소기(大小忌) 다 허여도 섭섭하고, 팔월 십오일 돌아와 가민 산에 금벌 해 주젠 벌초 해 줘도 섭섭하고. 다 넘으난. 석 들 열 흘 백일 뒤난 담제(禫祭) 허여도 섭섭하고. 그 법으로 지금도 식게 [祭祀] 멩질로부터 사름 죽으면, 쪽 내려오는 것부터 식게 멩질 허는 것까지 이게 강림이 큰각시가 내운 법. 하도 못살안 원이 지난. 경 허연 현디. 저승에서는 이제 염라왕이 적배지 [赤牌紙] 주멍

“강림아, 이거 앓앙이. 인간에 강. 백난 하르방, 백난 할망으로부터 츠레츠레 들 앙오렌.”

허난. 강림스제가 똑바로 그걸 갓엿 와불엇이민 지금도 우리가 츠레츠레 백난 하르방, 백난 할망으로 츠레부터 갈 걸. 앓안 오노렌 허난 일곱 까메귀가 강골강골 막 또꼬망에 좇안 멩기멍

“강림스제님아, 강림스제님, 걸엿 강 올거민 우리 젓늘게<sup>1149)</sup> 붙여주민. 늘게<sup>1150)</sup>에 붙엿 놀앙이나 강 오쿠텐.”

하도 허난.

“게문 너네 이거 붙여 주크메 놀앙 강 오라.”

허연 붙여 주난. 그거 젓늘게에 콸언 오논디 물 잡는 밧이 잇어. 물 피나 혼굴 레썩 언어먹엿 가젠 간. 오독오독 담 우이간 앓으난, 물 잡던 도하닌<sup>1151)</sup>이엔 현 피쟁인 물 발통을 꿇언 혹 데끼난, 지네<sup>1152)</sup> 맞헝시카부텐<sup>1153)</sup> 퍼딱 ㄴ는 게, 좇쟁이<sup>1154)</sup>에 콸엇던 건<sup>1155)</sup> 털어져분거야니. 게난 이젠 물 잡던 피쟁인 그걸 봉간 보난. 아이고, 사름 잡으레 가는 적배지라. 이거 무서운 거엔 칼을 박박 썰언 혹 데껴부난, 뱃것돌<sup>1156)</sup> 알로, 구렁인 데끼거니, 맞히거니 확 나완 움쩍 들러먹으난. 까메귀 인간에 가 보난 적배지가 엿언. 이제 물 잡는 밧던 가보난 구렁이가 그걸 먹엿어.

“나 적배지 드라. 나 적배지 드라.”

암만해도 구렁인 들도 뵈도 아니헝 그걸 먹어불언. 구렁인 글 쓴걸 먹어부난 열

---

1149) 젓늘게: 앞날개.

1150) 늘게: 날개.

1151) 도하닌: 하인.

1152) 지네: 자기네.

1153) 맞헝시카부텐: 맞히는 줄 알고.

1154) 좇쟁이: 겨드랑이.

1155) 콸엇던 건: 품엇던 것은.

1156) 뱃것돌: 밖에 있는 돌.

룩얼룩 허고. 이제 까메귀허고 구렁인 서로 보민 살부지<sup>1157)</sup> 원수라. 막 서로 그  
냥 까메귀가 까까까작 허연. 이제 그거 일러부난, 인간에 보난 열, 칠팔 세 난 청  
비발<sup>1158)</sup> 애기씨가 물 질레<sup>1159)</sup> 물허벅 지언 왓이난

“어른 갈 때 아이가라. 아이 갈 때 어른가라.”

까메귀들은 까악까작 울어가난

“흔저 글라, 저싱 가게.”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강 곱서. 백난 하르방도 잇고, 백난 할망도 잇수다.”

허난

“흔저 강 보내라.”

허난. 강.

“할아버지, 저싱 갑서.”

“난 말다.”

“할망, 저싱 갑서.”

“난 말다. 저 살단 가키여.”

아무도 저승은 안 가켄 허는 거라. 게난 애기썬 앓안 삼동냥 용얼레기<sup>1160)</sup>로 머  
리 빗어 가가난. 일곱 가메꾼 상고박<sup>1161)</sup>더레 오란 혼정을 뺀 저승을 가분거 아니  
파. 겐 저승 가부난. 비는 축축허게 오고, 염라왕은 초군문이나 돌아보주긴<sup>1162)</sup> 허  
연. 초군문을 돌단보난 열 칠팔 세 난 애기씨가 열 손가락 눈에 뒹언 비새ㄱ썬 우  
는 거라.

“넌 누게가 되느넌?.”

허난

“난, 열 칠팔 세 난 애기씨로써 저승에, 인간서 명졸란 왓수덴.”

허난. 이젠 강림이 불러단

“강림아, 나 저추룩<sup>1163)</sup> 세파랑 현<sup>1164)</sup> 애기씨 들앙오렌<sup>1165)</sup> 헤냐? 백 난, 하르  
방 할망 돌아오렌 헛주. 저추룩 세파랑 현 애기씨 돌아오렌 헤냐?”

1157) 살부지: 살부지수(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말함.

1158) 청비발: 청비바리. ‘비바리’는 조금 성숙하나 아직 미혼인 여자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

1159) 물 질레: 물 길러.

1160) 삼동냥 용얼레기: 삼동나무로 만든 용 모양의 빗.

1161) 상고박더레:머리의 가운데 정수리 부분

1162) 돌아보주긴: 돌아봐야지.

1163) 저추룩: 저렇게.

1164) 세파랑 현: 나이 어린의 뜻임.

1165) 들앙오렌: 데려오라고.

허난

“일곱 까메귀를 쫓습네다.”

까메귀 돌아오렌. 까메귀 와가난 그자 대번칙이<sup>1166)</sup> 부에 난거라. 귀 심언 탁 치난, 귀도 오꼴 빠져불언. 까메귀 귀 었어. 빠 부난. 귀도 오꼴 빠져불고. 송악낭 막데기로 그자 아랫저고리 세와난 하도 두드려부난, 갈아분 밧디 넘어가젠 허민 앙글즈침<sup>1167)</sup>. 메 두드려부난게, 종아리 두드려부난, 앙글즈침 허고. 멧독으로 까메귀는 꺼멍허고.

“너네 경헐 때 누게 밧느냐?”

허난

“똥수레기<sup>1168)</sup>도 밧우다.”

“똥수레긴 어디 갓느냐? 심어 들이렌.”

똥수리도 오난

“너, 큰큰헐 몸천에 그거 혼디 인도 못헐느냐. 너 이놈이 새끼, 넌 돌르게<sup>1169)</sup> 물도 못 빨아먹게.”

진진헌 주둥이<sup>1170)</sup> 복허게<sup>1171)</sup> 모지리멍

“넬랑 물 먹구정허민 뽕도로록 뽕도로로록 비 청허영 터럭<sup>1172)</sup>에 물이나 빨아먹영<sup>1173)</sup> 살아라.”

경 허연 범지법을 마련 허난. 일곱 까메귀도 반쳐스가 돼영, 아침이 우는 까메귀는 어린아이 돌고 갈 까메귀, 낮이 우는 까마귀 젊은 사름 들양 갈 까메귀, 저녁 때 우는 까메귀는 늙신네들<sup>1174)</sup> 돌고<sup>1175)</sup> 갈 까메귀. 또, 낭에 보면 높은 상가지(上枝)에 강 앓양 올면 그 일가 방답<sup>1176)</sup>에 상가지 즈순 돌고 갈 까메귀. 중가지 앓으면 중가지 즈순, 하가지 앓으면 하가지 즈순 돌고 갈 까메귀. 서로 마주 보명 까웁까웁 막 허민. 싸움헐 까메귀, 테 짓영 막 텅기는 건 브름 까메귀. 계난 까메귀 하도 두드려부난 데가리가<sup>1177)</sup> 멧청허기 때문에, 먹을거 허영, 이젠 어디

---

1166) 대번칙이: 단박에.

1167) 앙글즈침: 엉거주춤하다.

1168) 똥수레기: 술개.

1169) 돌르게: 구멍 따위를 둥그렇게 파낸 곳.

1170) 진진헌 주둥이: 긴 입.

1171) 복허게: 빠른 움직임으로 찢어 없애는 꼴이나 그럴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꼴.

1172) 터럭: 털.

1173) 빨아먹영: 빨아먹고.

1174) 늙신네들: 늙은이들.

1175) 돌고: 데리고.

1176) 일가 방답: 일가 방상(같은 성씨로 이루어진).

1177) 데가리가: 머리가.

초가집들 엮이난 허주만은, 초가지붕 우이 강. 팡 그디 묻어 텡, 구름끼엿, 구름  
넘어가불민<sup>1178)</sup> 구름만 좇앙<sup>1179)</sup> 간 엉뚱헌디<sup>1180)</sup> 지붕 강 다 파불고, 경 허연 일  
곱 가마귀는 이제 또, 급허게 밤중에 우는 까메귀는 살인역적 날 까메귀엔 허영,  
까메권 반 처스(差使)가 되는 법입네다. 다 풀엇습네다.

---

1178) 넘어가불민: 넘어가버리면.

1179) 좇앙: 찾아서.

1180) 엉뚱헌 디: 엉뚱한 곳에.

## 문전 본풀이

이번에는 들 적<sup>1181</sup>)에도 문전(門前), 날 적<sup>1182</sup>)에도 문전(門前), 우리가 들어올 때도 앞이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현관으로 나가고, 계난 현관을 보고 옛날 어른들은 문전(門前)이라고 합니다. 현관이, 계난, 들 적 문전(門前) 날 적 문전(門前). 계난 문전본(門前本)인데.

옛날이라 옛적에, 남선고을은 남선비 생원(生員)이 살고, 여산국에 부인님이 살앗인디, 부베간<sup>1183</sup>)을 삼안. 아이, 애기사 낳는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낳단 보난, 아들 놈만 일곱 개를 난 거라. 겐 나난, 애기덜 일곱 개 허고, 부베간 허곡 허든 아홉 식구 아니. 아홉 식구 먹영 살젠 허난 무시거 잇어. 가난허고, 서난허고<sup>1184</sup>), 가난공서<sup>1185</sup>) 헤노난. 이제 남선비 생원(生員)은 곡철곡썰<sup>1186</sup>) 거느령 남박<sup>1187</sup>)에 남신<sup>1188</sup>)을 팡 그걸 폴앙 그날 그날 쫄 받아당 구명도식 [求命圖食] 을 헤영 살아가난,

하도 가난허고 허난, 남선비 생원(生員)이 생각을 허기를,

“여산국 부인님아, 경 말앙, 나가 제주도에서 나는 소산지(所產地) 제물을 실령 육지 강 그거 폴앙<sup>1189</sup>) 쫄 받안, 계난 무곡(貿穀)이나 지어당 우리 식구들 살아가는게 어떻허우파?”

허난.

“어서 걸랑 기영 험서.”

허난.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sup>1190</sup>)에 올란 곶은 낭을 비어단, 풍선을 지은 거라. 풍선, 초석 들안<sup>1191</sup>), 겐 풍선 지어 놓고, 제주서 나는 소산지(所產地) 제물은 뭐 산으로 가민 버섯이여, 초기여. 또 중산층으론 텡유지나 소유지 그런 거. 또

---

1181) 들 적: 들어갈 적.

1182) 날 적: 나갈 적.

1183) 부베간: 부부간.

1184) 서난허고: 서럽고.

1185) 가난공서: 가난과 관련된 일.

1186) 곡철곡썰: 나무를 파거나 후비어 내는 연모로, 긴 자루가 달려 있으며, 날은 휘어져 있음.

1187) 남박: 나무로 만든 바가지

1188) 남신: 나무로 만든 신발.

1189) 폴앙: 팔아서.

1190)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아주 깊은 산을 뜻함.

1191) 들안: 달아서.

해각<sup>1192)</sup>으로 가든 저 소섬, 건미역 장광미역, 그 팡 엇인 거. 그런 것들 헤영 옛날 임금님안티 바쳐난 거난<sup>1193)</sup> 그런 걸 헤영 전배독선<sup>1194)</sup> 잔뜩 실런 나가젠 허난, 여산국 부인 허는 말이,

“아이고, 생원(生員)님아, 경 허당 저 시퍼렁헌 바당을 건너가곡, 건너오명 만약에 사름 일은 몰란, 당신네 안오민 이 노릇을 어떻허민 좋읍네까? 어떻허영 소문 기별은 들읍네까?”

허난

“경 말앙, 나가 나강 삼 년이 돼어도 아니 돌아오건 춤썰<sup>1195)</sup> 혼 제 허영, 이제 사발에, 은사발에 이제 쫄 농곡 허영 허곡, 삼동낭 용얼레기<sup>1196)</sup>를 그것에 묶영 경 허영 바당에 드리쳐 보민 내가 살앗이민 아무것도 아니 올라오고, 만약 죽엇이민 삼동낭 용얼레기에 나 머리턱<sup>1197)</sup>이라도 하나 올라왓걸랑 바당에서 죽엇구나 생각을 허렌.”

경 굴아된<sup>1198)</sup> 돛 돌아왓언<sup>1199)</sup> 벤 나간 거 아니. 겐 나간 우리 제주도 바당을 넘어서젠 허난, 이 바당 저 바당을 당허난 그자 모진 광풍이 앓아당 불고 막 비브름<sup>1200)</sup> 치고, 하늘이 그자 남숫두쟁이<sup>1201)</sup>만이 데싸젓당 갈라젓당 헤가난 남선비 생원(生員)은 앓안,

“더 바랄딘 엇고 맹천 [明天] ㄹ쁜 하늘님아, 요왕님아 선왕님아, 날 살려 줘서.”

경 험 축원허명 허단 보난, 브름에 치데견<sup>1202)</sup> 성창머리<sup>1203)</sup> 붙인딘 보난,  
“여긴 어딘고?”

헝영 강 보난, 오동나라 오동ㄹ을이라. 겐 그디 강 성창머리 내런, 벤 묶어두언. 이젠 베고프고 시장허난 주모 집이 간, 주모 할망신디 간, 밥, 옛날이난 국밥 정도 사 먹어앗언. 보난, 그 장시허는<sup>1204)</sup> 사람이 노일저데귀일 뜰이라.

게난, 그디서 그 베에 식경간 거 다 풀아사 쫄로 바팡 올건디, 이 날 저 날 행

1192) 해각: 해춘.

1193) 바쳐난 거난: 바친 것이어서

1194) 전배독선: 한배 가득.

1195) 춤썰: 명주썰.

1196) 삼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빗.

1197) 머리턱: 머리털. 머리카락.

1198) 경 굴아된: 그렇게 말해두고.

1199) 돌아왓언: 달고서.

1200) 비브름: 비바람.

1201) 남숫두쟁이: 나무로 만든 솔뚜껑.

1202) 치데견: 치울려서.

1203) 성창머리: 배를 매는 곳.

1204) 장시허는: 장사하는.

살단보난 노일저데귀일 뜰 호탕에 들언 전배독선 식거간 거 문딱 풀안. 그디 서다 먹어분 거 아니. 게난, 이젠 갈 데 올 데도 엇고 허난, 노일저데귀일 뜰허고 부배간이 뵈 거라. 경 험 부배간이 뵈영 살아부난, 그거 폰<sup>1205)</sup> 돈은 문딱 두어 바둑 두어 장기 두멍허연 노일저데귀일 뜰 호탕에 빠지난 다 엇어져 불고, 먹을 거 엇이난 체죽<sup>1206)</sup>만 부루 썩 줘부난, 그거 먹단 보난 오꼴<sup>1207)</sup> 안명천지 [眼盲天地] 눈 어둑어분 거라. 겐 눈 어둑어부난

이젠 고향에선 아들들은 커가난,  
“어머님아, 우리 아버지 어디 갓우파?<sup>1208)</sup>”

허난.  
“느네 아버지 느네들 먹영 살리젠이 무곡치레<sup>1209)</sup> 간 아니오랴저.”  
허난.

“아버지 갈 때 무시거 곶은<sup>1210)</sup> 말은 엇우파?”  
허난.  
“이만이만 허영 삼동냥 용얼레기 디들리와 보렌<sup>1211)</sup> 곶아라.”  
허난.

“느네들 경 말앙이, 초신<sup>1212)</sup>을 혼 사름이 하나씩 날 삼아 도라.”  
허연. 이젠 초신을 하나씩 삼안 어머님 안네난, 으섯 벤<sup>1213)</sup> 등에 지고, 혼 베<sup>1214)</sup>는 밭에 신고, 겐 성창머리를, 밤인 뵈민 춘 느룻<sup>1215)</sup>에 낮인 뵈민 뵈트 맞이  
멍 이젠 춤쉴 혼 제에 삼동냥 용얼레기 헤영 바당더레 데끼멍

“설운 낭군님아, 살앗건 혼저 오고, 죽엇건 머리턱이라도 하나 올라 읍서.”

허연 데껴두언<sup>1216)</sup> 그 신발이 다 끊어지게 성창머릴 바라들고<sup>1217)</sup> 바라나단 마지막 날은 건전보난 머리턱이랑마랑 아무 것도 엇인 거라. 엇이난 아고 살앗구나, 아들들 일곱 성제가

---

1205) 폰: 판.

1206) 체죽: 겨죽.

1207) 오꼴: 곧. 즉시.

1208) 갓우파?: 갓습니까?

1209) 무곡치레: 貿穀하러.

1210) 곶은: 말한.

1211) 디들리와 보렌: 넣어 보라고.

1212) 초신: 짚신.

1213) 으섯 벤: 여섯 켄레는.

1214) 혼 베: 한 켄레는.

1215) 춘 느룻: 가을이나 겨울철,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춥게 느껴지는 찬 기운.

1216) 데껴두언: 던져두어서.

1217) 바라들고: 걸어 다니고.



“어머니, 경 말앙. 어머니가 베를 우리가 짓어 노커메<sup>1218)</sup> 그 베 탕 혼 번 강은  
에게 우리 아바질 좇앙 읍서.”

허난.

“경 허렌.”

허연. 겐 아들들 일곱 성제가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짚은 곳디 간 곧은 낭  
비어단 베를 짓으난 또 풍선을 지어논거주. 경 헨 지영

“어머님아, 아바님 잘 좇앙 읍서.”

허난. 또 여산국 부인님도 베 탕 가젠 허난, 꼭 그 자리에 가난 이 바당광 저  
바당에 가난 모진 광풍이 불언 막 데싸젓닥 갈라젓닥<sup>1219)</sup>

“아이고, 멩천(明天)ㄴ쁜 하늘님아, 날 살려 줍서. 요왕님아, 선왕님아, 살려 줍  
센.”

허연. 벤 앓앙 성창더레 치데기난<sup>1220)</sup>, 이젠 닷줄은 메여두고 내런, 성창머릴,

“이디, 어디나 오라젓인고?”

허연. 성창머릴 바라난 가노렌 허난, 지장밭 [黍田] 디 새 드리는<sup>1221)</sup> 애기씨들  
이, 지네 놀레주게, 지네 놀레로<sup>1222)</sup> 부르멍

“아이고, 요 새 저 새, 밥주리<sup>1223)</sup> 옥은<sup>1224)</sup> 새야, 너미 경 옥은 척 허지 말라.  
요 남선비 옥은 깬에도 아이, 못인<sup>1225)</sup> 그물에 들언, 노일저데 호탕에 빠전 전베  
독선 다 폴아먹언 체죽만 먹단 보난 안명천지 뒹엇젠. 주어 저 새!”

허멍. 지장밭디 새 들을 드렸어<sup>1226)</sup>. 그걸 놀레로 부르멍. 게난 그땐 여산국 부  
인님이 허는 말이, 퍽허게 산

“야, 설운 애기덜아, 니네들 아까 곁은 말 다시 한번 곁아 보라.”

허난

“우리 아무거옌도 아니 곁앗우다<sup>1227)</sup>.”

허난

“금방 곁은 말 곁아보라. 나이 느네 땡기 ㄴ슴<sup>1228)</sup> 주마.”

1218) 짓어 노커메: 지어 놓을 테니.

1219) 데싸젓닥 갈라젓닥: 뒤엎어지다가 바로 되고.

1220) 치데기난: 치올리니.

1221) 새 드리는: 새 쫓는.

1222) 놀레로: 노래로.

1223) 밥주리: 잠자리.

1224) 옥은: 역은.

1225) 못인: 묶은(結).

1226) 드렸어: 쫓고 있어.

1227) 곁앗우다: 말하였습니다.

1228) 땡기 ㄴ슴: 땡기를 만드는 천, 옷감.

허난. 곤는 건 보난 그 말이라. 안명천지 뒤텔젠 허난

“그디 가젠 허민 어디 가민 가느니?”

허난

“요 제 녀고 저 제 녀곡 행 강 뵈서. 비주리 초막<sup>1229)</sup>에서양 체죽단지<sup>1230)</sup> 윽뎡이<sup>1231)</sup>에 찬 개 다울리멍 앓앗우다.”

아닌게 아니라, 요 제 녀고 저 제 녀영 가단 보난, 거적문에 웨 돌체기<sup>1232)</sup> 하나 돌아 놓고. 아이고, 난간에 앓안 체죽단진 윽뎡이에 창 앓곡, 눈은 안명천지 뒤텔부난 막뎡이<sup>1233)</sup> 들런, 그 개 왕 먹어불카부텐게<sup>1234)</sup>, 체죽 먹어불카부텐 개 다울리멍<sup>1235)</sup> 앓아서. 겐 여산국 부인님이 들어사멍

“아이고, 녀어가는 사름이우다만은, 저 집이나 흐꿈만<sup>1236)</sup> 빌립서.”

허난에

“아이고, 우리 집을 뵈서. 어느거 빌리곡테곡, 어느거 주인 앓고, 어느 거 나그네 앓을디파?”

게난

“나도양, 고향 산천가믄 집도 잇곡 절도 잇곡, 다 잇우다. 경 허주만은 이거 웨 방 나와부난에, 경 허건양 저 솟이라도 혼번 빌립서. 나 밥이나 혼 때, 베고판 밥 혼때만 행 먹영가쿠다.”

허난.

“그걸랑 경 험서.”

허난. 정제에<sup>1237)</sup> 간 솟두쟁인<sup>1238)</sup> 올안 보난, 하도 체죽만 썩 먹어나난 체죽으로 ㄱ득은<sup>1239)</sup> 거라. 게난 앞बाट 들어들언 삼수세기<sup>1240)</sup> 허여단 박박허게, 솟을 이젠 혼불 두불 연시번 서너번을 막 뎡불<sup>1241)</sup> 찢어두언. 시양삭삭<sup>1242)</sup> ㄱ은 쓸,

---

1229) 비주리 초막: 아주 작은 초막.

1230) 체죽 단지: 겨죽 단지.

1231) 윽뎡이: 옆구리

1232) 웨 돌체기: 외 돌찌귀.

1233) 막뎡이: 막대기.

1234) 먹어불카 부텐게: 먹어 버릴까봐.

1235) 다울리멍: 내쫓으면서.

1236) 흐꿈만: 조금만.

1237) 정제에: 부엌에.

1238) 솟두쟁인: 솥뚜껑이느.

1239) ㄱ득은: 가득한.

1240) 삼수세기: 한삼 덩굴.

1241) 뎡불: 다섯 번.

1242) 시양삭삭: 몹시 흰.

준둥이 진 ㄱ은 쫄 초불 두불 연 시변을 씻언 솟디 놓안, 불낙시건<sup>1243)</sup> 밥 허연 반찬 출리고 경 허연, 이젠 상에 들런 남선비신디 들렁 간 거라.

“주인님아, 주인님아, 이 밥이나 자셔 봅서.”

허난에

“아이고, 나는 아이 먹쿠다.”

“아이고, 문전 므른 공서가 잇이멍 주인 므른 나그네가 잇입네까. 게도 주인이 먹어봐사 나그네도 먹을 거 아니파.”

허난.

“경 험서.”

허연. 혼 순고락을 폭허게 떼, 거련<sup>1244)</sup> 입더레 노난, 아이고, 눈물은 다룩다룩 알더레 털어전 막 밥 입에 물어둬서<sup>1245)</sup> 운거라. 게난 여산국 부인님 허는 말이,

“주인님아, 어떻 허난 경 울었우까?”

“아이고, 나도양 옛날엔 이런 밥도 먹어나고양 이런 반찬도 먹어놏우다.”

울명도, 경 곱으난,

“게건 옛말이나 곱아봅서<sup>1246)</sup>.”

“아이, 옛말 모름네다.”

“본말이나 곱아봅서.”

“본말도 모름네다.”

“게건, 살아 온 말이나 곱아봅서.”

허난. 영 곱는 거 보난, 난 남선고을 남선비고양, 우리 안부인은 여산국 부인이 고 고향 산천서 애긴 낳는게 아들 일곱 성제 나부난, 먹을 거 엇영 무곡(貿穀)지레 오랏단 노일저데귀일이 뜰 호탕에 빠지언 나 신세가 영 돼엿우다.“

허난. 그땐 여산국 부인님이 놀려들언 손을 폭허게 심언 둘이가 막 우는 거라.

“나가 여선국이우다. 나, 당신님 좇안 물 넘으멍 산 넘으멍 이깁지<sup>1247)</sup> 오랏우다.”

젠 막 우노렌 허난, 노일저데귀일이 뜰은 이녁은<sup>1248)</sup> 하루 간, 때 삼시 어디 큰 일 허는 집이 간 뽕그랙이<sup>1249)</sup> 얻어먹고, 남선비 나신<sup>1250)</sup> 네무련<sup>1251)</sup> 그 체 혼쥘

---

1243) 불낙시건: 불을 놓아서.

1244) 거련: 거러서.

1245) 물어둬서: 입에 문 채로.

1246) 곱아봅서: 말해보세요.

1247) 이깁지: 여기까지.

1248) 이녁은: 자기는.

1249) 뽕그랙이: 배가 불룩하게.

1250) 나신: 뉘은.

빌언 치멧깍<sup>1252</sup>)에 놓안 흥글흥글 허멍 집이 오는 거주게. 젠 오단 보난 물론 여자하고 손들 심영 막 올멍덜 손 심영 앓은 거 아니. 들어오멍

“이, 개 ㄱ튼 놈아, 쉼 ㄱ튼 놈아, 질레에<sup>1253</sup>) 넘어가는 질칸나이 년덜<sup>1254</sup>) 심어 놓아 히약가십<sup>1255</sup>) 뉘일러나. 날랑 더운 땀 흘리멍 너눔 먹을 거 강 빌레 텅기 당보건 너눔은 집이 앓앙 허는 것이.”

막 욱을 허는 거라. 계난 남선비 허는 말이,

“아이고, 경 현게 아니고, 나 고향산천에서 큰부인이 나 좇앙 오랏젠.”

허난. 아이고, 그땐 엇인 언강<sup>1256</sup>)에

“아이고, 경 헛수까. 성님아, 성님이우파? 성님인 거 나 몰란양 나 잘못헤졌우다 게.”

허멍 막 엇인 언강 헨. 이젠 막 헤된.

“아시야, 이런 남편 모성 살젠 허난 고생 헤엇저. 고생 하영 헤엇저. 저 정지예 간 보라. 나 밥 헤여된 거렁 남은 거 잇이메<sup>1257</sup>) 그거 밥 먹으라.”

간 보난, 헤영현<sup>1258</sup>) 밥 행 왓이난,

‘아이고, 고향에선 영 잘사는 사름이로구나.’

밥은 먹으멍 벌써 음흥현 므음이 난거라.

‘저 년을 죽여불어사 나가 고향에 강 안구들<sup>1259</sup>)도 나 츠지허고, 고평간도 나 츠지 헤사 영 헤영현 밥을 먹을로구나.’

허연. 이젠 밥 뽕그렉이 먹어 앓언 완

“아이고, 성님아, 읍서 이디양, 이 고을에 막 좋은 주천강 연훼뭇이 잇우다. 그디 강 우리 몸모욕<sup>1260</sup>)이나 행 오게마썸.”

허난,

“성님도 오젠 허난 쯔물<sup>1261</sup>) 몸드레 지쳐실거, 나도 오늘 강 일 허젠 허난양 막 더운 땀 흘려나난 강 우리 모욕행 오게마썸.”

허난,

---

1251) 네무련: 함부로 대해서.

1252) 치멧깍: 치맛자락.

1253) 질레에: 길에.

1254) 질칸나이 년덜: 길 넘어가는 여자들.

1255) 히약가십: 농(弄)을 곁어서 놀리는

1256) 언강: 아양.

1257) 잇이메: 있으니.

1258) 헤영현: 하얀.

1259) 안구들: 안방.

1260) 몸 모욕: 몸 목욕.

1261) 쯔물: 찼물.

“경 허렌.”

허연. 몸모옥허렌 간 옷들은 벗언 즈근즈근 돌 우터레<sup>1262)</sup> 지쳐된, 물은 참방참방 모옥 허노렌 허난 노일저데귀일이 딸이 왕

“성님, 영 험서. 등에 떠나 밀어 안네저.”

허난,

“아시, 영허심 나가 밀어 주커라.”

허난

“아이고, 성님아, 우이로 내리는 물이 발등더레 진넙께게<sup>1263)</sup> 알더레 느리곡<sup>1264)</sup>, 게난, 나가 먼저 성님 등을 밀어 안네걸랑<sup>1265)</sup> 성님이랑 날 밀어 줍서.”

허난. 폭 고정 들언

“아시, 경 허심.”

허연 돌아 앓은 게 혼 번 두 번 미는체 허당<sup>1266)</sup> 세 번쩨 자락허게 밀리멍 물더레 빠져분거라 그냥. 게난, 여선국 부인은 올라오젠 영 팡들 짚어가민 떼여불고, 올라오젠 헤가민 떼여불고 험게 물에서 히단히단 지치난 죽으멍

“너 이년아, 너넨은 날 죽염다만은 우리 애기덜 일곱 성제 잇이난 너넨 그냥 내 불지 안헐 것이다.”

경 곺아뵈<sup>1267)</sup> 물더레 소로록 곺라앗아<sup>1268)</sup> 분거라. 겐 곺라앗아 부난, 이젠, 지 옷은 내불어뵈 아이고, 여선국 부인 강 벗어 놓은 옷 문딱 즈근즈근 입영 집으로 흥글흥글 오난 확 거짓말을 험거주.

“아이고, 노일저데귀일이 딸양, 행실이 궤씸허영 나 죽여뵈 오랏수다.”

원, 남선빈 목소리도 몰라시카 원.

“그넨 잘 죽엇어. 나 그넨으로 허연이<sup>1269)</sup> 나 신세가 다 동나고 나 병신<sup>1270)</sup> 뵈영 눈<sup>1270)</sup> 어둑어서.”

“아이고, 글읍서<sup>1271)</sup>. 혼저 우리 집이 가게. 우리 아들덜 기다리는 집이 가게.”

경 험 여산국 부인님 탕 간 메여 놔둔 베 잇이난,

---

1262) 우터레: 위로

1263) 진넙께게: 떨어집니다.:

1264) 느리곡: 내리고.

1265) 안네걸랑: 안내면.

1266) 미는 체 허당: 미는 척 하다가.

1267) 곺아 뵈: 말해두고.

1268) 곺라앗아: 가라앉아.

1269) 허연이: 인해서.

1270) 병신 <sup>1270)</sup>지: 병신까지.

1271) 글읍서: 갑시다.

그거 탄. 이제 고향 산천더레 오는 거 아니. 게난 아덜덜 일곱 성제는 메  
날<sup>1272)</sup> 뱃머리에 상 이 날이나 우리 아버지가 오랏인가, 저 날이나 오랏인가, 메  
날 기다리단 아, 흐를 날은 먼 바당더레 바레난, 가마귀 좇늘게 만썸<sup>1273)</sup> 가뭇가  
뭇 현 게 무시거 봐저. 겐 지네들 일곱 성제들 손그뭇<sup>1274)</sup> 들영 짓은 베<sup>1275)</sup>난 탁  
알앗주게. 경 허연 중금중금 그 베가 오는 건 보난 지네가 짓은 베라. 막둥이, 일  
곱차 녹디생이 곤는 말이

“형님네야, 아버지 어머님, 오는디 혼 번 드리<sup>1276)</sup>나 놓아보게마썸.”

허난.

“경 허렌.”

허연. 젤 큰 아덜은 갓을 벗언 드릴 놓고,

“난, 갓 벗엉 드리 놓으키여.”

둘췌 성은 망긴 벗언 드릴 놓고, 세췌 성은 두루막 벗언 드릴 놓고, 넷차는 저  
고리 벗언 드리 놓고, 다섯차는 이제 행경 벗어 드리 놓고, 으섯차는 다님 벗어  
드리 놓고, 아, 일곱차 허는 말은,

“성님네들은 드릴 잘 놓았우다만은, 이네 몸은 칼선드리<sup>1277)</sup>웨다.”

허난, 형님네 허는 말은 깜짝 놀레언

“아이고, 나 동싱아, 어떻허난 아버지 어머님 오는디 칼선드리가 무시것고? 아  
시야.”

허난

“형님네야, 저디 오는 거, 나 생각인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적실현<sup>1278)</sup>거  
닭수다만은,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이 아닌 것 닭수다.”

“걸 어떻 알아지느니?”

허난,

“오걸랑 집을 문저 좇앙 갑센<sup>1279)</sup> 헨 앞이 세왕 보고 , 집이 강 우리 밥 출령  
내놓는 거 보민 알아질 도리가 이실거아니파.”

“어서 경 허렌.”

---

1272) 메날: 매일.

1273) 좇늘게 만썸: 걸날개 만큼.

1274) 손그뭇: 손금.

1275) 들영 짓은 베: 들여서 지은 베.

1276) 드리: 다리(橋).

1277) 칼선드리: 심방이 신칼 두개를 세워놓고 다리(橋)모양으로, 칼날 두 개가 모두 위로 향  
해 놓인 것.

1278) 적실현: 틀림없이 확실하다.

1279) 좇앙 갑센: 찾아 가십서.

허연. 이젠 벧조판<sup>1280</sup>)을 놓안 느리는 건 보난, 아방 어멍이 내려가난, 이젠 아방이영 안앙들<sup>1281</sup>) 울고불고 막 허멍 아들덜 곤는 말이

“어머님아, 어떻허난 어머님은 그전 얼굴이 엇수파?”

“아이고, 말도 말고 일르도 말라. 가멍 하도 멀미 해놓고 오멍 하도 멀미 해놓고 허난, 나이, 정신도 하나도 엇고, 나 얼굴이 엇다.”

허난.

“경 허우파. 게건<sup>1282</sup>) 어머님이랑 앞이 상<sup>1283</sup>), 어머니 이제도록 아바지 만났스실<sup>1284</sup>) 애길 다 곁아실<sup>1285</sup>) 거난에 앞이 상 글읍서. 우리랑 아바지 손 심영 가멍 만단정혜 [萬端情懷] 나 곁으멍 가쿠다.”

허난,

“경 허렌.”

허연. 앞이 사난, 말텐<sup>1286</sup>)은 못허고, 집은 몰르고 눈치만 보멍 이 골목드레도 주왁주왁 들어가져 저 골목드레도 주왁주왁 들어가져, 이젠 제우제우<sup>1287</sup>) 집 좇앙간, 이젠 밥은 허젠 허난 고팡에 강 근쫄 향이카부텐 올앙보민 보리쫄 향, 보리쫄 향이카부텐 올앙보민 즙쫄, 즙쫄 향이카부텐 올아보민 피쫄, 피쫄이카부텐 올앙보민 근쫄, 막 그냥 선후도착이 켜 거라. 겐디 제우 좇안 밥은 허연, 상은 출령 내 놓는 건 보난, 아방 받던 상은 죽은아덜, 죽은아덜 받던 건 큰아덜, 큰아덜 받던 건 말췌아덜, 말췌아덜 받던 건 셋아덜, 막 그냥 거꾸로 느다<sup>1288</sup>), 밥상을 출려 논 걸 보난, 숟가락이영 왓다리 갓다리 현거라. 게난, 아덜덜 일곱 성제는 벌써 이걸로 봐도 눈칠 이제 알안, 우리 어멍이 아니로구나 현 걸 알안.

흐를은 비는 축축허게 오난, 일곱 성제가 친구 벗네 집이 초신 삼는디 놀레<sup>1289</sup>) 가 분거라. 겐 놀레 가부난, 노일저데귀일이 톨도 ㄱ만히<sup>1290</sup>) 지만<sup>1291</sup>) 구들에 뵈단 생각을 허난, 아이, 나가 잘못허당 나가 요것들 손에 꼭 나가 죽어짐직을 허난, 나가 먼저 피를 썩 요것들을 죽여불주겐헐. ㄱ만히 누웠단 생각을 허난

1280) 벧조판: 배에서 보조로 사용하는 판

1281) 안앙 들어: 안아서 .

1282) 게건: 그러면.

1283) 상: 사서.

1284) 스실: 사실.

1285) 곁아실: 말했을.

1286) 말텐: 싫다고

1287) 제우제우: 겨우겨우.

1288) 거꾸로 느다: 거꾸로 또는 바른 모양을 뜻함.

1289) 놀레: 놀리.

1290) ㄱ만히: 가만히.

1291) 지만: 자기만.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허명. 베 아팠 죽어지켄 그냥 구들 니 구석<sup>1292)</sup>을 다 텅구는 거라. 젠, 하도 등  
글어가난, 남선빈 이제 베꼈디<sup>1293)</sup> 텅기단 제우<sup>1294)</sup> 좇아왔언 집드레 들어 산, 아  
이고, 부인님아, 어디가 아팠 영 허였어?“

허난,

“베 아팠 죽어지쿠다게.”

허난,

“에, 나 썰어나주저.”

허난,

“아이고, 썰어오고 무시거고, 이거고 저거고 다 썰러 텅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강 보면, 삼도전 시커리<sup>1295)</sup>에 멍텅이<sup>1296)</sup> 쓴 점쟁이<sup>1297)</sup>가 잇우다. 그디 강 점이  
나 헤여 뺑 읍서. 무신 동티산디, 어디 걸려사신디사 혼저 강 읍센.”

허난. 남선빈 각시 곤는 양<sup>1298)</sup> 올레로 몽텅이<sup>1299)</sup> 짚으고 허연 두들락 두들락  
허연 좇안 삼도전 시커리 가는 동안에, 영 창고망으로 보난, 남선비 올레드레<sup>1300)</sup>  
나가부난 화다닥허게 나완 헛간에 간, 이제 멍텅이 앓아 내언, 올담질<sup>1301)</sup> 허영  
이 담 넘고, 저 담 넘언 허연 삼도전 시커리에 간 앓은 거 아니. 앓앗단에 남선비  
가가난

“아이고, 문점이나 지왕 갑서.”

허난,

“아이고, 경 해도 나 점허레 앓우다. 우리 집 안부인양, 거령청허게<sup>1302)</sup> 잇단 베  
가 아팠 등글없우다<sup>1303)</sup>. 게난 영 짚어 봄서.”

허난, 갑자 을축 혈 충도<sup>1304)</sup> 몰랑 갑자 을축 병정 몰축 허명 이젠 거꾸로 느다  
허는 체 허당,

---

1292) 구들 니 구석: 방 네(四) 구석.

1293) 베꼈디: 밖에.

1294) 제우: 겨우.

1295) 시커리: 세거릿길.

1296) 멍텅이: 망태기.

1297) 점쟁이: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의 제주어

1298) 곤는 양: 말하는 대로.

1299) 몽텅이: 몽둥이.

1300) 올레드레: 올레에.

1301) 올담질: 올타리를 넘어 다니다.

1302) 거령청허게: 난데없이.

1303) 등글없우다: 텅굴고 있습니다.

1304) 혈 충도: 할 줄도.



“아들 일곱 성제 낚디가?”

허난,

“예. 낚앗우다.”

허난,

“영 곁으민 나신디 옥혈 말이우다만은 양, 이 애기덜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서 부인 병 좋구다.”

허난,

“양! 그거 무신 소리파?”

허난,

“갑서.”

허명. 보내분 거라. 올레로 돌아 앓안 어들락 터들락 헨디 몽텅이 짚엉 오노렌 허난, 어느 동안 담 튀엿<sup>1305)</sup> 올담질 허영 완, 헛간에 완 멩텅이 들러 데껴된 구들에 누웠 창 고망으로 영~ 올레드레 보난, 올레로 남선비가 몽텅이 짚엉 왔어. 그땐 또,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허명. 막 베아팜 죽어가는 체 헨 거 아니. 완,

“무시거옴 곁읍디가게? 제게 곁읍서.”

허난,

“아 가난이, 아덜덜 애<sup>1306)</sup> 내영<sup>1307)</sup> 먹으렌“

“아따가라, 그 놈이 점쟁이 미친놈이 점쟁이 아니파? 나 속으로 난 애길 어떻 엘(肝) 내영 먹읍네까?”

허난에,

“아이고, 다시 혼 번만 강 읍서. 다신예, 요 제 넘고 저 제 넘고 강 보민 니커리<sup>1308)</sup>에 양 푸는체<sup>1309)</sup> 쓴 점쟁이가 잇우다. 그디 강, 혼저 강 읍서.”

허난, 또 이젠 돌아가는 동안에, 푸는체 헛간에 강 앓아내영 올담 튀엿은에게, 올담질 허영 셋질<sup>1310)</sup>로 간, 니커리에 앓앗단, 또 가난, 또 아들 일곱 성제 애를 내영 먹으렌 곁는 거라. 져 남선비 돌아오는 동안에 지는 또 담넙영 왕 그거 헛간 더레 데껴두엿 구들에 누웠 문 고망으로 뺑,

---

1305) 담 튀엿: 담 뛰어서.

1306) 애: 간(肝).

1307) 내영: 내어서.

1308) 니커리; 사거리.

1309) 푸는체: 키..

1310) 셋질: 지름길.

“아이고, 베여. 아이고, 베여. 가난 무시거옌 험디가?”

허난,

“그디도 가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렌.”

“아이고, 그냥 일은 아니우다. 혼 번만 더 가뿡양, 삼판<sup>1311)</sup>에 시 번<sup>1312)</sup>으로, 시 번에, 세 밋디 강 혼말에<sup>1313)</sup> 지영<sup>1314)</sup> 흘 수 엇이 나양 아들덜 엘(肝) 내어 줍서. 나가 먹영양 나가, 나 안네쿠다.”

이제 가난, 아닌게 아니라, 또 지가 간 경 골안<sup>1315)</sup>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니.

“나양 혼 베에 두 개씩 네 번만 나민 벨리(別利) 채왕<sup>1316)</sup> 으덥 성제, 벨리 채와근에게 으덥 성젤 안네쿠텐<sup>1317)</sup>.”

남선빈, 장도칼 앓아 내언 뱃남석<sup>1318)</sup>에 간, 칼을 슬금슬금, 슬그랑 슬그랑 시릉 시릉허멍 허노렌 허난, 동네에 청토산이 할망은 불망굴<sup>1319)</sup>이나 잇이민 빌어당 식은 밥에 물즙이<sup>1320)</sup>라도 데왕 먹어보카 허연에 오단 보난, 남선비가 칼을 내놔 갈 앓어.

“남선비 생완 [生員], 무시거 허젠 칼 골았수가<sup>1321)</sup>?”

허난,

“아이고, 우리 집이 안부인 아판양, 막 죽게 뒀언 세 밋디<sup>1322)</sup> 간, 점 허난양, 저 아들들 일곱 성제 애 [肝] 내영 먹어서 신병 조켄 허난, 애 내젠<sup>1323)</sup> 장도칼을 갈암십주.”

허난, 아이고, 그땐 할망이 불망굴 빌레<sup>1324)</sup> 오랏단 다 데껴뒀 이 아덜덜 어디 가시고 좇단 보난, 아들들은 아무 분시<sup>1325)</sup> 몰르게 강 막 웃음벨탁<sup>1326)</sup>들 허멍 친구 벗덜이영 초신덜 삼으멍 노는 거라.

---

1311) 삼 판: 세번째의 .

1312) 시 번: 세 번.

1313) 혼말에: 한말에.

1314) 지영: 저서.

1315) 경 골안: 그렇게 말해서.

1316) 채왕: 채워서.

1317) 안네쿠텐: 안내겠습니다.

1318) 뱃남석: 양지바른 곳.

1319) 불망굴: 불 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별정게 된 것.

1320) 물즙이: 밥을 물이나 국에 만 것.

1321) 골았수가: 갖고 있습니까.

1322) 세 밋다: 세 곳을.

1323) 애 내젠: 간 꺼내려고.

1324) 빌레: 빌러.

1325) 분시: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나 슬기. 분수.

1326) 웃음벨탁: 유쾌하게 깔깔 지껄이며 즐김.

“게난, 아이고, 야이들아, 너네들 어느 염치(廉恥)로 웃을 생각이 났이니? 혼저 니네 집이 강 보라. 느네이, 죽은어명이 아판 다 죽어간, 점인가 어딘가 허난에 느네들 애 내영 먹어사 병 존덴 허난, 느네 아방, 느네 애 내젠 칼 곁았어라<sup>1327)</sup>.”

허난, 그뎨 삼형제가 비세(悲鳥)곶이 울멍덜 올레에 왕 산 거라. 샷단, 죽은 아시, 막둥이가, 녹디생이가 곧는 말이,

“성님네야, 이디 사십서. 내가 들어강 무신 핑계를 헤여도 칼을 빼영 오쿠다.”

죽은 게 들어가명,

“아바지, 무신 거 헤엿수파<sup>1328)</sup>?”

“아이고, 니네 어멍 아팡 죽을 스경 [死境] 이 뉘난, 점허난 느네들 애 내영 맥이렌<sup>1329)</sup> 헤영 애 내젠 칼 곁았저.”

“아바지, 춤 잘 했우다. 즈식은 또 죽어불민, 나민 즈식이고, 어멍은 죽어불민 또시 얻기 전인 어멍이 엇수게. 젠디, 아바지, 생각헤영 봅서. 우리 애(肝) 내는 건 좋수다만은, 아바지 즈식, 아바지가 우리 애(肝) 내젠 허든 아들 하나에 혼 번 썩만 가슴 아파도 일곱 번을 가슴 아프고, 애(肝) 내어놓앙 우리 그냥 내불지 못 허영 어디강 흑이라도 혼 곁체<sup>1330)</sup> 뉘영<sup>1331)</sup> 묻젠 허민, 아바지 어둑운 눈에 몸도 불편헌디, 이제 아바지 못 견디꼭 험니다. 그 칼을 날 줍서. 나가 앓앙 강양, 형님 네랑 나가 애(肝) 내영 오크메, 나 하나만 아바지 손으로 애 내민 가슴도 혼 번만 아프고 흑도 혼 곁체만 뉘으면 아바지 편안행 좋을거 아니파.”

허난, 아, 그 말도 들언 보난 맞아 뉘난,

“경 허렌.”

칼을 준 거라. 에이그, 게난 그 칼 앓안 일곱 성제가 올레에 간 만난 비세(悲鳥)곶이 울멍 어디레 가민 조코. 막 가는데 굴미굴산 노조방산 예야산을 막 올라 산 거라. 산더레 그자 막 올라 간, 산에 간 미여지 뺑뒤<sup>1332)</sup> 시난, 막 울멍

“설운 어머님아, 어머님은 어디 가고, 이거 어떻게 일이렌?”

우노렌 허단, 무정 눈에 즈이 소로록허게 온 거 아니. 일곱 성제가 누웁 자는디 어머님이 꿈에 시꾸완<sup>1333)</sup>

1327) 곁았어라: 말하고 있더라.

1328) 헤엿수파: 하고 있습니다.

1329) 맥이렌: 먹이라고.

1330) 곁체: 삼태기.

1331) 뉘영: 덮어서.

1332) 미여지 뺑뒤: 아무 거침없이 탁 트인 널따란 벌판.

1333) 시꾸완: 꿈에 나타나서.

“아이고, 설운 애기덜아, 어디 완 누원 잠디 혼저 일어들나렌.”

허연. 시꾸난 와들랭이<sup>1334)</sup> 일어난 보난 꿈이라.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허다. 어머님이 시꾸완 우리ㄴ라 일어나렌 허연, 경 허연 영 앓앓이난, 산노리<sup>1335)</sup> 하나가 툅락툅락 튀멍 느려 오는 거라. 이제 그 노리를 심영 죽영 앓앙 가젠 죽이젠 허난

“아이고, 난 산신대왕 산신백관인디, 날랑 살령 보내고 나 조름<sup>1336)</sup>에 곧 산툷<sup>1337)</sup> 일곱 ㄴ리가 오랴이메, 에미랑 씨전종 [-傳種] 으로 놓아 두고 새끼 으섯이랑 애 (肝)내영 갑서.”

허난,

“너, 거짓말 아니냐?”

허난,

“아이, 정말이우다.”

“거짓말이민 너 심영 죽여볼켄.”

허연. 저고리 앞섭<sup>1338)</sup> 박허게 브령 춤 블랑<sup>1339)</sup> 똥고망에 탁허게 부쳐서. 겐 그 법으로 노리꽁지<sup>1340)</sup>는 히는 법이우덴 허영 칫영 부찌부난<sup>1341)</sup>, 히는 법이고. 겐 아닌게 아니라 노린 보내똥<sup>1342)</sup> 잇이난, 산툷 일곱 ㄴ리가 내려오는 거 아니. 겐 에미는 씨전종으로 보내어 두고, 새끼 으섯은 가죽 뱃겨 놓고 허연 잡안, 질로 죽은<sup>1343)</sup> 죽은 멥게낭<sup>1344)</sup> 잇이난, 이령이령 솟불 피와 놓고, 레기들은 일곱 성제가 모여앓안, 익엇이나 혼 점, 설엇이나 혼 점, 구워가멍 맛봐가멍 먹는 게 다 먹어불고, 애(肝) 으섯 개만 남은 거라. 애(肝) 으섯 개 들런 집으로 내려오단, 이제 막둥이 곧는 말이,

“성님네야, 성네랑 좌우 팔방에 다 벌어지영 잇입서. 나만 들어가커메. 나가 들어강 어떻 큰 소리가 나건, 돌멩이 들은 이, 막데기 들은 이, 활 들은 이, 창 들은 이, 그때랑 와르르 놀려 덥서.”

이젠 해똥. 이녁 혼자만 들어간

---

1334) 와들랭이: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

1335) 산노리: 산노루.

1336) 조름: 쫓무니.

1337) 산툷: 산돼지.

1338) 앞 섭: 옷의 앞자락.

1339) 춤 블랑: 춤 발라서

1340) 노리꽁지: 노루꽁지.

1341) 칫영 부찌부난: 찢어서 붙여버려서.

1342) 보내똥: 보내놓고.

1343) 저질로 죽은

1344) 멥게낭: 청미래똥굴.

“어머님, 성님들 애 내영 오랏우다.”

“아이고, 경 헛이나.”

경 허명 구들에 간 보난, 누웠이난애<sup>1345)</sup>, 머리맡에 강 앓은 거주게. 앓으난  
“아이고, 중병 든 사름은이 약 먹는다 아니 본다. 나가 불라.”

허난, 베짖디레 나오명 손고락<sup>1346)</sup>에 춤 불란 창고망을 뜯려뒀<sup>1347)</sup>, 영 나완 베  
짖디 나완 창고망으로 영 곱안 보난애, 사름 애(肝)엔 허난애 겁난 생이라. 입술에  
콧바위에만 불긋불긋헌 거 묻혀뒀 그자 자리 알더레 술술 다 물어 놓는 거라. 게  
난, 경 물어뒀.

“아이고, 하나만 더 먹엇이민 가슴에 몽클락헌 거<sup>1348)</sup> 문짝<sup>1349)</sup> 느려가키여게.”

허명 헤가난, 게난, 녹두생이가 문을 확 올안 들어간

“어머니, 경 허민양, 나 이제 죽을 거난, 마주막<sup>1350)</sup>으로 영 험서. 어머님 머리  
에 니<sup>1351)</sup>나 이 혼번만 잡아뒀 나 죽으쿠다.”

“아이고, 중병 든 사름이, 머리에 니 아니 잡나.”

“어머니, 경 허민 영 험서. 어머님 눅는 자리나 혼번만 나가 싹허게 청소해뒀근  
에게<sup>1352)</sup> 죽으쿠다. 닭아근에 죽으쿠다.”

허난,

“중병 든 사름 눅는 자리 아니 치운다.”

그땐 그냥 부애가 풋죽 곱이 난<sup>1353)</sup> 거라. 허운데기<sup>1354)</sup> 심언 밧자리더레<sup>1355)</sup>  
둘러메영 탁 쳐뒀 자리 확허게 걸영 보난, 애 으섯 개 잇인 거 아니. 혼 착 손에  
세 개씩 들런 지붕상상<sup>1356)</sup> 조치<sup>1357)</sup> 올라산,

“이 동네에 다심어명<sup>1358)</sup> 허영 사는 애기덜, 다심애기<sup>1359)</sup> 들앙 사는 애기덜 우  
리 보양 정다심센<sup>1360)</sup>. 성님네 살앗 건 몸친<sup>1361)</sup>으로 놀려들고<sup>1362)</sup>, 죽엇 걸랑 혼

1345) 누웠 이난애: 누워 있으니.

1346) 손고락: 손가락.

1347) 뜯려뒀: 뚫어두고.

1348) 몽클락한 거: 물렁하고 듬직한 것.

1349) 문짝: 하나도 남김없이.

1350) 마주막: 마지막.

1351) 나: 이(爾).

1352) 청소해 뒀근에게: 청소해 두고서.

1353) 부애가 풋죽 곱이: 팔죽이 끓듯 몹시 화가 난.

1354) 허운데기: 머리카락을 낮추어 부르는 말.

1355) 밧자리 더레: 방의 바깥 목에.

1356) 지붕상상: 지붕 위.

1357) 조치<sup>1357)</sup> 마루: 상마루 맨 위 꼭대기.

1358) 다심어명: 의붓어머니.

1359) 다심애기: 의붓자식.

정(魂情)으로 놀려듭센.”

와르르 허게시리<sup>1363</sup>) 돌멩이 들은 이, 막뎡이 들은 이, 창 들은 이, 활 들은 이, 놀려들언 보난, 아바지도 엇고 노일저데귀일도 엇인 거라. 좇단 보난, 노일저텐 그냥 살떠레<sup>1364</sup>) 부뜨젠<sup>1365</sup>) 구들에게, 백장 [壁穢] , 그 작박 곁은<sup>1366</sup>) 손콥으로 백장 허우튼언<sup>1367</sup>) 나가난 벤소백이<sup>1368</sup>) 엇인 거라. 게난 더 들을 디<sup>1369</sup>) 엇이난 칩간<sup>1370</sup>)에 간 쉬은대자(五十五尺) 머리로 목 메언 지렁이<sup>1371</sup>) 죽영 잇엇고, 아바진 좇단 보난, 아바진 큰 소리들 나가난 올레드레 들으민 살아지카부덴 올레드레 가단 정살<sup>1372</sup>)에 간, 발 걸런 넘어진 게 그냥 그디서, 올레서 죽은 거라. 게난, 이제 이 포마실<sup>1373</sup>), 어떻허연 우리가 푸지건히<sup>1374</sup>) 포마시 허린.

이젠, 벳 듯듯 난<sup>1375</sup>) 디레 노일저데귀일이 뜰 끄어다 난. 머리는 박박 끊어단 저 바당더레 앓앙 데껴부난 저 맨산<sup>1376</sup>)이여 툴이여 감테여 문딱 마련을 허고, 눈은 들좌단<sup>1377</sup>) 천리통 망안경으로 설립을 허고, 귀는 끊어단 이제, 무신 무전기여 전화기여 설련허고<sup>1378</sup>), 코는 들좌단 침통으로 멘들고, 입은 들좌단 마이크 멘들고, 니빨은 빠단 바당에 대우살, 대우살도 마련허고, 손은 끊어단 글쟁이<sup>1379</sup>)로 쓰고, 발은 끊어단 곱베<sup>1380</sup>)로 쓰고, 젓은 들좌단 가지쟁이<sup>1381</sup>)도 쓰고, 바당에 가른 해삼으로도 썰텐 허고, 베또롱<sup>1382</sup>)은 들좌단 보말, 수두리 보말인가 경 해연

---

1360) 정 다십센: 정 다스리라고.

1361) 몸천: 몸 형체.

1362) 놀려들고: 날라들고.

1363) 허게시리: 하게끔.

1364) 살 떠레: 살 방편으로.

1365) 부뜨젠: 붙으려고.

1366) 작박 곁은: 주걱 같은.

1367) 허우튼언: 끊어뜯어.

1368) 벤소백이: 변소박에.

1369) 들을 디: 달릴 곳.

1370) 칩간: 변소.

1371) 지렁이: 길게 늘어져서 있는 모양

1372) 정살: 정낭.

1373) 포마실: 원한 갚음을.

1374) 푸지건히: 통쾌하게.

1375) 벳 듯듯 난: 별 따뜻하게 난.

1376) 맨산: 해초의 일종.

1377) 들좌단: 도려내어서.

1378) 설련허고: 마련허고.

1379) 글쟁이: 갈퀴.

1380) 곱베: 곱방뎌.

1381) 가지쟁이: 개지. 낫그릇의 뚜껑.

1382) 베또롱: 배꼽.

보말로 마련허고, 베는 들와단 물이슬, 요즘 말론 해파리, 그거 마련허고, 이제 똥  
꼬망은 들와단 돌문주리로 설런 허영, 강 몰랑 아기덜 갓당 가운데 꼭 눅들민<sup>1383)</sup>  
물 짹허게 곁겨붙고 경 허영 돌문주리<sup>1384)</sup> 허고, 이젠 배설은 꿇어단 쉼앗베<sup>1385)</sup>  
도 설런헛텐 허고, 손톱 발톱은 빠단 굼뵓<sup>1386)</sup>, 바당에 가민, 굼뵓도 설런허고, 이  
젠 남선비 좋아하던 어느 세게 물건은 꿇어단 저 바당에 데껴부난 대전복이여 소  
전복이여 이제 마련허고, 허단 남은 건 굴묵낭 방에에 난 독독허게 뭇안<sup>1387)</sup> 폭풍  
벼름 불려부난 모기 곡다기 몸이 뻗젠 허고,

이제 이년은 포마시 이만 허난, 아멩 우리 어멍을 좇아봐사 뉘켄. 이젠 지네 짓  
어 논 베 잇이난, 아방도 탕 가고 헌 베 잇이난, 그 베 탄.

“멩천(明天)ㄴ똥 하늘님아, 우리 어머님 좇젠 헛이메<sup>1388)</sup>, 이 바당을, 우리 어머  
님신디레 우리를 인도를 헤 줍서.”

허난.

“지도를 헤 줍서.”

젠 가는 건 보난, 오동나라 오동ㄴ을 간 부짚 거라. 젠 내령, 그냥 이레 저레  
뎡기멍 “어머니, 어디잇우까? 어머님, 혼정(魂情) 잇건 우리들 눈에 펜식<sup>1389)</sup>허영  
아무걸로나 나타납센.”

중얼중얼 허멍 막 헛인디, 주천강 연훼뭇딜 넘어갈 때엔 아무것도 엇어신디 넘  
어울 땀 보난 연꽃이 핀 거라. 야, 이거 피라곡절 [必有曲折] 허텐, 이젠 그 물을  
푸당 봐도<sup>1390)</sup> 갑돌고, 푸당 봐도 갑돌고 물이 붓뜨질<sup>1391)</sup> 못허는 거라. 게난 눅  
디생이가,

“멩천(明天)ㄴ똥 하늘님아, 이 물이나 붓뜨게 시겨 줍센.”

헛 축원헤 된. 송악낭 막데기로 연시번 착착 후리난, 물이 ㅼ짹허게<sup>1392)</sup> 싸. 아  
이고, 보난, 어머님은 물 아래서 죽언 술은 다 시내방천에 흘러붙고, 빼만 술그랑  
허게<sup>1393)</sup> 남은 거 아니. 경 허난, 서천꽃밭디 눅디생이가 놀려들언, 피 오를 꾹,  
술 오를 꾹, 말 ㄴ를 꾹, 오장육부 생길 꾹, 사름 생길 꾹, 문딱<sup>1394)</sup> 꾹을 푹푹허

1383) 눅들민: 누르민.

1384) 돌문주리: 말미잘.

1385) 쉼앗베: 마소에 짐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조금 굼직하고 기다란 참 바.

1386) 굼뵓(뱃): 딱지 조개의 일종.

1387) 뭇안: 찢어서.

1388) 좇젠 헛이메: 찾으려고 하니까.

1389) 펜식: 헛 것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1390) 푸당 봐도: 꾹 봐도.

1391) 붓뜨질: 줄어들지

1392) ㅼ짹허게: 물기나 습기가 잦아 없어진 꼴.

1393) 술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빼만 남아 있는 상태.

게 꺾어부난, 서천꽃밭디 강 놀러들영, 그것도 천천히 꺾엇이민 혈걸. 제기 지네  
어명만 살릴 예산허영<sup>1395</sup>) 막 텡기멍 와닥와닥 꺾어부난 꽃끼리 부닥친 거라. 게  
난, 서천꽃밭디 화강(火光)이 중천헛구나<sup>1396</sup>). 만약, 새 집 짓영 강 문전본 풀 때  
엔, 성주풀이 갈 때는 서천꽃밭디 이젠 서로 막 부딪쳐부난 화강이 중천허연 서천  
꽃밭디 불이여 영 허고, 경 안현 디는 그냥 혈 때는 본풀이를 그냥 허는디, 경 허  
영 꽃을 꺾언 난. 이제 츠레츠레대로 어머니신디 놓안.

“어머님아, 이 때는 어머님 때리는 때가 아니고, 어머님 살리기 위해서 어머님  
안테 불효자식 매 놓았우텐.”

연시 번을 후리난, 와들랭이 일어나멍,

“아이고, 봄 줍이난 너무 자지엇저.”

허멍 와들랭이 일어난 거라. 이젠 어머님을 돌아왔언 고향으로 온 거 아니.

“어머님, 흔저 그릅서. 게나저나 물 아레 누원 고생 하영 헛우텐.”

젠 돌안 완. 어머니는 물쏘곶에<sup>1397</sup>) 살아부난, 조왕할망으로 앓안, 옛날엔 게  
나제나 불 숯안게 물 흔직 데우젠<sup>1398</sup>) 해도 불 숯앙 데웁곡, 모든 걸 하루 세 번  
밥힘도 불 숯앙만 허고 허난애, 하루 삼시 번 불화식 허걸랑 듯듯허게<sup>1399</sup>) 앓앙  
불도 초곡 조왕할망으로 들어 앓읍서.“

허연 해된. 이제랑 범지범이나 마련해보젠,

“아바진 올레서 죽어부난 올레지기<sup>1400</sup>) 정살주목 [柱木] 네룽지기<sup>1401</sup>)로 직협  
서.”

허고, 게난 그 집이 식구들이 문딱 이 집 안넬<sup>1402</sup>) 츠지행<sup>1403</sup>) 잇인 거라. 어머  
니랑 조왕할망<sup>1404</sup>)으로 앓읍서 허고, 노일저데귀일이 뜯은 벤소<sup>1405</sup>)에서 죽어부난  
벤소지기로 앓앙, 게난, 벤소허고 조왕은 두 씨앗<sup>1406</sup>)이라부난, 조왕엇거 벤소에

1394) 문딱: 전부. 모두.

1395) 예산허영: 생각해서.

1396) 화강(火光)이 중천 헛구나: 서천꽃밭의 꽃들을 꺾는 과정에서 꽃들이 서로 마주쳐 닿거나 부딪치는 모양을 불이 난 것으로 표현.

1397) 물 쏘곶에: 물 속에.

1398) 데우젠: 데우려고.

1399) 듯듯허게: 따듯하게.

1400) 올레지기: 올레를 지키는.

1401) 정살주목 네룽지기: ‘올레’ 어귀에 ‘정살’을 꿰어 걸치도록 구멍을 파 세워 놓은 주목(柱木)과 정살의 신.

1402) 집 안넬: 집 안에를.

1403) 츠지행: 차지해서.

1404) 조왕할망: 부엌의 신.

1405) 벤소: 변소.

1406) 씨앗: 시앗. 남편의 처 또는 첩.



못가고, 벤소엿거 조왕에 못오고, 예를 들영 조왕엿거 벤소 간거는 경, 저, 벤소엿거 예를들어 조왕에 온거는 경 뭐안헌디, 조왕엿거 들령 벤소에 가민 급헌 동티 [動土] 1407) 불러주영, 노일저데귀일이 뜰이 시알허영1408) 경 허영 사름 죽는 법.

이젠 큰아들은 어딜로 가쿠젠 허난, 젤 큰아들은 동이 청대장군, 두 번째 아들은 서이 백대장군, 세 번째 아들은 남이 적대장군, 네 번째 북이 흑대장군, 아, 저, 제일 큰아덜은 상성주 [上成造] , 두 번째는 중성주 [中成造] , 세 번째는 하성주 [下成造] , 네 번째는 동이 청대장군, 다섯 번째는 서이 백대장군, 으섯 째는 남이 적대장군, 게난 아들 하나만 더 잇엇이민, 동서남북을 막고 트고 헌 거를 안헐 거주게. 안헐 건디 죽은아들 그레 앓으렌1409) 허난 죽은

“난, 마우다1410). 난 일문전 하르방으로 들어앗으쿠다.”

허연. 해부난1411), 아들 하나가 엇어부난, 예를들어 올리는 이거 정유년이난 동이 막고, 새해 돼민 꺼꿀로1412) 도는 거라. 새헐 돼민 북이 막아. 그 삼형제가 안 앓은 디는 막는 거. 이제 또 새헐 나민 서가 막고, 경 허명 츠지 안헌 딘 막는 거고, 츠지 헌 딘 아니 막는 거고, 경 허난 해우년1413)도 꺼꿀로 거, 삼살방(三煞方)은 꺼꿀로 도는 법이고, 그 법으로, 옛날, 지금이야 집이서 떡 안헐주 만은1414) 옛날엔 석 덜 그믐날엔 정월 초하루 멩질 허젠 허믈 떡을 치주게. 겐, 정지1415)에서 시리떡1416)을 치민, 그 시리가 오골렉이1417) 잘 익으민 일 년 열두 덜 집안이 편안허고, 시리떡을 치어도 잘 안치나 어떻허민 집안이 흐뭇 즈든텐1418) 허고, 시리 치어근에게 탁 얹어 놓앙,

그 말 안 곱아췌구나1419). 그 어멍 들앙을 때에 어멍 누워난 자리를, 어멍 어멍 누워난 자리를 내불리엔 그 어멍 누워난 자리를 막 뒤지단보난, 그릇이 동골락허게1420) 돼난, 얹어놓안 으섯 성제(兄弟)가 문딱 주먹으로 박아불어신디 일곱 번째

1407) 동티 [動土] : 귀신이 살고있는 공간이나 귀신을 상징하는 물체나 귀신이 다스리는 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침범했을 때 귀신을 노하게 함으로서 받게 된다는 재앙.

1408) 시알허영: 시샘해서.

1409) 앓으렌: 앓으라고

1410) 마우다: 싫습니다.

1411) 해부난: 해버려서.

1412) 꺼꿀로: 거꾸로.

1413) 해우년: 그 해만이 가진 자연이 주는 환경이나 특성을 일컫는 말.

1414) 안헐주 만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1415) 정지: 부엌.

1416) 시리떡: 침떡.

1417) 오골렉이: 고스란히.

1418) 즈든텐: 걱정한다고.

1419) 곱아췌구나: 말해주었구나.

완 보난, 박을 데가 엇어 켈 가운데 팡허게시리<sup>1421)</sup> 박으난, 시리고망 일곱 개를  
마련 허난, 그 시루고망 일곱 개 현 것에서, 떡을 치민 녹디생이가 켈 가운데  
걸<sup>1422)</sup> 박아부난, 켈 가운데 걸 칼로나 무시 걸로<sup>1423)</sup> 영 순고락이라도 영 돌황  
지붕상상 즈치므루 문전(門前) 우이로 허영 데껴근에게<sup>1424)</sup> 허고, 경 허는 법, 문  
전본(門前本) 다 풀었습니다.

---

1420) 동골락허게: 동그랗게.

1421) 팡허게시리: 팡하게끔

1422) 가운데 걸: 가운데 것을.

1423) 무시걸로: 무엇으로.

1424) 데껴근에게: 던져서.

## 세경본풀이

이번에는 세경본입니다.

먹은 이도 세경의 덕, 입은 이도 세경의 덕. 이게 무슨 뜻이고 허민.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쌀로 해서 밥을 해먹기 때문. 세경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었기 때문, 먹은 이도 세경이 덕. 입은 이도 세경이 덕이엔 현건. 이 옷 같은 것덜, 뭐해서 다니는 것도, 다 땅에서 만들고 허기때문에 세경이 덕. 농사짓는 것도 세경의 덕. 우리가 살아서도 세경 땅에 살고, 집 짓엉 사는 것도 세경 땅에 집을 짓고, 걸음 밭 허는 것도 세경 땅에 난 텅기고, 살당살당 죽어도, 뭐 묻엇던 화장을 헛던, 땅 더레 강은에 허는 거난, 세경이 덕. 게난, 세경은 반대를 못허는 게 세경이고.

옛날은 옛적에, 원진국 대감님과 죽지국 부인님이 살앗인다. 부배간이 춤 잘 살아도 애기가 엇어. 애기가 엇이난, 절간 법당에 간 수륙을 드련. 애긴 낳는 건 보난, 딸을 난 거 아니. 겐 이 딸을 금인가, 은인가.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에 키우고. 불민<sup>1425)</sup> 놀아나불카<sup>1426)</sup>, 췌민<sup>1427)</sup> 까질건가<sup>1428)</sup>. 막 금인가, 은인가 허연 키우는다.

이 딸이 혼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돼여가난. 이젠 글공부도 허고, 활공부도 허고 하강거<sup>1429)</sup> 다 허는다.

흐를 낳은 늦은덕정하님 거느리고 허연. 주천강 연훼못덜 연세답<sup>1430)</sup>을 갖추. 겐 연세답을 간. 연세답을 와랑자랑 허노렌 허난. 꽃ㄱ뽕 도련님이 넘어가는 거라. 게난 확 일어산 보난 손으로 물을 확확 거련 먹없이난. 즈청비가 먼저 믋음<sup>1431)</sup>에 잇이난 간거 주게. 옷통더레 간.

“아이고, 도련님아, 도련님은 어디레 가는 도련님이 뽕네까?”

허난.

“난 거무선생안티 글 공부 값우다.”

허난

---

1425) 불민: 불면.

1426) 놀아나불카: 날아버릴까.

1427) 췌민: 췌면.

1428) 까질건가: 깨질건가.

1429) 하강거: 이것저것.

1430) 연세답: 빨래.

1431) 믋음: 마음.

“아이고, 겐디 먼 길을 가는 분이 손으로 경 물을 먹으면 속 물라가는 냥 목이  
돌르고<sup>1432)</sup>, 경 허영 안 됩네다.”

경 허명. 이제 그릇에 물을 확 떤. 수양청버드낭 씹<sup>1433)</sup>을 확허게<sup>1434)</sup> 홀턴<sup>1435)</sup>  
사발드레 놓안 안넌거라. 게난 문도령은 허는 말이,

“이거 물에 티가 잇이민 티를 주어뵈 주는데 정 사실이거늘. 어째서 물에 티를  
놓아서 줘니까?”

허난

“아이고, 먼 길 행허는 것 같아서, 급허게, 제기<sup>1436)</sup> 먹으면 물에 언친<sup>1437)</sup> 건  
약도 엇인 법이난. 물에 경 풀읏사릴 놔사<sup>1438)</sup> 닛굽<sup>1439)</sup>으로, 그 풀읏사릴 안 먹  
젠 허민 닛굽으로 슬슬 불어사 물에 체허질<sup>1440)</sup> 안허는 법입네다.”

허는 거라.

“아, 그렇습네까.”

헨 가젠 해가난

“아이고, 도련님아, 저양. 우리집이도 간 보민 양. 나영 혼 텃줄<sup>1441)</sup>에 난 쌍둥  
이 오랍동싱<sup>1442)</sup>이 잇인다. 거무선생안티 공부허레 가젠 해도 친굴 엇영 못 값우  
다. 경 허난. 우리 오랍동싱 혼디<sup>1443)</sup> 들양<sup>1444)</sup> 강 공부허는게 어떻허파?”

허난

“경 허건. 경 험서.”

허연. 허던 연세답 물 잘잘 나는 거 문딱<sup>1445)</sup> 설런<sup>1446)</sup> 이젠 집으로 들어간 거  
아니.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가쿠다.”

허난

---

1432) 돌르고: 마르고.

1433) 씹: 읏.

1434) 확허게: 재빠르게 움직이는 꼴.

1435) 홀턴: 홀어서.

1436) 제기: 빨리.

1437) 언친: 체한.

1438) 놔사: 놔야.

1439) 닛굽: 잇몸

1440) 체허질: 체하지.

1441) 텃줄: 텃줄.

1442) 오랍동싱: 오라비, 동생

1443) 혼디: 함께.

1444) 들양: 데리고.

1445) 문딱: 모두. 전부.

1446) 설런: 하던 일을 끝내려고 정리해서.

“어따, 춤 지집년<sup>1447)</sup>이 남도 낫저. 무슨 글공부 말이고.”

허난

“아이, 경 해도. 집안에 무신 일이 나민 누게 빌영 축지방을 쓰멍 험네까. 글공부를 해야 돼쿠다.”

허난

“경 허민 강 오랜.”

허난. 이젠 여복 방에 놀러들언<sup>1448)</sup> 여자 옷을 다 벗어두언, 남복 방에 놀러들언 남자 옷 다 입언. 오랍동생이엔 거짓말 해부난, 이젠 남자로 출런. 겐 남자로 출려왔언, 이젠 올레에 간 허난에 문도령은

“아까 들어간 애기씨광 얼굴이 똑 곱으텐<sup>1449)</sup>.”

허난

“흔 아방 생기고, 흔 어멍 난 형제간이 딱날 수가<sup>1450)</sup> 잇수가.”

허연. 이젠 거무선생안티 간 게. 밤이 늑젠 허난<sup>1451)</sup>

‘아이고, 이거 남자 여자가 밤이 누웁 좀질에라도 알민 이 노릇을 어떻게민 좋고.’

막 탄복을 헨 거라. 경 허단 밤이 이젠 좀 자젠 허문

“문도령님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 허렌<sup>1452)</sup> 아니 험데가?”

허난

“아무 말도 안 험데다.”

허난

“우리 어머니양, 밤에 좀 잘 때에 은대양에 물을 땡, 은하시(젓가락)를 가운데 걸쳐 그걸 가운데 놓양 즈음 자사, 그걸 안 떨어지민 글이고 활이고 다 잘 쏘앙 가고, 그걸 떨어치우민 낙방을 헨덴 험디다.”

게난

“우리 어머니, 안 곱읍데다<sup>1453)</sup>. 게걸랑<sup>1454)</sup> 우리 경 허영 잡주.”

허연.

은대양 물 땡 하시<sup>1455)</sup> 착 두 개 걸치난. 문도령은 그것에 속아노난 하시 착만

---

1447) 지집년이: 계집년이.

1448) 놀러들언: 덤벼들어서.

1449) 곱으텐: 같다고.

1450) 딱날 수가: 다를 수가.

1451) 늑젠 허난: 누우려고 하니.

1452) 어떻 허렌: 어떻게 하라고.

1453) 안 곱읍데다: 말하지 않았따.

1454) 게걸랑: 그렇다면.

1455) 하시: 젓가락.

털어지카부덴, 보실락, 이레 보실락 저레 보실락 허단 보난. 밤세낭<sup>1456</sup>) 즈을 못  
자고, 즈청빈 지가 거짓말 허연 곶아진 거난, 털어지고 씨곡<sup>1457</sup>) 막 몸질허멍 자  
단 보난. 이젠 즈 푸지게<sup>1458</sup>) 잔 거주게. 경 허멍 글공분 허난. 즈청비는 거무선  
생 곶는 양 잘허고, 문도령은 앗앙 막 꾸딱꾸딱, 밤이 즈 못자부난. 줄단보민<sup>1459</sup>)  
글도 못허고 활도 못허는 거라. 경 허난 이젠 즈청비가 허는 말이 우리 경 말앙  
양. 우리 시합이나 해봣주.

“어떤 시합을 험네까?”

허난. 아, 거무 선생이,

‘분명히 즈청비 허는 건 보면 여자가 닳은디 저렇게 남자 행동을 헌텐 말이여.’

게난

“너네덜 경 말앙. 아침이랑 삼베중이<sup>1460</sup>)를 입영. 아침이 동더레 해 떠 올 때랑  
그레 걸음을 걸어보렌.”

‘아이고, 이놈이 노릇은 어떻게든 좋고.’

이젠 어디 간 뭇똥<sup>1461</sup>) 봉가단<sup>1462</sup>) 썰로 묶언 이제 양 다리더레 묶어 앗언. 경  
허연 이젠 어글락 어글락 걸어 가 가난. 이젠 남자 행착 헌 거 아니. 거무 선생이  
경 허민 그것에도 속아 넘고. 경 허민

“너네덜 둘이가 씨름이나 해보렌.”

게난 씨름은 해보젠 허난. 어느동안 정지<sup>1463</sup>)에 간에 춤지름<sup>1464</sup>) 헨 귀레레 불  
라 놓안. 문도령은 혼 번 두루 메영치민, 즈청빈 두 세 번이나 와자착 와자착 두  
러메영<sup>1465</sup>) 쳐불고<sup>1466</sup>), 겐 씨름해도 저.

이젠

“오쭈 곶길락<sup>1467</sup>)이나 해보젠.”

헨. 오쭈 곶길락허젠 허난 문도령은 숫붕이라부난<sup>1468</sup>), 그냥 곶기고, 즈청빈 왕

---

1456) 밤세낭: 밤새도록.

1457) 털어지고 씨곡: 떨어지든지 말든지

1458) 푸지게: 충분히.

1459) 줄단보민: 줄다보면.

1460) 삼베중이: 삼베로 만든 바지

1461) 뭇똥: 말똥.

1462) 봉가단: 주워서.

1463) 정지: 부엌.

1464) 춤지름: 참기름.

1465) 두러메영: 둘러메어서.

1466) 쳐불고: 내치고.

1467) 곶길락: 어린아이들이 하는 내기로, 오쭈 따위를 멀리 썩기 내기.

1468) 숫붕이라부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대 죽대 열두 막작<sup>1469)</sup> 해단 알드레 받천 골기난, 열두 방축을 골긴 거라.

오줌 골길락이도 지고, 씨름허기도 지고, 글공부도 지고, 모든 것이 다 진거라. 경 허난 문도령은 공부혈 취미가 엇어져분거라, 모든 것이 다 지어가난. 게난 허들은 잇이난, 옥황에서 편지 서신 오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편지 서신 보낸 거주.

“문도령아, 혼저 오랑 서수왕에 장게 가라.”

허연 편지가 탁 허게시리 세수허노렌 허난, 은대양에 털어지난. 이젠 즈청비신 더레 편지 뵈우멍

“이거 봅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날<sup>7</sup>라 혼저 왕 장게가렌, 서수왕에 장게가렌 허연 편지 오랏수다.”

허난 즈청빈 가슴이 덜컥 헌거라. 이녁은 문도령을 짝사랑허영 곶이 왔인디 이제 문도령만 가불민 어떻허리. 경 허연 이젠

“아이고, 기파.”

허여된. 지도 확 들어간 먹으로 박박허게 확 써네.

“아이고, 문도령님아, 이거 봅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신디 제게 왕 장게가렌 허연 편지 오랏수다. 겐 우리 올 때도 혼디 오랏이메<sup>1470)</sup> 갈 때도 혼디 가당 헤어지는게 어떻 허우파?”

허난

“경 험서.”

허연. 이젠 거무 선생 하직허연. 이젠 장게들 가켄허연. 딱 즈청비네 올레 오난. 저, 즈청비네 올레가 아니고, 오단. 몸 모욕<sup>1471)</sup>이나 이제랑 헤영 헤어지겐, 이제 연삼 년 동안 때영 헛이난애, 몸 모욕 허영 헤어지겐 허연. 주천강 연훤뭇디 허난 문도령 신디레

“모든 걸 나신디 저부난<sup>1472)</sup> 알통에서 험서. 나는 문도령안티 모든 걸 이것이란 웃통에서 모욕을 허쿠다.”

허연

“경 허렌.”

허연. 문도령은 진짜로 몸을 멘들랙이<sup>1473)</sup> 벗영 모욕을 평당평당 허고, 즈청빈 옷 안벗언 벨착벨착 손발만 씻은 거주게. 겐 손발만 발착발착 씻어가난 이젠

‘아이고, 이디서 헤어지민 이제 다시 언제사 만날런지.’

---

1469) 막작: 마디(節)

1470) 오랏이메: 왔으니까.

1471) 몸 모욕: 몸 목욕.

1472) 저부난: 저버렸으니.

1473) 멘들랙이: 옷을 다 벗어 버린 꼴.

생각을 허난. 수양버드낭 이파릴 확허게 꿔영 그디 글 삼제(三字)를 쓴 거라.  
 ‘이 멍청한 문도령아, 연삼 년 동안 혼디 살아도 남녀 간에 구별 모른 문도령아.’  
 경 허연. 이젠 그걸 띠우난, 막 몸 모욕허단 보난에, 무시거 수양버드낭이 동글  
 동글 떠 와. 그거에 보난 글 삼제 [三字] 가 딱 베겨진 거라. 경 허난  
 ‘아이고, 이거 나가 속아지엇구나.’

옷을 제게 입영 가살건디, 츠청빈 그냥 집더레 도망가불고, 문도령은 마음은 급  
 허지, 옷은 입젠 허난. 바지에 다리 하나씩 드물려야 헐 건디, 그냥 바지가달 하  
 나에 다리 두개가 들어간. 이레도 팡 얹어지고, 저레도 팡 얹어지고. 제우제우<sup>1474)</sup>  
 이젠 막 와려지민<sup>1475)</sup> 허고

‘게메<sup>1476)</sup> 내가 꼭 여잔 줄 알앗인디, 남자에 행동을 하니까 나도 착각허연<sup>1477)</sup>  
 남자로 속안 이제 지금까지 살아졌구나.’

허연. 경 허연 올레에 간. 그냥 집더레 들어가카부텐, 츠청비는 벌써 알안에 올  
 레에 간 산 거주게. 게난 놀려들언 츠청빌 막 안아가난 츠청비 허는 말이  
 “영 허지 말앙. 나가 들어강. 아버지, 어머니신디 강 허락을 말앙 오쿠다.”  
 허난

“경 허렌.”

허연

이젠 허락을 말으레<sup>1478)</sup> 가는디 들어간에.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간에 글공부허연 연삼 년 살안 오랏수다.”

허난

“엇다, 나 딸 애기 착실허다. 느<sup>1479)</sup> 방으로 들어가라.”

허난에

“아니, 경 험게 아니고. 나영 같이 간 글공부허던 친구가 잇인디 해는 서산열락  
 (西山日落) 지어지고, 질에 질병나고, 발에 발병 난 갈 수가 엇이난, 나영 혼디영  
 오늘밤이랑 누웠단 가는게 어떻허파?”

허난에

“남즈가, 여자가?”

허난에

---

1474) 제우제우: 겨우겨우.

1475) 와려지민: 급하게 서두르긴.

1476) 게메: 그러게 말이야.

1477) 착각허연: 착각해서.

1478) 말으레: 말으러.

1479) 느: 네.



“아이고, 남자 자식을 어떻 들앙옵네까<sup>1480</sup>). 여자우다.”

허난

“열다섯 십오 세 안네걸랑<sup>1481</sup>) 느 방으로 돌아가고, 열다섯 십오 세가 넘엇건 이제 어떻 방으로 보내라.”

허난

“열다섯 십오 세 아래우다.”

허연. 이젠 올레더레 여자 옷 앓안 간. 올레 간, 남자 옷 다 뺏겨된. 이젠 여자 옷 입져 놓안. 손 심영 이녀 방더레<sup>1482</sup>) 들앙 간 거라. 들앙 가난 그때부터 열두 스랑을 다 풀리고, 죽청비 귀한 죽식이난, 상다락여 중다락이여 얼그럭 덜그럭. 이제 뭐 비단클이여 막 부제칩<sup>1483</sup>)이 잇이난, 그런 것들 막 허고 헛거 아니. 겐 그날 밤이 지세연 허는디, 올라가젠 허난에

“아이고, 문도령님아, 가른 이제 어떻헛니겐. 게난 본메본짱<sup>1484</sup>)이나 내여취튀깅서.”

허난. 이젠 도실씨 혼 방울을 내어준 거라. 도실씨 혼 방울 내어주멍

“이거 창 무똥<sup>1485</sup>)에 싱경. 이거 순이 나고, 잎이 돋고, 남이 뒤휈<sup>1486</sup>) 이 도실꽃<sup>1487</sup>)을 피영 열매가 올안<sup>1488</sup>), 타 먹없이민 나가 강 오켄.”

“게민 경 헛센.”

허연. 이젠 옥황더레 문도령은 올라가불고, 그날부터 도실씨 이젠 창 무똥에 싱 건. 것이 순이 나고, 잎이 돋고, 겐 남이 뒤휈고, 꽃이 피언에. 도실이 올안, 걸 판 먹어도 문도령은 소식이 엇인 거 아니. 아이, 그제 환장을 헛 거라. 죽청빈 막 이 날이나 올건가, 저날이나 올건가. 막 그냥 엇인 신경질이 나고 막 허연 허노렌 허난. 혼번은 질레에 나간 보난. 놉이 집이 장남덜은 뭇물<sup>1489</sup>) 쉼물<sup>1490</sup>)에 막 진달래여, 아지랭이 꽃이여 꺾언, 산천(山川)에 간 뭇수(馬들牛) 뻘여앗영 어리령아 떠리령아 내려오는 거라. 겐 그 꽃 하나만 드렌허난

“상전님네 집이도 정이엇인 정수뉘이, 밥도 아홉 동이 국도 아홉 동이 먹영 경

1480) 들앙옵네까: 데려옵니까.

1481) 안네걸랑: 안이거든.

1482) 이녀 방더레: 자기 방으로.

1483) 부제칩: 부잣집.

1484)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사물.

1485) 무똥: 드나드는 문이 있는 출입구나 그쪽의 가장자리 주변.

1486) 남이 뒤휈: 나무가 되어서.

1487) 도실꽃: 복숭아꽃.

1488) 올안: 열어서.

1489) 뭇물: 말물.

1490) 쉼물: 소물.

좁만 자게 말앙, 강, 므쉬 강 먹임도 허고 꺾어오렌 험서.”

허난

“아이고, 맞텐.”

허연. 이제 집이 완에

“야, 정수넴이야, 경 좁만 자지 말앙. 강 저 놈이 집 고추룩<sup>1491)</sup> 강 아지랭이꽃  
이여 진달래꽃도 강 꺾엉 오고 경 허렌.”

허난. 그때엔 이제 진달래꽃도 꺾으고 아지랭이 꽃도 꺾으고 행 오켄 허연. 물  
아홉 쉼 아홉 꽃영 나간 거아니. 겐 나간 동더레 벌은 낭 하나에 물 아홉 묶으고,  
서더레 벌은 가지에 쉼 아홉 묶으고. 계동. 진<sup>1492)</sup>, 미어진 뽕디<sup>1493)</sup>에 누원 동더  
레 돌아누원 혼즙<sup>1494)</sup>, 서더레 돌아누원 혼즙 자단 보난, 물 아홉 쉼 아홉은 물  
도 먹고정 허고, 애가 큰 큰 므르난<sup>1495)</sup> 다 죽은 거라. 일어난 보난 아이고, 이제  
이걸 어떻 허린. 작박 ㄱ뜬<sup>1496)</sup> 손콍으로 그 물 아홉, 쉼 아홉 문딱 뱃건<sup>1497)</sup>. 이  
젠 멍게냥<sup>1498)</sup> 숯불 피완. 익어시냐 혼 점, 설어시냐 혼 점 허멍. 다리 쫙끄랭  
이<sup>1499)</sup> 앓앙. 그걸 문딱 물 아홉, 쉼 아홉 먹언. 이제 가죽 머리만 등에 진거라.  
가죽만 난 등에 지언.

‘아이고, 이제 집이 가민 상전님안티 무시거옌 곶앙 이 욱을 들으리.’

헨. 거 지언 오노렌 허난 올리수에 보난, 올리<sup>1500)</sup> 한 쌍이 툇락툇락 튀었어.  
허난

‘아이고, 저거 맞형 가민 우리 상전님 좋아헐거난에 저거나 맞형 가주.’

헨. 이제 황기도끼 내난, 이레 황 저레 황황허연 걸로 탁허게 물더레 맞히난, 올  
린 푸드득 놀아나불고, 황기 도끼는 물 알러레 소로록 허게 곶라 앓아분 거 아니.  
아이고, 이제 이 도끼 쫓아살건디 옷 멘들랙이<sup>1501)</sup> 벗언 놓아뒀 강, 동으로 들영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영 동으로 나도, 올리 도끼도 못 쫓고, 베꺾디<sup>1502)</sup> 나완보  
난, 피체 ㄱ뜬<sup>1503)</sup> 도둑놈덜은 옷도 구쟁이 점뽕이<sup>1504)</sup> 다 앓앙 돌아나분 거라.

---

1491) 고추룩: 처럼.

1492) 진: 자기는.

1493) 뽕디: 넓은 벌.

1494) 혼즙: 한잠.

1495) 큰 큰 므르난: 몹시 마르니.

1496) 작박 ㄱ뜬: 주걱 같은.

1497) 문딱 뱃건: 전부 벗겨서.

1498) 멍게냥: 청미래덩굴.

1499) 쫙끄랭이: 아주 편한 자세로 거칠 것 없이 두발을 쭉 편 모습.

1500) 올리: 겨울에 날아드는 칠새인 오리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

1501) 멘들레기: 옷을 전부 벗어서 맨 몸이 들어난 상태

1502) 베꺾디: 밖에.

원, 옷도 멘들렉이 벗고 아무것도 이젠 엇인 거라. 게난 이레 돌아사도 강알<sup>1505)</sup>에 것도 들앙들앙 저레 돌아사도 등강등강 허난. 그뻔 이제, 개똥풀<sup>1506)</sup> 허연에 이걸 어떻허린 허연 그 풀 뜯어네 강알만 막안. 겐 강알만 막아앗언에. 이젠 집더레 그냥도 못 들어가난. 그때엔 이제 울다리 튀언 집이 간, 주쟁이<sup>1507)</sup> 씨네. 뒤에 간 곱안. 어떻 아무도 못볼 때라근에 강 옷이라도 좇앙 입주게 헐. 주쟁이 썬 앓앗이난 정술택인 뒤에 장 거리레 간 보난. 개낭잎<sup>1508)</sup> 뜯어네 강알 감추완 주쟁이 썬 앓앗이난, 뒤에 장 거리레 갓인디 어떻 주쟁이가 들썩들썩 헐 거 아니. 게난

“아이고, 상전님아 큰일났우텐.”

허난

“무사?”

허난

“저디 주쟁이가 막 춤을 췄우텐.”

허난 이제 상전님은 간.

“귀신이나, 생인이나? 어서 썩 나오렌. 귀신이건 썩 물러가렌.”

막 헤가난. 영 메록허게<sup>1509)</sup> 나오는 건 보난 정수넴이 아니. 보난 옷도 멘들렉이 벗언 개낭잎 허연 강알만 막안 앓이난

“이거, 어떻헌 일이니?”

허난

“아이고, 경 험게 아니고.”

거짓말을 헐 거라.

“저 하늘에서 문왕상 문도령 궁네청 시네청 돌아앗엉 완<sup>1510)</sup>, 막 몸 모옥 허명 막 노념놀이 허는거 구경 허단 보난 뭇 아홉 쉼 아홉도 다 죽어불고, 오단 올리 혼쌍 맞형 오젠 헐 게 황기도끼도 일러불고, 도둑놈들 다 구쟁이 점벙이 앓안 가 부난 영 뻬우텐.”

허난

“아이고, 정수넴아. 뭇 아홉 죽은 것도 좋고, 쉼 아홉 죽은 것도 좋고이. 옷 일

1503) 피체ㄱ뜬: 동작이 재빠른 꼴을 나타낸 말.

1504) 점벙이: 점방이.

1505) 강알: 사타구니.

1506) 개똥풀: 누리장나무 잎.

1507) 주쟁이: 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

1508) 개낭잎: 누리장나무 잎.

1509) 메록허게: 숨겨져야 할 것이 조금 나와 드러난 꼴.

1510) 돌아앗엉: 데리고 와서.

러분 것도 좋다. 나 새 옷 주크메<sup>1511)</sup> 경 허민. 느, 그 문왕상 문도령 내려왕 놀  
아난 디 알아질타?”

허난

“예. 알아지쿠텐.”

“게문 느, 날 그디 돌아가줄타<sup>1512)</sup>?”

허난

“예. 돌아가쿠다.”

허난

“알앗젠.”

이레 오렌 허연. 이젠,

“넬랑<sup>1513)</sup> 가게.”

허난

“상전님아, 가젠허민 물머리<sup>1514)</sup>에 코스<sup>1515)</sup>도 허고, 밥도 허고 혜사 갑니텐.”

“겐 어떻게뎡 출리느니?”

허난

“나 곧는 양 험서. 는쟁이<sup>1516)</sup> ㄴ루 닷 돼건, 소금 닷 돼 낭 밥을 지으고. 또,  
츄 ㄴ루<sup>1517)</sup> 닷 돼건, 소금 혼 줌 노나마나 허영 밥을 지으고. 경 혜사 험니텐.”

이젠 경 허연 혜노난. 구쟁이 닥물<sup>1518)</sup> 봉가단<sup>1519)</sup> 물 받 들런에<sup>1520)</sup> 물 받콰  
알르레<sup>1521)</sup> 찢른 거라. 그걸. 찢러네 물 우이.

“상전님아, 이디 잇입서. 나가 물 탕 버릇을 ㄴ르쳐사 험거 아니웁.”

허연. 물 탄 영 가젠 허난. 물은 자울락 자울락 구쟁기 물 박아나부난 건지 못  
험 혜가난

“이거 봄서. 이거 물머리도 코스를 지내사 허는 겨우텐.”

허난

---

1511) 주크메: 줄테니.

1512) 돌아가 줄타: 데려다 주겠느냐.

1513) 넬랑: 내일되면.

1514) 물머리: 말머리.

1515) 코스: 고사.

1516) 는쟁이: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낸 그 나머지로, 갈린 껍질과 가  
루가 뒤섞인 나깨.

1517) 츄 ㄴ루: 참가루, 곧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 순수한 메밀가루

1518) 구쟁이 닥물: 소라 껍데기.

1519) 봉가단: 주워서.

1520) 들런에: 들러서.

1521) 알르레: 아래.

“경 허렌. 어떻 허는 거니?”

허난. 이레 밥이영 국이영 다 출려놔센 허연. 겐 문딱 이젠 밥이영, 국이영, 채 소영, 실과영, 이젠 제숙이영 구워노난. 절 허는체 흥멍<sup>1522)</sup> 그거를 확허게 빼어 불엇주게. 구쟁기 물 빼된

“이거 코스 해난 건 어떻 험네까?”

허난

“게 느 다 먹어불라게.”

허난. 이젠 다리 쫓끄랭이 번어 앓안, 이제 그거 순작<sup>1523)</sup>만씩 빙에기만씩<sup>1524)</sup> 다 먹어 놓안. 겐 그거 먹어된. 이젠 어리석씩 물 탄게 지만 물 탄 막 돌아나부는 거 아니. 막 돌아나부난

“상전님아, 구덕<sup>1525)</sup> 지영 이레 완십서.”

헤된. 지만 막 돌아나부난

상전은, 즈청빈

“아이고, 정수넴아게 혼디 글라게<sup>1526)</sup>. 혼디 글라게.”

헤도. 지만, 천장아 만장아 막 돌아나부는<sup>1527)</sup> 거라. 겐 막 돌아나부난 즈청비는 가당가당 먹을거엔만 허민 탁 두리는 거난<sup>1528)</sup>. 점심이나 먹영 가겐허믄 이제 세울테주긴<sup>1529)</sup> 허연.

“아이고, 정수넴이야, 나 배고판이 겐지 못허키여. 오라 밥이나 먹영가게.”

허난. 그때에 물을 세운 거라.

“경 험서.”

허연. 물 세완 이제 밥은 먹젠 허난

“상전님, 는쟁이 ㄱ루 닷 돼 소금 닷 돼 논 거, 상전님, 그거 먹읍서. 춤ㄱ루 닷 돼 소금 노나마나헨 건, 나 먹쿠다.”

허난. 어이척냥<sup>1530)</sup> 엇인 거라. 경 헨 바파주언에. 혼직<sup>1531)</sup>을 즈청비 끊어먹으 난. 짹짹헨 먹을 수가 엇어. 목이 캄캄 돌란

---

1522) 허는 체 허멍 : 하는 척 하면서.

1523) 순작: 메추라기.

1524) 빙에기만씩: 병아리만큼.

1525) 구덕: 조금 큰 바구니.

1526) 혼디 글라게: 같이 가자.

1527) 돌아나부는: 달아나버리는.

1528) 두리는 거난: 미치는 것이니까.

1529) 세울테주긴: 세우겠지.

1530) 어이척냥: 어처구니.

1531) 혼직: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양.

“아이고, 정수넴아 나 짱<sup>1532)</sup> 못 먹키여게 오라 바짱<sup>1533)</sup> 먹게. 바짱 먹게.”  
허난.

“어디 바꿀 말이파? 상전님 먹다 남은 건 종이 먹고, 종이 먹다 남은 건 개가 먹고, 개가 먹다 남은 건 쥐가 먹읍네다.”

경 허멍. 하도 지만 먹어가난

“게문<sup>1534)</sup> 나 못 먹키여. 느 나거영 다 앓아단 먹어불라.”

허난. 지건<sup>1535)</sup> 밥으로 삼고, 상전 건 반찬으로 삼안 순작만씩 빙에기만씩 다 들러먹은 거 아니. 먹어놓안 이젠 물 타 앓언 어리석썩 어리석썩 허연 가명

“아이고, 나 목 물란이. 정수넴아, 목 물란 못 가키여. 오라 물이나 흐뎡<sup>1536)</sup> 먹영가게. 요 물 먹영 가게.”

허문

“아이고, 그건 게우리<sup>1537)</sup> 죽은 물이우다.”

가당가당

“영 허라. 이 물 먹영가게.”

“건 국다귀<sup>1538)</sup> 죽은 물이우다.”

“아이고, 나 목 물란 못 가키여. 가단 이 물 흐뎡 먹영 가사키여.”

허문

“그건 모기 죽은 물이우다.”

죽어도 못 먹게 구는 거라 경. 못 먹게 헨.

“게문 어디강 먹느니?”

허난

“흐뎡만 더 가민 막 좋은 물 잇수텐.”

허연. 이젠 감감헌 게 그디 간 보난에 어디 숲 속 닳은디 간 이젠 허난.

“이 물 먹는 물이가?”

허난

“예. 이거 먹는 물이우다.”

“영 허라 나 물 먹저.”

---

1532) 짱: 짜서.

1533) 바짱: 바꿔서.

1534) 게문: 그렇다면.

1535) 지건: 자기 것은.

1536) 흐뎡: 조금.

1537) 게우리: 지렁이.

1538) 국다귀: 각다귀.

“아이고, 상전님. 이 물은양, 아무상 엇이 경 먹는 물이 아니우다. 이 물은 먹젠 허민양 나 뽀따랑<sup>1539)</sup> 먹어사 험네다.”

“어떻허연 뽀따랑 먹느니?”

“이거 손으로 거려 먹으민 손 물라가는 양<sup>1540)</sup> 물르고, 그릇으로 먹으민 그릇 물라가는양, 목이 물르는 물이라부난양. 이 물은 먹젠허민양. 옷, 우 알로 민 짝<sup>1541)</sup> 벗어두언양. 엇더정 먹어사 목이 안 물라마썸. 게난 나 먹는거 보양 먹읍 서양.”

허연. 지 엇더전 먹으멍 뒤로

“아이고, 상전님아, 나 빠지쿠다. 나 줄레석<sup>1542)</sup> 등깍서. 등깍서.”

허난. 이젠 거 등건. 아이고, 경 허연 그 물 먹으난 어떻 헐 수가 엇이 이젠. 즈청비도 그 옷을 하나씩 두개씩 다 벗인 거 아니. 벗어두언 엇더전 물 먹단 보난 정수넴이 허는 말이

“아이고, 상전님아 그 물 아레 봅서.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네양 막 궁네청 시네청 느려완 노넴놀이<sup>1543)</sup> 험우게.”

영 보난 얼롱얼롱얼롱 허는 거라. 확 고개 들렁보난 낭 우터레<sup>1544)</sup> 즈청비 옷 문딱 데껴똥<sup>1545)</sup> 얼롱얼롱 허난, 옥황에서 문왕상 문도령 궁네 시네(宮女侍女) 들 앙왓텐 거짓말을 헐 거라.

‘아이고, 나가 이것인디 속아지엇구나. 이 노릇을 어떻허든 좋으리.’

“야, 정수넴아. 나 옷 도라. 나 옷 도라.”

허난

“상전님아, 나 도렌허는 거 다 주켄 허민<sup>1546)</sup> 옷 안네쿠다<sup>1547)</sup>.”

“응, 기여 곁으라.”

“상전님에 입이나 혼번 맞춰보앗이민<sup>1548)</sup> 좋암 직 허우다<sup>1549)</sup>.”

허난.

“아이고, 우리집 강이, 나 누는 구들<sup>1550)</sup>에 강이, 엇단질<sup>1551)</sup> 먹어보라. 나영 입

1539) 뽀따랑: 무엇을 모범으로 삼아 그와 같이 좇아 해서.

1540) 물라가는 양: 말라가는 대로.

1541) 민짝: 전부. 모두.

1542) 줄레석: 묶는 줄 따위를 가리키는 말.

1543) 노넴놀이: 놀이하다. 놀며 지내다

1544) 낭 우터레: 나무 위에.

1545) 문딱 데껴똥: 모두 던져두고.

1546) 주켄 허민: 주겠다고 하면.

1547) 안네쿠다: 드리겠습니다.

1548) 맞춰보앗이민: 맞추어보았으면.

1549) 좋암 직 허우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춘 거보단 더 좋아진다.”

“상전님아, 읍서 상전님 젖대 곁은 허리나 안아보게마썸.”

“나 허리 안으는 거 보단이 나 눕는 방에 강이, 나 금상 이불에 강 원앙칭칭 짝 베게 허연 누워보라 더 좋아진다.”

“읍서. 젖이나 한번 문직어보게<sup>1552)</sup>.”

“나, 젖 문직는 거보단이 나 눕는 구들에 강이, 가지깽이<sup>1553)</sup> 잇저. 그것 강 문 직어보라. 흠 좋아진다.”

“상전님아, 읍서. 손이나 한번 심어보게.”

“아이고, 나 손 심는 거 보단이 나 눕는 구들에 강이, 그디 들어강 보라. 경 허민 나 손 심는 거보다 더 좋아진다.”

이 핑계 저 핑계 헤가난 막 부룩부룩 욕심을 내는 거라. 어떻 므스운<sup>1554)</sup> 거라 이젠. 경 허연.

‘아이고, 저거 잘못 건드렸당 나가 살췌 목숨 꼭 죽어짐직 허난 저걸 어떻 달래 사주젠.’

헨 거짓말을 헨 거라.

“야, 정수넴아, 이젠 오늘 밤인이 날이, 해가 지언. 이제 그냥 집이 갈 수가 엇 이난 경 용심내지<sup>1555)</sup> 말라. 아멩해도<sup>1556)</sup> 오늘밤이 느영 나영 이디 산골에서 누워 자사키여. 경 허난. 용심내지 말앙 느영 나영 뵈 잘거난 나 옷을 드라.”

허난. 그땐 병삭허게<sup>1557)</sup> 웃으멍 이제 옷을 내어준 거라. 이젠 어디 나완에

“야, 우리 한지(寒地)에 누워지느냐? 무시거<sup>1558)</sup> 작지<sup>1559)</sup>라도, 돌멩이라도 허영 흥끔 움막이라도 둘드라. 영 다왕 뉘사주. 이거 어디 허정청헨 누워 지크냐게.”

허난. 거 솟봉인 돌 우이 영 해연 다와노난, 이젠 다 뒤텔리카부덴<sup>1560)</sup> 서른으 덩 닛바디<sup>1561)</sup> 허우덩썩 웃으난. 영 안네 간 보난

“아이고, 정수넴아 이거 아이 뒤텔키여. 요 고망<sup>1562)</sup>이 베롱베롱베롱 허난이 동네

---

1550) 구들: 방.

1551) 엇단질: 엇단지를.

1552) 문직어보게: 만져보게.

1553) 가지깽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1554) 므스운: 무서운.

1555) 용심내지: 화내지.

1556) 아멩해도: 아무래도.

1557) 병삭허게: 병긋하게.

1558) 무시거: 무엇.

1559) 작지 : 작은 돌멩이

1560) 뒤텔리카부덴: 되어졌을까봐.

1561) 닛바디: 이빨.



사람 누게가 넘어가단 보민이. 아는 사름은이. 종광 혼집이 혼디 누웠젠 허고<sup>1562)</sup> 헨이. 욱헌다. 게난이. 이거 보리낭<sup>1564)</sup>이라도 허영 고망을 막아사키여.”

허난. 그땐 이젠 보리낭허영 쯔청비는 안네<sup>1565)</sup>에 잇고. 정수넴인 베깃디서<sup>1566)</sup> 보리낭허연 부지런히 고망 막단보민, 쯔청빈 안네서 세 고망 막으민, 혼 고망은 빵 불 솥앙 추와불고<sup>1567)</sup>. 다섯 고망 막으민, 두 고망은 빵 불 솥아불고. 밤세도록 그 ㄱ망 막단보난 붉아분 거라. 아이, 거난 또 커싱커싱 허멍<sup>1568)</sup> 죽일팔로 허는 거아니.

“아이고, 정수넴이야, 이젠 기왕지사 오늘은 붉아부난이, 이젠 느영나영 눅진 못 허고 나 독무릅<sup>1569)</sup>더레 완 엇더지라. 나 니(이)나 잡아주마 허난. 독무릅더레 완 엇더지난, 데가린 걸언 보난. 이가 그냥, 바로 제일 훑은 건 군스 [軍士] 로 놓아두고, 제일 죽은 건 장수(將帥)로 놓아두고, 제일 죽은 건 군스로 놓아뒀. 중간이만 똑똑똑똑 죽여가난. 손은 쯔청비 가슴도 강 문직젠<sup>1570)</sup> 허웃허웃, 쯔청비 강알더레도 손이 허웃허웃 경 허난. 어떻게 달레연 이젠 소로록허게 줍이든 거라. 경헨 줍드난.

‘요눔이 새끼 잘 되엇젠.’

허연. 천 근 쌀에 백 근 쌀을, 활을 내여 놓안, 쯔청비가 정수넴이 귀더레, 웬 귀로 ㄴ단 귀더레<sup>1571)</sup> 콧 쏘아분 거라. 게난 그냥 정수넴이가 죽어분거 아니. 겐 죽으난. 이젠 내불어뒀 물 타 앓언.

‘이제랑 나 집이 가주긴.’

허연 왕강싱강 물 탄 가노렌 허난 산신대왕이 탁 나타난 허는 말이

“저디서 오는 저 아가쨌지, 총각인지 어떻허난 브름알로 넘어가렌. 물조름<sup>1572)</sup>에 무지럭 총각<sup>1573)</sup>이 핏네<sup>1574)</sup>가 탕친허연 바짝 뒤에 쫓앗젠.”

겐 허연 브름알로 허연 집이 간

1562) 고망: 구멍.

1563) 누웠젠 허고: 누웠다고 하고.

1564) 보리낭: 보리 수확한 짚

1565) 안네: 안에.

1566) 베깃디서: 밖에서

1567) 불 솥앙 추와불고: 불을 때며 태워버리고.

1568) 커싱커싱 허멍: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성질을 부리다.

1569) 독무릅: 무릎.

1570) 문직젠: 만지려고.

1571) 웬 귀로 ㄴ단 귀더레: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1572) 물조름: 말쑥무니.

1573) 무지럭총각: 머리를 풀친 총각.

1574) 핏네: 피 냄새.

“어머님아, 아바님아, 나 여쭙 말씀이 잇습네다.”

허난

“어디 갔다 완디?”

허난

“나 곧는<sup>1575)</sup> 말부떠 대답을 험서. 어머니, 아바지 종이 아깁수가?<sup>1576)</sup> 이녀 애기가 아깁수가?”

허난

“아이고, 암만해도<sup>1577)</sup> 종이 아까운들 이녀 애기만이 아깁느냐.”

허난

“경 허지에. 계난 어머니, 나 정이웃인정수념이 하도 행실 [行實] 이 께썸허연<sup>1578)</sup> 죽여된 오랏수다.”

허연.

“아이고, 요년, 저년. 예펜<sup>1579)</sup> 년이 사름을 죽이텐 말이 뭇 말이고.”

아이, 느 가고정 헌 데로 나가렌. 다올려분 거라<sup>1580)</sup>. 다올려 부난 이젠 열다섯 십오세까지 입던 옷 걷어 설르고 나완.

‘어딜 가민 좋고.’

나산 땡기단<sup>1581)</sup>. 브레보난<sup>1582)</sup> 서천꽃밧디<sup>1583)</sup> 부대감네 집이 공고를 썸 붙인 거보난.

‘우리 서천꽃밧디 부영새가 앓앙 올면 서천꽃밧디 검뉴울<sup>1584)</sup>이 자꾸 뒹고 영 허니까. 아무라도 서천꽃밧디 부영새를 잡아주면 내가 말젧사위를 허켄.’

딱 공고를 붙여 잇는 거라. 그때엔 이제 뭇 이꾼<sup>1585)</sup> 들어간에 뭇 세(舌)를 딱 허게 묶엇어. 경 허연 춤썰로 묶언

“실례하겠습니다.”

허난

“예.”

---

1575) 곧는: 하는.

1576) 아깁수가: 기본형인 ‘아깁다’는 비교 상대적인 것보다 우위인 것

1577) 암만해도: 아무리해도.

1578) 께썸허연: 께썸해서.

1579) 예펜: 여자.

1580) 다올려 분거라: 내쫓아 분거라.

1581) 땡기단: 다니다가.

1582) 브레보난: 바라보니.

1583) 서천꽃밧디: 환생(還生) 꽃 멸망(滅亡) 꽃 등 주화(呪花)를 가꾸는 꽃밭.

1584) 검뉴울: 시들어 가는.

1585) 뭇 이꾼: 말을 이끌어서.

허난

“아, 나 과거 정네엔 넘어가는 사람인데 공고를 보니까 서천곶밭디 부엌새가 뛰  
어뎡 헤엿젠<sup>1586</sup>) 허연 혼번 들어와 뵈습네다.”

허난

“아이고, 부엌새만 잡아주민 이제 즈원 [自願] 사위 허쿠덴.”

허난

“우리 쉼 출<sup>1587</sup>)이나 흥꿈 줍서.”

허연. 출 앓아단주난 세(舌), 혀를 춤썰<sup>1588</sup>)로 묶어부난 먹질 못허주게. 막 음~  
헤가난

“야, 이 몰아, 저 몰아. 든건, 든 딛 행실허고. 나건, 난듯 행실허라. 어뎡 경 집  
이서 먹어난 죽만 먹어지느냐.”

허난에. 그 부대감 각신

“아이고, 우리만 잘 살암덴 허단보난, 우리보다 더 잘 살앙 저 믱쉬<sup>1589</sup>) 죽 썰  
주는 생인게.”

경 헨 죽 썬단 주난. 그 춤썰을 탁 클러부난 할쭈할쭈 먹은 거라. 겐 밤인 누웠  
이난 부엌새가 부엌부엌 헤가난 웃통 솔허게<sup>1590</sup>) 벗언. 서천곶밭디 간 베따지<sup>1591</sup>)  
영 내연 누웠이난, 부엌새 그디 딱뚫헌<sup>1592</sup>) 디 완. 베따지에, 우이 톱 앓으난 그  
자 폭허게 심언. 겐 화살 앓아간 그레 찢런 곶밭디레 데견 내불어서. 들어오명 창  
ㄱ망을 화살 ㄱ망만이 뜰란<sup>1593</sup>) 들어와서. 아침엔 누원 안 일어나난. 자노렌 허난  
부대감이 완.

“어뎡, 언치낙<sup>1594</sup>) 어뎡 무슨 소식이 엇어신가?”

허난

“아이, 누원 자노렌 허난 부엌부엌 허길레. 활 혼 대를 던지긴 던졌습시다만은  
어떻게 웬지는 모르겠습시다.”

허난. 서천곶밭디 간 보난. 진짜 부엌새가 활에 찢런 죽언 잇인 거라. 게난  
‘아이고, 참 이거 우리 사위 헐만허덴.’

---

1586) 어뎡 헤엿젠: 어떻게 하고 있다고

1587) 쉼 출: 소 꼴.

1588) 춤썰: 명주실.

1589) 믱쉬: 마소.

1590) 솔허게: 살짝이

1591) 베따지: 배(腹)의 낮은 말.

1592) 딱뚫헌: 따듯한.

1593) 뜰란: 뚫고서

1594) 언치낙: 어제 저녁.

허연 이제 즈원사월 현 거 아니. 경 허연 즈원사월 헛인디. 석 달(月) 열흘 백일을 막 잘 맥이고 해도 부부간에 관계가 없어. 이 남녀간에 구별법이 엇이난. 이제 말젧뜰<sup>1595</sup>)은 아바지, 어머니신디 말을 허뵈,

“어떻허난 저추록 도고(道高) 높은<sup>1596</sup>) 사월 허연. 원, 이거 석 달 열흘 백일 뵈도 손도 하나 까딱 안 햏우다.”

허난. 이제 사위 불러단. 쯔청비 불러단

“어떻허난 우리 딸이 얼굴이 못 낫는가, 메치<sup>1597</sup>)가 못 낫는가? 뭐가 분합해서 손도 헉나 꼬딱 안 햏이니?”

허난

“아이고, 경 헉게 아닙네다. 나는 강남천저국 세변도원수(世變都元帥)를 막으레 가는 길이라서 부정허고 서정허연 가면, 이제 부정타서 안뵈까봐 제가 몸 정성을 하고 잇습네다.”

허난. 그 말도 들언보난 그럴 듯 현 거라. 경 허연 이제 서천꽃밭디 들어간에. 이 핑계 저 핑계 허명. 피 오를 꽃, 술 오를 꽃, 오장육부, 말 굴을 꽃, 사름 생길 꽃이여 문뜩 꺾은 거라. 겐 헉 꺾언. 물르게 앓안 나완. 정수넴이 죽은 딜 또 좇안 간. 그 꽃을 츠레츠레 대로 다 낫. 송악낭 막데기로 연세 번 때련. 살련. 또 물에 태완 어떻신디 간 거라.

“어머니, 아바지. 이녁 애기보다 더 아까운 종하님 살련 오랏수다.”

허난

“어따가라. 지집년이 남도 낫저. 사름을 죽이고 살리텐 말이 뵈 말이고. 아이고, 나가렌.”

다울려부난. 이제 그뵈 나완. 갈 디도 엇고, 올 디도 엇고, 어딜 가든 좋고 헤연. 지만 비새굴이 울멍 텡기단보난. 주막집이 왈그락 달그락, 찰그락 찰그락 무슨 소리가 나는 거라. 겐 영 보난. 비단을, 할망이 앓안 비단을 막 짚어. 게난 이제 비단에 탐난거주게. 경 헉 가네

“넘어가는 과거 정네(貞女)우다만은 할마님 목 물란 물이나 햏뵈 줍서.”

허난

“느도 예뵈<sup>1598</sup>)이메 느 대로 정지에 강 거렁 먹으라.”

허난

---

1595) 말젧뜰: 셋째딸.

1596) 도고(道高) 높은: 거만하디의 의미임.

1597) 메치: 뱀시.

1598) 예뵈: 여자.

“아이고, 게도 초행길에 어떻 뭐 험네까. 주인 모른 공서가 잇입네까.”

게명 허난,

“알앗젠.”

허연 이젠. 할망 물 뜨레<sup>1599)</sup> 가분 세에 비단클에 앓앙 막 비단을 짠 거라. 짜난, 할망은 완 물 주멍

“아이고, 애야, 그 비단은 어디 갈 건줄 알앙 느가 그 비단을 째이니? 애야.”

허난

“어디 갈거파?”

허난

“거 문왕상 문도령 서수왕에 장게 가느디 갈 비단이여게 그거게.”

게난

아이고, 그 말 끝에는 이녁 내불어진<sup>1600)</sup> 서수왕에 장겔 간텐 말이 된 말이나. 눈물이 다름다름다름 떨어진 게. 비단을 짜멍 눈물이 떨어진 게, 그것이 금바둑 옥바둑이 웬거라. 눈물 떨어진 게. 아이 게난. 할망은 완 보난 할망보단 더 잘 짜진 거라. 막 바둑노명, 무니 노명 막 잘 짜지난.

“게난 는 어디레 가는 누게고?”

허난

“난 아방 눈에 굴리나고<sup>1601)</sup>, 어떻 눈에 시찌난<sup>1602)</sup> 갈데 올데가 엇언 영 유왕 유리<sup>1603)</sup> 험우다.”

허난

“느 비단도 곱게 짜고. 경 말앙 나신디 수양딸로나 들라.”

허난

“경 험서.”

경 헤연. 수양딸로 들엇인디, 할마님은 이제 그 홍세(紅絲)미녕<sup>1604)</sup>을 다 짜지난. 그 미녕을 들러앗언 이젠 옥황에 올라간거주게. 문도령네 집이 가난. 이제 다 영 폐왕 보멍, 다 폐왕 보단 보난 막꿇더레<sup>1605)</sup> 가가난 더 곱게 짠 거라. 막 무늬노명 막 헤진 거라. 문도령이

---

1599) 물 뜨레: 물 뜨러.

1600) 내불어진: 내버려두고.

1601) 굴리나고: 눈에 거슬리고.

1602) 시찌난: ‘굴리나다’에 리듬이나 짝을 맞추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됨.

1603) 유왕유리: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

1604) 홍세(紅絲)미녕: 혼인잔치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가져가는 폐백인 무명.

1605) 막꿇더레: 맨 끝으로.

“이건 누게가 찐 거우파?”

허난

“아이고, 그건 우리 집이 수양딸이 찐 거라.”

허난에. 아, 막꿇디엔 ‘인간 즈청비.’ 헨 글자를 딱 베겐젠<sup>1606</sup>). 경 허난

“누게가 짜수젠?”

허난

“우리 집이 수양딸이 찐젠.”

허난

“게문 나, 오늘 밤 야사삼경 깊은 밤이 돼민 느려사쿠다.”

허난. 할망은 이젠 완, 막 지꺼지언. 도고(道高) 높은 사위 헤지카부텐<sup>1607</sup>) 막 그날밤이 이젠. 방도 느 흐나만 츠지허영 누라. 씨암톡도 딱 잡안 놔두고. 이제 사위 ㄱ심<sup>1608</sup>) 오민 맥이젠. 경 헨 독방 출런 눅지난<sup>1609</sup>). 그날 밤 야사삼경 깊은 밤이 돼난 즈청비 눈 구들<sup>1610</sup>)에 그림자가, 허뜩비뜩 사름 그림자가 막 현 거라.

“귀신이냐? 생인이냐?”

허난에

“아이고, 귀신이 어찌 여기 올 수가 잇것느냐. 난 하늘옥황 문왕상 문도령이엔.”

허난. 즈청비가 ㄱ만히 생각을 허난.

‘문도령이 아니믄 내가 무사 이 팔자가 돼영 어멍 눈에 곱리나고, 시찌나고. 내가 이 귀양을 탕기멍 이걸 허리.’

생각을 허난 막 그냥 꿔쌌헌 거라. 경 허연 문도령이 분명허걸랑 창고망으로 손가락을 내밀렌. 겐, 영 헨 손가락을 창 ㄱ망으로 내미난, 부에 난<sup>1611</sup>) 집에 바놓으로 손가락을 꼭 허게 찢러붙어서게. 게난 즈진피(紫芝血)가 불긋허게 나난.

“아이고, 인간네는 이거 부정(不淨)허고 서정허연<sup>1612</sup>) 놀빚 네<sup>1613</sup>) 난 안웨켄.”

옥황더레 도올라<sup>1614</sup>) 붙어서. 뒷날 아침인 할망은 막 씨암톡 놓아놔단, 그거 허연 죽 쭈고 허연. 그릇도 두개 놓고, 숟가락도 두개 놓고 허연. 앓안 들어온 거 아니. 들어와 보난. 혼자만 눈 거 아니.

---

1606) 베겐젠: 박혀있다고.

1607) 헤지카부텐: 할 수 있을까봐.

1608) 사위 ㄱ심: 사위가 될 사람.

1609) 눅지난: 눅히니.

1610) 눈 구들: 누운 방에.

1611) 부에 난: 화가 난.

1612) 서정허연: 부정에 맞춘 조운구(調韻句)

1613) 놀빚 네: 피비린 내.

1614) 도올라: 도로 올라.

“어떻허난 어치냐 무슨 소식 엇어나?”

허난

“옥황에서양, 문도령 와십디다 만은양, 하도 생각허난 케썸허연. 나, 바놓으로  
찢러부난 부정허텐 올라가릅데다.”

허난

“아이고, 느 가라. 느 경 헤부난 느네 어떻신디도, 아방신디영 부모 눈에 골리나  
고, 시찌난 나왔이네. 나도 느 님은아이 못 들앙 살키여.”

나가렌 헨 내쫓아분 거라.

‘아이고, 게난 이제 갈 디도 엇고, 올 디도 엇고, 집도 나오고 이 노릇을 어떻허린.’

헤연. 질레<sup>1615</sup>)에 유왕유리 허연 텡기노렌 허난 궁녀 [宮女] 청 시녀 [侍女] 청덜  
은 앓안 비새글이 아이들 울었어.

“느넌 누게고?”

허난에

“우린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 아레 잇인 궁녀 시녀청이우다.”

허난

“무사 경 울었이니?”

허난

“문도령이 아판. 심리병이 난. 죽을 스경이 뛴난. 우리ㄴ라 인간에 내려강 즈청  
비 먹는 물을 떠와사, 그 물을 먹어사 살아나지켄<sup>1616</sup>) 헤연. 인간에 내려오긴 헛  
우다만은 즈청비 먹는 물이 어느 물산디<sup>1617</sup>) 좇지를 못헨 영 헛우텐.”

허난.

“경 허믄. 나가 곶아주크메이<sup>1618</sup>), 느네가 그걸 떠 올라강 표주박을 혼번만 더  
내루왕, 날 혼디 우터레 옥황더레 돌아다주민 어떻허니?”

허난

“어서 경 헉서.”

허연. 이제 그 물 곶아주난. 그 물을 떠 올라가고, 이제 표주박을 또 혼번 내루  
완 즈청비도 올라간거아니. 겐 올라가난 그 아이덜이 물을 잉어 가는 걸<sup>1619</sup>) 먼  
디서 집 깃지 다 본 거라. 방이여 어디 깃지 다 뵈. 겐 그날 밤이 뛴난. 문도령  
눅는 창문 엠<sup>1620</sup>)에 큰 도실냥이 잇이난 그 우이 올라간 앓안. 머리도 다 깎으고

---

1615) 질레: 길.

1616) 살아나지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1617) 물산디: 물인지.

1618) 곶아주크메이: 말해줄 터이니.

1619) 잉어 가는 걸: 머리 위에 이고 가는 걸.

해연 앓안 잇이난에 문도령이 밤중엔 이 밤과 저 밤 세연 나완. 문 올안 나완.

“아따, 저 둘은 참말로 곱긴 곱다만은 인간에 잇인 즈청비만은 아니 곱텐.”

허난

즈청빈 또 가호가호(家戶家戶) 촌촌(村村). 이젠 머리 삭발해연에 권제<sup>1621</sup>)를 받으레 텅길 때로구나. 게난 권제 받으레 텅길 때난. 머리 다 깎으고, 송낙 쓰고 스님으로 출련. 경 해연 그 집이 간에 권제 받안 나완. 처음엔 권제를 간. 혼번 간 받안 나완에 문도령 얼굴을 본거라. 다 보안 낫단. 또, 이젠 경 앓앓이난 낭 우이서 허는 말이

“어따, 저 둘 [月] 은 곱긴 곱다만은 옥황에 문도령만이 아니 곱텐.”

허난

“거 누게니?”

내려오렌 허난. 내려온 건 보난. 낮이 권제 받으레 왔다 간 스님이라. 송낙을 확 뱃건 보난 즈청비아니.

“아이고, 즈청비아, 이거 어뎡헌 일이고?”

허난

“난, 당신 때문에 나, 팔자스주 [八字四柱] 가 다 그르천 영 뒤편수다.”

허연. 이젠 이녁 구들더레 술짝허게<sup>1622</sup>) 들안 들어간 거라. 들안 들어간디 그 전인 밤도허영 느진덕정하님이 밥을 구들에 드물리민, 반 사발뽕이 안먹영 나오던 밥이 혼 그릇 다 먹영 나오고, 세숫물도 뎡 드물리민, 곱닥허연 나오던 물이 팍팍 뒤편<sup>1623</sup>) 나오고, 수건도 혼끗<sup>1624</sup>)만 젖영 나오던 수건이 양끗이 다 젖고, 아멩헤도 이상헌 거라. 겐 느진덕정하님이 영 창그망으로 간 보난. 곱닥헌 애기씨가 뽕 풍 두깡<sup>1625</sup>)으로 왔다갔다 허는 거 아니. 이젠 상전님네신디 간 일러분 거주게. 그 말을 간 곱으난. 상전님네 허는 말이

“아무라도 우리집 메뉴리로 올 자랑. 문국성, 씨아방 직량도폭을 똑 맞게 지어 단 입지렌.”

허는 거라. 게난 이제 프리 몸으로 환싱 [還生] 헨 간. 지레기<sup>1626</sup>)가 얼마니, 소매가 얼마니, 짓이 얼마니, 품이 얼마니 문딱 제연 완. 시아방 직량도폭을 헨 입

---

1620) 엠: 길이나 담장가나 옆. 사람이나 물건의 곁.

1621) 권제: 재미(齊米).

1622) 술짝허게: 살그머니.

1623) 뒤편: 굶어서.

1624) 혼끗: 한쪽.

1625) 뽕풍 두깡: 병풍 뒤.

1626) 지레기: 길이.



지난 딱히 맞은 거라. 게 어디 선비들이나 모인 디 입언 가민

“아따, 그 옷 누게 지엿수과<sup>1627</sup>). 누게 지엿수과.”

허멍 막 허고 허난. 문도령이 어멍을 좇앙 갓구나. 어멍을 좇앙 간.

“어머님아, 나 예숙<sup>1628</sup>)이나 혼번 제껴 뵙서.”

허난

“응. 골으라보게.”

허난

“묵은 장이 좋읍네까, 새 장이 좋읍네까?”

“새 장이 곧 먹을 땐 좋긴 좋아도 묵은 장만큼 짙은 맛은 었나.”

“게믄, 새 옷이 좋읍네까. 묵은 옷이 좋읍네까?”

“어디 웨방<sup>1629</sup>) 갈 때 새 옷이 흐끔 좋긴 좋아도이, 묵은 옷만이 방장무장<sup>1630</sup>) 입진 못헌다.”

“게믄 새 쌀밥이 좋읍네까. 묵은 쌀밥이 좋읍네까?”

허난

“새 쌀밥이 코시롱허게 좋아도 묵은 쌀만이 풀은 었나.”

“새 사름이 좋읍네까. 묵은 사름이 좋읍네까?”

“새 사름이 좋긴 좋아도 묵은 사름만이 짙은 속은 모른다.”

“어머니, 나 서수왕에 장게 아니가쿠다.”

게난, 서수왕 딸은 문도령 장게 안가켄 혜부난 목 메연. 막 편지 술안<sup>1631</sup>) 먹고, 목매연 죽언. 새 몸에 헨 가불고. 아이고, 이젠 메뉴리 텔 자랑. 장게 아니가 켄 허난. 아무나 잇어도 잇일거 아니겐. 도폭 지어단 시아방 입으난 맛음도 허고 허난. 나와근에게 쉼대자(五十尺) 땅을 판 거라. 그레<sup>1632</sup>) 숯 쉼 가멩이<sup>1633</sup>) 놓고 허연. 거에 불을 붙연. 우리 메뉴리가 텔 자랑 이 칼선드리<sup>1634</sup>) 받아들고 발아나 렌. 게난 즈청비가

“멩천 [明天] 골은 하늘님아, 나 췌엔 현건 정수넴이 죽엿단 살린 췌백인<sup>1635</sup>) 엿 수다. 날 살리컬랑 하늘에서 비라도 오게 시겨 줍센.”

---

1627) 지엿수과: 지엿습니까.

1628) 예숙: 수수께끼 놀이.

1629) 웨방: 집을 떠난 먼 지방.

1630) 방장무장: 격식을 따짐이 없이 항시 입을 수 있는

1631) 술안: 태워서.

1632) 그레: 거기에.

1633) 가멩이: 가마니.

1634) 칼선드리: 칼날 두 개가 모두 위로 향하여 놓인 것.

1635) 췌 백인: 죄 밖에.

허연. 막 축원(祝願)을 헌 거라. 축원을 허연 칼 우터레 탁 올라사난 방울비가  
도록도록도록, 비가 떨어져 가난. 불은 와랑와랑 헌디, 비가 와가명, 숯불이 꺼져  
가명, 칼은 구워져가명, 식어져가명 허연. 마지막까지 다 가난. 시아방이 완,

“아이고, 나 메누리 쥔 자격이 적실허다.”

허연. 탁 안은게 뒷꿈치가 슬쩍<sup>1636)</sup>허게 빈 거주게. 겐 비난. 해영헌<sup>1637)</sup> 치마  
각에 피가 맺어진 거라. 게난

“며늘애기야, 어떻허난 치마각에 즈지피(紫之血)가 붙었저.”

허난. 거 발 비영 헛헛 허민 안 쥔거난

“아바지, 모르는 소리 많서. 우리 여정네(女貞女)덜은 열다섯 십오 세가 돼민 선  
벗름 후벗름 월경법(月經法)도 잇습네다.”

허난

“아, 경 허넨.”

허연. 그때부터 이제 월경법(月經法)도 쥔헛 허고, 겐 이젠 다 끝나난. 강남천죽  
국에 세변도원수<sup>1638)</sup>를 헛헛 허난. 문도령이 막으레 가살건디

“문도령님아, ㄱ만히 앓아십서. 나가 강 막아 오쿠텐.”

경 허연 강남천죽국에 간. 세변도원수 간 막안 온 거라. 막앙오난, 이젠 그 밋  
을에 삼천선비덜은 앓앙 놀고, 바둑 두고 이제 장기 두고 허는 디서는 문도령 ㄱ라

“거기 가시문야, 느네 각신 어떻헌 각시고. 강남천죽국도 강 막아오고 어떻헌  
각시고. 헛헛 내라, 두턱 내라.”

허명 허는 게. 이제 흐를은 술, 걸인잔치 ㄱ추룩<sup>1639)</sup> 헛헛 허연. 가젠 허난 소  
겔 허명 이디 이만이 담안 주명

“낭군님아, 가걸랑양. 술을 천 잔을 주고, 만 잔을 주고. 그건 독약이우다. 독주  
우다. 먹지 말앙 그냥 이 알드레 다 담앙 읊서.”

허난. 간. 주는양 문딱 가슴더레만 담앙 오는게. 게와시 [乞人] 가

“아이고, 도련님아 나 술 흐 잔만 받앙 갑서.”

하도 허난. 게와식건 어떻 안 허카부덴 그걸 말앙 먹은게, 물 우이에 알더레 탁  
떨어져분거라. 게난 물은 그냥 즈청비신디 놀아완 앞발로 막 팡팡팡팡 지어가난.

“이 물아, 저 물아. 어서 흐저 글렌.”

허연. 물 우이 타난. 물이 간 건 보난, 문도령이 쓰러전 잇인 거라. 이젠 안앙,

---

1636) 슬쩍: 살짝.

1637) 해영헌: 하얀.

1638) 세변도원수: 난리.

1639) ㄱ추룩: 처럼.

흔쩍 손으로 안양 툇 탄 이제 집이 완. 박거레<sup>1640)</sup> 눅져두고, 재열<sup>1641)</sup> 하나 심어 단, 실에 묶언 창문에 돌아메난. 보로롱보로롱 그 재열 소리 나난. 이젠 그 동네 선비덜은 이제 문도령 죽엇젠. 우리 강 보겐 허연.

“저, 이디 문도령 어디 갓이니?”

허난

“아이고, 저 구들에양. 누원양. 저거 봄서. 저 코고는 소리. 바르릉 바르릉 소리 안났수과. 막 코굴멍 잡수게.”

아, 진짜 보난 와르르와르릉 허는 거라. 무췌 즈배기<sup>1642)</sup> 헤 난. 확확 던지멍 “예. 이거.”

무췌 방석 허연 데끼멍

“이 방석더레나 깔앙 앓읍서.”

허난. 아이, 즈청빈 데껴신디, 확 들르젠 허민 버청 들를 수가 엇어. 이녁은 믋물<sup>1643)</sup> 즈배기 헨 먹으멍. 그 선비덜신딘 췌 헨, 무췌 즈배기 헨 췌에.

“아이고, 이것들이나 혼 그릇씩 먹영 갑서.”

허난, 혼번 와드득 썩으난 그냥 니빨<sup>1644)</sup>이 다 꺾어지는 거라. 야, 이거 무섭고 석거운 사람이엔. 경 헨, 이제 그냥 뭐 헨게. 이젠 그 췌을, 정수넴이 살려난 췌을 낫단. 그걸 놓안, 이젠 문도령을 살린 거라. 겐 살린 허는 말이

“도련님아, 나, 사실은 정수넴이 살리젠 허난양. 서천췌밧디 부대감네 집이 들어 간. 나 그디 즈원사위 허엿단. 나, 나온 적이 잇수다. 게난 그덜 강 선 보름 살건, 나신디 후 보름 살고. 나신디 선 보름 살건, 그디 강 후 보름 살앙. 양쪽 살림을 허영 험서.”

허난, 경 허켄 헨 게. 그디 가난 하도 잘 해주난. 오췌<sup>1645)</sup> 잇어분 거 아니. 즈청비 생각을. 즈청빈 올 때 꺾지 광목 치마를 간장 물에 등강<sup>1646)</sup> 널고, 간장 물에 등강 널고. 밤이는 춘이슬 맞고, 낮이는 춘벧<sup>1647)</sup> 맞으멍 막 등간 넌 거라. 겐 널엇당.

아, 어느날 갑자기 생각허난 문도령이

---

1640) 박거레: 바갈채.

1641) 재열: 매미.

1642) 즈배기: 수제비의 일종으로 가루를 되직하게 반죽하여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어 끓는 물에 넣어 익힌 음식.

1643) 믋물: 메밀.

1644) 니빨: 이빨.

1645) 오췌: 곧. 즉시. 그만. 경황이 없이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나타냄

1646) 등강: 담가서.

1647) 춘벧: 찬 별.

“아이고, 이거 즈청비 잇인걸 나가 잊어불어진 왔덴.”

경 해연 이제 완에. 들 타앗언 오는 게 모자도 거꿀로<sup>1648)</sup> 쓰고, 사모관디도 거꾸로 입고. 아멩이나 제게 헨 오는게, 막 거꿀로 헨 왔이난. 오직이나 날 브리기 싫어사 영 모자영 다 거꿀로 썬 읍네까. 종수덴 신도 거꿀로 신고 헨 왔이난. 그때 엔 그 치메영 확 감아 입언. 난 가쿠다. 난 나 세상으로 금시상 느려사쿠덴 허연.

오젠 허민 치메깅에, 간 돌아정

“아이고, 나 잘못헤서게. 잘못헤서게.”

영 등기문<sup>1649)</sup> 하도 간장에 블라부난<sup>1650)</sup> 복 치져지고<sup>1651)</sup>.

영 등경,

“아이고, 나 잘못헤서게.”

허민 영 복 치어지고 헨 것이, 그것이 나부<sup>1652)</sup>가 뻗텐예.

그것이 나부가 뻗텐허고, 이젠 내려오단 보난 정수넴이가 뻗뻗 몰란<sup>1653)</sup> 질레 앓은 거라.

“야, 정수넴이야, 느 어떻게한 일이고?”

허난

“아이고, 큰 상전님네 다 죽어부난. 갈 데 올 데 엇고, 베고프고 시장허연 영 앓았수덴.”

허난.

“글라. 가게 나 느 밥이나 얻어 먹여주메.”

헨. 어떤, 막 부제침이 물먹쉬에, 사름에덜 해연. 밧 하나, 막 담아 난. 밧 가는 디가 잇이난, 간.

“실레허쿠다만은. 먹던 밥이라도 잇거들랑 흐썸만<sup>1654)</sup> 줍서. 요기나 행 가쿠다.”

허난. 막 욱만 허는 거라.

“젊은 것들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너네대로 행 먹으라.”

허멍 막 욱만 허연. 아이고, 아니 뉘켄. 또 이제 오단 보난. 할망, 하르방만 굴깅이<sup>1655)</sup> 용쉬 행은엥에 들렝이 밧디<sup>1656)</sup> 허는 디 잇이난, 그디 간

---

1648) 거꿀로: 거꾸로.

1649) 등기문: 당기면.

1650) 블라부난: 묻히니.

1651) 치져지고: 찢어지고.

1652) 나부: 나비.

1653) 몰란: 말라서.

1654) 흐썸만: 조금만.

1655) 굴깅이: 호미.

1656) 들렝이 밧디: 아주 작은 밧.

“아이고, 하르버지, 할머니 췌송허우다만은. 먹던 밥이라도 잇걸랑 이레 혼쭐만, 우리 요기헌 가쿠다.”

허난,

“아이고 게, 인척<sup>1657)</sup> 오랏이민 우린 못 먹어도 느네 줄걸. 저디 강 보라, 차룡<sup>1658)</sup>에 간 보라.”

허연. 그걸 이제 먹으난. 그 할망, 하르방 준 디랑, 그 밋디랑 모든 게 막 잘똥게 헤연. 가지으름<sup>1659)</sup>, 쇠으름 올라근에게<sup>1660)</sup>. 조도허민 왕강싱강 허게 허고, 보리에도 감비역<sup>1661)</sup>도 주게 말고, 산디에 나분데기<sup>1662)</sup>도 주게 말고, 콩에 반착짜리 저접께<sup>1663)</sup>도 주게 말앙, 막 부자팔명 똥게 허고. 그 췌ㅁ쉬여, 똥ㅁ쉬여. 막 잘사는 밋디랑, 가난 밥 혼적도 안 쥘게. 저 밋디랑 하간 거 허걸랑, 문딱 아니만 똥게허렌 허연. 그 법으로 우리가 밋디 강 밥 먹젠 허믄, 제석할망 나시렌<sup>1664)</sup> 허영. 문저, 서너 밋더레 케우려똥<sup>1665)</sup> 밥 먹고 허는 거. 게난 용시<sup>1666)</sup>를 헛인디, 오곡농스 [五穀農事] 씨를 탕 와야 농사를 질 건디. 이젠 염제실농씨안티 이젠 쥬청비가 올라간 거라. 올라간. 오곡씨를 타앗언 내려오단 생각해 보난, 모똥썸<sup>1667)</sup> 안 탄 와져서. 게난, 이제 두 번차 올라간 모똥씨 타난. 포따리도 안 앓앙 가고, 아무것도 안 앓앙 가부난, 그때엔 소중기<sup>1668)</sup> 벗언. 소중기 쌍 모똥씨 앓앙 와나 부난. 모똥씨는 소중기에 앓앙 오똥<sup>1669)</sup> 걸름<sup>1670)</sup> 위영 어디영 찰찰찰찰 혈명<sup>1671)</sup> 앓안 와부난, 걸름 위에도 나고, 모똥은 늦은 농스허여도 혼디 헤 먹고, 모똥은 말췌<sup>1672)</sup> 탄 와부난 경 헛젠 허연 세경본입니다.

1657) 인척: 일찍.

1658) 차룡: 대나 싸리를 이용하여 네모나고 속을 좀 깊숙하게 결고 뚜껑을 만들어 주로 음식 따위를 넣어 다니기 좋게 만든 그릇.

1659) 가지으름: 가지열매.

1660) 올라근에게: 열어서.

1661) 감비역: 감부기.

1662) 나분데기: 벼 이삭이나 콩 따위의 꼬투리에 열매가 달렸으나 여물지 못한 것.

1663) 저접께: 벼나 콩 따위의 낱알이 깨어져서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

1664) 나시렌: 뭇이라고.

1665) 케우려똥: 멀리 흩뿌리거나 획 내던져 두고.

1666) 용시: 농사.

1667) 모똥썸: 메밀씨는.

1668) 소중기: 무명으로 만든 여자의 속옷인데, 폭이 넓고 길이는 무릎까지 옴. 주로 해녀들의 물옷으로 쓰였음

1669) 앓앙 오똥: 갓고 오면서.

1670) 걸름: 거름.

1671) 혈명: 주로 쌀 따위를 그릇이나 자루에 담아 넣을 때, 잘못 넣어서 바닥에 흩뜨리거나 그릇이 뒤집어져 바닥에 내뿜린 상태.

1672) 말췌: 나중에.

## 고전적 본풀이

이번에는 눈미 와산 고칩, 양칩에 조상본풀입네다. 고전적 조상부터 하겠습니까.

옛날 고전적 할아버지가 부모 혈속 탄생혈 때에 얼굴은 보난 관옥이오, 몸은 풍신이라. 구덕에 녹전 자는 건 글소리, 노는 건 활소리, 혼 설 두 설 일곱 설이 당허영 한문서당 부치난 읽어도 자원, 써도 자원 하도 경 열일허연. 경 허연 입장 결혼 허난 딸 하나 나서. 딸 하나 나신디. 이젠 옛날 그 시절에는 빼우렁 양반칩이서만 사돈 삼을 때난 딸을 나난 구덕 혼스<sup>1673</sup>)를 하는데 저기 그 예촌 양자숙택에 간 구덕 혼스를 허여 두고.

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헌텐 허난, 과거 보레 가젠허난. 아기씨 몸종은 악싱이, 악싱이 돌아단 몸종을 놓아두고, 겐 하르바님은 시월 동당 과거를 허레 간. 삼천선비들 가운데 과거 시험을 본디 다섯 가지 베실이 합격이 된 거라. 첫 베실은 내직 베실, 들чат은 웨직 베실, 셋차는 참이 참판 베실, 넷차는 전직 베실, 다섯차는 현감 베실. 겐 다섯차 베실이 줄줄이 내려오난. 그때엔 하르바님 어느 므을로 들어가사 혈거난. 저 한양 고을로 들어간 거라. 한양 고을에 간 하르바님은 사는 게, 하도 므음씨도 좋고, 하간 해결도 잘 허고 모든 걸 잘 다스려 백성들을 잘 다스려네 현감살이를 허난. 연삼 년을 살안 오젠 허난 므을 백성들이

“아이고, 현감님아 혼 해만 더 살아 줍서. 두 해만 더 살아 줍서. 스정스정 허는 게. 스정에 버천 살단보난, 혼 십 년을 살아진거라. 겐 살안. 살단보난 고향에 가숙 [家屬] 도 있고, 애기도 단똥애기 난 내비여똥<sup>1674</sup>) 오고 게난 이젠 어떻웨신고 아멩해도 가야웨켄. 마을 백성들이 오꼳 나산거라. 물 내여놓고, 피리단자, 옥단자 내여놓고. 하르바님을 베 타는 디라도 모셔 가젠. 겐 물을 탄 왕강싱강 오노렌 허난. 저 영암. 덕진드리를 당허난. 어떤 열 칠팔세 난 청비발애기씨가 무신 두리알낭포<sup>1675</sup>) 데가리에 이고 허여네 하르바님 앞을 확 허게 젓인거라. 게난 하르바님이, 현감님이. 용심수산 내명

“야, 어떻헌 여자냐. 여자엔 헌건 꿈에만 시꾸와도<sup>1676</sup>) 새물인데. 양반의 행차 길에 어떻허난 여정네가 앞을 젓없이넌.”

그땐 하인덜 ㄴ라,

---

1673) 구덕 혼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면 배필이 될 것으로 정해 두는 것.

1674) 내비여똥: 내버려두고.

1675) 두리알낭포

1676) 시꾸와도: 나타나도.

“당장 강 저 여정넬 심어오렌.”

젠 심젠 허난 스낭밧드레 호로록허게 들어가분거라 그 여자가. 게난 하인들은 심젠, 스낭밧디 들어간 암만 좇으난 잇어. 훤은 스낭밧, 준 스낭밧 아래 간. 암만 좇아도 인기척은 엇어지고, 스낭밧 아래보난 두리알랑포 포따리가 잇인거라. 게난 그 포따리를 스낭밧 아래서 클런 보난, 진녹색 저고리에, 연밭물 치메에, 은빈에, 늦빈에, 은가락지, 늦가락지, 청메실, 홍메실, 주홍당상 벌떡작 그런게 잇이난. 이제 탁 포따리 묶언 하인들은 이제

“아이고, 현감님 모르게 우리 제주절도 갖엿가민 큰 재산이난. 우리 곱정 가게.”  
헨. 이젠 나완보난

“현감님아, 간 보난 인간처랑 말앙 아무 물체도 엇입디텐.”

헨. 경 허냐고. 경 헨 이젠 뱃머리로 느려산거 아니. 겐 이제 뱃머리로 느려산 베를 제주도더레 돌령 베질을 헤여 올건디. 원, 베질 헐 일기가 안나는 거라. 겐 두 일레 열 아흘을 딱 묶어전 못 돌아가난 현감님이 어디 간 장님신디 간 문복단 점(問占)을 허난.

“현감님아, 뱃장 알을 뜯엿 봅서. 뱃장 아래 보물 곱고고, 제물 곱은 두리알랑포가 잇수다. 그걸 뱃장 우터레 내어 놓아. 산돛 잡아 장제맛이 벨고스 허영 바당드레 그거 던져불고, 경 허영 방고삼채<sup>1677)</sup>를 올려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수다.”

헨. 이젠 완. 아닌게 아니라. 뱃장 알 뜯엿 보난 두리알랑포가 잇어. 이제 그걸 앗아내언 뱃장 우이 놓안, 산돛 잡아 장제맛이 벨고스 허고, 이젠 방고삼채를 텅 텅 올리고

“나에게 태운 조상이민 제주절도로 가민 위허쿠다.”

허연 물꺼꿈<sup>1678)</sup>더레 혹 데껴분거아니. 겐 헨 현감님은 이젠 오는다. 그 애기씨 몸종 악성인 이젠 연세답을 허레 저 화북 금동지 알에 간, 연세답을 와랑자랑 허노렌 허난. 물꺼꿈에 두리알랑포가 올라온 거라. 게난 이젠 그걸 앗아네 올라갓주게. 올라가네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아 이레 와 봅서. 이레 와 봅서.”

허난

“무사?”

허난

“이레 와 봅서. 이디 곱닥헌 저고리도 잇고양, 비녀도 잇고, 가락지도 잇고양. 다 잇수다 이레 읍서.”

1677) 방고삼채: 출항의 신호로 북을 세 번 치는 일.

1678) 물꺼꿈: 물거품.

허연. 이젠 비너 허연 찢르고, 애기씨 머리더레 찢르고, 가락지 헨 끼우고, 진녹색 저고리에 연반물색 치메여 입져가난 애기씨가

“악싱아~”

허난.

“예.”

허난

“어떻허난이. 나, 어깨에 청지넝<sup>1679)</sup>이 기는 듯, 흑지넝이 기는 듯이, 막 스프루 스프루 했저.”

헨. 아, 그 말 곱아된 그냥 삼시간에 실연실청 실연광청이 들린거라. 막 소리허멍 이녁만 영암 덕진드리로 놀고 가자. 뭐, 훙은 스낭빳디로 놀고 가자. 준 스낭빳디로 놀고 가자. 안세미로 놀고 가자. 밧세미로 놀고 가자. 지리세미로 놀고 가자. 막 소리허멍 춤을 들썩들썩 추단 악싱이가 눈 꿈박 허는 사이에 애기썩 감감 무중 뒤분거라. 아이, 이 노릇을 어떻허코 걱정허노렌 헨 차에, 이제 현감님안티서 연락이 오기를

‘현감님 금동지 알로 배 대어시메 빨리 애기씨 들앙 오렌.’

악싱이안티 연락이 온 거라.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떻 허민 좋고.”

이젠 그냥 악싱이만 간 거라. 간, 먼 딜로 옆데헤연

“현감님아, 죽을 췌를 지엿습네다.”

“뭇 췌냐?”

허난

“그런게 아니고. 애기씨는 어제, 그지갯날 감감무레가 뒤언 이젠 애기썩 엇수다.” 허난

“이년, 저년 죽일년 잡을년아.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강 애기씨 안 좇아오민 너, 청뎃섬<sup>1680)</sup>에 목 걸령 죽이켄.”

게난 이젠 애기썩 좇아야 될 거 아니. 게난 이젠 일어산 비새 [悲鳥] 곱이 울멍

“아이고, 날 난 어멍은 어디 가신고, 줍쓸메만이만<sup>1681)</sup> 살 도래가 시민 무사 놓이 집 종살이를 허리.”

그 말 곱멍 울멍 애기썩 좇당보난. 저 산더레 보난, 애기씨 치메영 저고리영, 이제 옥색저고리에 빨간 치멜 입으난. 그것이 걸런 찢어진게 넌들넌들 가싯냥<sup>1682)</sup>

---

1679) 청지넝이: 청 지네.

1680) 청뎃섬: 푸른 대나무 잎.

1681) 줍쓸메만이만: 줍쌀만큼만.



에도 걸어지고, 덤벌에도 걸어지고 허난. 그걸 중심으로 똥랑 간 보난, 그 애기씨 구덕혼스 해난 예춘 양좌숙 댁에 가 분거라. 겐 그디 간.

“계시파? 이디 저 목안 애기씨 아니 텡깁디가?”

허난

“목안 애기씨 산디, 누게 산디 모르긴 허주만은 어제, 그지갯날 온몸이 피로 유월(流血)이 낭자웨언. 저 뒤에 신돔박낭 아래 간 왕대 죽대 꺾어단 그걸로 피리단 저, 옥단저 불단, 오늘 아침인 우리집 장남덜 논 밭디 일허레 가가난 그디 혼디 갓젠.”

“그딘 어딜로 갑니겐?”

허난

“요만치, 요 제 넘고, 저 제 넘영 가 보렌.”

헨. 간 보난. 아이고, 집이선 아무 일도 안 허영 꽃 곶이 키운 애긴디, 젓대 곶은 걸어 놓고, 정강이 걸어 놓고 허연. 이레 참방, 저레 참방 들어산 논일을 했어. 악싱이가 간,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이거 어떻헌 일이우파. 큰상전님 오란 상전님 제게 아니 좇아 오민 날 청땃섬으로 목 걸령 죽이켄 허연 좇안 오랏수다.”

허난

“너, 이년아. 날 들레오멍 어느 게 옷가메냐, 어느 게 쌍가메냐?”

가메도 헉나 아니 갓어 왓텐 욱을 헨 거라.

“그런거 못 앓어 온건 나 췌척<sup>1683</sup>)이고, 나 등더레 돌아집서.”

경 허연. 이젠 엽은 반, 꾹임 반. 경 허연 집이 들안 온 거아니. 집이 돌아완 구들더레 노난. 그날부떠 먹던 밥도 아니 먹고, 자던 잠도 아니 자고. 막 실연광증이 뵈 거라. 계난 일가 췌당<sup>1684</sup>)들은 현감신디

“현감님아, 어디 강 들어뵈 무시거 험서.”

다 곶아도

“양반집이 곶이엔 현건 뵈고.”

허멍 욱만 부수헨거라. 이젠 허단허단 버치고, 췌당덜 권에 버천 가물개 이원신 안티 간 문점을 지난

“이 애기씨 살리컨 곶을 험서.”

허난. 이젠 그 애기씨 살리켄 집이 이원신 오란 곶을 시작한 거 아니. 초감

---

1682) 가싯낭: 가시나무.

1683) 췌척: 죄.

1684) 췌당: 친척.

제<sup>1685</sup>)가 넘어들고, 초신맞이<sup>1686</sup>)가 넘어들언 초이공맞이<sup>1687</sup>)가 당허난 이원신님이 곧는 말이

“현감님아, 곧기는 췌송허우다만은 애기씨를 시왕맞이 앞이 내어놓앙 춤을 추와 보는게 어떻허우파?”

허난

“이거 양반집이 곳허는 것도 사름 혈 짓이 아닌데, 양반이 똥 내놔 춤추덴 말이 뭇 말이고?”

욕 해뉘.

“게문 애기씨 대신 애기 몸 받은 몸중이 나상 춤추는 건 어떻 허겠느냐?”

허난

“아맹이라도 험센.”

젠 이젠 애기씨 대신 애기 몸중 악성이가 나산 니나낫니낫니야 니냐낫니낫니야 허명 시왕 앞으로 춤을 췌. 경 허난 이젠 그 곳을 액 막안. 도액 막안 딱 곧는 말이

“현감님아, 곧기는 췌송허우다만은 곶을 말은 곶아야 되겠습니까.”

“뭇 말이냐?”

허난

“우리가 이 곳을 믇청<sup>1688</sup>) 가불민. 삼일이 넘고, 오일 칠일 안네에 동네 금방상에 어디 초혼 소리가 나면 애기씨가 살아난 줄을 알고, 경 안 허건 애기씨 녹는 구들문을 올안 보면 알아볼 도리가 잇습네다.”

허난 그 곳을 믇청 가불고. 현감님은 어느 제민 사흘이 뿔건고, 동네 초혼 소리가 안나. 어느 제민 닷새가 뿔건고, 초혼 소리가 안나. 어느 제민 일레가 뿔건고, 일레 뉘도 동네 초혼소리가 안나난. 애기 녹는 구들문을 올안 보난 동이<sup>1689</sup>) 곶이 사려 앓안<sup>1690</sup>) 애기씨가 죽은 거라.

게난 현감님이 울멍 통곡을 허뉘,

“서룬 애기야, 영 죽을 줄 알앗이민 내어 놓앙 춤이라도 추게 내불겄. 춤도 못 추게 허연 서룬 애기 죽엇젠.”

---

1685) 초감제: 청신(請神)의 제차(祭次)로서, 정장(正裝)한 수심방이 가무(歌舞)로써 집행하여 나간다.

1686) 초신맞이: 초감제 후에 다시 제차 떨어진 신을 청하는 제차(祭次).

1687) 초이공맞이: 초공과 이공신을 맞아 들어 하는 맞이곳.

1688) 믇청: 마쳐서.

1689) 동이: 넓기는 하나 높이는 별로 높지 않은 질 그릇의 하나.

1690) 사려 앓앙: 움츠려 앉아서.

경 해연 본메본짱<sup>1691)</sup>이나 내어 주켄 허연. 이추룩 허연 영 허영 사려 앓앙 죽은 거주게. 꼭 영 허연 앓앙 죽으난. 늘랑 동이풀이 대풀이나 받기 마련허렌 허연. 동이풀이 받는 법은 그 애기씨 나시. 경 허연 한복 입지고, 쏘굽에 쌀 놓고 허영 허는거. 겐 죽으난, 이젠 저 명도암 고장남бат 안테왔디 가네 가운데 묻은 거라. 아, 묻언 얼마 옛이난 몸종 악싱이가 죽은 거라. 겐 악싱인 죽으난 애기씨 몸종이난에 왼쪽으로 간 묻엇주. 묻언 놔두난 얼마 옛이난 또 현감님이 죽은 거라. 현감님은 아바지난 우터레 간 묻언. 또 얼마 옛이난 이원신님까지 죽은 거라. 겐 이원신님은 올레로 간 묻언. 겐 혼 목숨 죽을 때, 네 목숨이 죽언. 게난. 이제 그 고침이나, 광산김침이, 명도암 광산김침인 간 보면 이제 이 조상을 허는디. 명도암에서 그 믯을 즈순덜은 본향으로 위허고, 먼디 사는 즈순덜은 조상으로 위허영 이 조상을 놀리는 고침이 허고, 광산김침이 이제 조상입네다.

1691) 본메본짱: 증거가 될 만한 물건.

## 안판관 조상본풀이

이번에는 선홀 안칩잇 조상 본풀입니다.

안씨 하르바님넨, 저 안동 ㄱ을 안동서, 소문에 들으난 우리 제주도 백성들 다  
끓어 죽게 뒤텔젠 허난, 무곡을 전배독선 [全船獨船] 시꺼앗언 제주 절도로 오는  
게, 애월 듬북 석은개 알로 들어오란, 이젠,

“큰성은 어딜로 가쿠젠?”

허난,

“난 과납<sup>1692</sup>)으로 들어가마.”

“셋성은 어딜로 가쿠과?”

허난,

“난 더럭<sup>1693</sup>)으로 가마.”

“게난, 아신 어딜로 갈티?”

허난,

“난, 선홀<sup>1694</sup>)로 가쿠다.”

허연. 삼형제가 각각이 다 뺨어진거라<sup>1695</sup>). 경 허영 가신디, 선홀 안칩잇 하르바  
님은 주인을 못인 게 현칩일 간 주인을 못인 거라. 거난 현칩이 주인을 못인 살  
명 사농만 허레 텅긴 거주. 사농허레 텅기명 살았이난,

흐를 날은 성님네 둘이가

“아이고, 우리 아시, 선홀 간 어떻 살았인고 혼 번 좇앙이나 가 보저.”

허연. 이젠, 성제가 좇아 앓언, 아시 좇안 간 거 아니. 간 보난, 사농허레 간 엇  
인 거라. 경 헤연 헤가 지언 헤가난 오랏인디,

“어떻 살았디옌?”

허난,

“난, 사농허명<sup>1696</sup>) 살았우다.”

허난,

“게문, 널랑 나 사농허는 것도 구경도 허고, 혼디 글읍서.”

---

1692) 과납: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옛 지명.

1693) 더럭: 제주시 애월읍 상·하가리 옛 지명.

1694) 선홀: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

1695) 뺨어진거라: 사망으로 산산이 흩어지다.

1696) 사농허명: 사냥하면서.

허연. 아, 산에 가신디, 그날따라 사농은 못허고 이젠, 어둑어가난<sup>1697)</sup> 굴 쏘굽에 간 누웠인디, 아침인 해가 뻘뻘하게 해가 터 와가난 아이, 베끼디 영 나온 게 무신 게 뻘뻘허는 거라. 보난 고레방석만인 허게 빙빙 사려진 친구아구 데맹이<sup>1698)</sup>라. 겐 영 보난, 귀도 돌고, 겐 귀 돌은 베염이주 말하자면, 겐 잇이난 “아이고, 이거 어떻허든 조곤.”

허연. 이제 큰성이 약도리<sup>1699)</sup>를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이 약도리더레 들어옵서.”

허난, 꿈썩도 안허여. 이젠,  
“셋성이 나 약도리로 들어 옵센.”

허난, 아이 탁탁 털멍 꿈썩도 안허여. 죽은아시가 약도리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나 약도리에 들어옵서.”

허난, 그땐 이제 기어왔언 그 약도리에 들어오는 거라. 슬슬허게 들어오난, 이젠 지언 일어사젠 허난 무거웁 일어살 수가 이서.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몸천을 가뻘게 험서.”

허난, 영 전 일어사난 거뻘헌거라. 이젠 지언 완, 저 선홀 오라네 베남터<sup>1700)</sup>에 모셔두언. 그땐 사농허레 간 게 사농이 어떻사 잘 뵈인지, 그냥 이레도 팡 저레도 팡 막 사농이 잘 뵈 거라. 겐 성님넨, 아시 사농허영 잘 사는 거 뵘 가불고,

현침이선 하도 착실허고 얹전허게 사난, 즈운사월<sup>1701)</sup> 헌거라. 즈운사월 허난, 안씨 하르바님네는 삼년 일동 부군(富君)<sup>1702)</sup> 조상으로 큰긔허고, 죽은긔허고. 피 그르<sup>1703)</sup>에 피가 나고, 비어불어도, 씨 안 뿌려도, 조 그르에 그냥 조가 나고, 보리 그르에 보리가 나고, 경 멧 년씩 썰 안 뿌려도 농사를 행 먹는 거라. 경 하도 춤 잘 뵈언, 경 허연 무곡을 곱간에 데며 노난<sup>1704)</sup>,

어전(御殿)에는, 서울에는 막 송년 들언 백성들 죽을 스경(死境) 뵈난, 영물 김동지 영감, 방에 아홉, ㄱ레<sup>1705)</sup> 아홉허영 잘 산덴 허난, 김동지 영감ㄱ라,  
“무곡을 바치렌.”

허난,

1697) 어둑어가난: 어두워가니.

1698) 친구아구 데맹이: 천구(天口) 아가리 대망(大蟒). 곧 아가리가 하늘에 붙은 대망(大蟒).

1699) 약도리: 노끈 따위로 그물 같이 맺어 둘레에 고를 대고 긴 끈을 단 물건.

1700) 베남터: 선홀리의 지명.

1701) 즈운사월: 신부측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얻은 사위.

1702) 부군(富君): 뺨을 일컫는 말.

1703) 그르: 작물을 수확하고 난 빈 밭.

1704) 데며 노난: 쌓아 노니.

1705) ㄱ레: 멧들.

“난 경 혈 자신이 없습네다.”

“게난, 누게를 허닌?”

허난, 이젠, 안씨 하르바님을, 선흘 안덕을 그르친거라. 게난 욱지서 주추스령이 느려산거주. 주추스령에 웨(升)지기 섬지기<sup>1706)</sup> 말지기 다 느려산 안침이 무곡 바찌렌 허난, 하르바님은 막 걱정을 헛거라.

“아이고, 무곡 어떻허영, 삼백 석을 어떻허영 바찌린.”

막 걱정허는디, 할마님이 꿰가 좋아신 그라, 할마님이 꿰가 존 생이라.

“아이고, 경 즈들 게<sup>1707)</sup> 잇수까? 나신디 멧경 내뵈센.”

게난, 우터레, 우이 가멩이<sup>1708)</sup>덜은 열두 말씩을 놓고, 알더렌 가가민 삼백 석이 난, 아레 가멩이덜은 가가민, 열 말도 놓앙 혼 가멩이 으답 말도 놓앙, 혼 가멩이 아홉 말도 놓앙 혼가멩이 허멍, 문딱 채와분 거 아니. 경 허난, 이제, 주추스령 완 문딱 웨로 웨연에 허난, 우이 가멩이덜은 열두 말이 딱딱 맞앗주게. 게난, 그 걸 다 경 웨로 웰수가 엇이난 말제랑 알더레 가가난 무조건 다 시끄렌 허난, 삼백 석을 문딱 시경 서울 임금님안티 가난, 임금님이 안씨 하르방허고 현씨 할망 불러 들이렌,

경 허연 거 시경 갈 때는 영물 김동지 영감네 베혜영 상선 아홉 중선 아홉 하선 아홉허연 허난, 그 베로 다 시경가고, 경 혜연 불러오렌 허난, 서울 가난,

“땅 혼 착을 갖겠느냐? 물 혼 착을 갖겠느냐?”

혜도,

“난 땅 혼 착도 물 혼 착도 마우텐.”

혜연.

“날랑 판관 베슬이나 내려와 줍서.”

허연. 판관 베슬 내려와 주고, 할마님은 부인, 부인, 정부인 숙부인 베슬을 내려 오난, 삼년 일동 큰곳 죽은곳 허단, 이젠, 메느린 허는디 저, 삼양, 화북 이침이 장계를 갖어 아들이, 게난 그디서 안씨 하르바님허고, 안판관 하르바님허고 현씨 할마님은 죽어부난,

이젠 이침이, 그 할망이 큰곳 죽은곳을 허단, 저 고래 의원<sup>1709)</sup>을 빌언 혼 해 큰곳을 허연. 경 허연, 곳 모찬 간, 가수리<sup>1710)</sup> 허레 가신디, 가수리 허연 안채폴

1706) 섬지기: 곡식을 섬(石)으로 지키는 신.

1707) 즈들 게: 걱정할 것이.

1708) 가멩이: 가마니.

1709) 고래 의원: 고씨 큰심방.

1710) 가수리: 큰곳 때의 제차(祭次) 이름. 도진 제차(祭次)에서 모든 신(神)들을 돌려 보낸 후, 마지막으로 그 신들을 따라온 하위잡신(下位雜神)들을 대접하여 보내는 제차(祭次)이다.

지난 막 무거운 거라. 경 막 무거와도 그냥 지언 가는디, ‘ㄱ으니ㄱ를’ 올라사난 중이 대스 [大師] 가 속닥속닥 앓앙 즐앓어. 게난 가수리 헨 받아오던 돌레떡에 시리떡에 주어네, 이제 시장기 멀립센 주고, 보난, 그 안체포<sup>1711)</sup>에 부군(富君) 한집이 쫓안 와 분거라. 고래 의원 그 안체포에, 겐 쫓안 와 불고 허난, 스님안티 그 떡 멕이난 스님 허는 말이,

“나도 놈이 거 공허게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리는 법이난, 나도 당신님 이루제<sup>1712)</sup> 살당 문을 디나 하나 보아드리겠습니다.”

허연. 한로영산으로부터 물줄기를 다 불환 보난, 저 용ㄱ루, 용두암에 그 디 산터를 봐주멍

“당신 이루제 죽영 이 디 산을 쓰면 심방 대는 끓어지고, 대정원 정의원 뭐, 다 높은 사름이 돼켤.”

아닌게 아니라, 고래 의원 살단살단 죽으난, 그디 간 묻으난, 아들은 대정원이여 정의원이여 다 돼엿젠 말이 잇습네다.

---

1711) 안체포: 심방이 곳을 하러 갈 때 멥두(신칼, 산판, 요령)을 넣어 가고, 돌아올 때는 이 멥두와 쌀을 담아 오는 자루.

1712) 이루제: 이후에.

## 양씨애미 조상본풀이

이번엔 양씨애미 조상본풀입니다. 양씨애미는 지금 현재도 저, 눈미 와산 가민 삼대, 사대 그 정도뿐이 안됐습니다. 양씨애미 조상은 눈미 양칩잇 조상인데 우이로 오라방이 삼형제 잇고, 딸은 단팔로, 경 너오누이가 솟아난, 아바진 어론편사 돌아가셔불어신디사, 대으섯 설 녀언 일곱 설은 당허난, 친구덜이영 강 양태 쫄명도 놀레, 소리도 허민 심방 소리,

“너 놀레 흥번 불러 봐.”

허민, 놀레도 불르민 심방 놀레. 이제 그디 강 심방

“나 점 해봐. 나 점 해봐.”

허민,

“너 오늘 어명신디 강 매 맞으키여.”

허민, 아, 집이 강 진짜로 어명신디 매 맞고.

“너 물질레 가든 대바지<sup>1713)</sup> 벌럼직허다.”

허민, 아, 물질레 갓당 대바지도 벌르곡. 경 친구들은,

“아이고, 양씨애미야, 느이, 점쟁이나 헛이민 좋으키여. 심방이나 헛이민 좋으키여.”

허민.

“아이고, 게메 말이여<sup>1714)</sup>. 무시것사 허민 좋을지 모르키여.”

경 허멍 허는디. 저 눈미 살멍 허벅 지영 당세미<sup>1715)</sup>에, 당 이신 즈갓디<sup>1716)</sup>, 당세미에 물 솟으는디 이시난 그디 물질레 강, 영 동서남북더레 베려뵘 사름이 아무도 아니 오라가민 이녁만 허벅 장단 두들멍 이제 심방 소리도 허여보고, 심방 놀레도 허여 보고.

경 허멍 허는 게, 열다섯 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 어머니 돌아 가시난 막 울멍

“아이고, 어멍아, 나 놓아 뵘 어멍만 죽어불민, 나 누게영<sup>1717)</sup> 살렌 죽읍디젠.”

막 هنگ. 이젠 개광자릴<sup>1718)</sup> 파 놓안. 그레 어멍 관을 들여놓젠 현 게, 오꼴 양

---

1713) 대바지: 물을 길어 다니는 작은 동이.

1714) 게메 말이여: 그러게 말이지.

1715) 당세미: 샘 이름.

1716) 즈갓디: 옆에.

1717) 누게영: 누구와.

1718) 개광자릴: 장사를 지낼 때 관이 들어갈 자리.



씨애미가 개광자리더레 들어가분 거라. 나부떠 죽어불주, 난 살앙 뿔허라 허난, 이제 오라바님네 삼형제가 제우<sup>1719)</sup> 달레언 우터레 건져 난. 게난, 어멍은 물어뿔 집이 오난, 저 노늘 김씨 선생 빌어단 귀양풀이 허고, 초새남질로 마당에서 귀양풀이<sup>1720)</sup> 헨 질을 치는디, 양씨애민 상방에서 마당더레 브레멍 이제 굿허는 심방 보아근에게 발 어멍 노렌 현 거 뿔 발짓 노래는 거. 손짓 노래는 거 문딱<sup>1721)</sup> 뽀 딸멍<sup>1722)</sup> 막, 마당에서 굿은 죽은굿이 되고, 지 혼자만 상방에서 허는 굿이 큰굿 이 뽀거라. 경 허연 이제 김씨 선생님넨 굿 다 허영 안체포<sup>1723)</sup> 설런 안체포 묶어 가난, 이녁도 바로 이녁 입던 옷들 문딱 조근조근 묶언. 김씨 선생 가부난 이녁도 집 나온 거라. 그 포따리 묶어얏언. 집 나완 김씨 선생네 집이 좇앙 간

“에이고, 나, 들앙 땡기멍 심방 질이나 뽀와 줍서.”

허난,

“아이고, 아니 뽀네다. 그 오라바님덜 나 청땡섭<sup>1724)</sup>에 목 걸려 죽입네다. 혼저 돌아갑센.”

게난, 제일 큰 오라방은 정민장<sup>1725)</sup>으로 살앗젠. 그 믱을에 정민장, 지금 ㄱ트민은<sup>1726)</sup> 이장, 정민장으로 사난. 이제 집이 가렌 허난 집인 안가고, 그 질로 저 물장오리 테역장오리로 올라분거라. 게난 오라바님네 삼형젠 방방곡곡을 다 좇은 거라. 누이가 어서져부난. 방방곡곡을 좇단좇단 못좇안 소문에 들으난, 뽀 보레 땡기는 사름 뽀 보레 땡기는 사름들 말에 의허난, 물장오리 테역장오리 어떤 여정 네가 이신디 귀신도 아니고 생인도 아니라렌 그디 잇젠 소문에 들언. 큰 오라방 이, 큰 오빠가 뽀 타얏언 간 보난, 그 어멍 질 치는거 뽀나난, 저 고사리, 고사릿 땡 영 서로 동겨단<sup>1727)</sup> 영헨 묶어 놓고, 열두 개, 열두 문 잡안. 또 미미쟁이<sup>1728)</sup> 꺾어네 그거 신칼 대신 잡고, 경 헨 지혼자만 막, 질치는<sup>1729)</sup> 시늬을 막 왓다갓다 왓다갓다 허는거라. 경 허난 큰오라방이 거기서 달렌거주.

“아이고, 나 누이야, 느, 이디서 영 허지 말앙 글라. 집이 가민 느 허켄 허는 거 다 해주마.”

1719) 제우: 겨우.

1720) 귀양풀이: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낸 날 밤에 행하는 굿 이름.

1721) 문딱: 모두. 전부.

1722) 뽀딸멍: 뽀 따르며.

1723) 안체포: 무구(巫具)인 뽀두를 담아 놓는 자루.

1724) 청땡섭: 대나무 잎.

1725) 정민장: 지금의 이장.

1726) ㄱ트민은: 같으면은.

1727) 동겨단: 당겨서.

1728) 미미쟁이:

1729) 질치는: 질침을 하는.

경 해주카부덴 물 우터레 톡허게 타난 이젠 집이 들안 온 거 아니. 겐 들안 오난, 요 예펜 년 하나, 요년이 하나로 우리 집안 멍상거리<sup>1730)</sup> 허젠 험덴. 구들더레, 창고 님은 구들더레 다락 드물려난 베깃딜로<sup>1731)</sup> 상거심통쇄<sup>1732)</sup> 문을 절로 싱강 증가분거라. 아이고, 경 험 증가불른<sup>1733)</sup> 밥도 아니 주고, 물도 아니 주고, 막 물령 죽이젠 허는거주게. 게난 오뉴월 즈작골이<sup>1734)</sup> 벳은 콰랑콰랑 나도, 목이 큰 큰 몰라도 물도 아니 주고 허난, 배고팡 험이민 셋오라방 죽은오라방은, 큰 성 알민 셋아시 죽은아시 다 죽을 거주. 큰 성 몰르게 넘어 가는체, 넘어 오는체 허멍 보리낭께기 꺾영 창고망으로 드물려, 베깃디서<sup>1735)</sup> 물 땡 안네서 빨아 먹으렌.

“아이고, 누이야 혼저 빨아 먹어 불라. 빨아 먹어 불라.”

허연 빨아 먹게 허고, 이젠 산에 강 돌보레<sup>1736)</sup> 땡기당 질썰<sup>1737)</sup>에 탈 탕 그것에 곱정 완 큰 성 몰르게 창고망으로 쥘 이거 먹영 살아나렌. 아이고, 경 허멍 허는게. 예으섯(十六) 나는 해엔 오월 쓰무나홀 날은 이젠 ㄱ만이<sup>1738)</sup> 이시난에 큰 오빠가 개 잡앙 숲안 그 국물을 앗앙 온 거라.

“야, 나 누이야, 이레 혼저 나오라.”

허난, 영 베깃디 나오난,

“저 개장국 끓려시메 저거 혼저 먹으라.”

허난,

“나 죽으민 죽엇주 그거 못 먹쿠다.”

“게민 저걸로 머리라도 곱으라.”

허난,

“나, 머리 못 곱으쿠다.”

“게건, 저 걸로 모욕이라도 허라.”

“모욕 못 허쿠덴.”

험.

“이년, 생긴 년 이런 년이 어디 시넨.”

---

1730) 멍상거리:

1731) 베깃딜로: 바깥으로.

1732) 상거심통쇄: 자물쇠.

1733) 증가불른: 잠가버리면.

1734) 즈작골이: 몹시 따가운 것 같은.

1735) 베깃디서: 바깥에서.

1736) 돌보레: 말보러.

1737) 질썰: 길가.

1738) ㄱ만이: 가만히.

막, 그 도고리<sup>1739)</sup>에 논 걸 그냥 확들렁 우터레<sup>1740)</sup> 확 덮어본 거라. 경 험, 물  
잘잘 허는 걸 구들더레 또 담아 난 문을 증가불었어<sup>1741)</sup>. 거난 양씨애민 비새글이  
울멍

“날난 어머님아, 날 내불어똥 나 이 고생허게 허젠 내불어똥 어디레 갑디젠.”

허연. 막 울단보난 그자 었더지언 죽어본 거라. 었더전 죽어부난 이제 셋오빠허  
고, 죽은 오라방허곤, 아이고, 인척이 막 큰성 소리도 나고 막, 우느 소리도 나고  
험게 어뎡헌 일인고 허영. 영 완 창고망 뜰환 보난 누이가 죽어서 었더전. 경 허  
난 이제 브린척도 아니 헌척 허연 큰성신디 간,

“형님, 저 년 그만허난 죽은 생이우다.”

허난,

“그년 죽은 게 아무 년이고 놔이고 칭원 [稱冤] 허냐? 너네 다 혼칼에 찔렁 죽이  
켄.”

경 허멍 확허게 완게만은 지동에 마페 치메<sup>1742)</sup> 걸어저시난 그거 박박 브련. 일  
곱메에 묶언. 그냥 지게에 지언 저 와산 절루니왓이엔 헌. 그 지경이름. 절루니왓  
디 간 그자 땅도 파는 체 마는 체 허연 그자 들여놓안, 흑도 덩으는 체 마는 체  
허연 그 우터레 범주리 가시랑 해단 탁허게 봉분 우터레 덮은 거라. 거저 다 혈만  
허난에 그때엔 이제 셋오바랑허고 죽은오라방은 먼 딜로 보단 다 혈만 허난 간  
거 아니.

“성님, 이년양, 이만만 허민 똥우다. 형님이랑 돌아 갑서.”

경 허연 성님은 이제 집더레 보내똥. 먼딜로 영 보난 집이 다 갈만 허난, 가시  
랑 걷어두고, 이제 흑 다 헤쳐두언 누이 파내영 오라방덜 비새(悲鳥)글이 울멍

“아이고, 서룬 나 동싱아, 그만허난 죽어지엇구나이. 서룬 나 동싱아, 아이 곱닥  
헌<sup>1743)</sup> 얼굴에 조은 소리에, 소리도 그만허난 허사로구나. 조은 얼굴도 이제 못  
볼로구나.”

허멍 오빠들이 막 운 거라. 경 험 막 울언

“새로 잘 물어주마이.”

허연에. 개광자리도 새로 파고, 새로 허영 가멩이턱 허단 덮어놓고, 봉분도 곱닥  
허게 해연. 경 험 와부난, 양씨애미 이제 저승은 들어가가난 서천꽃밭디서 아따,

1739) 도고리: 큰돌이나 통나무의 가운데를 쪼아 넓고 움푹하게 파내어 물건을 놓거나, 동물에  
게 먹이를 줄 때 쓰는 것.

1740) 우터레: 위에.

1741) 증가불었어: 잠가버렸어.

1742) 마페 치메: 마포 치마.

1743) 곱닥헌: 예쁜.

인간에 얼굴도 좋다, 계난 예으섯(十六) 나는 해에 문 잡안 눈게 쓰무하나(二十一) 나는 해 오월 쓰무나홀(二十四日) 날엔 경 죽은 거주. 경 허난 인간에도 얼굴 잇구나. 너무 얼굴도 곱덴. 경 헨 양손으로 완 손 심영 서천꽃बाट디 돌앙 가난 꽃 감관 꽃생인은 꽃하 양씨애미 주멍 이거 키우렌 허난, 아, 양씨애미 꽃 준건 시들 시들 문딱 몰라분 거라. 계난 꽃감관 허는 말이

“양씨애미야, 어뎡허연 너 우론 쉼웨기 콤내여<sup>1744)</sup> 돼지고기에 종경내여<sup>1745)</sup> 몰웨기<sup>1746)</sup>에 누린내여 개고기에 노랑내여 부정이 만허연 검뉴울꽃 돼졌저. 는 이 꽃बाट디 못산다 돌아가랜.”

경 보내부난 이젠. 저승 용도머리에 완 앓안. 저승도 못 가고, 이승엔 완 보난 신체는 물어불엇주게. 계난 살아나지도 못허고 경 허연 앓안 울었이난, 고전적 하르방은 몰 탕 왕강싱강 즈순네 집이 곱허난 상 받젠 느려삼시난

“어드레 가는 하르바님 뵈네까?”

허난,

“난, 고전적인데 우리 즈순네 집이 곱허는디 상 받으레 값젠.”

허난,

“아이고, 하르바님아, 나도 돌앙 가 줍서. 나도 인간에 오라바님네 삼형제가 잇수다만은 큰오라방 강단허연 나 심방 낫젠 허난 못 나게 허연 날 죽여부난 큰오라방 까지는 씨멜쪽<sup>1747)</sup>을 시기쿠다만은 셋오라방 까지 죽은오라방 까지가 이시난, 셋오라방 까지 죽은오라방 까지 삼년 일동 곱허민 현감님도 모셔강 상을 받아 안네쿠다. 날 돌앙 가 줍센.”

하도 허난,

“계난 넌 부정이 만 허난이 풋죽<sup>1748)</sup>이라도 사 먹영 부정 가영 오렌.”

허난, 이젠 풋죽 할망신디 간 풋죽 사 먹어앗언 현감님이 돈 주난 그거 앓앙 강헤연 사먹영 오난, 현감님은 올레에 이시난 심방이 전적 하르바님도 읍센 헤연 들어가불고 양씨애민 어느때 올레 사도 누게 원, 원미<sup>1749)</sup> 혼 숟가락 감주 혼 잔 주는 자가 엇인 거라. 겐 올레 어깃답에 샷단 셋오라방 딸신디 의탁을 헨 거라. 의탁허연,

“난 양씨애민데, 어느 누게 원미 혼 그릇 아니 주고 감주 혼 잔 안 주고. 난,

---

1744) 콤내여: 쇠기를 냄새여.

1745) 종경내여: 소, 돼지 따위의 불알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

1746) 몰웨기: 말고기.

1747) 씨멜쪽: 흔적이나 근거가 없이 모두 없어지다.

1748) 풋죽: 팔죽.

1749) 원미: 영위 앞에 올리는 흰쌀만으로 쏜 죽.

큰오라방 너무 강단허연 개장국 끓연 나 우이 씌어부난, 난 부정허연 저승도 못 가고, 이싱도 완 보난 신체 물어부난 이승도 못 오고, 경 허연 난 양씨애미노라.”

입으로, 들런 막 휘뿌리는 거라.

“나 울영 삼년 일동 큰굿 허민 큰빔 사게 해주고, 죽은굿 허민 죽은빔 사게 해주웨, 큰가지는 나가 씨멜쪽<sup>1750)</sup>을 시기겠다. 겐디 셋가지 죽은가지는 막 번성을 해주크메 나 울영 삼년 일동 굿해 도렌.”

경 허명 해난 법으로서 양칩이는 고전적 하르방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양씨애미를 조승 용도머리에서 만났 혼디 돌앙 가난 때문에 양씨애미가 우리 즈순네 굿혈 때는 나가 받아 안네쿠다 해나부난, 이제 양칩이 굿혈 때도 고전적 거느리는 법입니다.

---

1750) 씨멜쪽: ‘씨멸족(氏滅族)’에서 유래한 말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로 쓰임.

## 부록 2. 남서족동파고적 역주전집

### 《纳西东巴古籍译注全集》总目录

#### 第1卷

祭天・远祖回归记

祭天・奠酒

祭天・献饭・点洒灵药

祭天・用牛许愿作来年祭牲

祭天・用鸡许愿作来年祭牲

祭天・祭无人祭祀的天

祭祖・祀绝户家的天・献牲献饭

祭祖・迎接回归享祭的祖先

祭祖・献牲

祭祖・献饭

祭祖・春季祭祖・讲述猛恩鬼的来历

#### 第2卷

迎素神・除秽

迎素神・竖神石・倒祭粮・点神灯

迎素神・烧天香

迎素神・送里多・敬酒

大祭素神・献牲

大祭素神・为素神献饭

大祭素神・点洒神药・抹圣油・拉福分

大祭素神・与素神拴结・娶女托付给素神

迎素神・立素神桩・往素神簋内放物・拴流纓

迎素神・办喜事说吉利话

迎素神・素米故

#### 第3卷

祭村寨神仪式・除秽・除秽的来历

祭村寨神仪式・烧天香

祭村寨神仪式・迎请村寨神

祭村寨神仪式・献牲

祭村寨神仪式・献饭

祭村寨神仪式・竖村寨标・用鸡许作来年祭牲之愿

祭村寨神仪式・规程

祭祀谷神仪式・迎谷神

祭星仪式・祭星

祭猎神仪式・献牲・献饭

祭猎神仪式・祭猎神

#### 第4卷

祭胜利神仪式・烧天香

祭胜利神仪式・迎请胜利神・追述先祖回归的故事

祭胜利神仪式・迎请胜利神・献饭

祭胜利神仪式・索求福分

祭胜利神仪式・在屋顶上祭胜利神

祭胜利神仪式・在高处祭胜利神

祭畜神仪式・追述远祖回归的故事

祭畜神仪式・献牲

祭畜神仪式・献饭

求仁仪式・献牲・仁的出处来历

求仁仪式・献饭・施药及祭祀规矩

祭景崩仪式・祭景神和崩神

#### 第5卷

祭署・仪式概说

祭署・设置神坛・撒神粮・卷尾

祭署・请署歇息・唤醒署

祭署・迎请尼补劳端神

祭署・署的来历

祭署・请署

祭署・请署酋降临

祭署・点燃神火灯

祭署・送刹道面偶

祭署・烧天香（上、下）

#### 第6卷

祭署・开坛经

祭署・卢神的起源

祭署・送署酋守门者

祭署・迎接佐玛祖先上卷、中卷

祭署・迎按佐玛祖先尾卷

祭署・用白山羊白绵羊白鸡偿还欠署的债

祭署・都沙敖吐的故事

祭署・普蚩乌路的故事

祭署・神鹏与署争斗的的故事

祭署・把署猛鬼分开

### 第7卷

祭署·俺双金套姆和董若阿夸争斗的故事  
祭署·蚩堆三子的故事  
祭署·梅生都迪与古鲁古久的故事  
祭署·妥构古汝和美利董主的故事  
祭署·祭署的六个故事  
祭署·鸡的来历  
祭署·沈爪构姆与署争斗的故事  
祭署·崇忍利恩的故事  
祭署·纽莎套姆和纽莎三兄弟到人类家中  
祭署·高勒趣招父魂·请署·崇忍潘迪的故事

### 第8卷

祭署·崇忍利恩·红眼仄若的故事  
祭署·美利恒孜与桑汝尼麻的故事  
祭署·杀猛鬼、恩鬼的故事  
祭署·送傻署  
祭署·东巴什罗开署寨之门·让署给主人家赐予福泽·保福保佑  
祭署·建署塔  
祭署·白“梭刷”的来历·药的来历  
祭署·拉朗拉镇的故事  
祭署·给署供品·给署献活鸡·放五彩鸡  
祭署·迎接四尊久补神·开署门

### 第9卷

祭者·给署许愿·给署施药·偿署债  
祭署·招魂经  
祭署·不争斗·又和好  
祭署·求福泽与子嗣  
祭署·给署献活鸡·开署门  
祭署·木牌的出处与崇忍潘迪找药的故事  
祭署·给仄许愿·给饶许愿  
祭署·立标志树·诵开坛经  
祭署·送神  
除秽和祭署仪式规程

### 第10卷

延寿仪式·迎请许冉五方大神、东巴、刹道神和哈姆女神  
延寿仪式·迎净水  
延寿仪式·迎请拉姆女神·中卷  
延寿仪式·压冷湊鬼·迎请祖先



延寿仪式・请三代祖先战神・末卷  
延寿仪式・搭白帐篷・设神坛・请神并供养神  
延寿仪式・设神坛・神箭的来历

第11卷

延寿仪式・请神降临首卷中卷  
延寿仪式・神为穷家招富强  
延寿仪式・迎请三百六十尊战神・压所有的鬼  
延寿仪式・杀绵羊牺牲・诵白水黑水经咒  
延寿仪式・献牲・献圣灵药・求福泽  
延寿仪式・看拴白羊的绳以占卜  
延寿仪式・绵羊牺牲的来历・解绵羊之梦  
延寿仪式・有绵羊作拉朗纳昌占卜  
延寿仪式・用威风的白绵羊占卜・愿一切吉祥・迎请优麻战神

第12卷

延寿仪式・大祭署・建署的白塔  
延寿仪式・寻找散失的战神・迎请优麻神摧毁九个仇寨  
延寿仪式・供养优麻战神  
延寿仪式・九颗华神石的出处来历  
延寿仪式・华神的出处来历  
延寿仪式・崇忍利恩的故事・向华神献牲

第13卷

向战神献饭・供养战神  
延寿仪式・向祖先战神献饭・供养祖先战神  
延寿仪式・迎请依端拉姆女神（中卷）  
烧白色梭刷火把除秽・请十三位依端拉姆女神・女神念咒洗秽  
延寿仪式・居那若罗神山与含依巴达神树的出处来历  
延寿仪式・砍翠柏天梯的梯级  
延寿仪式・请景补天神开天门・迎请神  
延寿仪式・东巴弟子求威灵（上卷）  
延寿仪式・东巴弟子寻求本领（中卷）  
延寿仪式・东巴弟子寻求本领（末卷）

第14卷

延寿仪式・架银桥和金桥・开松石路和墨玉路  
延寿仪式・迎请华神及诸神・挂龙幡・竖“督”树  
延寿仪式・迎请华神・迎请巩劳构补神  
延寿仪式・嘎神神山的出处・请素神、嘎神、俄神・招子嗣福泽及富强  
延寿仪式・招生儿育女的素神・清玖补神锁仓门

延寿仪式・向诸神的威灵献饭  
延寿仪式・求富强之威灵・招富强  
延寿仪式・建翠柏纳召及白塔  
延寿仪式・圣灵药的出处・向三进六十尊战神献药  
延寿仪式・供养神・用翠柏天梯接寿岁（下卷）

#### 第15卷

延寿仪式・送祖先战神到上方  
延寿仪式・甘露圣灵药的来历・迎圣灵药  
延寿仪式・送龙  
延寿仪式・请本丹战神・送神  
延寿仪式・把美汝柯兴柯罗降下的臭鬼和支鬼抵上去  
延寿仪式・求寿求岁・求华神石华神水  
延寿仪式・接寿岁・供养神并送神  
延寿仪式・求大神威  
延寿仪式・仪式规程・是卢神所说的

#### 第16卷

小祭风  
祭风・开坛经  
祭风・毒鬼灰鬼的出处和来历・偿还鬼债  
祭云鬼和风鬼・送牲・偿还鬼债  
祭风・为祭木取名  
小祭风・饶鬼的来历・祭祀和吾神  
祈求福泽・祭风招魂・鬼的来历・首卷  
祈求福泽・祭风招魂・鬼的来历・卷末

#### 第17卷

祭风・白色饶鬼、毒鬼、灰鬼出世  
祭毒鬼、灰鬼・呆鬼的出世・驮秃角黑鹿  
祭毒鬼、灰鬼、云鬼、风鬼・超度吊死者、殉情者・送冥马  
小祭风・安置壬鬼・卷首・卷中・卷末  
祭风・分出壬鬼・卷首  
小祭风・割楚鬼绳索・分出壬鬼  
小祭风・施食

#### 第18卷

祭风・给鬼开门・木牌的产生  
祭风・求助于十八个乌普初吉，镇压千千万万楚鬼尤鬼  
祭风・迎请刹依威德战神镇压鬼  
祭风・迎请卡冉纽究神・众神降临

祭云鬼、风鬼、毒鬼、仄鬼・加神威灵  
祭景神、崩神和中间柏神  
祭毒鬼、仄鬼、云鬼、风鬼・交鬼食  
祈求福泽・祭呆鬼和仄鬼

第19卷

祭风・超度董族吊死者・卷首  
祭风・超度董族吊死者・卷末  
杀猛鬼恩鬼  
迎请优麻战神・优麻的出处来历  
祭风・除鬼  
小祭风・除九种灾祸  
顶灾经・祭端鬼和疰鬼  
高勒趣招魂・除丹鬼

第20卷

祭祀毒鬼仄鬼・点呆鬼名  
小祭风・请呆鬼・偿还呆鬼债  
祭毒鬼・仄鬼・分割村寨和山岭  
祭神・祭风神娘娘  
小祭风・施吃食份额  
祭云鬼和风鬼・给星鬼烧鬼毒鬼仄鬼施食  
祭毒鬼・仄鬼・送木牌和鸡用山羊给各代的鬼交食份抛面偶  
送木牌和鸡交给仄鬼吃喝的份额

第21卷

抛卡吕面偶  
祭风・招回凶死者的魂魄  
祭风・将署和龙送回住地  
顶灾经  
祭云鬼和风鬼・结尾经  
祭风・说难道易  
小祭风・木牌画稿・祭祀规程  
祭风・木牌画稿・仪式规程  
祭云鬼风鬼毒鬼仄鬼・木牌画稿・祭祀规程

第22卷

禳垛鬼大仪式・禳垛鬼祭仪概述经  
禳垛鬼大仪式・设神座献祭粮经  
禳垛鬼大仪式・给卢神沈神除秽经  
禳垛鬼大仪式・请求神灵帮助经

禳垛鬼大仪式・烧天香

#### 第23卷

禳垛鬼大仪式・垛鬼铎鬼来历经

禳垛鬼大仪式・举行祭仪陈述因由经

禳垛鬼大仪式・请卢神沈神起身经和求神赐威力附体经

禳垛鬼大仪式・点油灯作供养经

禳垛鬼大仪式・迎请九个妥格大神

#### 第24卷

禳垛鬼大仪式・驱鬼经上册

禳垛鬼大仪式・驱鬼经中册、下册

禳垛鬼大仪式・驱丹鬼经

禳垛鬼仪式・人类起源和迁徙的来历

禳垛鬼仪式・白蝙蝠求取祭祀占卜经

#### 第25卷

禳垛鬼仪式・给优麻神烧天香作供养经

禳垛鬼大仪式・用十二种牲畜祭祀的来历

禳垛鬼仪式・寻找洗手除秽水经

禳垛鬼仪式・给鬼施放和递交牺牲经

禳垛鬼仪式・董术战争

#### 第26卷

禳垛鬼大仪式・哈桑战争

禳垛鬼仪式・施放余劳丁端的替身

禳垛鬼仪式・端和铤争斗、施放沈爪构姆的替身

禳垛鬼仪式・端和铤争斗、施放董若依古庚空的替身

禳垛鬼仪式・寿首阿姆神与牟寿牟姆鬼、崇忍利恩与丹美久保的故事

禳垛鬼仪式・九个天神和七个地神的故事

禳垛鬼仪式・施放岛周欧吾的替身

禳垛鬼仪式・崇忍利恩与愣启斯普的故事

禳垛鬼仪式・哈拉古补与桑衬化姆的故事

禳垛鬼仪式・高勒趣、哈若尼恩、哈拉古补施放替身经

#### 第27卷

禳垛鬼仪式・禳祭祀主人本命所在的巴格方位里的鬼

禳垛鬼仪式・镇压属相相克的灾祸鬼

禳垛鬼仪式・施放作为替身的九个普梭木偶和绵羊、猪、鸡

禳垛鬼仪式・施放作替身的七个蒙梭木偶

禳垛鬼仪式・用小松树作为替身的来历经

攘塚鬼仪式・叙述灾祸的出处来历经上册  
攘塚鬼仪式・排除疾病凶灾、解除鬼怪缠绳、分开人与鬼  
攘塚鬼仪式・烧嘎巴火把驱鬼经  
攘塚鬼仪式・十八个琪神的来历经

第28卷

攘塚鬼仪式・迎清刹依威德神  
攘塚鬼仪式・用牛作替身，偿还若罗山东面的鬼债  
攘塚鬼大仪式・用牛作替身，偿还若罗山南面的鬼债  
攘塚鬼大仪式・用牛作替身，偿还若罗山西面的鬼债  
攘塚鬼大仪式・若罗山北面属水的革洛人哈布赤补的故事  
攘塚鬼仪式・迎请端格神和优麻神，捣毁术鬼寨和摧毁术鬼地，给嘎劳神洗秽  
攘塚鬼大仪式・向东巴什罗寻求镇鬼的本领  
攘塚鬼仪式・分清神鬼与杀牲施鬼经  
攘塚鬼仪式・铠甲的出处来历

第29卷

攘塚鬼仪式・施放展巴四兄弟的替身  
攘塚鬼仪式・崩俄崇忍的故事  
攘塚鬼仪式・施放用柳人做的崇忍潘迪的替身  
攘塚鬼仪式・大施鬼食经  
攘塚鬼大仪式・都沙敖吐扔出施给纽格敦乌的皮口袋和扔多玛面偶  
攘塚鬼仪式・捕仇敌魂埋仇敌魂  
攘塚鬼仪式・用柳枝男偶像作替身关死门经  
攘塚鬼大仪式・打开史支金补鬼的柜子招魂经  
攘塚鬼仪式・考补余登吐口水，偿还垛苏扼古麻的债

第30卷

攘塚鬼仪式・驱送铎鬼经  
攘塚鬼仪式・祭莎劳古补，解生死结  
攘塚鬼仪式・驱赶梭那柯恭鬼  
攘塚鬼仪式・驱送垛鬼铎鬼，攘塚鬼仪式结尾经  
攘塚鬼大仪式・招魂经

第31卷

攘塚鬼仪式・乌格神与乌麻鬼争斗，送乌格大神经  
攘塚鬼仪式・送大神经  
攘塚鬼仪式・小祭素神经  
攘塚鬼仪式・安垛鬼和唤醒垛鬼经  
河谷地区祭鬼仪式・开天辟地的经书

### 第32卷

禳垛鬼仪式·董神与术鬼的故事，扔嘎巴火把  
禳垛鬼仪式·董若阿路与术主的女儿牟道庚饶拿姆的故事  
禳垛鬼仪式·施放卢神沈神的替身  
禳垛鬼仪式·把枕头作为替身扔出去的经书  
禳垛鬼仪式·解结绳·丢弃里朵  
禳垛鬼仪式·送走余补劳舍  
禳垛鬼仪式·给垛鬼还债·让驮灾母马丢弃灾难  
禳垛鬼仪式·给木偶衣服·上卷下卷·关死门  
禳垛鬼仪式·请猴子·接狐狸  
禳垛鬼仪式·招祖先之魂·招活人的灵魂

### 第33卷

禳垛鬼仪式·慰抚猴子狐狸·放替身  
禳垛鬼仪式·慰抚猴子狐狸·给饭·送猴子狐狸  
禳垛鬼仪式·慰抚猴子狐狸·关死门  
禳垛鬼仪式·地面开裂、关地缝古籍·上卷  
禳垛鬼仪式·堵塞地缝·后卷  
禳垛鬼仪式·送走醋西吉命  
禳垛鬼仪式·用猪作替生·丢弃鳌鱼鬼  
禳垛鬼仪式·枚生督迪、美梅古迪打猎，丢弃灾袋  
禳垛鬼仪式·迎接莫毕精如神、优麻神

### 第34卷

禳垛鬼式·召唤呆鬼  
禳垛鬼仪式·请格空神  
禳垛鬼仪式·丢弃格空面偶  
禳垛鬼仪式·清本丹神·送走灾难  
丽江县大东乡禳垛鬼大仪式规程  
丽江县金山乡贵峰村禳垛鬼大仪式规程  
丽江县鲁甸乡禳垛鬼小仪式规程

### 第35卷

退送是非灾祸·开坛经·为卢神沈神除秽  
退送是非灾祸·请神降临·卢神起驾  
退送是非灾祸·为卢沈二神洗秽·砍杀仇鬼  
退送是非灾祸·祭送口舌是非鬼  
退送是非灾祸·献猪鸡牺牲  
退送是非灾祸·献牲经  
退送是非灾祸·灾祸的产生与传播·景鬼与瓦鬼的出处及祭送  
退送是非灾祸·端鬼的来历·上卷

退送是非灾祸・求福泽

退送是非灾祸・创世纪

### 第36卷

退送是非灾祸・当尤争斗

退送是非灾祸・盘神禅神与毒鬼灰鬼的斗争

退送是非灾祸・董争术斗

退送是非灾祸・哈族与斯族的故事

退送是非灾祸・崇忍利恩与衬恒褒白传略

退送是非灾祸・揉巴四兄弟事略

退送是非灾祸・都沙敖吐传

退送是非灾祸・崇忍利恩与楞启斯普的故事

退送是非灾祸・镇压毒药与祸端・请日月・引水

退送是非灾祸・抛放雄罗面偶

### 第37卷

退送是非灾祸・捉拿仇鬼・煮杀瓦鬼

退送是非灾祸・把毒水抛向仇人・请优麻战神镇压瓦鬼

退送是非灾祸・求水经

退送是非灾祸・启神的出处来历・抛送考吕面偶

退送是非灾祸・抛送灾祸经

退送是非灾祸・分清黑石与白石

退送是非灾祸・祈求福泽经

退送是非灾祸・祭祀仇鬼・镇压仇魂

退送是非灾祸・捉拿仇鬼・煮杀灾祸鬼

退送是非灾祸・煮杀是非灾祸

### 第38卷

退送是非灾祸・十八个威毕仲金启当的来历

退送是非灾祸・麻登大神赶鬼

退送是非灾祸・为优麻战神烧天香・消灭千千万万的鬼怪

退送是非灾祸・迎请什罗大祭司

退送是非灾祸・迎请莫毕精如大神

退送是非灾祸・山刃利刀镇压扣古鬼

退送是非灾祸・驱鬼经卷首

退送是非灾祸・赶鬼（上卷）

退送是非灾祸・驱除垛鬼铎鬼等九方仇鬼

退送中非灾祸・送神经

退送足非灾祸・辞送是非灾祸鬼

### 第39卷

除秽・烧天香  
除秽・撒神粮・点燃灯神  
除秽・迎请卢神  
除秽・请神降威灵经  
除秽・秽的来历  
除秽・除秽的来历  
除秽・古事记

### 第40卷

除秽・白蝙蝠取经记  
除秽・系宝物的利箭的来历  
除秽・用黑梭刷火把除秽・上卷  
除秽・用黑梭刷火把除秽・下卷  
除秽・咒白水黑水  
除秽・分开秽门和神门

### 第41卷

除秽・董术争战  
除秽・天女纳卡依端的故事  
除秽・刹道斯汝的故事・为署引路・为署架桥  
除秽・为崇忍利恩除秽  
除秽・恩恒尼汝、高勒高趣的故事  
除秽・高勒趣和金命金兹的故事・精恒吉鲁的故事  
除秽・枚生督迪的故事  
绕雪山九转除秽・崇仁居古都的故事  
除秽・为天女那生普麻除秽  
为东巴什罗除秽

### 第42卷

除秽・尤拉丁端、套拉金姆的故事・美利董主、茨爪金姆的故事  
除秽・崇忍利恩、衬恒褒白、岛宙超饶、沙劳萨趣的故事  
除秽・斯巴金补的故事  
除秽・都沙敖突的故事  
除秽・妞沙套姆的故事  
除秽・为天神九兄弟、拉命七姐妹烧梭刷火把  
除秽・为天神九兄弟、地神七兄弟除秽  
除秽・为尤巫梭爪除秽  
除秽・为妥构固汝除秽・包乌搓巴的故事  
除秽・九个故事  
除秽・用梭刷火把来除秽



第43卷

除秽・用益世丁子净壶的净水洗去秽  
除秽・用犏牛、牛、羊除秽（上）  
除秽・用犏牛、牛、山羊除秽（中）  
除秽・用犏牛、牛、山羊除秽（下）  
除秽・退送灾祸・解结・下接送秽鬼  
除秽・抛冷湊面偶  
除秽・秽驮于米纳打纳马（上）  
除秽・白梭刷火把的来历  
除秽・顶灾  
除秽・迎请佐体优麻神

第44卷

除秽・分清黑白  
除秽・优麻神砍倒黑秽树  
除秽・清除秽鬼・上卷  
除秽・清除秽鬼中卷・下卷・把当鬼分开  
除秽・结束经・退送秽鬼  
除秽・为人类退送秽鬼  
除秽・偿还秽债・清除秽鬼・后接清除秽鬼之规程  
除秽・仪式概说  
除秽・用山羊除秽  
除秽之规程

第45卷

压呆鬼・开坛经  
祭呆鬼・请呆鬼・偿还呆鬼债  
压呆鬼・请朗久敬久神  
压呆鬼・祭凶死者・射杀呆鬼猪  
压呆鬼・请妥构神  
压呆鬼・启的产生  
压呆鬼・请神  
压呆鬼・摧毁九个仇鬼寨  
请呆鬼・偿还呆鬼债・接呆鬼气  
祭呆鬼・法杖产生（下）

第46卷

驱呆鬼・请优麻神  
祭呆鬼・迎请刹依威德神・杀死米麻沈登鬼・杀死呆鬼  
祭呆鬼・崇忍利恩的故事  
压呆鬼・请朗久敬久神・下卷

祭呆鬼仪式・超度凶死者・制作亡灵木偶

祭呆鬼・把死者的灵魂从猛鬼处招回

驱呆鬼・捉拿肯孜呆尤鬼

祭呆鬼・把本丹神领回到上面

送走鬼・下卷

驱史鬼・鬼的来历

#### 第47卷

祭端鬼・神赐威力

请神压端鬼・端鬼的来历

驱端鬼・寻求祭祀占卜书

祭端鬼

祭端鬼・驱端鬼・献牲

祭端鬼・端鬼的出处来历・把十八个端鬼压下去

撵端鬼・启出处

祭端鬼・驱端鬼（上）

祭端鬼仪式规程（中）

祭端鬼・驱端鬼（下）

#### 第48卷

驱赶作祟于九种牲畜的端鬼

祭端鬼・请精如神驱端鬼（上卷）

祭端鬼・请莫毕精如・后卷

祭端鬼・请东巴什罗

送端鬼・后半部分是仪式规程

祭端鬼仪式规程

驱端鬼和尤鬼

扼古鬼的产生・开坛经・驱扼古鬼

祭臭鲁鬼・臭鲁鬼的产生和来历

驱扼古鬼・点神灯

#### 第49卷

扼古鬼的出处

扼古鬼、呆鬼、臭鬼的来历

分开妥罗鬼・用鸡还鬼债・招魂

扼古鬼的产生・灾祸的出处・请仇鬼罩仇鬼・铎鬼的产生・木偶和面偶的产生

祭嫩毒鬼・把嫩毒鬼驱到居那若罗山的四方

抛面偶・祭扼古鬼

放替身・送火鬼、臭鬼和替罗鬼

戈布鬼来作祟

祭替罗鬼・公鸡的来历

驱走扼古鬼

第50卷

驱扼古鬼・请东巴什罗

驱扼古鬼・上卷

请端格神・杀扼古鬼

请端格神・请本丹神・本丹水的出处和来历

烧上天香・请本丹神下来

祭扼古鬼・请本丹神

请东巴什罗・设置本丹神灶

送走扼古鬼

送走火鬼・压替罗鬼

除鬼的产牛

第51卷

祭猛鬼利恩鬼・为董神和沈神除秽・开坛经

祭水猛鬼和水恩鬼・水猛鬼与水恩鬼的出处来历

祭水猛鬼和水恩鬼・祭端鬼・顶灾

祭猛鬼和恩鬼・献牲・杀鸡

祭猛鬼和恩鬼・驱鬼・上卷・遣送丹鬼

祭猛鬼和恩鬼・驱鬼・中、下卷・遣送丹鬼

祭固鬼和鲁鬼・祭猛鬼和恩鬼・高勒趣招父魂

祭猛鬼和恩鬼・找猛鬼和赶猛鬼

祭猛鬼和恩鬼・结尾经

第52卷

祭蛇鬼

蛇鬼的出处来历

送蛇鬼

祭豹鬼虎鬼・祭蛇鬼

请豹鬼・送豹鬼

送豹鬼虎鬼・祭猛鬼恩鬼・祭端鬼・送蛇鬼・送铎鬼

祭凸鬼鲁鬼和利鬼

祭凸鬼猛鬼・开坛经・还债・献牲

景仄景娆・祭好争・祭木号高拉・祭凸鬼还凸鬼债・祭灶神

送喜神白虎

第53卷

关死门仪式・规程及画稿

关死门仪式・开坛经

关死门仪式・排除署干扰・规程

关死门仪式・人类的起源  
关死门仪式・九位天神和七位地神的传说  
关死门仪式・都沙敖口、崇忍利恩、高勒趣三个的传说  
关死门仪式・给牲  
关死门仪式・给牦牛洒法水关死门  
关死门仪式・献饭，招魂  
关死门仪式・送猴子狐狸面偶经  
关死门仪式・超度穿戴麻布衣的亡灵本身

#### 第54卷

关死门仪式・把死灵从烧鬼手中赎回  
关死门仪式・给美利董主、崇忍利恩解生死冤结  
关死门仪式・解生死冤结・超度沙劳老翁  
关死门仪式・赶鬼上集  
关死门仪式・赶鬼下集・送丹鬼  
关死门仪式・结尾经  
驱妥罗能特鬼仪式・搭神坛・竖神石  
驱妥罗能特鬼仪式・开坛经  
驱妥罗能特鬼仪式・迎请朗久、敬久战神  
驱妥罗能特鬼仪式・迎端格战神  
驱妥罗能特鬼仪式・驱鬼送鬼

#### 第55卷

超度死者・卢神起程，向神求威力  
超度死者・杀猛鬼和恩鬼，高勒趣招父魂  
超度死者・献给死者猪和鸡  
治丧・钉“古顺”  
超度死者・献牦牛和马  
超度死者・燃灯  
超度死者・头目和祭司来燃灯  
超度死者・这是年轻死者之挽歌  
开丧和超度死者・安慰死者之歌  
超度死者・小规模做献冥马仪式

#### 第56卷

开丧和超度死者・杀牲献牲  
开丧和超度死者・遗留福泽  
超度死者・献肉汤・上卷  
超度死者・献肉汤・下卷  
超度死者・人类迁徙的来历・上卷  
超度死者・人类迁徙的来历・下卷

超度死者・执法杖・上卷  
超度死者・执法杖・下卷  
开丧和超度死者・送死者的挽歌

第57卷

度死者・忘掉惊慌  
超度死者・收种庄稼，给死者献饭  
超度死者・献供品  
开丧・隆重地举行献冥马仪式  
超度死者・三十三支法杖和服装的出处来历  
超度死者・破土  
超度女能者・超度产褥期死亡的妇女・末卷  
关死门・赶鬼・上卷  
超度死者・把走的马送去上面  
关死门・用牦牛关死门

第58卷

超度死者・在居那若罗山的四周招死者之魂  
超度死者・驱除死祸  
开丧・挎獐皮口袋  
开神路・上卷  
开神路・达树的来历  
开神路・末卷  
超度死者・生离死别，送死者  
超度死者・窝姆打庚  
超度死者・寻找纺织品  
开丧・用面偶吸附灾祸，驱赶灾祸

第59卷

超度死者・擀制白羊毛服装  
超度死者・抛头和角骷髅  
超度死者・服装及白羊毛穗子的来历。在那刹坞门前，讲述三样醇酒的来历  
关死门・安慰死者之歌  
超度死者・送死者，催促死者起程  
超度死者・退送口舌是非  
超度死者・驱除不祥的厄运  
超度死者・烧天香  
开丧・祭跟死者作祟的季鬼

第60卷

超度死者・削造亡灵木身

超度死者・在孜劳大门口迎接亡灵本身和死者  
超度死者・药的来历和点药，杀牲，占风水，削造亡灵本身  
开丧和超度死者・唤醒死者  
超度死者・铎鬼的出处来历  
关死者・招魂，接气  
超度死者・用九种树枝除秽，报恩  
超度死者・解厄  
超度死者・解厄，大厄小厄的祸患没有了  
超度死者・由舅父毁坏死者冥房，献冥食，关死门

#### 第61卷

超度夫和妻・亡灵本身睡在坛里，驱赶冷湊鬼  
超度夫和妻・献牲  
超度夫和妻・抛“卡吕”面偶  
超度夫和妻・放陪伴鸡  
超度死者・寻找和复原死者的身体  
超度死者・先辈超度后辈  
超度死者・超度锐眼死者  
超度夫和妻・把罪过驮在马上・末卷  
超度死者・绸衣的来历，洒药  
超度死者・崇忍潘迪找药

#### 第62卷

超度死者・死者跟着先祖们去登上面・抛白骨和黑炭  
超度死者・献牲  
超度死者・寻找丧葬的来历  
超度死者・用猪分开死者与活者  
超度死者・俄依高勒的九个儿子的故事  
超度死者・竖天灯树・让青龙条幅飘荡  
超度死者・讲述死者的业绩  
超度死者・放陪伴的对偶・唤死者起程  
超度嘎瓦劳端工匠・超度能者  
超度嘎瓦劳端工匠用的经书

#### 第63卷

超度死者・俄佑俄都命杀猛鬼的故事・上卷  
超度死者・献冥食  
超度死者・迎接亡灵本身和死者  
超度死者・关死门，结尾经  
超度男能者・铺设神座  
超度能者・唤醒能者

超度能者・许诺给能者用物，献药  
超度男能者・合集，能者名声的来历  
超度能者・在若罗山四周招魂，超度季贝贤女，在巴格的八个方位招魂  
超度能者・献马，驱赶冷凑鬼

第64卷

超度能者・迎接优麻神  
超度能者・武器的来历  
超度能者・马的来历  
超度男能者・摧毁九座督支黑坡，给男能者招魂  
超度女能者・给女能者招魂・九座督支黑坡上的木牌画规程  
超度男能者・给能者招魂，给能者献冥马  
超度女能者・铺设神座・招魂  
驱赶扼古鬼・迎接端格神  
超度死者・杀牲  
超度死者・烧里陶冥房及超度夫妻

第65卷

超度男能者・虎的来历，分虎皮  
超度能者・分虎皮  
超度女能者・末卷  
超度女能者・三段  
超度女能者・合集  
超度能者・仪式规程，送神  
超度长寿者・超度茨爪金姆  
超度美利董主・把美利董主和东巴什罗像神一样地送去上面  
超度金姆・为能者招魂，给能者献冥马  
超度长寿者・砍树片

第66卷

超度长寿者・超度美利董主和茨爪金姆  
超度长寿者・给茨爪金母燃长寿灯  
超度长寿者・燃灯  
超度长寿者・驱赶冷凑鬼  
超度长寿者・由马鹿寻找丢失了的董魂  
超度长寿者・米丹给补锅的来历  
超度长寿者・火化男尸体  
超度长寿者・送美利董主和马鹿

第67卷

超度死者・执法杖・后卷・鸡鸣唤死者

超度死者・超度放牧牦牛、马和绵羊的人，招魂  
超度死者・超度放牧牦牛、绵羊和马的人  
超度放牧牦牛、马和绵羊的人・燃灯和迎接畜神  
超度放牧牦牛、马和绵羊的人・美利董主、崇忍利恩和高勒高趣之传略  
超度死者・迎接胜利者，献牦牛牺牲  
超度放牧牦牛马和绵羊的人・驱赶冷湊鬼，摧毁九座督支黑坡  
超度死者・开神路，驱赶冷湊鬼  
超度死者・开神路・破九座黑坡

#### 第68卷

开神路・合集  
开神路・金坤珂路的来历  
开神路・中卷  
开神路・拆里塔冥房  
开神路・开塔古黑柜的门  
开神路・把死者领到有依端宝物的地方  
超度死者・祭将归祖的死者，由舅父给死者领路，献饭，关死门  
超度死者・用白牦牛和黑牦牛驱赶不祥的厄运  
关死门・偿还烧鬼的欠债  
超度胜利者・竖胜利者天灯树、武官树、美德者树，插胜利旗，挂武官和美德者衣服

#### 第69卷

超度死者・请来舅父破崩人的九座村庄  
超度死者・生离死别  
超度死者・放陪伴鸡  
超度胜利者・上卷  
超度胜利者・中卷  
超度胜利者・末卷  
超度胜利者・招魂  
超度胜利者・锐眼督直守卫胜利者的村寨、大门和山坡，集中后送有威望的胜利者  
超度胜利者・董的伊世补佐东巴，点着火把寻找失踪了的胜利者  
开丧和超度死者・半夜讲粮食的来源，鸡鸣时给狗喂早餐，并献给死者供品

#### 第70卷

超度胜利者・驱赶冷湊鬼，摧毁九座督支黑坡  
超度胜利者・在胜利者门口招魂，在祭祀场地里招魂，迎接胜利者  
超度胜利者・中卷，末尾为规程  
超度胜利者・末卷，献饭，遗留福泽  
超度死者・规程（之一）  
超度死者・规程（之二）  
超度死者・规程（之三）



超度死者・规程・铎鬼的出处来历  
超度胜利者・迎接优麻神・擒敌仇

第71卷

超度什罗仪式・铺设神座  
超度什罗仪式・为卢神沈神除秽  
超度什罗仪式・烧天香  
超度什罗仪式・迎请盘神禅神  
超度什罗仪式・点灯火

第72卷

超度什罗仪式・迎请什罗・杀三百六十个鬼卒・杀固松玛  
超度什罗仪式・在居那若罗山四面招魂  
超度什罗仪式・祈求神力・招死者的灵魂  
超度什罗仪式・出处来历・遗福泽・赐威力  
超度什罗仪式・还毒鬼之债  
超度什罗仪式・送固松玛

第73卷

超度什罗仪式・在黑毒海旁用黑猪还毒鬼之债  
超度什罗仪式・竖督树的来历  
超度什罗仪式・解脱过失・施水施食给冷凑鬼  
超度什罗仪式・开罗梭门・从海中招魂  
超度什罗仪式・刀子的出处来历  
超度什罗仪式・寻找什罗灵魂・弟子协力攻破毒鬼黑海  
超度什罗仪式・灵魂从血海里接上来・把本神送回去（下卷）  
超度什罗仪式・送走斯姆朗登  
超度什罗仪式・驱除是非过失引起的冷凑鬼  
超度什罗仪式・在生牛皮上点灯火  
超度什罗仪式・解除过失  
超度什罗仪式・开辟神路・洒沥血水  
超度什罗仪式・接祖・除秽・粮食之来历  
超度什罗仪式・寻仇・迎接本丹神  
超度什罗仪式・格巴弟子点神灯  
超度什罗仪式・求威力・赐福泽

第74卷

超度什罗仪式・驱赶冷凑鬼  
超度什罗仪式・用岩羊角解结  
超度什罗仪式・开神路・越过九道黑坡  
超度什罗仪式・打开柜子之门

超度什罗仪式・倾倒督树・把什罗从十八层地狱接上来  
超度什罗仪式・开神路（上）・法轮之出处  
超度什罗仪式・开神路  
超度什罗仪式・开神路（中）  
超度什罗仪式・开神路（下）

#### 第75卷

超度什罗仪式・指引死者灵魂之路・后卷  
超度什罗仪式・施鬼食・射五方之鬼王  
超度什罗仪式・火化后送什罗灵魂  
超度什罗仪式・烧灵塔  
超度什罗仪式・赐徒弟以威力  
超度什罗仪式・什罗改名十二次  
超度什罗仪式・杀牲・用羊占卜算卦  
超度什罗仪式・宰杀牲畜・供奉尊贵的祖先  
超度什罗仪式・隆重祭送常胜的死者  
超度什罗仪式・规程

#### 第76卷

超度拉姆仪式・拉姆的来历・迎接神灵  
超度拉姆仪式・为圣洁的神女拉姆除秽  
超度拉姆仪式・茨拉金姆传略  
超度拉姆仪式・东巴什罗配偶茨拉金姆・中卷  
超度拉姆仪式・追忆生前・寻找灵魂  
超度拉姆仪式・接送圣洁尊贵的神女  
超度拉姆仪式・用猪给毒鬼还债  
超度拉姆仪式・丢弃冷湊面偶  
超度拉姆（趣衣拉姆）仪式・送走大鹏面偶

#### 第77卷

超度拉姆仪式・丢弃卡里面偶  
超度拉姆仪式・送走里朵  
超度拉姆仪式・超度女能人・破除尼坞血海・丢弃过失  
超度拉姆仪式・送拉姆・射杀毒鬼灰鬼  
超度拉姆仪式・烧灵塔  
超度拉姆仪式・规程

#### 第78卷

祭绝后鬼・绝后鬼的出处与来历  
祭绝后鬼・绝后鬼的来历  
祭绝后鬼・上卷

祭绝后鬼・中卷  
祭绝后鬼・后卷  
祭绝后鬼・献牲经  
祭绝后鬼・分绝户财产  
祭绝后鬼・除秽・分开绝后鬼、秽鬼与家神、活人的财产  
祭绝后鬼・结尾经

第79卷

祭祀云鬼、风鬼、毒鬼、仄鬼设置神座・撒神粮  
大祭风・给卢神沈神除秽・开坛经  
大祭风・迎请大神  
大祭风・开坛经  
大祭风・十八支竹签的来历  
大祭风・迎请卢神  
大祭风・迎请卢神・求神威灵

第80卷

大祭风・创世纪  
大祭风・寻找祭祀吊死者和情死者的办法  
大祭风・迎请卡冉纽究神  
大祭风・迎接许冉・迎请众神  
大祭风・迎请莫毕精如神・卷首  
大祭风・迎请莫毕精如神・卷中  
大祭风・到十八层天上迎请莫毕精如神・卷末  
大祭风・大祭仄鬼・卷首

第81卷

大祭风・大祭仄鬼・卷末  
大祭风・抛卡吕面偶  
大祭风・迎请剝依威德战神  
大祭风・超度凶死者・为死者招魂・迎请朗久神  
大祭风・十二种牺牲的出处来历  
大祭风・用山羊、绵羊、猪、鸡给楚鬼献牲  
大祭风・祭毒鬼、仄鬼  
大祭风・用鸡给凶死者接气  
大祭风・鸡的出处和来历・用鸡偿还楚鬼的债・吊楚鬼鸡

第82卷

大祭风・砍出白木片招吊死者殉情者之魂  
分清神和呆鬼・掷黑石白石  
镇压呆鬼・迎请罗巴涛构及其仪式规程

大祭风・迎接祖先  
大祭风・招回祖先的魂魄・把祖先和楚鬼分开  
割断楚鬼绳索・将楚鬼和壬鬼分开  
大祭风・超度吊死和殉情的男女给人们双双献牲

#### 第83卷

超度楚鬼・寻找器物  
祭风・超度吊死者・情死衣的来历  
大祭风・超度吊死者・分割吊死者和呆鬼的财物  
人祭风・鲁般鲁饶  
祭风・给战神献饭  
大祭风・施药  
大祭风・美利董主的故事・上卷

#### 第84卷

大祭风・禳除年厄  
迎请格空大神  
迎请优麻战神，优麻降临，宰杀白绵羊，用绵羊的各个部位卜吉凶  
祭风・迎请盘神、禅神・迎请东巴什罗  
超度吊死者迎请端格神・煮本丹神水  
大祭风・镇压呆鬼・迎请神  
超度壬鬼・卷末  
大祭风・驮呆鬼的达耿金布马・卷首  
大祭风・超度吊死情死者・说苦道乐

#### 第85卷

大祭风・悬狗镇压呆鬼・招魂・狗的出处来历  
唤醒神灵・撒神粮  
大祭风・开楚鬼尤鬼之门  
大祭风・为祭木取名  
大祭风・超度吊死或殉情者・产生各种鬼的故事  
大祭风・祭祀楚鬼尤鬼・退送鬼魂卷首  
大祭风・退送鬼魂卷末  
大祭风・请鬼安鬼

#### 第86卷

退送九十个楚鬼和尤鬼  
大祭风・给寇寇朵居毒鬼送牲  
大祭风・分出壬鬼  
大祭风・祭吊死鬼、情死鬼、云鬼、风鬼・施食  
大祭风・粮食的来历

祭楚鬼、尤鬼、云鬼、风鬼・施楚鬼、尤鬼食  
大祭风・超度董族的吊死者・卷首  
大祭风・超度董族的吊死者・卷末  
大祭风・给吊死者献冥马

#### 第87卷

分开吊死者和活人  
大祭风・给死者换寿岁  
大祭风・抛冷湊面偶  
大祭风・吊死鬼与情死鬼木牌之来历  
大祭风・偿还鬼债  
大祭风・射呆鬼猪  
大祭风・细说死事  
大祭风・迎请罗巴涛格大神

#### 第88卷

迎请优麻战神  
大祭风・焚烧壬鬼鬼巢・鸡的出处来历・赶走壬鬼和楚鬼  
大祭风・迎清优麻神・砍倒壬鬼树・焚烧壬鬼巢  
大祭风・超度董族吊死者卷末・优麻战神砍卡拉尤鬼树  
大祭风・施楚鬼尤鬼食・拆楚鬼尤鬼房  
大祭风・招回本丹神兵  
大祭风・用白鹈鸟偿还署债・给署除秽  
祭云鬼、风鬼、楚鬼、尤鬼、毒鬼、仄鬼・施署财

#### 第89卷

超度吊死和殉情者・饶星飞奔将面偶抛到仇地去  
祭祀呆鬼仄鬼  
大祭风・镇压呆鬼佬鬼・送神  
祭朵神和吾神・献牲献饭  
大祭风・祭绝嗣者  
祭景神崩神・献牲・献饭  
祭乌刹命・送木牌送鸡  
大祭风・超度男女殉情者・制作木身

#### 第90卷

大祭风・超度新近死去的殉情者・上卷  
大祭风・超度新近死去的殉情者・末卷  
大祭风・超度刚去世的吊死者・把牺牲交给他们  
给病人招魂  
祭风・木牌羊鸡的出处和来历・偿还毒鬼仄鬼债

祭毒鬼灰鬼・分天地・哈斯争战

大祭风・顶灾・鸡和猪的来历・偿还端鬼鬼债・施鬼食

大祭风・俄佑九兄弟的故事

#### 第91卷

大祭风・超度董族吊死者・卷首・俄佑九兄弟寻找处理父亲后事的规矩

大祭风・为死者寻找伴侣

大祭风・超度吊死者情死者・让木身过溜

大祭风・超度楚鬼尤鬼结尾经

大祭风・推脱罪责

大祭风・送神

招集本丹战神・送神

大祭风・木牌画画稿

大祭风・祭寇寇朵居毒鬼的仪式规程

大祭风仪式中各种设置物的做法及仪式规程

#### 第92卷

大地上卜卦之书

以儿女生辰及母亲怀孕岁数等占卜

以日子占凶吉

用米吾九宫、鲁扎、巴格图占卜

以死者死亡的时、日、月、星占亡灵的动向・算重丧、算入棺、发灵时该回避的人

用巴格八方的色彩占卜、占穷运和霉运

用巴格八方的黑白等色占卜

以下雨、春雷、地震、日月蚀占卜决庄稼丰歉

以前占卜中用图占卜的卦辞

用巴格图占卜

#### 第93卷

用巴格占卜・算穷运霉运・用本命年算凶占

用巴格占卜・占梦卦辞

占梦之书

用五个贝占卜

用“米吾”九宫占男女结合为一家的凶吉

以异常现象占卜

以失物之时间作卦・占病因

以生病之月份占卜

炙羊肩甲骨卦

看病经书

第94卷

用发病日时之属相及日子占卜

用十三个贝占卜的卦辞

用十三个贝占卜

占卜请神

用天干地支及“米吾”九宫占

占星・看日子・看天狗降临日

以来打卦的时日之属相占卜

第95卷

用巴格图・米吾图・饶早图占卜

用六十花甲图作卦

以母亲的岁数及巴格上的方位占孩子的一生

择建大门日子・看日子的书

算饶星

用鲁补占婚

用神粮及宽叶杜鹃枝叶占卜

看天狗降临的书

赐名・赐裤裙・算二十八宿当值日

第96卷

算六十花甲年的月大月小

占异象卦辞

以出生之日与年占口福与凶吉

以土神吃什么占凶吉

看月中忌日・择建门日子・占喜神・算“厅拜”

择取名・母亲满月洗头及婴儿剃胎发之日子

以花甲的五行等推算孩子的凶吉

第97卷

记神的寿岁

用干肩胛骨和鲜肩胛骨作卦

看卦辞之书・时占属相占月占

看日子占卜

以第一声春雷占卜・用两个贝占卜・寻物打卦

抽线卦・用黑石白石占卜

吕卡爪尼卦辞

用六十干支等占卜・时占之书

抽绳卦

第98卷

用米吾九宫占福分・用鲁扎占卜

石土神・看天火・看属相・看血灾

看天火・看天狗・看新媳妇进门日子

以死者死亡之日的当值之宿占卜

用香炷打卦

佐拉卦图

用米吾九宫占婚

运转米吾九宫・算三百六十天的米吾九宫

用鲁补占卜

用父子的鲁扎占卜

第99卷

用六十干支占卜

用第一声春雷占卜・以日月蚀及地震占卜・占放血日・占偷盗  
时占之书

祭恒神吾神用两个海贝占卜的卦辞

以母亲生小孩之年龄及巴格上的方位占孩子一生的运数  
占卜卦辞之书

用五行、十二生肖、鲁扎占婚

以异常现象占卜之书

用米吾九宫图占卜

以乌鸦叫声占卜

第100卷

神寿岁与舞谱

舞蹈的来历（之一）

舞蹈的出处和来历（之二）

舞蹈的出处和来历（之三）

超度什罗、送什罗、开神路上卷・油米村忍柯人的书  
说出处

杂言

仪式规程及杂言

医药之书

民歌范本



## Abstract

# The Cultural-Historical Value of <Bonpuri of the Common Gods> from Jeju Mythology

Choa Hye kyung · Choi Won oh

<Bonpuri of the Common Gods>(mythological stories about the gods) are recognized as world heritage and they are chanted by a shaman during the <Jeju Great Gut>(a shamanic ritual). As the stories have the potential to be utilized as cultural contents, it is imperative to uncover and preserve th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ir cultural and mythological traits as examined through research on the Bonpuri of the common gods to extract their symbolic meaning and discover their cultural-historical values. <Bonpuri of the Common Gods> contains various stories about the gods including 'Cheonjiwang Bonpuri', a story about Cheonjiwang who established the order of the universe. There is also 'Chogong god Bonpuri', about the ancestor of a shaman who established the procedures of shamanic rituals. 'Igong god Bonpuri' is the story of an official who managed a flower garden of people's lives which governs life and death and is regarded as akin to Western heaven. Then there is 'Samseung Halmang' who oversees birth, and 'Gusamseung Halmang (Donheeyowang)' who oversees children's death, and then 'Daeyeolsang' who brings disease and makes people ugly.

There are even more stories in addition to this such as 'Gamunjang-agi' who teaches people to carve their own destiny and 'Samgong god ', a god of destiny. 'Chasa Bonpuri' is the story of Gangnim who is a messenger

who takes the dead to the Otherworld. There are further stories about gods that reside in households and look after family members including one about Nam Seonbi, Missus Yeosan, Noiljeodae, and seven son gods who appear in the 'Munjeon Bonpuri'.

Other stories in addition to this include: 'Segyeong Bonpuri' about Jacheongbi, the agricultural goddess; 'Chilseong Bonpuri', about a snake god that brings wealth to people; 'Jijang Bonpuri', the story of a Jigang goddess who delivers spirits in hell to heaven by overcoming misfortune; and 'Menggam Bonpuri' which tells the story of 'Samanee' who was sacrificed as a charm against evil influence in life.

The stories in <Bonpuri of the Common Gods> contain the universal order, the meaning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the principles of human life. They also exemplify the Korean perspective on the next world and express the lives of female characters who overcome hardship. Ultimately, all of the stories have become the foundation for a culture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humans and gods.

Transmitted only orally, Jeju's <Bonpuri of the Common Gods> is worthy of cross-cultural studies with other East Asian ethnic groups such as the Manju in northeastern China, the Nakhi in Yunnan, China, and the Ainu in Hokkaido, Japan.

Supporting policies are required in order to preserve Jeju mythology (especially Bonpuri of the Common Gods) and continue to transmit the traits of 'now · the present' within it. Academic research on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eeded as well.

Female characters within Jeju shamanic mythology are adored as goddesses thanks to their accomplishments in overcoming hardship as seen in the examples of 'Jacheongbi' who is the main character in 'Segyeong Bonpuri' and is regarded as having introduced farming culture into Jeju. Another example is 'Gamunjangagi' in 'Samgong Bonpuri.'

Although they had to endure a tough life due to their outstanding abilities or their strong self-assertiveness, they are eventually recognized as cultural heroines by overcoming hardship and their altruistic deeds.

These heroines provide the foundation for Jeju women's maternity which allows them to rebuild their lives alongside their families in times of chaos and rapid change.

There are only a few shamans who can fully chant the Bonpuri of the Common Gods which contains Jeju people's life and philosophy. It seems that there will be ever fewer chances for them to chant the storie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ace to distribute the stories by adapting them into readable narratives to be more easily transmitted and enjoyed.



## 연구진

---

연구책임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	최원오	광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문화재청 전문위원
연구보조	강경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

제주학연구 57

### 제주신화 <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 연구

---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도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http://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

ISBN : 978-89-6010-665-9 9338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